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4

- 도초면 편 -

2005. 9.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책을 내면서

이 책은 신안군의 의뢰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가 2005년 1월부터 9월에 걸쳐 수행한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학술용역-도초, 안좌, 팔금면 편-』의 최종 성과물 중 도초면 편이다.

이번 학술용역은 2003년 하반기에 수행한 학술용역(압해, 비금, 흑산면 편)에 이어 두 번째 수행되었다. 따라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작업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지표조사의 성과들을 문화콘텐츠의 원천자료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문화재’를 뛰어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하였다. 문화재는 자연의 공공재들과 함께 권역과 ‘자연-인간’의 총체적인 문화에 바탕을 두고 보존·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문화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념하였다. 특히 남도 다도해 문화의 특장점을 살린 도서·해양문화산업의 원천 소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주목하였다.

셋째, 문화자원을 ‘보존하며 동시에 활용하고’, ‘활용하며 동시에 보존하는’ 〈보존과 활용〉의 조화와 상생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는 대립 개념인 ‘보존과 개발’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해냄으로써 ‘문화론적 개발’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개발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용역의 대상이 된 도초, 안좌, 팔금면의 섬들은 전라남도과 신안군이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해역’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번 용역에 건 기대도 남달랐다. 영암과 해남을 묶어 해양레저도시를 건설하려는 J프로젝트가 정부의 기업도시 승인으로 구체화되면서, 그에 인접해 있는 ‘다이아몬드 해역’은 해양관광지로서 응비할 꿈에 한껏 부풀어 있다. 그러나 그 꿈의 실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근자에 J프로젝트 추진현황을 바라보는 심정은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전라남도의 의지와 중앙 정부의 지원 약속이 겹쳐지면서 J프로젝트가 서남해지역의 해양관광지 개발에 더 없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자연생태와 문화자원에 대한 배려 없이 지나치게 하드웨어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개발과 보존>의 조화·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청되는 때이다. 이 점에서 신안군이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신안군 도서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문화론적 지역 개발의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하려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이번의 학술용역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지표조사에 그치지 않고, 자원화의 방안을 찾으려는 적극적 의미를 잊지 않았다. 몇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지표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것은 물론, 지표조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다시 한번 총괄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입안하는 데에도 각별히 유의하려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계절스런 근대화 개발의 태풍이 서남해지역을 비껴간 것은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자연생태와 문화 그 자체가 보물인 '문화의 시대'에 자연생태와 문화자원이 온전히 보존된 것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양의 시대'에 온전한 자태를 뽐내는 남도 다도해의 자연과 문화자원은 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해양문화산업의 소진되지 않을 무한한 원천 소스임에랴!

이번 작업에 착수할 때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자연자원, 선사유적, 역사유적, 민속문화자원, 주거문화자원의 다섯 개의 분야로 나누어 지표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도초, 안좌, 팔금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풍부한 민속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반면 선사유적이거나 역사유적의 흔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결과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체계를 재정비할 수밖에 없었다. 자연자원, 유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의 세 분야로 재조정된 것이 그것이다. 선사유적과 역사유적과 주거문화자원은 하나로 합쳐 '유형문화자원'으로 포괄시킨 반면에, 민속문화자원은 '무형문화자원'으로 바꿔 어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민속신앙자원, 구비전승자원의 네 소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결국 민속문화자원의 비중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이는 지표조사 결과 자연스럽게 드러난 도초, 안좌, 팔금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랄 수 있겠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신안군의 1읍 13개면 중에서 6개면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된다. 1982년 개소한 이래 23년 동안 도서·해양문화 연구라는 외길을 걸어온 우리 도서문화연구소가 그 노하우를 살리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개념을 추가하여 일련의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게 된 것은 연구소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 연구소에 이 같은 소중한 기회를 부여한 신안군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서·해양문화가 활짝 꽃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답할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심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연구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다.

2005년 9월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장 강 봉 룡

목 차

책을 내면서 ——— 3

연구개요 ——— 11

I. 자연자원 19

1. 도초도의 자연자원 ——— 19

1) 자연자원 목록 ——— 19

2) 자연자원 현황 ——— 19

2. 우이도의 자연자원 ——— 26

1) 자연자원 목록 ——— 26

2) 자연자원 현황 ——— 26

3. 자연자원의 활용방안 ——— 28

II. 유형문화자원 40

1. 고고문화자원 ——— 40

1) 고고문화자원 목록 ——— 40

2) 고고문화자원 현황 ——— 40

2. 역사문화자원 ——— 42

1) 역사문화자원 목록 ——— 42

2) 역사문화자원 현황 ——— 43

(1) 기념비·기념탑 ——— 43

(2) 효열각 ——— 53

(3) 재각·사우 ——— 56

(4) 고문헌·기타 ——— 57

3. 주거문화자원	67
1) 주거문화자원 목록	67
2) 주거문화자원 현황	68
(1) 건립현황	68
(2) 가옥구성 특성	80
4. 유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83
1) 고고문화자원의 활용방안	83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84
3) 주거문화자원 활용방안	87

Ⅲ. 무형문화자원 89

1. 어로문화자원	89
1) 어로문화자원 목록	89
2) 어로문화자원 현황	89
2. 생활문화자원	98
1) 생활문화자원 목록	98
(1) 초분·고토릉 목록	98
(2) 세시풍속 목록	98
2) 생활문화자원 현황	99
(1) 초분·고토릉 현황	99
(2) 세시풍속 현황	104
3. 민속신앙자원	111
1) 민속신앙자원 목록	111
(1) 당제·갯제 목록	111
(2) 장승 목록	112
2) 당제·갯제 자료 현황	112
(1) 당제와 갯제	112

3) 장승 자료 현황	126
4. 구비전승자원	131
1) 구비전승자원 목록	131
(1) 설화 목록	131
(2) 민요 목록	133
2) 구비전승자원 현황	135
(1) 설화 자료 현황	135
(2) 민요 자료 현황	171
5. 무형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211
1) “장승과 도깨비와 초분이 있는 섬”	211
2) 자료은행 구축을 통한 자원화의 토대 마련	211
3) 도초 강강술래 :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214
4) 초분과 밤달애 : 섬마을 특유의 장례풍속 주목	214
5) 표류이야기, 설화자원 : 시나리오, 이야기 산업	214
6) 설화와 민요자원 시디롬 제작	215

Ⅳ. 문화관광자원 220

1. 편안한 어머니의 품 ‘도초도’	220
1) 개요	220
2) 관광자원 현황	221
3) 관광자원화 방안	227
2. 자연의 신비를 간직해 온 ‘우이도’	230
1) 개요	230
2) 관광자원 현황	231
3) 관광자원화 방안	234
4) 도초도와 우이도의 연계방안	237

3.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 대책	238
1) 연계자원화 기본방향	238
2) 상세 개발 구상	239
3) 대상 도서지역의 문제점과 개발방안	241
4) 대상 도서지역의 이름 알리기	242
5) 도서지역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	244
6)新安군 관광개발의 차별화 전략	244

연구개요

1. 연구의 목적

1) 도서 자연 및 문화자원 지표조사

점차 소멸되어 가는 신안군의 자연자원 및 유·무형 문화자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지표조사를 수행하여 자연 및 문화자원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정리하며, 이를 디지털 자료화한다.

2) 도서 자연 및 문화자원의 자원화 방안 모색

지표조사한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장·단기 전송·보존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지정 방안 및 관광 자원화 방안 등을 제안한다.

2. 연구의 기본 방향

1)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조사를 심도 있게 병행·추진하고 발굴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2) 신규 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자연 및 문화자원을 발굴한다.

3) 21세기 해양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다도해 문화관광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4) 다양하고 참신한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도서·해양문화 리소스를 발굴한다.

3. 연구 범위와 분야 구분 및 연구진 구성

1) 연구 범위

- 도초면, 안좌면, 팔금면의 세 개 면 도서·해역을 이번 연구의 대상지역으로 한다.

- 연도되어 있는 안좌면과 팔금면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안좌-팔금권역'으로 하여 '도초-우이권역'과 함께 두 개의 권역으로 구분 정리한다.

2) 분야의 구분

- 크게 자연자원 분야, 유형문화자원 분야, 무형문화자원 분야, 문화관광자원 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
- 유형문화자원 분야는 고고문화자원, 역사문화자원, 주거문화자원의 세 소분야 포괄
- 무형문화자원은 어로문화자원, 생활문화자원, 민속신앙자원, 구비전승자원의 네 소분야로 구분·정리

3) 연구진 구성과 분담 내용

○ 책임연구원 : 강봉룡(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장, 역사학)

○ 공동연구원(집필 순서)

- 김진수(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 고고학, 고고문화자원 담당)
- 김경옥(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역사학, 역사문화자원 담당)
- 김지민(목포대 건축조경토목공학부 교수, 건축학, 주거문화자원 담당)
- 나승만(목포대 어문학부 교수, 민속학, 어로문화자원과 민요 담당)
- 이경엽(목포대 어문학부 교수, 민속학, 생활문화자원·민속신앙자원·설화 담당)
- 김형서(대불대 관광해양학부 교수, 관광학, 문화관광자원 담당)

○ 보조연구원

- 이은정(도서문화연구소 조교, 역사학)
- 박영훈(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고고학)
- 최미영(목포대 역사문화학부 졸업, 역사학)
- 조세인(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4년, 역사학)
- 강정성(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건축학)
- 엄수경(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
- 송기태(목포대 대학원 박사과정, 민속학)
- 김현주(목포대 대학원 석사과정, 민속학)
- 이진일(대불대 해양관광학부 4년, 관광학)

4. 분야별 연구 방법 및 내용

1) 자연자원 분야

○ 연구 방법

- 현지조사를 원천자료의 근간으로 삼되, 문헌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문헌조사는 자연자원조사 관련 학술보고서 내용 검토 및 정리와 “계획수립 된 보고서” 중심의 기존자료 조사 및 분석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하도록 한다.
- 수집된 자료는 DB화에 활용되도록 그 기준에 맞춰 정리한다.
- 도면 및 지도자료는 관련 속성자료와 함께 모두 디지털화를 원칙으로 한다.

○ 주요 내용

- 섬의 위치적 특징 조사 : 수리적, 지리적, 관계적 특성을 지리적 요충지적 관점(바다길, 농산물 수탈로, 어로길 등)에서 조사
- 기후와 풍토성 관련 자원조사 : 기후특성을 주민영향 관점에서 조사 및 분석(체감온도, 스트레스에 주는 영향), 특이 토질(예, 황토갯벌 등)과 영향(주민생활, 생산물 경제활동 등) 조사, 바다환경 조사(적조, 냉수대 등)
- 숲과 동·식물에 관한 자원조사 : 천연기념물, 보존가치가 높은 숲과 동식물 군락지(송림, 염생식물, 해조류, 야생동물 등) 조사
- 물과 바다 관련 자원조사 : 활용 가치가 높은 약수터, 온천수, 습지 등 조사, 특이성 해수 및 해양환경 조사
- 지형과 지질 관련 자원조사 : 지질환경과 화석, 특이지형(괴암괴석 등), 명산, 갯벌, 사구, 특이 섬(무인도) 지형형성과 변화과정 중 특이점 조사
- 지역산물 조사 : 농·어업 특산물(품질의 평가, 재배조건 등), 광물(게르마늄 등)
- 경관자원 조사 : 포토존(경관자원 등), 유명 포구 등 산업자원(교량, 생산시설 등)
- 공원과 관광지 조사 : 유명 낚시터, 해수욕장, 관광농원, 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습터, 휴게소 등)

2) 유형문화자원 분야

○ 연구 방법

- 연구대상지역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여 해당 지역별 유형문화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였다. 특히 이번 학술조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는 비교란에 “신규”로 표기해 두었다.
- 연구대상목록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였다.
- 현장답사는 조사대상지역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에서 간행된 기존의 연구성과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기존에 누락된 자료를 보완하였다(면사무소 총무계장 제보).
-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소재지, 연혁, 관련인물, 관련자료, 사진촬영 및 내용을 파악하였다.
- 현지에서 확인 조사된 자료는 지도에 위치를 표기하여 <분포지도>를 작성하였다.

○ 주요 내용

- 고대 · 고려시대의 역사문화자원 : 패총, 고분, 유물산포지, 성곽, 군현 치소, 해양사관관련 유적 등
- 조선시대의 역사문화자원 : 수군진, 향교 및 부속건물, 서원, 사우, 재실, 루 · 정, 충신각, 효자각, 열녀각, 신도비, 선정비, 기념비, 효자비, 열녀비, 불망비, 고문서, 고문헌 등
- 근 · 현대사 관련 역사문화자원 : 서당, 서재, 고문서, 비석, 근대 건축, 민가 등
- 이외에 최근에 건립된 유적 · 유물이라 할지라도 해당 섬의 역사와 문화, 섬 주민들의 생활사, 섬과 바다, 연안지역의 문화성향을 전달할 수 있는 대상이면 시기와 유형에 제한 없이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 해당 섬 지역 유형문화자원을 교육용, 문화관광 자원용, 역사관 · 자료관의 전시용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3) 무형문화자원 분야

○ 연구방법

- 다음의 기존 연구성과를 분석 · 정리한다.
- 『도서문화-신안군 안좌도 조사보고』4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 “안좌도지역의 민속지”라는 이름으로 통과의례, 가정신앙, 동채신앙, 성신앙, 민간의료, 세시풍속, 산업기술이 기술되어 있다.
- 『방월리』(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1986) : 이 보고서에는 신앙민속(가정신앙, 마을신앙, 무

속·점복·금기, 세시풍속, 통과의례), 설화와 민요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신안군의 문화유적』(목포대 박물관, 1987) : 신안군의 문화유적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보고서로서 안좌도 당제가 수록되어 있다.
- 『다도해의 당제』(최덕원, 학문사, 1983) : 대상지역 몇 마을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의 양상과 비교하여 보완하고, 새롭게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 현장론적 방법에 의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연구의 경우 20여년 전의 자료이고, 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현지조사를 새롭게 해야 한다. 현지조사를 통해 민속문화의 전승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현지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한 면담조사와 연행상황의 촬영, 녹음 등을 병행하여 자원화에 맞는 자료 조사를 한다.

- 자원화 연구를 수행한다.

현지조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도록 한다. 수집된 자료를 활용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도서·해양문화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주목하여 의미 있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주요 내용

- 어로문화자원 : 전통적인 어로활동과 어구, 생태환경에 대한 인지체계, 어민들의 생애사 등
- 생활문화자원 : 우실, 노두, 세시풍속, 장례(초분, 고토릉 등), 일생의례 등
- 민속신앙자원 : 당제, 장승, 입석, 기우제, 뱃고사, 가신신앙 등
- 구비전승자원 : 설화와 민요 등

4) 관광자원 분야

○ 연구방법

- 현지답사를 통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만한 자연 및 문화자원의 소재를 발굴한다.
- 발굴 소재를 바탕으로 관광자원화 방안을 구상하여 제안한다.
- 자연자원, 유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의 지표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관광자원화 방안을 구상한다.

○ 주요 내용

- 각 도서별 슬로건 제시 : 예컨대, 편안한 어머니의 품 '도초도', 자연의 신비를 간직해온 '우이도', 베일에 쌓인 웅장한 섬 '안좌도', 노두와 우실이 아름다운 섬 '팔금도'
- 도서별로 관광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제시
- 도서별로 관광코스를 개발·제시하고, 관광자원 목록지도 및 관광자원화 지도를 작성·제시
-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대책과 상세 개발구상을 제안
- 신안군 관광개발의 차별화 전략 제시

5.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의의

○ 문화자원의 현황만을 파악하는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다른 “자원화를 위한 지표조사”

- 지표조사의 성과들은 그대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천자료
- 섬의 문화자원에 대하여 콘텐츠 위주의 발전전략을 세우고, 문화재를 뛰어넘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문화에 주목
- 섬에 잠재되어 있는 문화의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를 문화자원화 함으로써 문화 및 관광산업에 창조적 원료를 제공
-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자원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문화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존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에 토대를 둔 문화론적 지역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함

○ 지표조사의 집중화·체계화·디지털화

- 기존 조사와 연구에서 누락되거나 미처 파악되지 못한 자연 및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지표조사의 본래적 의미에 충실
- 자원의 현장성과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자원화 기본구상을 작성함으로써 지표조사의 의미가 새롭게 탄생하도록 시도
-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제적 응용 및 디지털 자료화 구축

2) 기대효과

- 신안군내 문화유산의 효과적인 계승·보존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발전 전략 수립에 기여
- 문화관광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문화콘텐츠라는 문화산업의 원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안군의 문화역량 강화의 실질적 계기 마련
-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개념을 조화시킴으로서 <보존과 활용>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상보개념으로 재정립시킴으로써 문화론적 지역개발의 새로운 전기 마련
- 21세기 신해양의 시대에 새롭게 펼쳐질 해양문화관광의 신세계를 맞을 토대 마련

I. 자연자원

1. 도초도의 자연자원

1) 자연자원 목록

구 분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 모 및 사 양
1.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대당교역기착지	도초도 열목	125° 09' E, N34° 07'
	모양과 형태	고슴도치	도초도 일원	면적42km ² ,해안선42km
2. 지형과 지질	명산과 들	용당산	고란리 뒷산	만년사, 전설이 서려 있음
		고란들	도초도 중앙의 평양	간척으로 조성 됨
	기암괴석	솔뚜껍바위	도초도 서해안	
		지네무늬용굴	도초도 서해안	일종의 귀화목 화석임
		문바위	도초도 서해안	
		목섬구멍	도초도 서해안	
		목섬절벽	도초도 서해안	
		종달바위	도초도 서해안	
농간바위	도초도 서해안			
유명섬	동물3층사	우이도 가는 해로	석황도, 흑도, 소흑도	
	경치도	우이도 가는 해로	최근 무인도화	
	하도	우이도 가는 해로	우이도 인근에 위치	
3. 지역산물	특산물	시금치(섬초)	도초도 전역	
4. 인문경관	방조제	원뚝		근대문화유산 가치 지님
	다리과 길	서남문대교	도초-비금 연도교	
5. 공원과 관광지	해수욕장	시목해수욕장	도초 서남부 시목리	길이 4.0km, 폭150m

2) 자연자원 현황

(1) 대당교역(對唐交易) 기착지

도초도는 예로부터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교역할 때 흑산도와 더불어 중국의 장쑤성(江蘇省)을 잇는 중간 기항지였다.

위치적으로 우리나라 서남단에 있으며 목포 54.5km의 지점에 있다 동경 125° 09', 북위 34° 07' 지점에 위치해 있다. 동으로는 바다 건너 안좌면 서로는 바다 건너 흑산면 남쪽으로는 바다 건너 하의면 그리고 북쪽은 바다 건너 비금면과 이웃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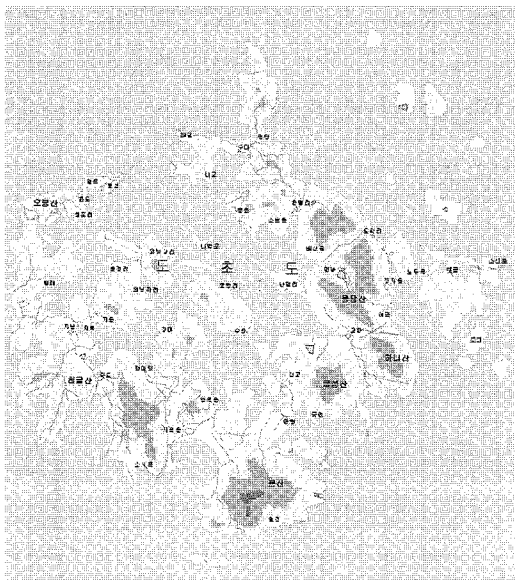
삼국시대에는 압해, 팔금 등과함께 백제에 배속되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압해군에 속하였다. 고려시대 역시 압해군에 속하였다가 조선시대 초기와 중기까지는 영광군(靈光郡)에 편입되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는 나주목(羅州牧)에 편입되었다.

(2) 고슴도치 모양의 땅덩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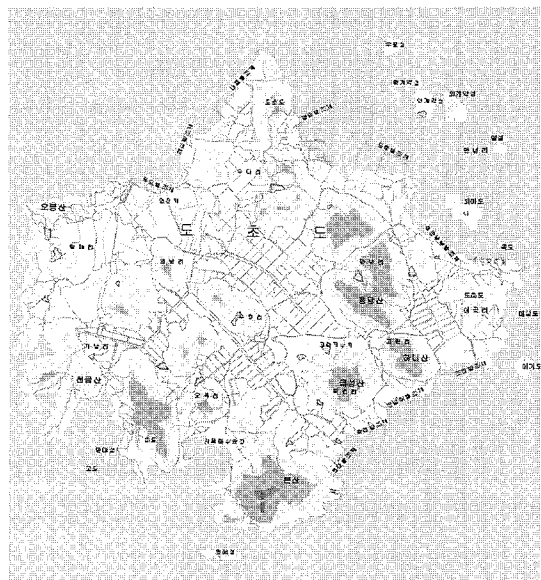
지형이 고슴도치처럼 생겼다 하여 도초도라 하였다고도 하고, 초목이 무성하여 도초(都草)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도 한다. 도초도는 섬의 면적이 약 42.349km²에 달하며, 해안선 길이는 약 42 km에 이른다. 여느 섬과 달리 이곳의 섬 주민들은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쌀·보리·고구마 등을 생산한다.

1914년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무안군에 편입되어 10개리를 개편 관할하다가 1962년 법령 제 1176호에 따라 흑산면의 우이도를 편입하여 11개리가 되고 같은 해 6월 1일 군조례 제 35호에 의하여 우이도 출장소를 두었으며 1969년 법령 제 2059호에 의하여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구분 도서	간척 전(원지형)		간척 후(현지형)	
	해안선(km)	면적(km ²)	해안선(km)	면적(km ²)
도초도	104.28	18.62	61.24	44.68



간척 전(원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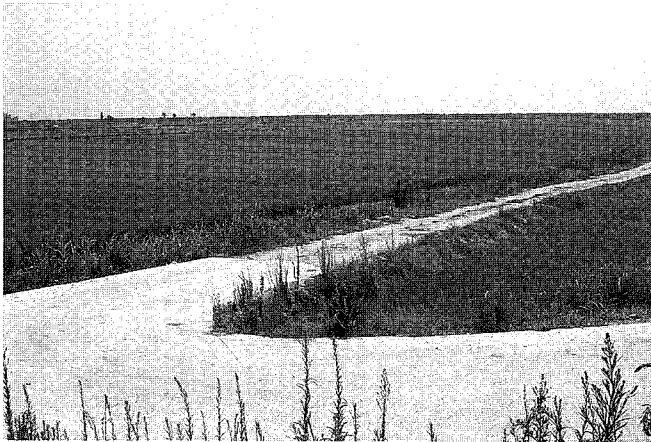


간척 후(현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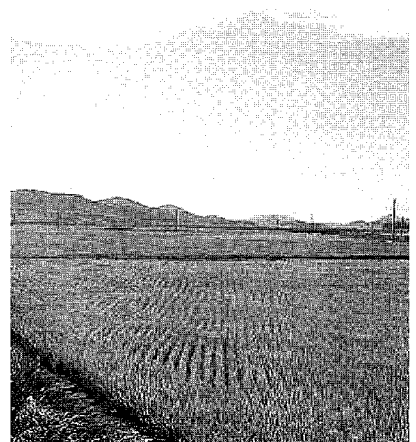
(3) 신안 최대의 평야 “고란들”

원래의 도초도는 중앙의 큰 만을 사이에 두고 동서에 긴 산맥을 중심으로 길다란 두 축의 섬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래부터 간척에 매우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만의 깊숙한 곳부터 부분적으로 활발한 간척사업을 해 온 섬이다. 간척결과는 면적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고(약 2.4배 증가), 중앙 저지대에 현재와 같은 ‘고란들’(수다리~고란리)과 같은 넓은 평야가 생겨나게 했다. ‘고란들’(수다리에서 고란리까지 이어지는 신안군에서 가장 넓은 들판)은 신안군에서도 가장 넓은 들판이다. 이곳에서 있으면 마치 육지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광활하다. 때문에 신안군의 여느 섬들과 달리 도초도는 쌀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

소작쟁이의 항일투쟁장 : 이 들판에서 연유하여 옛부터 천석꾼이 나온다는 전설도 있다. 곡창지대 형성과 함께 일제시대에는 소작쟁이의 항일 투쟁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게 했다. 섬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이 평야는 도초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며 일제시대 때는 하의도, 암태도 사람들과 소작쟁이의 항일 투쟁에 앞장선 역사적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고란들(원뚝)



고란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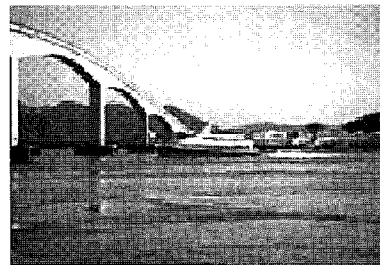
(4)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원뚝”

섬이라는 느낌을 들 수 없게 만들만큼 넓은 고란평야를 일궈내고, 생 사람을 재물로 바치고서야 겨우 독을 쌓았다는 전설이 이어져 올만큼 힘든 역사가 숨쉬고 있는 오래된 제방(방조제)인 “원뚝”이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300여 년전 당시의 토목기술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유서깊은 문화

유산이다. 상세한 설계조사를 거쳐 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이 요구되는 곳이다. 이곳에 전해져 오고 있는 “넓은통금매도깨비” 전설은 당시로서는 최대의 토목사업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전설에 따르면, 수다리 나포마을에는 옛날 내원을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원뿔을 쌓기 시작하여 몇 차례나 쌓았는데도 번번히 무너졌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실의에 빠져 있는데, 어느날 한 중이 이 마을을 지나면서 이러한 내력을 듣고 한가지 묘책을 알려 주었다. 즉 그속에 사람을 같이 매장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하였다. 마침 건너편에서 남자중과 여자중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이니까 뜰에 같이 매장하기로 결의한 후 그들을 이곳에 묻었다 한다. 그 후부터는 뚝이 무너지지않고 밤이면 도깨비가 나왔는데 여승 도깨비가 말하기를 “저쪽으로 돌아가자니까”하면 남자중 도깨비가 “금매(글쎄)”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다. 그후 사람들은 이곳을 “넓은 통 금매도깨비”가 나온 곳이라 부른다고 전한다.

(5) 서남문대교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54.5km(동경 125°09", 북위 34°07") 지점에 위치한 도초도는 동으로는 안좌면, 서로는 바다 건너 흑산면, 남쪽으로는 하의면, 그리고 북쪽은 지난 96년에 완공된 '서남문대교'로 비금면과 연도되어 있다.



서남문대교

(6) 해상국립공원의 기암괴석

목포항을 출발하여 시간반 남짓 가면 외해(外海)가 시작되는 도초도에 기착한다. 도초도 서쪽 해안을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펼쳐져 있고 우이도 가는 길목이다.

이 해역은 시발점부터 바닷물이 맑을 뿐 만 아니라 주변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해안을 따라 늘어선 해안절벽에는 여러 가지 형상을 그려 놓은 기암괴석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것으로 솔뚜껍바위, 지네무늬용굴, 문바위, 목섬구멍, 목섬절벽, 종달바위, 농간바위 등이 그것이다. 이들을 하나 하나 설명하면 재미있다.

솔뚜껍바위 : 오봉산 서쪽 해안에 폭이 40m 이상 뒹직한 널따란 원형모양 바위가 물 속에서 둥그런 모습으로 10m쯤 부풀어 올라 있고 중간에 순잡이 모양이 돌출되어 있어 이 고장 사람들은 예부터 솔맹이 혹은 솔뚜껍 바위라고 한다. 그 형상이 기이할 뿐 만 아니라 거무스름한 색깔이 푸른 바다와 조화되어 아름답다.

지네무늬용굴 : 발매리 남쪽 해안절벽에는 길이가 15m정도 되는 움푹 들어간 동굴이 있는데, 거대한 지네가 화석이 된 것 같은 무늬가 검은 색으로 그려져 있어 매우 이채롭다. 마치 커다란 지네 화석을 보는 듯 하는 느낌을 준다.

종달새바위(일명 문바위) : 발매리 남쪽 남쪽을 향해 돌출되어 있는 끝자락에 종달새바위가 있다. 마치 남쪽을 향해 무엇가를 쫓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주변의 수직암벽과 더불어 도초 제1경으로 꼽히는 경치를 자랑하고 있다. 예부터 도초에서 가장 풍광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목섬구멍 : 지남리 천금산 서쪽 해안에서 남쪽으로 쪽 내민 해안(작은목섬) 끝에는 수직암벽 발과 함께 매우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곳의 목섬구멍은 등그런 모양으로 굴이 틀어져 있어 기이하고 신비감을 준다. 굴이 길지는 않지만 보는 거리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면 고싸움 놀이에 쓰이는 고 형태로 보이고, 멀리서 보면 그물 망을 내려 놓은 형태로 보인다. 또한, 주위의 암벽(목섬절벽)과 더불어 볼 거리를 제공해 준다.

종달바위 : 도초면 지남리 맨끝 바닷가에 위치한 대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죽도(竹島) 또는 대선목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을에 종달바위란 유명한 바위가 있다. 바닷물 가운데 있는 여러개의 바위가 끊어진 곳이 없이 연달아 이어졌다 하여 종달(從達)바위라 한다. 이 바위는 죽도마을 맨끝 바닷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데 물이 들 때는 보이지 않고 썰물에 볼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등대가 설치되어 있다.



솔뽕곶바위

농간바위 : 시목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작은 섬이다. 섬 전체가 온통 바위로 되어 있어 기암괴석이 발달해 있고 풍광이 매우 아름답다.

(7) 아담하고 아늑한 “시목해수욕장”

남서쪽 엄목리에는 자연적 여건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지인 시목해수욕장이 있다. 이 해수욕장은 3면이 산과 바다로 마치 병풍을 쳐놓은 듯한 포근한 지형에 2.5km의 백사장이 깔려 있고 물이 수정처럼 맑아 여름철이면 해수욕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모래사장이 반원형으로 둥글게 펼쳐져 있는 시목해수욕장은 주변에 감나무가 많다고 해서 시목(柿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타원형의 길고 넓은 백사장에는 군데군데 모래성이 쌓아진 것이 특징

이며, 이 곳에 서보면 산과 바다 풍경이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은 환상에 젖기도 한다. 나지막한 산 자락을 치마처럼 두른 시목해수욕장은 모래밭이 원에 가깝도록 둥글게 펼쳐져 있고 그 기울기가 느슨해서 무척 아담하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뒷편에는 해송이 뿔뿔히 들어서 있고 주변 산의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인지 스키치여행을 하는 화가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해수욕장 주변에는 바다낚시터가 형성되어 낚시하기에도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시목해수욕장은 1999년에 완공한 고급 샤워실과 깔끔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 쾌적한 피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백사장 전역에 수려한 나무숲이 있어 그곳에서 야영하는 맛도 색 다르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또한 꽤 아름다운 해안 절벽지대가 있다. 홍도의 해변이 규암 때문에 붉은 데 비해 이곳은 거무스름하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기암괴석이 서쪽 해안을 따라 늘어서 있어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8) 우이도 가는 길의 무인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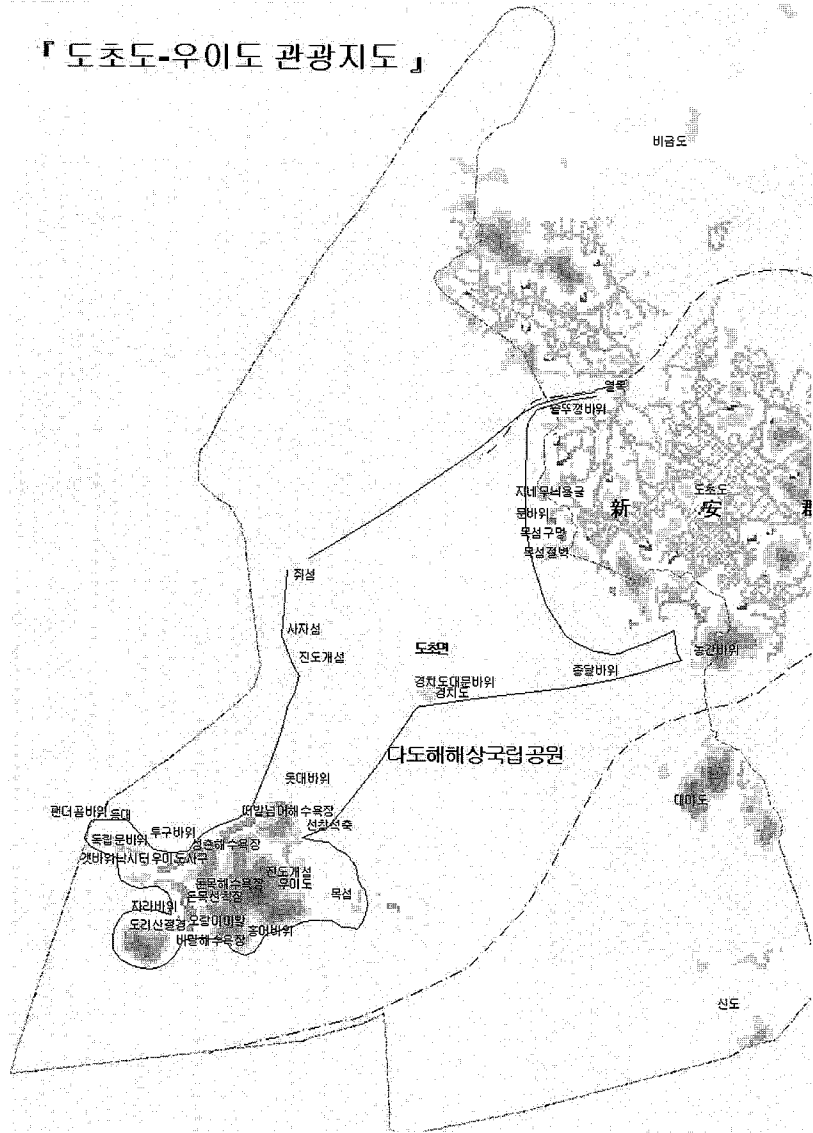
도초도 하안을 벗어나 우이도로 가는 해로에는 망망대해에 무인도들이 군데군데 떠 있다. 그런데 무인도들은 하나 같이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어 여행객에게 즐거움을 준다.

동물3총사섬 : 도초해안을 막 벗어나면 오른쪽으로 3개의 무인도가 시야에 들어오는데 앞쪽부터 석황도, 흑도, 소흑도가 그것이다. 석황도는 쥐, 흑도는 하마, 소흑도는 진도개 형상을 꼭 닮았다. 아무리 봐도 영락없이 닮았다. 동물 3총사들이 바다를 열심히 헤엄쳐 도초도로 건너오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재미있다. 역시 날렵한 쥐가 제일 앞서고 하마는 둔하지만 열심히 뒷따른다. 하지만 진도개는 남쪽 경치도쪽에 먹을 것이 있는지 방향을 틀고 있어 가장 뒷처져 헤엄치고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경치도대문바위 : 오른쪽의 동물3총사 섬를 보다고 왼쪽 해안으로 고개를 돌리면 험악한 악산과 암벽으로 된 커다란 무인도가 문득 시야에 들어온다. 해안 전체가 절벽으로 된 경관이 뛰어난 경치도(京雉島)이다. 경치도 해안절벽의 압권은 서쪽 끝자락 부근이다. 끈어질 듯 이어지면서 서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돌출부는 오랜 해식작용으로 수없이 깎여 수직암벽과 여러 모양의 기암괴석을 만들어 놓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문바위가 압권이며 신비감을 준다.

하도의 사백년노송 : 점점이 떠 있는 무인도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덧 우이도가 가까워지고 진리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하도(賀島)가 보이고 배가 모퉁이를 돌다보면 깎아지른 듯한 암벽위에

「도초도-우이도 관광지도」



홀연히 한 그루의 소나무가 청청하게 서 있다. 일부러 심어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을 듯하게 낭떨어지 암반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0년 수령을 자랑하는 소나무 한 그루가 낭떨어지를 기어가듯 가지를 뻗치고 자라고 누어 있다. 천연의 분재 해송인 것이다. 기묘한 자태가 여행객들의 눈길을 잠시 잡는다.

2. 우이도의 자연자원

1) 자연자원 목록

구 분	자 원 명	주 소(위치)	규모 및 사양
1. 섬의 모습	위치와 지리	규모와 형태	우이도 일원
2. 기후와 풍토	해수환경	해수환경	우이도
3. 숲과 동·식물	숲과 나무	천리항	우이도 상산봉 일원
		동백나무군락지	우이도 상산봉 일원
4. 지형과 지질	명산과 들	상산봉	우이도 상산봉 일원
		굴봉	진리 뒷산
	기암괴석	돛대바위	우이도 해안 일원
		투구바위	우이도 해안 일원
		팬더곰바위	우이도 해안 일원
		독립문바위	우이도 해안 일원
		도리산암벽	우이도 해안 일원
		자라바위	우이도 해안 일원
		호랑이이빨바위	우이도 해안 일원
	사구	풍성사구	돈목리 앞
	광물자원	게르마늄도질	우이도 일원
	유명섬	하도	도초도 동쪽 해안
		목도	도초도 남쪽 해안
5. 지역산물	특산물	흑염소	우이도 일원
6. 인문경관	포구경관	진리선착장	진리
		돈목선착장	도목리
	방조제	진리항 석축	진리
	등대	우이도등대	돈목리 서쪽 끝
7. 공원과 관광지	낚시터	돈목갯바위	돈목리 해안
	해수욕장	돈목해수욕장	돈목리
		띠발넘어해수욕장	진리
		성촌해수욕장	돈목리 성촌마을
		비밀해수욕장	도목리

2) 자연자원 현황

(1) 소귀를 닮은 섬 “우이”

섬 모양이 소 귀를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은 우이도(牛耳島).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 속해 있는 우

이도는 목포에서 서남쪽 51Km지점에 위치해 명섬, 솔섬, 꽃섬, 대섬, 어낙도 등 27개 군도를 거느리고 있는 어미 섬이다. 면적 10.70km², 해안선 21km이다.

섬 중앙의 산(359m)이 최고봉이며, 그밖의 200m 내외의 산들이 섬 곳곳에 솟아 있어 평지는 거의 없다. 해안은 서쪽에 2개의 긴 돌출부와 그 사이에 깊은 만이 있고, 곳곳에 소규모의 만이 발달해 있다. 북서쪽 해안은 사빈해안과 암석해안이 번갈아 나타나며, 해안 곳곳에 해식애가 발달해 있다. 특히 서쪽 돌출부에는 해식애가 병풍처럼 둘러 있어서 일대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섬 전체가 산악지대로서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대소의 섬들로 이루어진 이곳은 본래 진도군 흑산면 나주목에 딸린 섬으로서 모양이 소귀처럼 생겼으므로 소구섬, 소구 또는 우개도라 하였다. 1896년 진도군 흑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리, 성촌, 비두리, 저두리, 소우이도를 합하여 우이도리라 해서 무안군에 편입되었다. 1962년 도초면에 편입되고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는데 1971년 도초면의 우이도출장소가 되었다.

(2) 보양기후

우이도 해양기후 현상을 분석해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이도는 여름에는 비교적 서늘하며 겨울에는 온화하여 쾌청한 날씨가 유지되는 날이 많고(최난월 26.5℃이고 최한월 2.3℃임), 해수온도 역시 겨울철 난류(쿠로시오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평균 수온이 12℃로 유지되고 있어 인간에 적합한 기후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갖는 지수가 83임에 비해 우이도는 78정도이고, 체감온도를 나타내 주는 윈드칠지수(windchill index)가 내륙지역에 비해 10 정도 높다. 또한 쾌청지수가 내륙보다 5정도 높다. 즉, 자연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가 아주 낮음을 보여주고 있어, 육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이 곳에 오면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할 수 있다.

특히 해수는 마음과 몸의 치유효과가 있다. 바다는 생물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다. 해수에는 미네랄이 가장 다양하고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사람 몸의 구성성분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다. 수분과 염분의 비율이 같은 것이 그것이며, 인간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미네랄이 그것이다. 따라서 해수가 갖는 건강보양의 효과는 크다. 해수욕하면 샤워효과, 갯바람을 쏘이면 에어로졸 효과, 섬 경관을 바라보면 리럭스효과, 해수를 만지면 스트레스해소 효과, 해조를 몸에 붙이면 해저토백효과, 해염공기를 마시면 미네랄 흡수효과 등이 그것이다. 우이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연 자원을 마음과 몸의 치유에 도입하는 개념으로 하는 관광전략이 요구된다.

(3) 신비의 광물 “게르마늄 토질”

최근 게르마늄은 인체의 산소공급 및 두뇌활동 촉진 등의 효과는 물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면역증진에 따른 성인병 예방, 암치료 등에 타월한 효과가 있는 신비의 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게르마늄에는 동식물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 및 신진대사 촉진을 원활하게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사용할 경우 뿌리 활착력이 3배 이상 높고 줄기나 이파리도 강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뿌리 활착이 좋아짐에 따라 토양 중에 있는 양분을 고루 흡수해 질이 좋고 신선도가 오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증수효과를 가져오며, 또한 토양 속에 잔존해 있는 독성과 중금속 등을 해독시켜 무공해 농산물로 건강증진에도 이점을 준다. 가축에게 이를 섭취시킬 경우는 불포화 지방이 분해되고 분뇨에서도 탄산이나 암모니아 가스 발생이 적어져 폐사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게르마늄 농·축산물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게르마늄 농법은 게르마늄을 유기화하여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농법이다.

게르마늄(Germanium)이란?

1871년 D.I.멘델레예프가 에카 규소(珪素)로서 그 존재를 예언하였으며, 1886년에 독일의 화학자 C.빙클러, A.브라이하우프트가 아지로드ایت(argyrodite) 속에서 발견하여, 독일의 라틴명인 Germania를 따서 게르마늄이라 명명하였다. 아지로드ایت·게르마나이트 등의 광석이 있으나 극히 드물다.

지각 속에는 넓고 얇게 분포되어 섬아연석(閃亞鉛石)·황화동석 속에 약간 함유되어 있다. 또 암석 속에서 규산염의 규소와 치환하여 미량(微量)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클라크수는 0.00065로 제43위이다. 석탄 속에도 농축되어 있으며, 식물에 흡수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신비의 약리작용을 하는 게르마늄은 원자번호 32, 원자량 72.59이며, 금속이 아닌 아금속에 속하는 반도체 물질로서 1886년경 독일의 윙글러(Winkler)박사가 자신의 조국의 이름을 따서 게르마늄(Germanium)이라 명명하였다.

이 게르마늄은 유기성 게르마늄과 무기성 게르마늄이 있는데,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유기 게르마늄이다. 이 “유기게르마늄” $[Ge-CH_2CH_2COOH]_2O_n$ 의 화학 구조식을 가진 화합물인 수용성물질로서 생체 안에 쉽게 흡수되며 활성화 작용이 매우 강하므로 세포 하나 하나까지 충분한 산소를 증진시켜 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 “유기게르마늄”은 식물과 석탄 속에 함유되어 있다.

서남해역에서 이들 게르마늄을 다량 함유한 토양에서 생산된 대표적인 것으로 비금도의 시금치 “비금섬초”와 증도의 “갯벌화장품”, 그리고 우이도 “흑염소”를 들 수 있다. 특히 우이도 흑염소는 게르마늄이 듬뿍 함유된 우이도 토질에서 자란 야생약초를 먹고 자란 것이어서 약효가 널리 알려져 있다.

(4) 꽃향기가 천리를 미치는 “천리향”

돈목리 선창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관광객을 반기는 것은 우이도 최고봉인 상상봉, 군락을 이루고 있는 후박나무에서 풍기는 향과 천리향 나무 내음이다. 상산봉(359m) 자락에는 동백나무와 후박나무가 곳곳에 군락을 이룬다. 그윽한 꽃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천리향’으로도 불리는 후박나무의 껍질은 귀중한 약재로도 쓰인다

우이도는 관광객들에게 사철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봄에는 붉은 동백꽃이 만발하고 후박나무 천리향이 진동하는 꽃섬이 된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변해 즐거움을 선사해 준다.

(5) 기암괴석의 무인도 “목섬”

원래는 본도에 붙어 있었는데 해수 침식으로 떨어져 섬이 된 것이다. 그래서 떠난 섬이라고도 하고 목(목아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목섬이라고도 불리운다. 해식작용으로 동굴과 함께 기암괴석을 만들어 내고 있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섬이다.

(6) 약초와 흑염소

천혜의 방목조건 : 우이도 흑염소는 마치 몽골 초원에서 행해지는 것과 같이 완전한 방목 형태로 자연 속에서 키워지고 있다. 새끼를 낳고 키울 움막도 짓어주지 않는다. 지천에 널려 있는 갖가지 자연풀과 약초만 먹고 스스로 자란다. 몬순기후 지역의 역센 풀잎을 먹고, 찬 겨울을 이기며 자란다. 겨울에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껍질이 딱딱한 1m 이내의 나무까지도 먹어치운다.

우이도가 방목의 최적지인 또 다른 이유는 섬 전체가 바위로 생겨 염소가 좋아하는 벼랑과 비탈진 곳이 많으며, 난류에 접하는 해역에 위치한 관계로 온화한 날씨로 사철 먹이 공급이 가능한 상록수나 초본식물이 많은 점이다.

염소습성의 이용 : 이곳 흑염소 방목은 염소들의 습성을 잘 이용하고 있다. 염소는 수컷 중심의 집단생활을 한다. 즉, 숫컷을 따라 이동하면서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우이도

사람들은 수컷만을 묶어 놓고 암컷과 새끼들을 고삐없이 자유롭게 방목시킨다. 암놈들은 여지간 해서 수컷 주위를 벗어나지 않는 습성을 이용한 것이다. 만약 수컷이 태어나면 1년 이내에 없애버리기 때문에 한 마리의 수컷을 따라 일가를 이루면서 방목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오랜 경험에서 배어난 지식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가끔은 사고(잃어버림)가 나기도 한다. 암컷들의 발정기가 되는 시기는 암컷들이 산정에 올라가 사타구니를 쳐들고 계곡을 향해 암내를 풍기며, 가끔 어떤 수놈은 가족을 저버리고 수 십리를 단숨에 뛰어가버리게 되고 남은 암컷들은 홀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한다. 또한 암컷이 새끼를 낳을 좋은 자리를 찾아 헤메다가 길을 잃고 무리를 떠나 버린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면 주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염소 약초요리 : 이러한 억센 비바람을 맞고 자연 속에서 약초를 먹고 자란 우이도 흑염소는 육지인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다. 보통 한 마리를 요리하면 15명 내외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또한 냉동 처리되어 서울까지도 하루만에 배달되고 있다. 약초 성분이 들어 있어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노린내가 적게 나며 육질이 연한 것이 특징이다.

(7) 해안의 기암괴석

우이도는 사구뿐 아니라 곳곳에 회한한 경관을 가졌다. 어선을 빌어타고 한바퀴 돌아보면 기경의 연속이다. 특히 도리산 서쪽의 해안 절벽이 압권이다. 쳐다보노라면 어지럼증이 느껴질 정도로 가파르고 높게 검은 암벽이 섰고, 오랜 해식(海蝕)작용에 온갖 기이한 형상으로 조각이 이루어졌다. 공룡의 등줄기 형상을 닮았는가 하면 구멍이 승승 뚫린 곳도 있다. 그런 절벽 여기저기에는 연초록 팽나무 숲이 장식으로 엮혔다. 조류는 흡사 홍수때의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며 작은 암초에 물거품을 일으키고도 있다. 중심지인 진리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대표적인 기암괴석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돛대바위 : 우측에서 보면 꼭 돛단배의 돛같은 형상을 가진 바위이다. 10여m 높이의 검은 천을 두른 영락없는 돛 모양이다. 그러나 정면에서 보면 다르다. 영락없는 돛 모양의 천은 사라지고 솟대만 남아 남자 성기 모양이 된다. 쫓대바위가 되는 것이다. 더불어 움푹 패인 안쪽과 결부시켜 보면 여자의 자궁 모양과 꼭 닮았다. 이렇듯 해안 경관이 재미있는 이유는 보는 각도와 생각 차이에서 여러 형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수 십미터의 해안암벽과 더불어 상상에 따라 변화는 돛대바위를 지나면 맑고 고운 띠밭넘어 해수욕장이 시야에 들어 온다.

투구바위 : 보면 볼 수록 마치 벗어 놓은 투구 형상이다. 특히 정면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둥그런 머리와 내민 치양, 그리고 투구 끈까지도 닮았다. 작지만 주위의 검은 암반과 더불어 인상적인 느낌을 주는 바위이다. 왼쪽에 있는 팬더곰바위와 함께 이곳 해역은 마치 동물농장에 온 것 같이 아기자기 하다.

팬더곰바위 : 약 300m에 걸쳐 일렬로 놓여 있는 곳곳에 구멍뚫린 암벽이 이채로운 경관을 보이는 곳에 마치 팬더곰 모양을 한 바위가 시야에 들어 온다.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해염처럼 건너고 싶는데 너무 넓어 못 건너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눈가에 서려 있어 애처러움을 주는 모습이 측은해 보인다. 팬더곰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산정을 쳐다보면 하얀 등대가 보인다.

독립문바위 : 등대 밑 해안가에는 물살이 매우 빨라 활발한 침식으로 인한 50여m의 수직 절벽이 발달해 있고 곳곳에 여러 모양의 기암절벽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것이 꼭 독립문 같이 생긴 구멍바위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이를 독립문바위라고 부르곤 한다.

도리산암벽 : 높이 250m에 이르는 둥그런 산이 마치 하나의 섬처럼 물 속에 잠겨 있어 경치가 아름다워 어디를 봐도 예사롭지 않은 산임을 알 수 있다. 해안가로는 50여m에 이르는 해안암벽이 발달해 있고 칠부능선 위쪽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후박나무와 동백나무 군락을 잘 형성시키고 있어 선상에서 바라보이는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옛날에는 미사일기지가 설치되고 해군이 주둔해 있었으나 지금은 남아 있는 흔적 사이로 흑염소들이 한가로이 돌아다니고 있다.

자라바위 : 도리산 밑을 감도는 해안 수직암벽을 따라 시선을 돌리다보면 서쪽 내민 끝에 꼭 자라 같이 생긴 바위가 눈에 들어 온다. 바다에서 산에 오르기 위해 기어 올라온 형상을 띠고 있다. 석양에 검은 색깔과 푸른바다가 대비되어 해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 모습이 특이하다.

오랑이이빨바위 : 마치 호랑이 이빨처럼 뽀족뽀족한 바위들이 둥그런 타원형으로 솟아 있다. 앞니가 유별나게 사납게 생겼으며 송곳이도 있고 어금니도 있다. 멀리서 보면 약 200m길이에 둥글게 발달되어 있는 입과 그 위쪽의 호랑이 형상의 머리(대가리) 모습과 대비를 이뤄 영락없는 호랑이 이빨처럼 보인다.

홍어바위 : 삼각형으로 깎여진 흰 평면이 수직절벽을 이루고 있는 모양이 선상에서 보면 마치 홍어처럼 보인다. 색깔이 그렇고 모양이 그러하다.

상산봉 : 한여름 피약별 아래만 아니라면 우이도 중앙의 상산봉(358.6m봉) 구경도 반드시 마저 하라고 권하고 싶다. 성곽같은 긴 암릉길에 이어 '다도해 풍광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기막힌 정상 조망이 기다린다.

특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상산봉(359m) 정상에 오르면 '고운 최치원 선생'이 바둑을 즐겼다는 바둑판 흔적을 돌아 보면서 우이도의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

샤워장 바로 옆 계곡으로 50m쯤 들어가서 왼쪽의 협곡으로 올라간다. 널찍한 길을 500m 걸어 작은 고갯마루에 올라선 다음 목장 문을 열고 내려가면 대초리 마을이다. 집은 여러 채 남아 있지만 거의 모두 빈집이다. 이 마을 아래로 내려가 계곡을 건너 다음 목장 문을 지나 곧장 계곡 길을 따라 오르면 큰재란 이름의 고갯마루다. 여기서 남쪽으로 내륙에서도 보기 드문 맑은 암릉길이 치달아 오른다. 헬리포트, 무덤에 이어 가시덩굴에 주의하며 100m쯤 숲지대를 지나면 시원하고도 조망 좋은 암릉이 정상까지 이어진다. 하산은 온 길을 그대로 되짚는 것이 최상이다. 돈목마을까지 되돌아 오는 데에 4시간 잡으면 충분하다.

(8) 선착장 경관

진리선착장 : 우이도의 관문항이다. 조선시대에는 수영(水營)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선착장에는 400여년 된 아주 오래된 향만석축을 볼 수 있다. 과거 토목기술 및 향만석축 축조 기술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어서 현재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선조들의 놀라운 수중 토목기술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다.

돈목선착장 : 우이도를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입도하는 선착장이다. 원래 기암절벽에 배를 대고 기어서 올라갔는데, 최근에 암반에 방파제를 만들어 선착장을 조성했다. 주변 경치가 뛰어나다. 가장 먼저 관광객을 반기는 것은 우이도 최고봉인 상산봉, 군락을 이루고 있는 후박나무에서 풍기는 향과 천리향 나무 내음, 그리고 큰대치미 해변을 끊임없이 공략하는 파도와 물보라처럼 뿌연 모래바람이 사구를 뒤덮는 광경이다.

농사라고는 거의없는 우이도 사람들의 생계수단은 자연산 미역채취와 염소방목, 어업이다. 갯바위에서 자라는김과 미역은 무공해 자연식품으로 그 품질이 뛰어나며 여러 가지 약초를 먹고 자라는 흑염소가 이 섬의 특산물이다.

(9) 근대문화유산 가치를 지닌 “진리 선창석축”

우이도의 관문인 진리선착장은 조선시대에는 수영(水營)이 있었던 곳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선착장에는 400여년 된 아주 오래된 향만석축을 볼 수 있다. 과거 토목기술 및 향만석축 축조 기술 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어서 현재 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선조들의 놀라운

수중 토목기술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다.

(10) 우이도 등대

우이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우이도등대는 흑산도가 보이고 아득한 서해를 지나 멀리 중국 까지도 보일만한 가파른 경사의 산위에 외로이 서 있어서 경관이 매우 좋다. 또한 암벽에 서 있는 여느 등대와는 달리 동백 등 사철나무가 우거진 비탈진 산에 서 있는 점이 특징이다. 광활한 서해를 지나가는 배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중요한 등대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 때는 인근 도리산의 미사일기지와 더불어 중요한 방어기지 역할을 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도 한다.

(11) 한국 최대의 풍성사구

자극적인 풍경 : 우리나라 최대의 거대한 모래언덕을 이루고 있다. 멀리서 보면 이 모래언덕은 수목이 쓸려내려가서 벌건 흩이 드러난 산사태 지역 같다. 그러나 사구의 밑까지 다가가보면 멀리서와는 전혀 달리, 거대한 모래의 벽으로 일어난다. 사구 꼭대기에 오르면 희디흰 모래 둔덕 저편으로 질푸른 바닷물, 초록 숲이 펼쳐지며, 그 풍경은 사뭇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거대한 모래언덕은 난생 처음 본 도시 사람들은 누구든 흥분하여 신발을 벗어던지고는 맨발로 모래 벽을 기어오르기 마련이다.

이곳 사구는 이제 몇몇 언론을 통해 서서히 세상에 알려지게 됐지만 우이도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놀이터, 지금도 돈목 노인들은 이따금씩 그 어린 시절을 상기하며 모래언덕을 오르고 있다. 이 모래언덕을 주민들은 산태라고 부른다.

길게 사구의 벽에 발자국을 남기며 사구 꼭대기에 올라서서 뒤로 돌아본 순간 누구든 숨이 턱 막혀온다. 이렇게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광은 이 땅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이다. 흰빛 일변도로 뻗은 100m의 모래벽 저 아래로 흡사 거대한 원형 경기장처럼 백사장이 펼쳐졌고, 희게 포말지며 파도가 해변으로 몰려오고 있다. 그 뒤 붕긋하게 솟아오른 진초록의 산봉까지가 한꺼번에 벽차게 와 안긴다. 사구 여기저기에는 조석으로 바람이 도서며 온갖 기이한 무늬와 형상을 아로새겨놓았다. 그래서 인지 사진작가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년 많은 사진작가들이 이곳으로 몰려 든다.

생성의 비밀 :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이 사구의 북쪽 지형은 타원형으로 우묵한데 이곳은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밀려와 쌓이고 썰물 때 드러난 이 퇴적물은 또 북서풍에 의해 위로 치밀려 올려진 결

과다"며 "이러한 과정이 수천년에 걸쳐 반복됐을 것이다. 이 오묘한 자연의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구는 조류와 바람이 존재하는 한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커지고 있다. 결국 이 사구는 조류와 바람의 합작품이다. 사구의 북쪽 지형을 보면 타원형으로 우뚝하다. 이곳으로 일단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밀려와 쌓이고, 썰물 때 드러난 이 퇴적물을 북서풍이 몰아쳐서 위로 치밀어 올린 것이다. 사구의 수직 고도는 약 50m, 경사면의 길이는 약 100m이다. 상너비 70m 하너비 50m의 폭이다. 경사도는 70도가 넘는다는 등 과장되게 전해져왔으나 실제로는 32~33도 안팎이라고 한다.

신비한 전설 : 바람과 모래가 빚어놓은 국내 최대의 은빛 모래언덕으로 그 언젠가 이곳에는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모래언덕의 전설이 모래바람과 오랜세월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이 모래언덕을 사이에 두고 성촌, 돈목 두 마을에는 꽃처럼 아름다운 처녀와 소나무 기개를 지닌 총각은 주위사람들의 눈을 피해 캄캄한 밤이면 이곳 모래언덕에서 사랑을 속삭이게 되었다. 성촌마을에 사는 처녀가 매일밤이면 모래언덕에서 총각을 기다리면 돈목마을에 사는 총각은 오리정도의 거리를 걸어와 사랑을 속삭이고 돌아가곤 하였는데, 어느날 총각이 처녀를 만나기 위해 해수욕장을 걸어오던중 갑작스런 모래바람과 높은 파도로 인하여 실종되었고, 그 일을 알게 된 처녀는 매일밤이면 이곳 모래언덕에 올라와 총각의 혼백을 달래기 위해 정성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이를 지켜본 산신령은 날로 애초롭게 야위어만가는 처녀의 모습을 두고 볼수가 없어 심한 모래바람을 일으켜 처녀 역시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모래언덕 형태가 돈목마을에서 바라보면 그 때 처녀 · 총각의 이루지 못한 한을 새겨 두려는지 여자의 신비를 간직한 아름다운 하체부분을 꼭 닮았으며, 혼기의 처녀 · 총각이 이곳 하체부분에 산신령께 정성의 기도를 드리면 씩씩한 청년과 아름다운 처녀가 만나 백년회로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도 그들의 혼이 이 모래언덕에 살아 있는지 어느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두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던 모래언덕 좌측(돈목) 산등성 가장자리에 관광객이 돌을 하나, 돌씩 올려놓아 돌봉우리가 생겨났는데 하나는 총각의 혼이요, 하나는 처녀의 혼이라는 애절한 사랑이 전해오고 있다.

자연학습장 : 첫째는 지형변화를 학습할 수 있다. 쉬지 않고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바람의 방향에 의해 온갖 기이한 무늬와 형상을 아로새긴다. 무늬가 아름답고 형상이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쉬지 않고 그 모양을 바꾸어 놓는다.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재미있다. 뿐만 아니라 지형변화도 심하다. 언덕과 웅덩이가 계속 옮겨 다니는 현상이 목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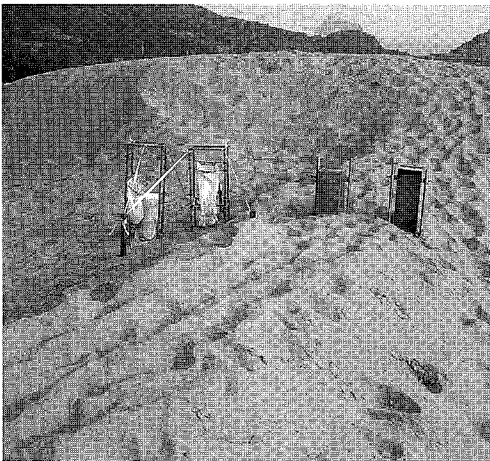
둘째는 다양한 사구식물을 관찰할 수 있다. 사구(모래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사구식물)과

자라는 모습(수직 보다는 수평적 성장)을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또한 모래 퇴적층의 두께에 따라, 고도에 따라, 향(向)에 따라 종을 달리하는 식생의 분포를 뚜렷이 볼 수 있다. 즉, 지질(모래, 자갈)이 불안정하여 주로 다년생초가 자라며, 뿌리가 깊고 위로 뺏는 것보다 옆으로 자라는 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고도차 보다 뿌리의 강약이 분포패턴에 영향을 준다.

염분도의 차이에 의한 식생의 수평적 분포도 뚜렷이 보여준다.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다음과 같은 분포패턴을 보인다. (해수)→통보리(좁보리)사초→갯그렁→순비기나무→중성식물(해송, 아카시아) 순이 그것이다. 그리고 통(좁)보리사초, 갯메골, 모래쥐치(할미꽃과), 백년풀 등의 분포지는 비슷한데, 누가 먼저 점유했냐에 따라 우생종 군락을 나타낸 것이 보통이다. 우이도의 사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현상을 자연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셋째는 자연운동 체험을 할 수 있다. 600초 동안 올라가서 30초에 내려 올 수 있는 곳. 보폭이 60센티인 성인이 오를 때, 30센티는 다시 미끄러지고 30센티만 오른다. 즉 절반을 미끄러지고 절반은 오르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힘들지만 재미를 준다. 내려올 때는 모래설매를 탄다. 뛰어 내려오면 곧 설매가 된다. 오를 때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내려올 때는 순식간이다.

넷째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체험할 수 있다. 사구밑 갯바위가 들어 난 여기 저기에서 수정처럼 맑은 생수(미내랄 함유?)가 솟아나는 모습은 신비감을 준다. 매마르고 황량한 모래사막 속에 흐르는 지하수 인 것이다.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밑에도 엄청난 물(지하수)이 흐른다고 배웠던 것이 실감나는 교육현장이다. 리비아가 그 지하수를 끌어와 사막을 옥토로 바꾸었다는 내용이 이해된다. 정말 수정처럼 깨끗한 지하수다. 한 여름 피약벌에서도 발이 시러워 담그기가 어렵다.



사구정상



사구전경

(12) 이국적인 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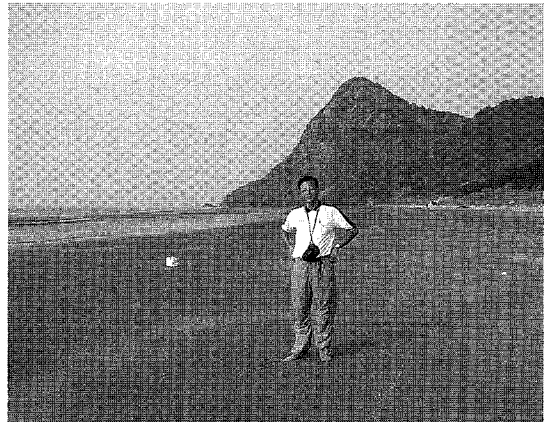
돈목해수욕장 : 도초에서 출발한 여객선(신해3호)을 타고 돈목리 (우이도 2구)에 내려 서쪽 길로 나르면 이내 넓디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모래가 곱기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깊숙한 만(灣) 안쪽 이어선지 떠밀려온 쓰레기도 거의 없다.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해변에 숲지대가 없다는 점이다.

막 썰물이 지기 시작한 해변에는 누렁 소들이 나와 더위를 식히는가 하면, 사람들이 갈고리로 모래를 파헤쳐 조개를 잡고 있다. 모래사장으로 계곡물이 퍼져 흐르기 시작하는 지점의 둔덕에는 선박형상의 샤워장 겸 화장실이 있다.

해질 무렵이면 시원한 맥주와 돛자리 들고 돈목 해변으로 나가보자. 성촌 마을 앞 상산 너머로 해가 큼직하게 부푼 채로 가라앉은 멋진 풍광을 볼 수 있다. 여름 하루가 그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성급하게 물에 뛰어들 아이가 저만치 바다속으로 들어섰는데도 허리춤을 넘지 않는다. 이곳 돈목 해변은 수심도 완경사로 깊어지고 만(灣) 안쪽이어서 파도도 약하다.



성촌해수욕장 I



성촌해수욕장 II

띠발넘어해수욕장 : 우이도 2대 해수욕장 중의 하나로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깨끗한 바닷물과 함께 완만한 경사를 지닌 해수욕장이다. 진리에서 고개를 넘어 약 10여분 정도 걸어서 도착할 수 있다. 민가와 떨어져 있어 불편한 점도 있지만 씻을 개울물도 있어 텐트 등 장비를 가지고 가면 야영도 가능하다. 띠발넘어해수욕장을 지나 수직암벽과 동백과 후박나무숲이 우거진 산자락을 돌면 우이도 최대의 성촌해수욕장이 나타난다.

성촌해수욕장 :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매우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광활한 모래사장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 멀리 한국최대의 사구와 해안암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언덕 가로 원색 텐트가 드

문드문 놓여 있는 이국적인 경관을 갖는다. 넓은데 이용객이 적어 발자국이 흔적이 그대로 남겨지는 처녀지 같은 깨끗한 해수욕장이다. 모래 속에서 삐쭉비쭉 내밀고 있거나 백옥같이 흰 모래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화려한 꽃 무늬를 가진 꽃조개가 인상적이다. 해수욕장의 왼쪽에는 다시 수직 암벽이 펼쳐져 있고 조금 더 가면 투구바위가 나온다.

비밀해수욕장 : 도리산 서쪽의 해안 절벽 사이에 조그만하고 호젓한 해수욕장이 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있다고 썰물 때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이내 감춰 버린다고해서 비밀해수욕장이라 부른다. 서양 어느 곳의 나체해수욕장 같은 생각이 드는 곳이다.

(13) 암릉길 “상산봉”

돈목리(우이도 2구) 선창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관광객을 반기는 것은 우이도 최고봉인 상산봉이다. 한여름 띄약별 아래만 아니라면 우이도 중앙의 상산봉(358.6m) 등산을 반드시 마저 하라고 권하고 싶다. 산 꼭대기 부근이 커다란 수직의 암봉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이도 어디에서 봐도 보일만큼 우뚝 솟아 있으며 안개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신비로움을 준다. 성곽같은 긴 암릉길에 이어 ‘다도해 풍광의 정수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기막힌 정상 조망이 기다린다. 특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상산봉(359m) 정상에 오르면 ‘고운 최치원 선생’이 바둑을 즐겼다는 바둑판 흔적을 돌아 보면서 우이도의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다.

오르는 길 또한 지루함보다는 즐거움을 준다. 흑염소들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는가 하면 꽃길이 나타나 천리향이 진하게 코끝을 적시기도 하고, 내륙에서도 보기 드문 암릉길이 걷게도 되며, 동백 혹은 후박나무 숲길이 100m 이상 놓여 있기도 한다. 돈목해수욕장 샤워장 바로 옆 계곡으로 50m쯤 들어가서 왼쪽의 협곡으로 올라간다. 그윽한 꽃향기가 천리를 간다는 ‘천리향’ 내를 맡으며 한발 한발 거리를 좁혀 가는 산행은 시간의 흐름을 아쉽게 해준다. 비교적 넓직한 산길을 따라 500여m 걸어 작은 고갯마루에서 목장 문을 열고 내려가면 대초리 마을이다. 450여 년 전 최초로 우이도에 사람이 정착했다던 마을이다. 집은 여러 채 남아 있지만 거의 모두 빈집이다. 이 마을 아래로 내려가 계곡을 건너 다음 목장 문을 지나 곧장 계곡 길을 따라 소나무 숲이 울창한 오솔길을 오르면 큰 재란 이름의 고갯 마루가 나온다. 고갯마루에서 남쪽으로 내륙에서도 보기 드문 말끔한 암릉길이 치달아오른다. 헬리포트, 무덤에 이어 가시덩굴에 주의하며 100m쯤 숲지대를 지나면 시원하고도 조망 좋은 암릉이 정상까지 이어진다. 정상에는 신라시대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길에 들려 바둑을 두고 갔다고 전해지는 최치원의 바둑바위가 놓여 있어 인근 비금도의 최치원 샘(우물)과 더불어 이

천년 전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바라본 주위의 검은 암봉(기암괴석)과 멀리 다도해의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푸른바다 조망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 준다.

하산은 온 길을 그대로 되짚는 것이 최상이다. 돈목마을까지 되돌아오는 데에 4시간 잡으면 충분하다.

(14) 섬 전체가 바다낚시터

우이도는 우리나라 몇 번째 안에 드는 천혜의 바다낚시터이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으며 또한 조항이 좋아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 간다. 수심이 깊고 기암괴석으로 형성되어 있어, 갯바위와 선상낚시 모두 가능하다.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우럭, 10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감성돔과 농어가 호황을 이룬다.

우이도에서도 특히 돈목만 양쪽 갯바위는 가장 인기 있고 낚시터들이 즐비하다. 대표적인 곳으로 성촌쪽의 담장밑, 나릿바위, 농계, 납닥여, 등대밑 등과 도리산쪽의 하나지끝, 건네끝 등이 유명하다. 주된 어종은 우럭, 돔, 농어 등이며, 같이 온 여자나 어린애들은 주위 암벽에 무수히 붙은 돌김, 돌미역 채취를 즐길 수도 있다.

3. 자연자원의 활용 방안

1) 근대문화유산 등재 추진 : 도초도 나포마을 앞의 원뚝

도초도 나포마을 앞의 “원뚝” 방조제는 그 역사가 깊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토목기술을 알 수 있는 석축이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그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간척역사로 대변되는 서남해역의 전통문화자원으로, 서구문물로 대변되는 근대 토목기술 이전의 원초적인 우리나라 전통토목기술을 담고 있는 값진 문화유산이다.

수문·제방·고선착장(나박포)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발굴하여 근대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이 요구되는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섬에서는 보기 드문 넓은 들판(고란들), 대규모 염전지대(도남염전), 새로 생겨난 갯벌 등과 함께 관광자원으로의 개발·연계가 가능하여 관광적 활용도 크다고 보여져 다각적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2) “도초-우이도 크루즈관광” 개발

도초도와 우이도는 여객선으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가는 길 목에 관광적 가치를 지닌 경관들이 뛰어나고 또한 즐비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도초도 서해안 쪽과 인근 부속 도서 그리고 우이도 일주를 연계한 해상관광상품 기획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토대로 한 크루즈관광과 더불어, 우이도 육지 관광자원 개발로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다. 해안 절경을 따라 해안펜션 내지는 고급 민박촌이 건설되도록 하고 선착장 인근에서 해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주민들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관광지역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운항노선을 약간만 우회(소요시간 약 20여분 연장) 시키면 관광목적까지를 달성시킬 수 있다. 현재도 도초-우이도간 여객선 승객 대부분이 관광객(70%)인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이와 더불어 도초도 서해안과 우이도 해안을 연결시키는 해로 상에 위치한 바위들을 관광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새로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해 관광적 가치가 있게끔 연구가 필요하다. 솔뚝 · 대문 · 홍어 등 갖가지 다양한 형상의 괴석이 많을 뿐 만 아니라, 항로를 따라 줄지어 늘어서 있고, 특이한 색상과 화석(귀화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많아 경관적 학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홍도가 붉으스름한 색상을 갖는 바위라면 이곳은 윤기나는 거무튀튀한 색깔을 발휘하는 것들로 되어 있다. 즉 인근의 다른 지역 바위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점 또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갖는 자원이다.

3) 우이도 풍성사구 “사막지하수” 개발 및 보급

우이도 풍성사구 밑에서 솟아나는 지하수를 수질조사와 함께 상품으로 개발이 요구된다. 30m에 이르는 두꺼운 모래층을 통과한 관계로 아마 다량의 미네랄(광물질)이 녹아 있을 수 있고 수질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생수를 “사막의 오아시스”라는 브랜드로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이곳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손이 시려워 담그기가 어려운 수정처럼 맑은 생수 판매가 가능하다고 본다.

Ⅱ. 유형문화자원

1. 고고문화자원

1) 고고문화자원 목록

번호	유적명	위치
1	우이도패총	도초면 우이도 돈목마을

2) 고고문화자원 현황(그림1)

도초도에 대한 지표조사는 1987¹⁾년에 처음 이루어졌으며, 그 후로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본 조사 역시 도서문화연구소의 도서문화 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그동안 도초도에서 알려진 선사유적은 우이도 패총을 제외하고 유구나 유물이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조사에서도 우이도 패총유적만이 확인되었을 뿐 다른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1) 우이도 패총(사진1)

- 위치 : 도초면 우이도 돈목마을

- 현황 : 우이도 패총은 돈목마을 남쪽(현지명 병모가지)에 위치하며²⁾ 지표에서 관찰되는 패각의 산재범위는 20~30m정도이다. 패총의 남쪽에는 좁은 만의 사질해안이 형성되었으며, 양쪽은 해식애가 발달한 암석해안이다. 패각의 혼입이 많지 않은 편이며, 대부분 굴이다. 시굴갱에서 확인된 층위는³⁾ 표토 15~20cm, 패층 15~20cm, 점토층 10cm이다. 기존의 시굴조사⁴⁾ 과정에서 출토된 유물은 빗살무늬토기편 소량이며, 이번 조사과정에서는 유물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1) 최성락 1987, 「선사유적·고분」 『신안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2) 김원용·임효재 1968, 『남해도서고고학』,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최성락 1987, 전게서.

3) 김원용·임효재 1968, 전게서.

4) 이 유적은 1968년 소흑산도 인류학 조사과정에서 전경수(현 서울대 교수)선생에 의해 시굴조사가 최초로 이루어졌다(최성락 1988, 「흑산도지역의 선사유적」 『도서문화』6,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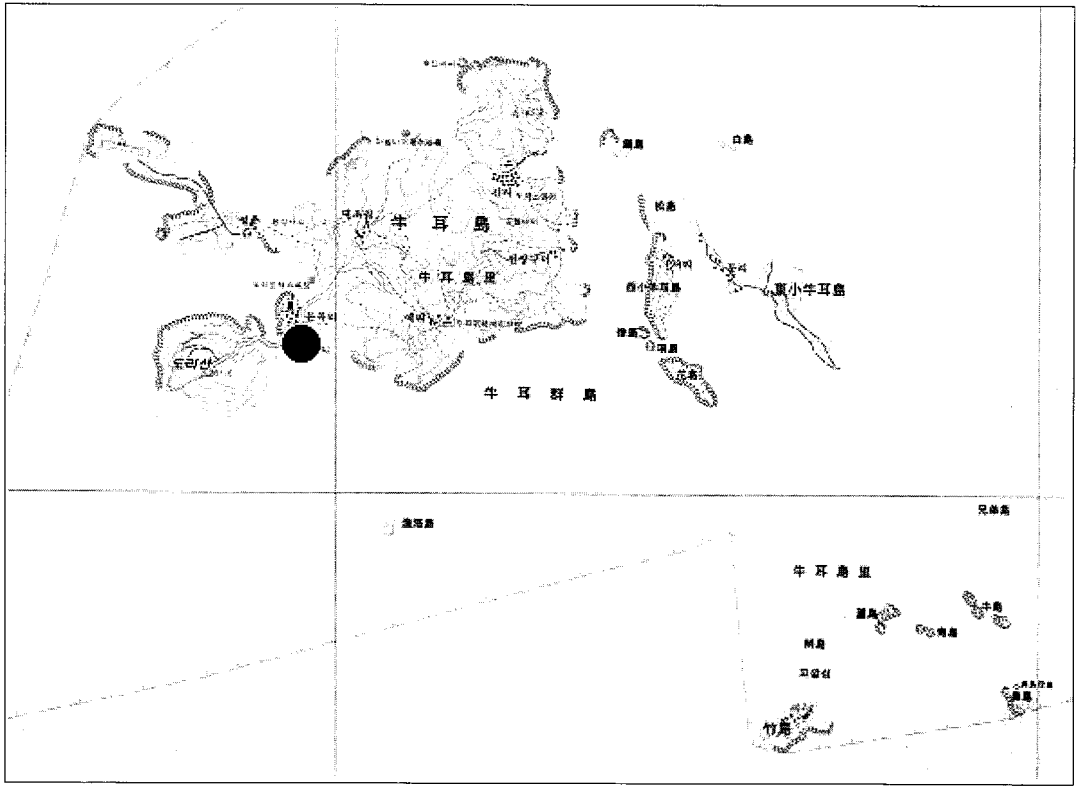


그림 1. 우이도 패총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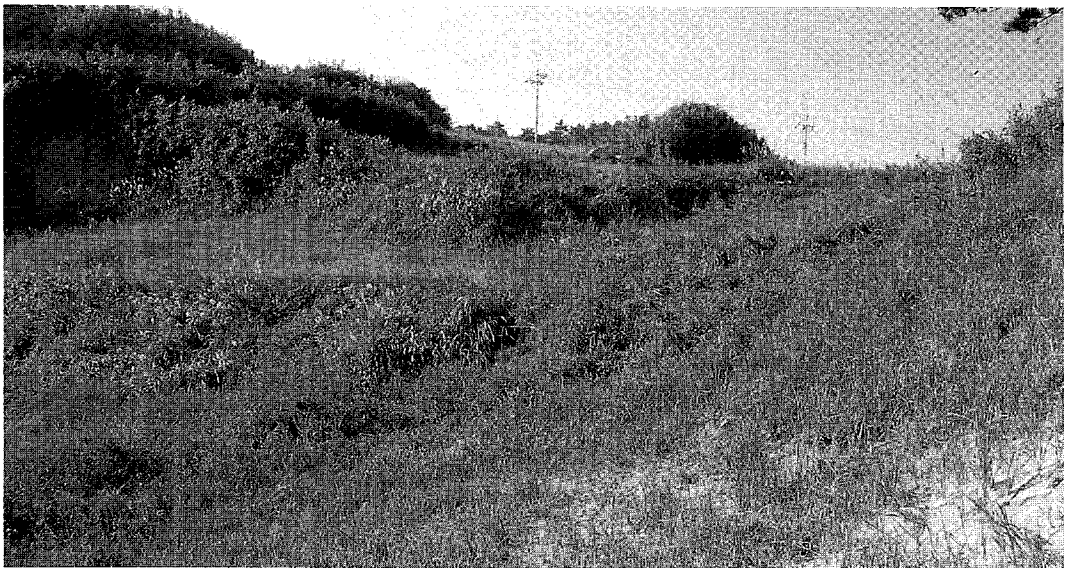


사진 1. 우이도 패총 전경

2. 역사문화자원

1) 역사문화자원 목록

기존 도초도 관련 연구성과를 검토한 결과 조사 대상은 총 2건이었다. 1건은 도초도 만년리 비아산 아래에 위치한 <김해김씨효열각>이고, 다른 1건은 부속도서인 우이도 진리에 있는 <밀양박씨열녀비각>이다. 역사팀이 도초도 답사를 실시한 결과, 새롭게 확인된 유형문화자원은 30건이다. 다음은 도초도의 현지조사 결과 확인된 역사문화자원 목록이다.

(1) 기념비 · 기념탑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기념비	尹相裕紀念碑	수다리 나포마을	丙戌年	신규
2	기념비	鄭寅培紀念碑	수다리 매실마을	1946년	"
3	기행비	金振五紀行碑	만년리 도락마을	1928년	"
4	기행비	金海金氏紀行碑	만년리 한밭마을	1946년	"
5	열행비	大邱裴氏烈行碑	만년리 한밭마을	1929년	"
6	영모비	金起山永慕碑	만년리 한밭마을	1989년	"
7	기행비	高秀柱紀行碑	고란리 고란마을	1935년	"
8	의적비	高聖權懿蹟碑	고란리 고란마을	1947년	"
9	매향비	埋香碑	고란리 고란마을	15세기	"
10	열녀비	咸陽朴氏 · 昌原黃氏 烈女碑	죽련리 신교마을	1926년 1948년	" "
11	불망비	崔炳煥 · 金喆善 · 池在日 施惠不忘碑	죽련리 신교마을	1941년	"
12	기적비	金龍舉紀蹟碑	죽련리 신교마을	1946년	"
13	문행비	朴泰浩文行碑	수항리 수항마을	1946년	"
14	열행비	全州李氏烈行碑	수항리 수항마을	1930년	"
15	기념비	박도삼기념비	수항리 수항마을	1986년	"
16	사적비	密陽朴氏事蹟碑	오류리 오류마을	1924년	"
17	충혼탑	忠魂塔	수항리 공항마을	1994년	"
18	송덕비	金容大頌德碑	수항리 공항마을	1981년	"
19	불망비	金璟在不忘碑	수항리 공항마을	1913년	"
20	송덕비	朴正允頌德碑	수항리 공항마을	庚辰年	"
21	효행비	金弼鎬孝行碑	외남리 신촌마을	1984년	"
22	불망비	高祥珉不忘碑	외남리 외남상리	1939년	"
23	비석군	지동마을 비석군	지남리 지동마을	1946년 1948년	" "
24	기행비	文根則紀行碑	발매리 발매마을	1948년	"
25	기념비	尹碩俊紀念碑	발매리 발매마을	1947년	"

(2) 효열각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열녀각	昌寧曹氏旌閭	수다리 나포마을	1949년	신규
2	효열각	金海金氏孝烈碑閣	만년리 만년마을	1914년	기존
3	열녀각	金海金氏烈女碑閣	죽련리 신교마을	1938년	신규
4	열녀각	密陽朴氏烈女碑閣	외남리 외남상리	1941년	〃
5	열녀각	密陽朴氏烈女碑閣	우이도 진리	1907년	기존

(3) 재각·사우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재각	朗州崔氏門中齋閣	죽련리 신교마을	20세기	신규
2	사우	永慕祠	죽련리 신교마을	1936년	〃

(4) 고문헌·기타

번호	구분	유적명	소재지	년대	비고
1	전적	문순득의 표해록	우이도 진리	1801~1805년	기존
2	전적	운곡잡저	우이도 진리	19세기 초	〃
3	토지소작쟁의	도초도 소작쟁의	도초도 전역	1924년	〃
4	水軍鎭址	흑산진지	우이도 진리	조선 후기	〃

2) 역사문화자원 현황

(1) 기념비·기념탑

① 尹相裕紀念碑(사진 1)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나포마을

·유적현황 : 수다리는 불섬나무에서 화도방조제를 따라 직진하다 보면 도로 왼쪽에 위치한다. 본래 마을에 나무가 우거진 곳이라 하여 “樹多”라 하였는데, 훗날 물이 귀한 마을이라 하여 “水多”라 개칭하였다고 전해온다. 수다리 초입에 나포가 위치한다. 나포마을은 일명 “베널리”라 하여 무명베를 건조하였던 곳이라 하여 “나포”라 부르게 되었다.

이 비석은 나포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비석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마을회관이 있다.

비석의 주인공은 筠軒 尹相裕이다. 공은 정유재란 때 순절한 忠靖公 尹潑의 후예로, 1894년에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였으며, 『小學』의 가르침을 행하고 실천하였다. 특히 공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함을 으뜸으로 삼았으며, 형제간에도 우애가 돈독하였다. 또한 공은 효를 실천하기 위해 조상들의 묘역에 비석을 세웠으며, 경제가 어려운 이웃에게 德을 베풀었다. 이러한 공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 비석을 세웠다.

비석 앞면에 〈筠軒 尹居士 善行 紀念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뒤편에 碑文 17행 36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李會文이 撰하고, 林哲周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9cm, 너비 51cm, 두께 21.5cm이다.

② 鄭寅培紀念碑(사진 2)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매실마을

· 유적현황 : 나포마을에서 염전을 지나면 마을이 나오는데 이 마을이 매실마을이다. 이 비석은 매실마을에 위치한다. 정인배는 염전을 조성할 때 도움을 준 尹善玉, 崔君明, 尹公用, 朴月順, 崔德守, 朴長突, 尹相甫, 尹春守, 尹有旻, 朴今突 등에게 1만평의 염전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염전을 받은 尹善玉 외 9인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46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惠齊 鄭公 寅培氏 紀念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규모는 높이 200cm, 너비 51cm, 두께 20cm이다.

③ 金振五紀行碑(사진 3)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도락마을

· 유적현황 : 도락마을회관에서 천주교회를 지나 도초 동부 초등학교로 향하는 길을 가다보면 오른쪽에 낮은 동산이 있다. 이 비석은 동산의 북쪽에 위치한다. 비석의 주인공은 金振五로, 嘉善大夫 兵曹參判에 증직되었다. 이에 공의 행적을 기리고자 五衛將 생태 외 후손 등 19인이 1928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嘉善大夫 兵曹參判 金公 振五 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규모는 높이 205cm, 너비 56cm, 두께 25cm이다.

④ 金海金氏紀行碑(사진 4)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한밭마을

· 유적현황 : 한밭마을 공터에 “長生井”이라 부르는 우물이 있고, 이 우물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김씨부인의 비석이 서 있다. 김해김씨는 文愍公 金駟孫의 후예이다. 사헌부 감찰 金洙烈의 딸로 태어나, 성장하여서 光山 金成玉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나이 28살에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밤낮으로 하늘에 기도하였다. 그러나 끝내 남편은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김씨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 스스로 殉從할 결심을 하였다. 그러나 어린 아이와 시어머니만을 남겨둘 수 없었다. 이후 김씨부인은 어린 아이의 양육과 시어머니의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다. 이러한 김씨부인의 열행사실이 京城 慕聖會에 알려졌다. 이에 김씨문중에서 기부금을 모아 부인의 열행비를 건립하였다. 이 비석은 1946년에 세워졌다. 비석의 앞면에는 <節婦 金海金氏 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金容銍이 撰한 10행 30자의 비문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49.7cm, 두께 21cm이다. 비석 주위에 시멘트 담장이 둘러져 있다.

⑤ 大邱裴氏烈行碑(사진 5)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한밭마을

· 유적현황 : 한밭마을 공터에 “長生井”이라 부르는 우물이 있고, 이 우물 바로 옆에 대구배씨의 열행비가 있고, 우물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節婦 金海金氏 紀行碑>가 위치한다.

裴氏夫人의 本實은 大邱이며, 裴成化의 딸로 태어나, 장성하여서 參議公 高瑞柱와 혼인하였다. 부인의 성품은 정숙하고 시부모님을 정성을 다하여 공양하였으며, 남편을 섬기고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서 모범이 되어 고씨문중에서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殉從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부인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의 묘역에서 지냈다.

이러한 배씨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929년에 기념비가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 <貞夫人 大邱裴氏 烈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부인의 열행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碑文은 15행 23자이다. 비석의 측면에 기념비를 건립할 때 참여한 都有司 鄭殷采·金在珣, 約長 朴箕陽 등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8cm, 너비 45cm, 두께 18cm이다. 비석 주변에 시멘트 담장이 둘러져 있다.

⑥ 金起山永慕碑(사진 6)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한밭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한밭마을에서 소용동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다. 김기산의 본관은 金

海이고, 首露王의 후예이며, 監務公 金益鄕의 후손이다. 공은 아버지 金順澤과 어머니 安東金氏의 아들로 태어났다. 공은 어려서부터 기질이 남달랐다. 또 성품은 온화하고, 청렴결백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공의 언행과 행동을 공경하였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공의 영특한 기질을 높이 평가하여 “山神道士”라 불렀다.

이 비석은 1989년에 건립된 것으로, 비석의 앞면에 〈道士 金公 起山之 永慕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 후손 金明植이 지은 국한문 혼용체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8.5cm, 너비 41.5cm, 두께 18cm이다.

⑦ 高秀柱紀行碑(사진 7)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고란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고란마을 초입에 위치한다. 이 비석은 효자 高秀柱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고수주의 본관은 장흥이며, 1873년에 태어났고, 密陽 朴明來의 딸과 혼인하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정성을 다 하였다. 어머니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공은 아침저녁으로 약을 다려드리며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그러나 끝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하면서 슬퍼하였다. 이러한 공의 효행이 널리 알려져 大同斯文會에서 효자로 포상하였다. 이 비석의 건립은 비석 뒷면에 乙亥年이라 새겨져있는데, 大同斯文會의 활동시기와 공의 생존년대를 추산해 보면 1935년으로 추정된다. 비석 앞면에는 〈孝子 童蒙教官 高秀柱 紀行碑〉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는 大東斯文會에서 공에게 포상한 「紀行文」(11행 25자)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6cm, 너비 52cm, 두께 22cm이다.

⑧ 高聖權懿蹟碑(사진 8)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고란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고란마을 초입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마을 앞에 고란마을 석장승과 동각이 위치한다. 이 비석의 주인공은 高聖權이다. 공의 본관은 長興, 號는 蘭圃이다. 공은 주민들을 구제하는데 늘 앞장섰다. 이러한 공을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947년에 후손들이 의적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嘉善大夫 中樞府使 五衛將 兼 同知都事 長興 高公 諱聖權 懿蹟碑〉라 새겨져 있다. 또 비석 뒷면에는 공의 행적을 기리는 비문 13행 32자가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金龍舉와 李炳觀이 撰하고, 丁斗七이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3cm, 너비 60cm, 두께 30cm이다.

⑨ 埋香碑(사진 9·10)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고란마을

· 유적현황 : 매향비란 짚을 묶으면서 그 연유와 배경, 매향된 시기와 장소, 관련된 집단을 기록한 碑文이다. 매향을 하는 목적은 沈香을 매개로 하여 미륵부처와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민중적 불교신앙 의례이다. 도초도 매향비는 고란마을 초입 발두독에 위치한다. 원래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밭의 중앙에 있었으나, 발주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비문은 자연석에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표면을 고르게 정리한 다음, 구획을 정하여 글씨를 새겼다. 비석의 건립 시기는 비석의 뒷면에 '順天' 라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碑文은 6行 11字이며, 심하게 마모되어 판독할 수 없다. 비석의 크기는 높이 96cm, 너비 46cm, 두께 15cm이다.

⑩ 咸陽朴氏·昌原黃氏烈女碑(사진 11·12)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마을

· 유적현황 : 신교마을 초입에 2기의 비석이 서 있다. 烈婦 密陽朴氏와 昌原黃氏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다. 왼편에 밀양박씨의 기념비가 있고, 오른쪽에 창원황씨의 독행비가 서 있다. 그리고 주변에 낮은 돌담이 비석을 둘러싸고 있다.

열녀 밀양박씨는 五恨公 朴成乾의 후예인 朴玉兼의 딸로 태어났다. 밀양박씨는 성장하여서 金海 金昌厦와 혼인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壇을 쌓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후 박씨부인은 연로한 시어머니를 정성으로 봉양하고,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갔다. 이러한 부인의 열행을 기리기 위해 1926년에 대동사문회에서 기념비를 건립해 주었다. 비석 앞면에 〈烈女 貞夫人 咸陽朴氏 紀行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대동사문회에서 지은 부인의 열행사실이 14행 34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77cm, 너비 34.5cm, 두께 24.5cm이다.

열녀 창원황씨는 善士 黃鶴彬의 딸로, 비금도 신원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장성하여서 도초도에 서 거주하고 있던 金海 金蓮坤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부인과 혼례를 올린 남편이 나이 20세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후 부인은 절의를 지켰고, 주민들은 이러한 부인의 열행을 널리 기리기 위해 1948년에 篤行碑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節婦 昌原黃氏 篤行碑〉라 새겨져있고, 비석 뒷면에는 부인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 9행 22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3cm, 너비 47cm, 두께 17cm이다.

⑪ 崔炳煥 · 金喆善 · 池在日 施惠不忘碑(사진 13 · 14)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마을

· 유적현황 : 신교마을 초입에 열녀비가 2기 서 있고, 이 비석 앞을 지나 길을 따라 약 100m 정도 직진하다보면 도로 왼쪽에 비석 1기와 우물이 위치한다. 이 우물 외벽에 “錦江井”이라 새겨져 있다. 바로 우물 앞에 서 있는 비석이 <崔炳煥 · 金喆善 · 池在日 施惠 不忘碑>이다. 이들이 바로 금강정을 설치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이다. 신교마을은 예로부터 식수가 부족하여 주민들이 항상 불편을 감수하였다.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私財를 털어 “古井”을 건립하였다. 이 때 최병환은 우물터를 제공하였고, 김철선은 기금 160원, 지재일은 90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이들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 1941년에 불망비가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五衛將 郎州 崔炳煥 晚香堂 彥陽 金喆善 新晴軒 忠州 池在日 施惠 不忘碑>라 새겨져 있다. 그리고 비석 뒷면에는 우물을 건립하는데 공을 세운 3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은 7행 21자이며, 金龍舉가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1cm, 너비 48.5cm, 두께 18.8cm이다.

⑫ 金龍舉紀蹟碑(사진 15)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신교마을 永慕祠 바로 앞에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영모사에 배향되어 있는 김용거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46년에 세워졌다. 公의諱는 允永, 자는 士恒이다. 金駟孫의 후예이자 金泰建의 아들이다. 공은 후학들을 가르침에 충효를 근본으로 삼았으며, 특히 冠婚喪祭의 예법을 중시하였다. 비석 앞면에 <野隱居士 金海 金龍舉 紀蹟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7cm, 너비 55cm, 두께 23.2cm이다. 비석 뒷면에 선생을 이력을 기록한 碑文(13행 26자)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朴珠亨이 撰하고, 李泰奎가 書하였다.

⑬ 朴泰浩文行碑(사진 16)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수항마을

· 유적현황 : 도초면사무소에서 수항마을로 향하다보면 수항마을로 진입하기 직전 도로 오른편에 비석이 서 있다. 공은 수항리의 촉망받는 선비였다. 공은 어려서부터 독서를 열심히 하였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孝를 다하였다. 성장하여서는 松庵 金先生과 竹庵 蘆先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공은 새로운 학문을 익혀 후진들을 양성하였는데, 그의 문인들이 선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이 비석은 선생의 문하생 崔碩斗 외 14인이 선생의 덕행을 기념하기 위해 1946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珍隱居士 密陽 朴泰浩 文行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은 선생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 있는데, 이 비문은 金龍舉가 撰하고, 李泰奎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8cm, 너비 53cm, 두께 22.3cm이다.

⑭ 全州李氏烈行碑(사진 17)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수항마을

· 유적현황 : 도초초등학교에서 도로를 따라 수항마을로 들어서면, 도로 오른편에 도초중앙교회가 있다. 이 비석은 도초중앙교회에 이르기 약 30m 떨어진 밭자락에 서 있다.

烈婦 全州李氏는 李章鉉의 딸로 태어나 文種燮과 혼인하였다. 부인의 나이 23세가 되던 해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부인은 홀로 유복자를 낳아 기르며 가문을 지켰다. 이러한 부인의 행실을 기리기 위해 1930년에 비석이 건립되었다. 비석 앞면에는 <文種燮妻 全州李氏 烈行碑>라 새겨져 있다.

⑮ 박도삼기념비(사진 18)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수항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수항리 도초중앙교회 안에 위치한다. 박도삼은 1886년에 태어나 1956년 1월 7일 세상을 떠났다. 공은 1901년 3월 3일 入教하였고, 1903년 10월 10일에 세례를 받았다. 1907년부터 1915년까지 성서공회 권서로서 전남 도서지역에 순회전도를 하였다. 1922년 4월 도초면 신교리에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 1943년 도초중앙교회 장로로 봉직하였다. 초창기 도초도복음전도에 심혈을 기울인 박도삼 장로의 선교의 뜻을 기념하기 위해 본고장 출신 성직자들이 헌금을 모아 1986년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⑯ 密陽朴氏事蹟碑(사진 19)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오류리 오류마을

· 유적현황 : 수항마을에서 시목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처음으로 나오는 마을이 오류마을이다. 박씨의 본실은 密陽이며, 尹相來와 혼인하였다. 남편인 尹상래는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를 지냈으며, 45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죽자, 박씨는 홀로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였다. 이에 박씨를 기리기 위해 후손들이 1924년에 비석을 세웠다. 비문은 崔基性이 지었고, 金國銓

이 썼다. 비석의 앞면에는 〈烈女 淑夫人 密陽朴氏 事蹟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규모는 높이 200cm, 너비 50cm, 두께 20cm이다.

⑰ 忠魂塔(사진 20)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궁항마을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도초면사무소에서 도초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이 충혼탑은 한국전쟁에 참여한 戰歿 軍警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1994년에 건립하였다. 충혼탑 앞에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가 서 있다. 이 비석의 뒷면에는 도초면 6·25 참전 유공자 명단이 리별로 기록되어 있다. 즉 외남리 3명, 지남리 9명, 고란리 3명, 이곡리 7명, 만년리 5명, 수항리 1명, 수다리 3명, 발매리 5명, 죽년리 5명 등 총 41명이 등재되어 있다.

⑱ 金容大頌德碑(사진 21)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궁항마을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도초면사무소에서 도초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비석의 주인공은 金容大이다. 이 비석은 김용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81년에 도초면내 이장 35명이 힘을 모아 건립하였다. 비문에 따르면, “많은 財寶을 지니고도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 간절한 뜻이 있어도 지닌 것 없으면 못하는 일, 물려받은 것 없이 손수 모은 재산을 선선히 내놓아 보람의 열매 맺게 하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인간의 덕행이 마침내 무르익은 과실향기로 번져 만인의 가슴을 채우고 시들한 눈들에 생기를 불어넣어 푸른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다”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박홍원이 지은 것이며, 글씨는 조경담이 새겼다. 비석 앞면에 〈月岩 金公容大 頌德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6cm, 너비 65cm, 두께 23cm이다.

⑲ 金環在不忘碑(사진 22)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궁항마을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도초면사무소에서 도초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公은 열심히 재산을 모았고, 또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했다. 金環在는 1861년(철종 12)에 김권일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公은 의금부사·장사랑·중추원 의관 등을 역임하였고, 사후에 嘉善大夫 兼 資憲大夫에 증직되었다. 公의 성품은 근면하고 온후하여 노약자와 가난한 자를 힘써 구출

하였다. 또 도초도에 흉년이 들어 섬주민들의 생계가 어렵게 되자, 공이 섬주민들의 조세를 대납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儒林들의 모임인 大東斯文會에서 공의 행적에 대해 포상하였고, 도초도 주민들이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13년에 불망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는 <議官 金公環在 永世不忘碑>라 새겨져 있다. 또 비석 앞면에 公의 행실을 노래한 4언 절구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9cm, 너비 48cm, 두께 19cm이다. 관련유적으로 도초면 만널리 만년마을에 <김해김씨효열비각>이 있다. 이 비각안에는 <資憲大夫 金公環在 紀念碑>(癸亥年)가 있다.

⑳ 朴正允頌德碑(사진 23)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궁항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도초면사무소에서 도초초등학교로 향하는 도로변 우측에 위치한다.

공의 본관은 咸陽이며, 五恨 朴成乾의 후예이다. 비문에 따르면 “호남의 人士를 논하면서 공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칭송하고 있다. 공은 가난한 섬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였다. 이에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庚辰年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惠齋 朴公正允 頌德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 뒷면에는 8행 35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閔丙漢이 撰하고, 尹相裕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2cm, 너비 63cm, 두께 23cm이다.

㉑ 金弼鎬孝行碑(사진 24)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신촌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화도선착장에서 면사무소로 향하는 도로 우측에 위치한다. 金弼鎬의 字는 行俊이다. 공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어머니가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수혈을 하는 등 정성으로 간호하였다. 그러나 끝내 어머니가 임종하자, 묘역에서 3년 동안 베옷을 입고 지냈다. 이러한 공의 효행을 후세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1984년에 효자비를 건립하였다. 비석 앞면에 <孝友堂 金公弼鎬 孝行碑>라 새겨져 있고, 측면에는 어머니 은혜에 관한 시가 기록되어 있다. 이 시는 範大鎔이 撰하였고, 廉貞模가 書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1.5cm, 너비 54.3cm, 두께 23cm이다. 비석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㉒ 高祥珉不忘碑(사진 25)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상리-외남하리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외남상리에 위치한 천주교회 앞을 지나 외남하리로 향하는 도로변 좌측 들녘에 위치한다. 이 비석 바로 옆에는 〈密陽朴氏烈女碑閣〉이 있다.

이 비석은 고상민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39년 4월 9일에 건립되었다. 비석의 앞면에는 〈贈順陵參奉 高祥珉 永世不忘碑〉라 새겨져 있고, 비석 뒷면에는 고상민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盧道基가 撰한 것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90cm, 너비 45cm, 두께 21cm이다.

㉓ 지동마을 비석군(사진 26)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지동마을

· 유적현황 : 도초서초등학교에서 101번 도로를 타라 가다보면 지동마을이 나온다. 지동마을의 정미소 왼편에 비석 2기가 서 있다. 1기는 〈金權益紀行碑〉이고, 다른 1기는 〈愚堂先生遺蹟碑〉이다. 비석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金權益紀行碑〉: 김권익의 號는 隱湖이고, 본관은 慶州이다. 공은 金文起의 후예이고, 金贊文의 아들이다. 공은 文章家였다. 공은 德行, 功業, 文章을 숭상하였는데, 이것이 德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비석은 선생의 문인들이 스승의 덕을 추모하기 위해 1946년에 건립한 것이다. 비석 앞면에 〈隱湖居士 慶州 金權益 紀行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咸陽 朴珠亨이 撰한 碑文(10행 28자)이 새겨져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5cm, 너비 49.5cm, 두께 24.5cm이다.

〈愚堂先生遺蹟碑〉: 선생의 諱는 仁, 字는 振旭, 號는 愚堂이며, 본관은 慶州이다. 선생은 도초면 지남리에서 태어났다. 마을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는데 활약하였다. 이 비석은 선생의 문인들이 1948년에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 〈愚堂 慶州 金先生 遺蹟碑〉라 새겨져있고, 비석의 뒷면에 선생의 행적을 기록한 碑文(12행 34자)이 새겨져있다. 이 비문은 박준일이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40cm, 너비 52cm, 두께 25cm이다.

㉔ 文根則紀行碑(사진 27)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발매마을

· 유적현황 : 불섬나무에서 발매리로 향하는 307번 도로를 따라가다가 춘경교라 새겨진 다리를 지나서면 우측으로 작은 농로가 열려 있고, 마을 초입 도로변에 비석이 서 있다.

공은 품성이 온후하고, 행실이 바르며 학문을 장려하였다. 이에 공의 門下生들이 스승을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1948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南崗先生 文根則 紀行碑>라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선생의 행실에 기록한 비문(14행 20자)이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문인 咸陽 朴珠亨이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8cm, 너비 61.5cm, 두께 20cm이다.

㉕ 尹碩俊紀念碑(사진 28)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발매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발매마을 안쪽 끝자락에 위치한다. 비석 바로 앞에 발매마을의 전통가옥(김창단氏)이 있고, 비석에서 약 10m 떨어진 산록에 우물이 위치한다. 公은 사재를 회사하여 마을 주민들의 공동우물을 설치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러한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발매마을 주민들이 1947년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 <善士 坡平 尹公碩俊 紀念碑>라 새겨져 있고, 앞면 여백에 公의 행적을 노래한 4언 절구가 기록되어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30.5cm, 너비 48.7cm, 두께 19.7cm이다. 비석의 기단에 문인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2) 효열각

① 昌寧曹氏旌閭(사진 29)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나포마을
- 유적현황 : 이 비석은 <尹相裕 紀念碑>를 지나 수다리 매실마을로 향하는 길에 서 있다. 조씨의 본실은 昌寧이며, 海南 尹光乎와 혼인하였다. 남편이 20세에 병이 들자, 정성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며, 위급하자 손가락을 잘라 수혈하였다. 남편이 죽고, 겁탈을 당하려 하자 도망하여 절의를 지켰다. 또한 베를 짜서 홀로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하고, 자식을 훌륭히 길러냈다. 이에 조씨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烈女 淑人 昌寧曹氏之間>라 새겨져 있고, 비석의 규모는 높이 150cm, 너비 42cm, 두께 15cm이다. 비각의 크기는 정면 1칸, 측면 1칸이다. 비각의 주변은 벽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다.

② 金海金氏孝烈碑閣(사진 30·31·32)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만년마을

· 유적현황 : 효열각은 도초면 만년리 비아산 金海金氏 世葬山 초입에 위치한다. 김해김씨 효열각은 효자 金權一과 그의 부인 光山金氏를 비롯하여 김권일의 아들 金環在·金環趾, 김권일의 며느리 草溪崔氏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 효열비각 맨 앞에 효자 김경재의 기념비가 서 있고, 그 뒤편으로 계단을 올라서면, 2기의 비각이 나란히 서 있다. 오른쪽에 위치한 비각이 효자 김권일과 그의 부인 광산김씨의 효열비각이고, 그 왼쪽에 효자 김경지와 그의 부인 초계최씨의 효열비각이 위치한다.

효자 金權一의 字는 石巖, 號는 露岳이다. 공은 조선 선조 때 戰功을 세운 盆城君 金應壽의 11세 손으로, 1824년에 태어났다. 공은 6세의 어려서부터 부모에 효성이 지극하였다. 모친이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하자 손가락을 잘라 어머니를 희생시켰다. 이러한 효성이 널리 알려져 국가에서 효자로 칭송하고 童蒙敎官에 증직하였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의 석축건물이고, 그 안에 1914년에 건립된 金權一의 孝子碑와 貞夫人 光山金氏의 烈行碑가 서 있다. 김권일의 비석 앞면에는 <孝子 朝奉大夫 童蒙敎官 兼 通政大夫 承政院 左承旨 嘉善大夫 工曹參判 金海 金權一之閭>라고 새겨져 있다. 비석의 뒷면에는 공의 효행사실을 金奇俊이 지은 17行 23字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은 이수와 비신이 있고, 좌대는 땅에 매몰된 상태이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0.5cm, 너비 43.4cm, 두께 15.7cm이다. 그리고 <金權一 孝子碑> 바로 옆에 서 있는 광산김씨의 비석은 역시 1914년에 건립되었으며, 앞면에 <貞夫人 光山金氏之閭>라고 새겨져 있고, 뒷면에 金奇俊이 지은 5행 15자의 열행사실이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형태는 방패형이며, 규모는 높이 117cm, 너비 43.3cm, 두께 17cm이다.

효자 金環在는 1861년(철종 12)에 김권일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공은 의금부사·장사랑·중추원 의관 등을 역임하였고, 사후에 嘉善大夫 兼 資憲大夫에 증직되었다. 공의 성품은 근면하고 온후하여 노약자와 가난한 자를 힘써 구휼하였다. 또 도초도에 흉년이 들어 섬주민들의 생계가 어렵게 되자, 공이 섬주민들의 조세를 대납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 儒林들의 모임인 大東斯文會에서 공의 행적에 대해 포상하였고, 도초도 주민들은 공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癸亥年에 기념비를 건립하였다. 이 기념비의 앞면에는 <資憲大夫 金公環在 紀念碑>라고 새겨져 있고, 그 여백에 공을 칭송하는 4언 절구가 새겨져 있다. 또 비석 뒷면에는 대동사문회에서 공의 행적을 칭송한 「褒狀」내용이 8행 19자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6cm, 너비 55cm, 두께 23.5cm이다. 이 비석은 김해김씨 효열비각 맨 앞줄에 위치한다.

효자 金環趾의 이름은 相和, 號는 竹淸이다. 1863년에 김권일의 셋째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서부

터 지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다. 연로한 부친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산신에게 기도하였다. 그런데 어느날 밤 꿈에 노인이 약초를 알려주어 부친을 회생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효행사실이 널리 알려져 大東斯文會에서 공을 효자로 포상하고 정려각을 건립해주었다. 효행비는 1914년에 건립되었으며, 비석의 앞면에는 <孝子 嘉善大夫 戶曹參判 金海 金璟趾之間>라고 새겨져 있다. 또 비석 뒷면에는 蘆道基가 공의 효행사실을 기록한 비문 13행 23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3cm, 너비 39cm, 두께 15.3cm이다. 그리고 김경지 효자비 바로 옆에 공의 부인 초계최씨의 열행비가 서 있다.

열녀 초계최씨는 남편인 김경지가 36세에 병을 얻어 자리에 눕자 壇을 쌓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였다. 이러한 부인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여막살이를 하였다. 이에 大東斯文會에서 초계최씨를 열녀로 포상하였다. 비석의 앞면에는 <貞夫人 草溪崔氏之間>라고 새겨져 있다. 또 비석 뒷면에는 金奇俊이 지은 비문 10행 19자가 새겨져 있다. 열행비의 형태는 방패형이며, 규모는 높이 109cm, 너비 42.1cm, 두께 13.6cm이다.

③ 金海金氏烈女碑閣(사진 33)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마을

· 유적현황 : 신교마을 초입에 2기의 열녀비가 있다. 이 비석 앞을 지나 길을 따라 죽련마을로 향하다보면 도로 왼편 구릉에 석조건물이 위치한다. 이 석조건물이 김해김씨열녀각이다. 이 비각은 烈婦 金海金氏와 孝婦 金海金氏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烈婦 貞夫人 金海金氏는 儒業 金正昌의 딸로 태어나, 郎州 崔達雄과 혼인하였다. 김씨부인은 일찍 남편과 사별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一男一女를 양육하면서 가문을 지켰다. 이러한 부인의 열행이 널리 알려져 京城 慕聖會에서 열녀로 포상하였다. 이에 1938년에 사적비가 건립되었다. 비석 뒷면에는 金龍舉가 撰한 비문 12행 21자가 새겨져 있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19.5cm, 너비 43cm, 두께 15.1cm이다.

孝婦 淑夫人 金海金氏는 金光産의 딸로 태어나, 장성하여 五衛將 崔章淑과 혼인하였다. 김씨부인은 三從之道를 百行의 근본으로 삼았다. 김씨부인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다. 또 혼인하여서는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봉양하였다. 이러한 열행이 널리 알려져 慕聖會에서 열녀로 천거하였다. 비석 뒷면에 부인의 열행사실이 새겨져 있는데, 비문은 11행 9자이다. 이 비문은 金龍舉가 撰하였다. 비석의 규모는 높이 120cm, 너비 44cm, 두께 14.5cm이다.

석조비각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이다. 비각 입구에는 팔작지붕의 출입문이 있고, 정면에 <烈孝門>이라 새겨져 있다. 그리고 비각 내부에는 2기의 비석이 서 있는데, 왼쪽의 비석은 <烈婦 貞夫人 金氏 事蹟碑>이고, 오른쪽에 <孝婦 淑夫人 金氏 陪行碑>가 있다.

④ 密陽朴氏烈女碑閣(사진 34)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상리-외남하리

· 유적현황 : 이 비각은 외남상리 천주교회 앞을 지나 외남하리로 향하는 도로변 좌측에 위치한 다. 비각 바로 옆에는 <高祥珉永世不忘碑>가 있다. 이 비각은 밀양박씨부인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1941년에 건립되었다. 비각의 규모는 정면 1칸, 측면 1칸, 팔작지붕이며, 석축으로 조성되어 있다. 비각 내부에는 밀양박씨부인의 열행을 기록한 비석이 서 있다. 비석 앞면에 <節婦 密陽朴氏 紀蹟碑>라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李炳觀이 撰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이 비석의 규모는 높이 160cm, 너비 46cm, 두께 15cm이다.

⑤ 密陽朴氏烈女碑閣(사진 35)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진리

· 유적현황 : 우이도 선착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밀양박씨 열녀각이 있다. 밀양박씨는 1833년 박춘식의 딸로 태어났다. 성장하여서 부모님의 정혼에 의해 혼인날을 앞두고 예비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밀양박씨는 죽은 신랑과 영혼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박씨부인은 시부모님을 봉양하면서 살았다. 노환으로 시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3년 동안 시묘생활을 하였다. 이에 문중에서 박씨부인의 효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1907년에 열녀비각을 건립하였다. 이와 동일한 비석이 선착장에도 있다.

(3) 재각 · 사우

① 朗州崔氏門中齋閣(사진 36)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마을

· 유적현황 : 신교마을 초입에 2기의 열녀비가 있다. 하나는 함양박씨의 열행비이고, 다른 하나는 창원황씨의 열녀비이다. 이 비석 앞 도로를 따라 만년리 방향으로 약 100m 정도 직진하면 도로

오른쪽 야산에 재각이 위치한다. 이 재각은 낭주최씨의 문중 재실이다. 도초도 내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매년 10월 보름에 문중 선조의 시제를 모시는 곳이다.

재각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다. 재실 옆에는 1기의 비석이 서 있고, 비석 옆으로 외삼문이 있다.

② 永慕祠(사진 37)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신교마을

· 유적현황 : 영모사는 신교마을 맨 안쪽 산자락에 위치한다. 永慕祠는 김해김씨의 문중사우이다. 배향인물은 金龍舉이다. 公의 諱는 允永, 자는 士恒이다. 金駟孫의 후예이자 金泰建의 아들이다. 공은 후학들을 가르침에 충효를 근본으로 삼았으며, 특히 冠婚喪祭의 예법을 중시하였다. 영모사는 재실 상량에 '崇禎紀元後 六回甲 丙子'라고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영모사는 외삼문이 <永慕門>이라 새겨져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재실이 칠문과 붉은 벽돌로 건립되어 있다. 재실 안에는 선생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고, 편액 4기가 걸려 있다. 편액은 ①「雲焦金公祠字記」(壬申年, 盧道基 識), ②「松菴金公祠字記」, ③「永慕祠儒林芳名錄」, ④「儒林寄贈錄」등이다. 영모사의 제사는 신안군내에 거주하는 선생의 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4) 고문헌·기타

① 문순득의 표해록(사진 38)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진리

· 유적현황 : 문순득은 1777년(정조 1)에 우이도에서 문덕겸의 4자로 태어났다. 표해록은 그의 나이 25세 때 바다에서 표류되어 琉球國(현 오키나와)과 呂宋(현 필리핀)에서 표류생활을 경험한 기록이다. 1801년 12월에 문순득은 작은 아버지 文好謙을 따라 마을 주민 4명과 함께 태사도로 흥어를 구입하러 갔다. 이듬해인 1802년 1월에 태사도를 출발하여 우이도로 돌아오던 중 흑산도에서 폭풍을 만나 표류되었다가, 동년 2월에 琉球國 羊寬村에 닿았다. 이후 문순득 일행은 유구국에서 8개월 17일 동안 표류생활을 하다가, 10월 7일에 오키나와를 출항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태풍을 만나 11월 1일에 呂宋에 당도하여 8개월 28일 동안 또다시 표류생활을 하였다. 1803년 3월에 문순득은 福建人 25인과 함께 조선에 도착하였고, 1805년 1월 고향인 우이도에 당도하였다. 무려 3년

2개월 동안의 표류생활을 경험한 것이다.

표해록은 1820년에 흑산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던 정약전이 우이도에서 생활할 때 문순득으로부터 전해 들은 표류경험담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정약전은 문순득의 표류과정, 문순득의 귀국 여정, 그리고 문순득이 제보해준 오키나와와 필리핀의 언어·풍속·의복·선박·토산품·가옥 등을 사실적으로 기술하였다.

현전하는 문순득의 표해록은 『柳菴叢書』에 수록되어 있다. 표제는 『柳菴叢書』라 기록되어 있고, 부제가 표해록이다. 『柳菴叢書』의 크기는 가로 15cm, 세로 24cm이며, 필사본이다. 『柳菴叢書』의 저자는 柳菴이다. 유암은 한학자로, 우이도에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서당을 운영하였던 인물이다. 정약전이 세상을 떠나자, 1818년에 유암은 문순득의 구술과 정약전의 『漂海始末』을 참고로 한 권의 저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柳菴叢書』이다. 현재 문순득의 표해록은 문중 후손인 문채옥이 소장하고 있다.

② 운곡잡저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진리

·유적현황 : 필사본 2권 1책으로 89장이며, 크기는 세로 23cm×가로 14.5cm이다. 표제와 내제 모두 '운곡잡저'로 되어 있고, 권1과 권2 모두 내제 다음 줄 하단에 '격경자 저'라고 적혀 있어 격경자의 서술임을 알 수 있다. 격경자는 다산 정약용의 제자인 강진의 이강희의 별호로 추정된다. 우이도 진리에 거주하는 문채옥(1920년생) 옹이 유암총서와 함께 소장하고 있다. 운곡잡저에 실려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 상부 관에 보낸 공문서 39편
- 송정사의(정약전 저)
- 자설답객난
- 증언시홍량
- 무제설
- 근설시문순
- 문답
- 백언시(정약용 저)
- 방언보

- 논3편 : 항백론, 범증론, 항우론
- 문자초
- 기타 : 습합지례, 천지간지, 자형학, 오패성명, 이두

③ 도초도 주민들의 소작쟁의

· 소 재 지 : 신안군 도초면 전역

· 유적현황 : 서남해 도서지역의 토지는 조선후기 중앙세력들에 의해 선점되었다. 즉 수군들의 식량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屯田이 개설되었는가 하면, 왕실세력들의 경제생활을 위해 宮房田이 설치되었다. 이후 한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섬주민들과 중앙세력간의 토지소유권과 토지세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하의도·상태도·하태도·암태도·지도·자은도·매화도·도초도 등지에서 확인된다. 일제강점기의 소작쟁의는 1922년 9월 진주소작인노동자대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때 농민들은 소작료 50% 인하운동을 전개하였다. 도초도의 소작회는 1924년 가을에 결성되었다. 소작회는 논과 밭의 소작료를 4할로 결정하고 지주에게 통고함과 동시에 불납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에 지주 文在喆·中島清太朗·今井農馬·尹永炫 등이 農談會를 조직하여 대응하였다. 1925년 9월 말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과 목포경찰서 직원들이 불납 소작료에 대한 가차압을 위해 도초도에 왔다. 그러나 도초소작인회 400여명이 부두에 모여 이들의 진입을 제지하였다. 10월 7일 정오에 목포경찰서 고등계 주임 長田이 경관들과 함께 50건의 소작료 불납에 대한 가차압을 하려고 다시 도초도로 왔다. 이에 도초도 주민들은 수항리 소작인회 사무실에 모였다. 이 때 경찰측과 소인회 대표들이 교섭을 추진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이후 목포경찰서는 더 많은 직원들을 도초도로 파견하여 도초소작회 간부 20여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에 동년 10월 16일 도초소작회는 긴급총회를 소집하여 결의하였다. 즉 ①구속된 회원의 방환, ②구속된 본회 위원 10인을 대신하여 임시 집행위원을 선거, ③악덕지주에 대한 성토문 작성하여 내외국 신문에 공개, ④경찰당국의 각성 등이 그것이다.

10월 19일에 도초도 주민 200여명이 목포 경찰서로 항의차 방문하였다. 이들은 구속된 20여명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에 목포경찰은 도초도 주민들을 폭동으로 간주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10월 20일 도초도 주민 대표 5인이 목포경찰서장을 면회하고 검속된 10여명을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결렬되자, 도초도 주민들은 광주법원으로 올라가 시위하였다. 그러나 소작료 인하는 물론 구속된 회원들을 석방시키지 못하고 도초도로 돌아갔다. 섬으로 돌아온 주민들은 대표

3인을 선정하여 광주지방법원 검사장과 전남 경찰부장 등을 면회하고 소작회 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 결국 예심에서 일부 회원들이 석방되고, 김용택 등 12명이 다시 기소되었다. 구속된 소작회 회원들은 이듬해인 1925년 5월 3일 징역형 4명, 집행유예 8명, 벌금 3명 등의 판결을 받았다.

④ 黑山鎮址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진리

· 유적현황 : 흑산진은 조선후기에 흑산도 진리와 가거도, 그리고 우이도 진리에 설치되었던 수군 별장진이다. 흑산진의 창설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전하는 문헌기록에 의하면 1665년(현종 6)에 설진논의가 있었으나, 창설되지 않았다. 그런데 18세기에 간행된 『여지도서』에 흑산진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65년~1759년 어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세기 말엽에 간행된 『대동지지』에 의하면, 흑산진의 위치가 기술되어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흑산진은 우이도에 있다. 설진초기에 별장을 두었다. 수군만호 1명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증보문헌비고』에 島嶼名이 혼용되어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 즉 “흑산도는 일명 우이도이다.水路 30여리, 둘레 30리, 별장진이 있다. —대흑산도는 옛 흑산현이다. 둘레 90리, 흑산도 서쪽에 위치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흑산도는 오늘날 도초면 우이도를 지칭하고, 대흑산도는 흑산현이 설치되었던 흑산도 體島를 지칭하고 있다. 이로써 보건대, 흑산진은 우이도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우이도 진리에서 흑산진 관련 유적 유물을 찾을 수 없다.



사진 1. 尹相裕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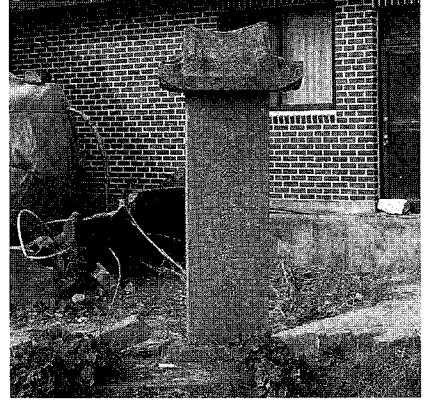


사진 2. 鄭寅培紀念碑



사진 3. 金振五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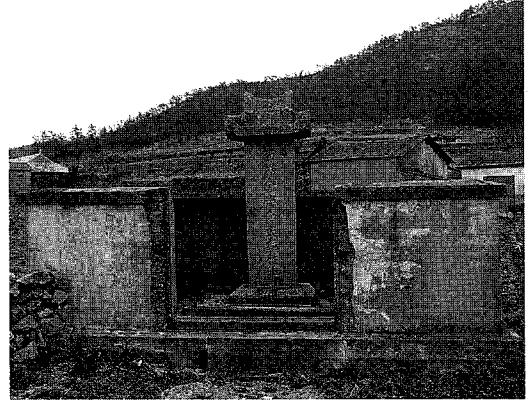


사진 4. 金海金氏紀行碑



사진 5. 大邱裴氏烈行碑



사진 6. 金起山永慕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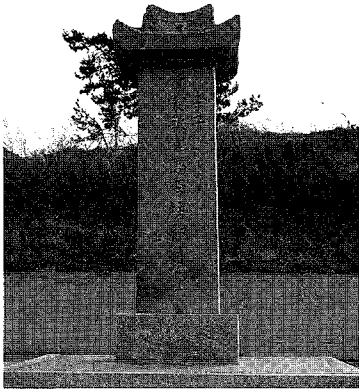


사진 7. 高秀柱紀行碑



사진 8. 高聖權誌蹟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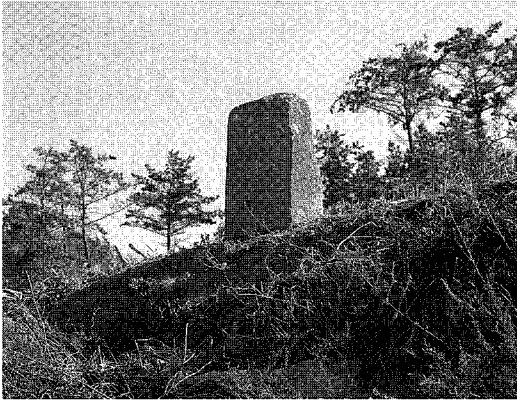


사진 9. 매향비 주변 전경



사진 10. 埋香碑



사진 11. 咸陽朴氏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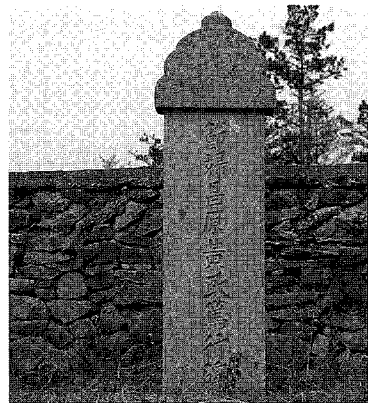


사진 12. 昌原黃氏篤行碑



사진 13. 崔炳煥·金喆善·池在日
施惠不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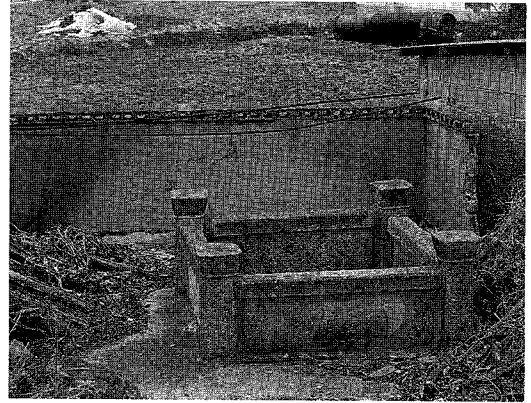


사진 14. 金江井



사진 15. 金龍舉紀蹟碑



사진 16. 朴泰浩文行碑



사진 17. 全州李氏烈行碑



사진 18. 박도삼기념비



사진 19. 密陽朴氏事蹟碑



사진 20. 忠魂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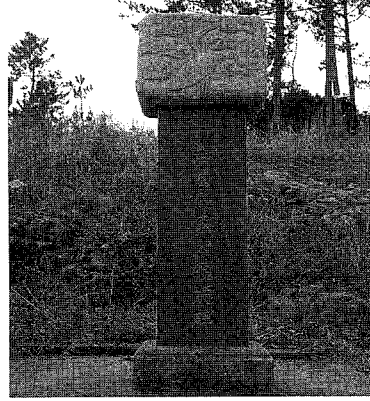


사진 21. 金谷大頌德碑



사진 22. 金璟在不忘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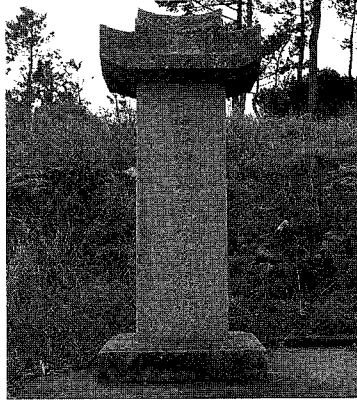


사진 23. 朴正允頌德碑



사진 24. 金弼鎬孝行碑



사진 25. 高祥珉不忘碑



사진 26. 지동마을 비석군



사진 27. 文根則紀行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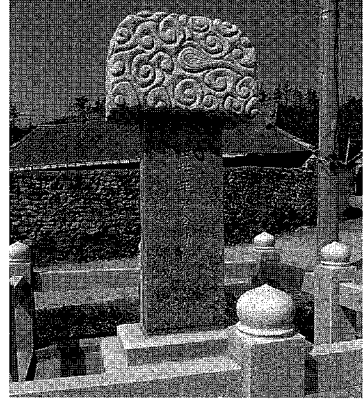


사진 28. 尹碩俊紀念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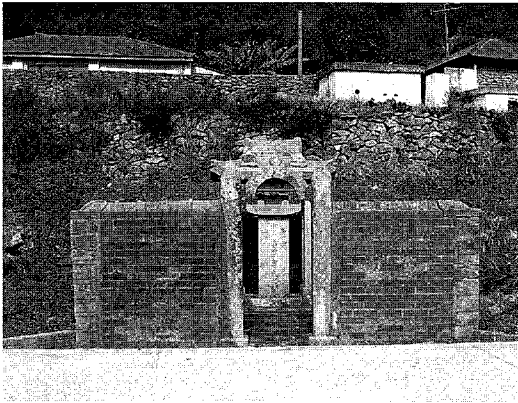


사진 29. 昌寧曹氏旌閭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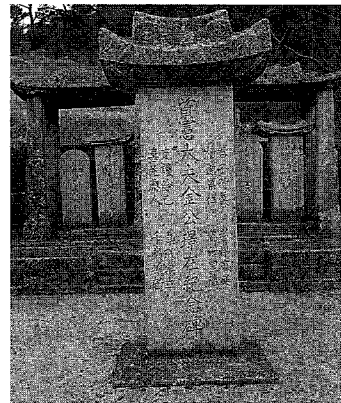


사진 30. 金海金氏孝烈碑閣



사진 31. 金權一·光山金氏 孝烈閣



사진 32. 金環趾·草溪崔氏 孝烈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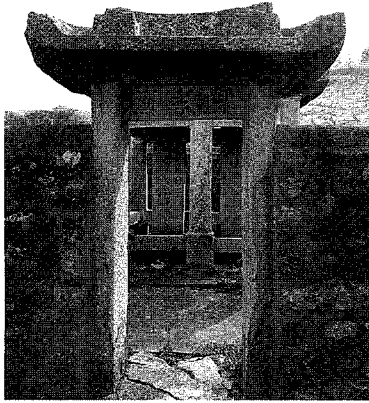


사진 33. 金海金氏烈女碑閣



사진 34. 密陽朴氏烈女碑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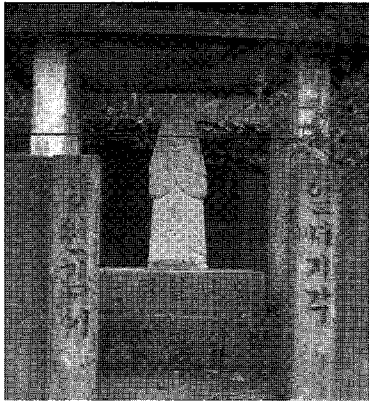


사진 35. 密陽朴氏烈女碑閣(우이도)



사진 36. 朗州崔氏門中齋閣



사진 37. 永慕祠



사진 38. 문순득의 표해록

3. 주거문화자원

1) 주거문화자원 목록

전통주거는 과거 마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습에 따라 건립되었다. 즉 전통민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선조들이 우리의 삶에 맞게 여러 검증을 통해 완성해 놓은 정주 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이 있고 유·무형의 다양한 전통문화요소가 깃들여 있다. 본 조사는 전통민가를 단순히 옛 가옥, 또는 감정 가치로서의 인식에 머물지 않고 이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즉 의미 있는 과거의 주거 문화 특성을 찾아내서 이를 자원화 하는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채택된 농어촌 주택들은 대부분 지역의 전통 주거문화가 철저히 배제된 채 서구적 개념의 도시형으로 되어 있다. 향후 지역의 사회구조와 정서에 맞는 주거 개발이 필요하다. 이때 의미 있는 전통주거의 개념과 설계 요소들이 거기에 도입된다면 한국주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 조사가옥 목록

순번	가옥명	소재지	건립연대	건물구성	비고
1	박리레 가옥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800년대 중	안채, 측간채	
2	김담이 가옥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98번지	1930년경	안채, 측간채	
3	공가 1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267번지	1900년대 초	안채	
4	김창단 가옥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183번지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5	고상례 가옥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838번지	1845년	안채	
6	박명심 가옥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216번지	1930년경	안채, 헛간채	
7	김순안 가옥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29번지	1930년경	안채, 행랑채	
8	최서운 가옥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1940년경	안채, 측간채	
9	문영순 가옥	신안군 도초면 남포리 1103번지	1940년경	안채	
10	장신엽 가옥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382번	1940년경	안채, 헛간채	
11	최매실 가옥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111번지	1930년경	안채, 측간채	
12	공가 2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60번지	1920년경	안채, 측간채	
13	고송엽 가옥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575번지	1920년경	안채, 측간채	
14	공가 3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79번지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15	고화임 가옥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226번지	1900년경	안채, 측간채	
16	박순에 가옥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244	1900년대 초	안채, 측간채	혈림
17	고홍길 가옥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469	1850년경	안채, 행랑채	혈림
18	박은일 가옥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12151	1800년대 말	안채, 측간채	혈림
19	김 승 가옥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1130	1800년대 중	안채, 행랑채	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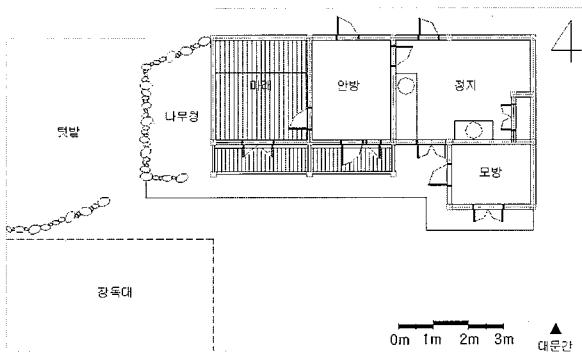
〈표 1〉은 도초의 전통주거 조사현황이다. 19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도초에는 1800년대에 건립된 많은 전통가옥이 있었으나(특히 지남리, 발매리 등) 현재는 원형을 갖춘 옛 가옥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가옥들은 비록 지붕개량과 일부 개·보수가 되긴 했어도 그나마 도초의 전통주거로서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가옥들이다. 목록에서 16, 17, 18, 19번 가옥은 필자가 1988년도에 조사한 가옥이나 현재는 훼손되고 없다. 조사 당시 원형 그대로였던 주택으로 주거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2) 주거문화자원 현황

(1) 건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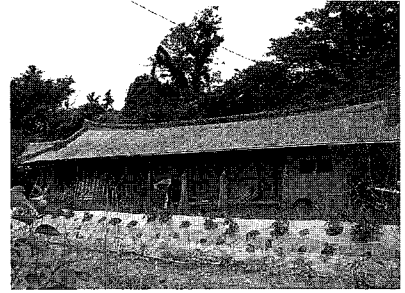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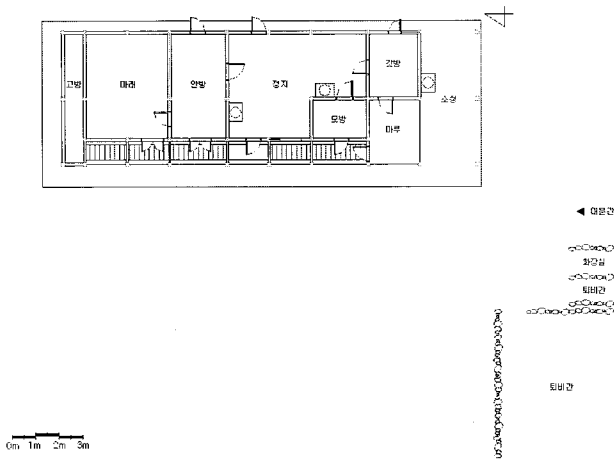
① 박리혜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 건립연도 : 1850년대 중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앞, 신안 도서지방 민가의 전형적 평면구조.



② 김답이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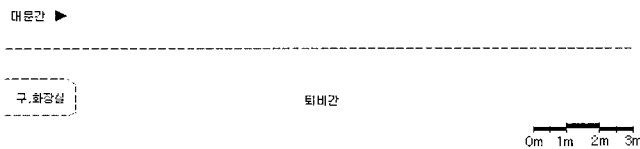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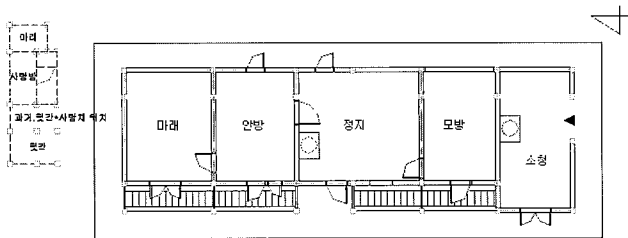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98번지
- 건립연도 : 1930년경
- 가옥특성 : 전면7칸으로 규모가 큼. 정지가 무척 크고 우측으로 평면구성이 다양 (갓방 등)



③ 공가1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267번지
- 건립연도 : 191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측면에 배치된 일자형 평면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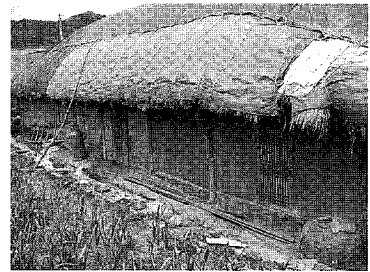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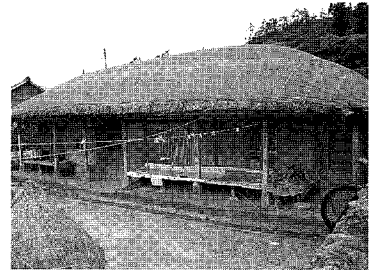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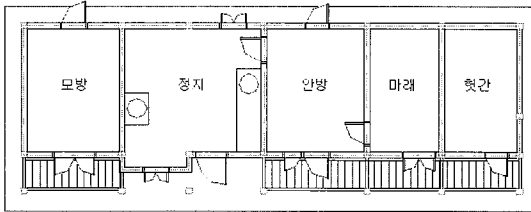
이 유형은 전남 남해도서(완도군)의 주 구조임.



④ 김창단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183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마래 옆으로 1칸 헛간 설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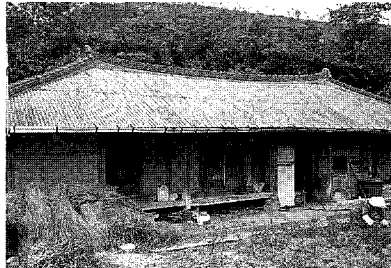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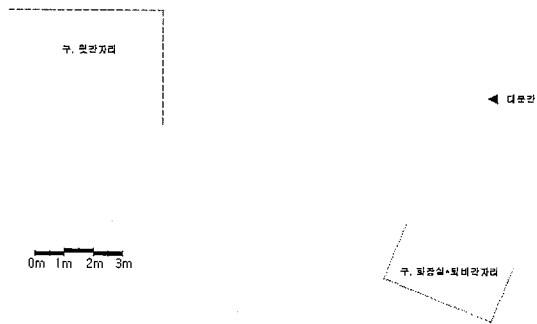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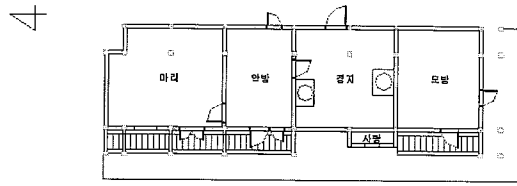
0m 1m 2m 3m

화강실 ▲ 대문간

⑤ 고상례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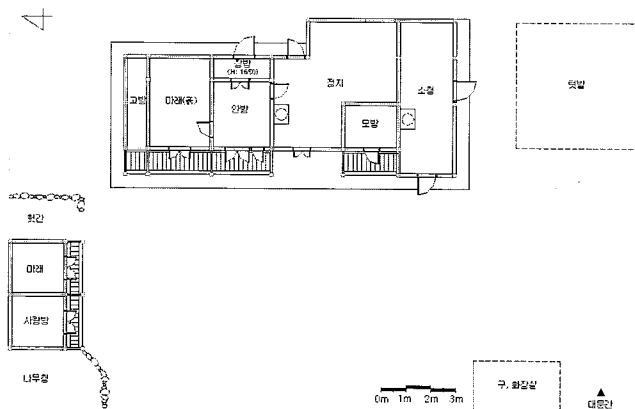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838번지
- 건립연도 : 상량 '道光二十年乙巳...' (1845년)
- 가옥특성 : 일자형 평면구조. 좌·우측 퇴칸





⑥ 박명심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216번지
- 건립연도 : 1930년경
- 가옥특성 : 정지 옆으로 1칸 소청 설치. 안방 위쪽에 장반(수납공간)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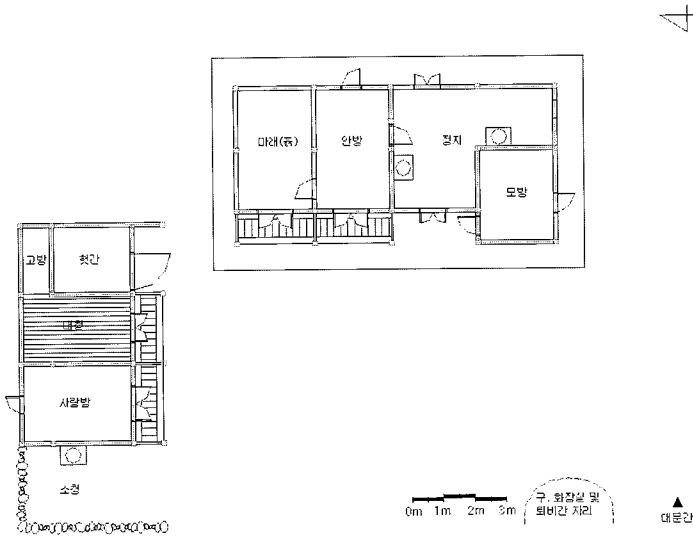
⑦ 김순안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29번지

· 건립연도 : 1930년경

· 가옥특성 : 안채와 행랑채로 꾸며진 전형적인 ‘ㄱ’자 배치.

모방이 정지 안쪽으로 드러진 ‘ㄱ’자형 가옥, 모방이 다소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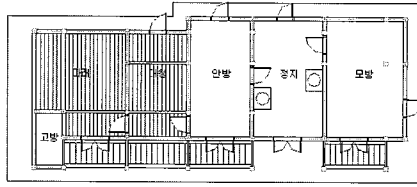
⑧ 최서운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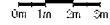
· 건립연도 : 1940년경

· 가옥특성 : 마래와 안방 사이 1칸 대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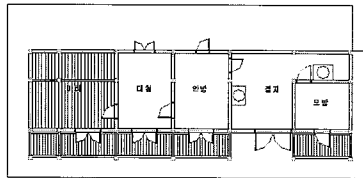
대문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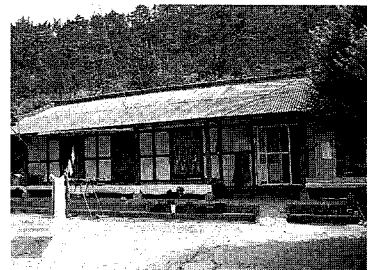
⑨ 문영순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남포리 1103번지
- 건립연도 : 194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완전히 정지 안쪽으로 들어선 'ㄱ'자형 가옥.

마래와 안방사이 대청배치. 이러한 평면은 서남해 도서지방에서 보기 드문 형태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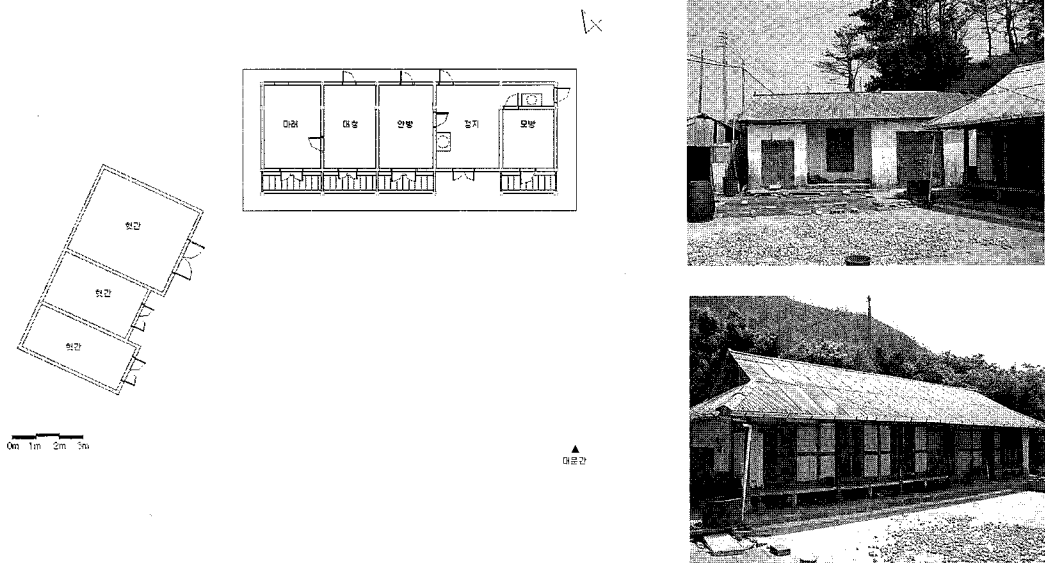
4

◀ 대문간



⑩ 장신엽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382번지
- 건립연도 : 194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다소 큼. 'ㄷ'자형 가옥. 마래와 안방사이 대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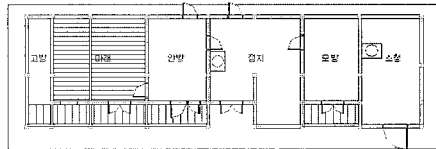


0m 1m 2m 3m

▲ 대청간

⑪ 최매실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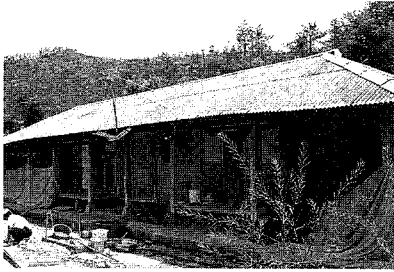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111번지
- 건립연도 : 1930년경
- 가옥특성 : 모방 옆 1칸 소청 설치. 마래 옆으로 긴 고방 설치.



▶ 대청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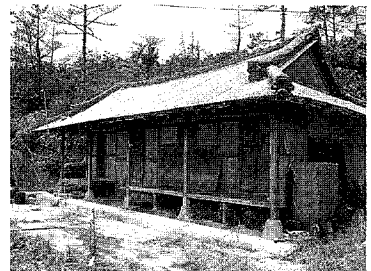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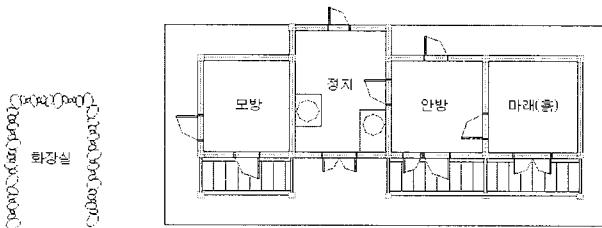
최매실
최이간

0m 1m 2m 3m



⑫ 공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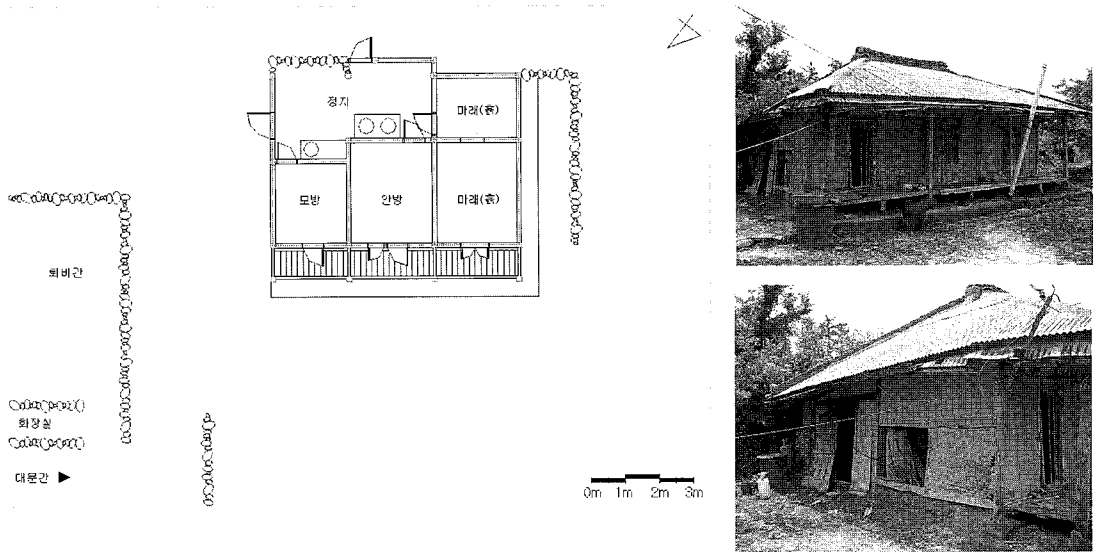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다리 60번지
- 건립연도 : 192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우측면에 배치된 'ㄱ' 자형 가옥



대문간

⑬ 고송엽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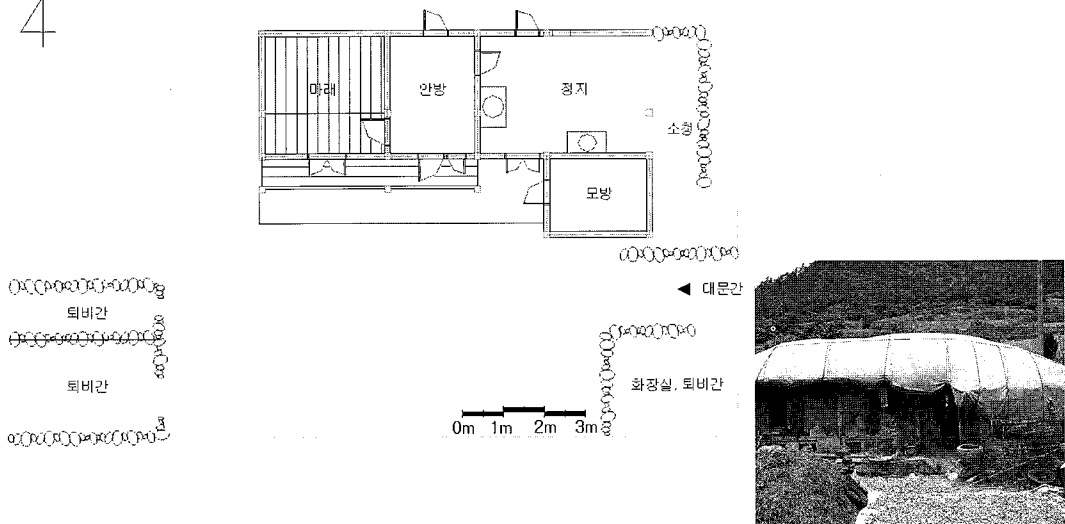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575번지
- 건립연도 : 1920년경
- 가옥특성 : 이 가옥은 도초 뿐만 아니라 전남의 어느 도서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구조의 가옥이다. 상·하 1열로 평면이 짜여져 있는데 정지가 후면에 있고 마래가 우측에 위·아래로 분리되어 있다.



⑭ 공가 3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79번지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앞쪽에 드러진 'ㄱ' 자형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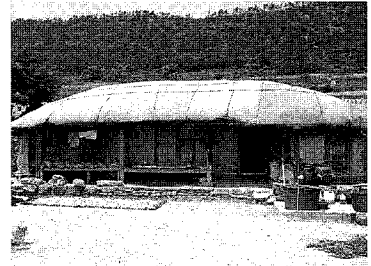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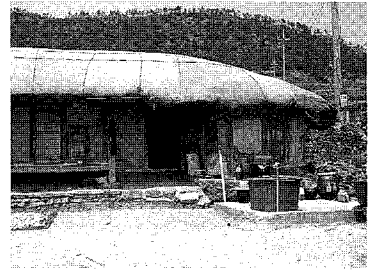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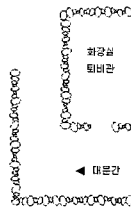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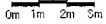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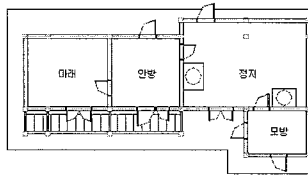
4



⑮ 고화임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226번지
- 건립연도 : 1900년경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앞쪽으로 완전히 나온 'ㄱ'자형 가옥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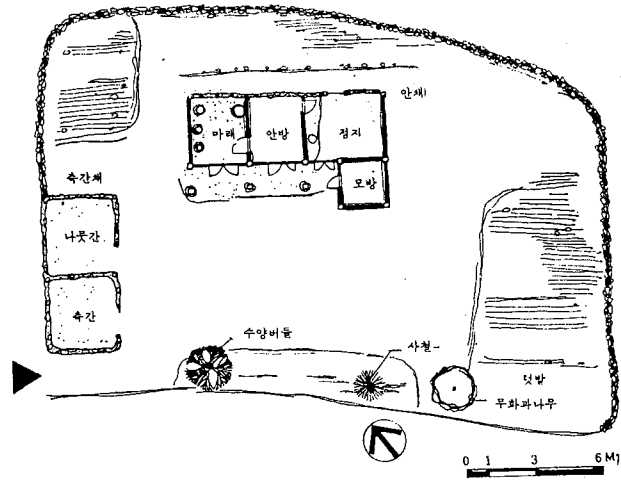


⑯ 박순예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244
- 건립연도 : 1900년대 초
- 가옥특성 : 모방이 정지 앞쪽으로 완전히 나온 'ㄱ'자형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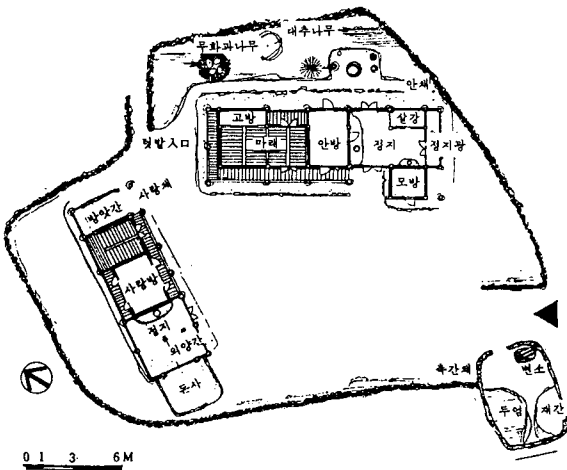
마래와 전면 퇴간-흙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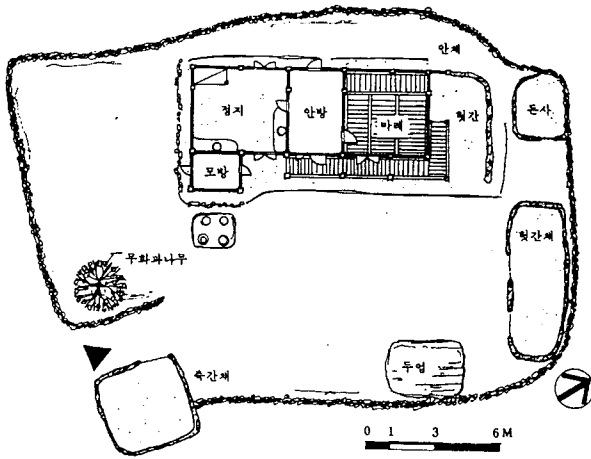
⑰ 고흥길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469
- 건립연도 : 1850년대
- 가옥특성 : 'ㄱ' 자형 가옥. 마래와 정지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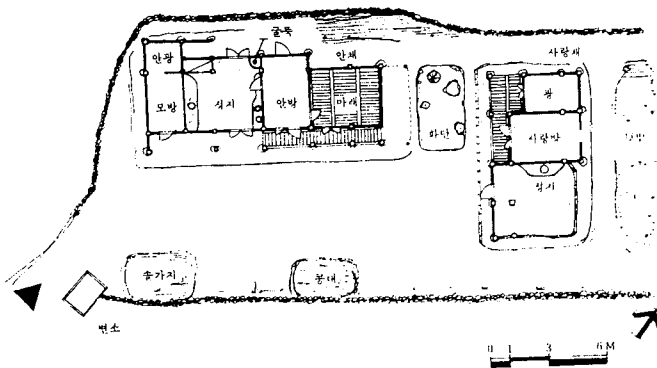
⑱ 박은일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1215
- 건립연도 : 1800년대 말
- 가옥특성 : 모방이 아주 작음. 'ㄱ' 자형 가옥.



⑲ 김 승 가옥

-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지남리 1130
- 건립연도 : 1800년대 중
- 가옥특성 : 굴뚝을 정지 내부에 둠. 모방이 정지 옆에 온 'ㄱ' 자형 가옥.



(2) 가옥구성 특성

① 건물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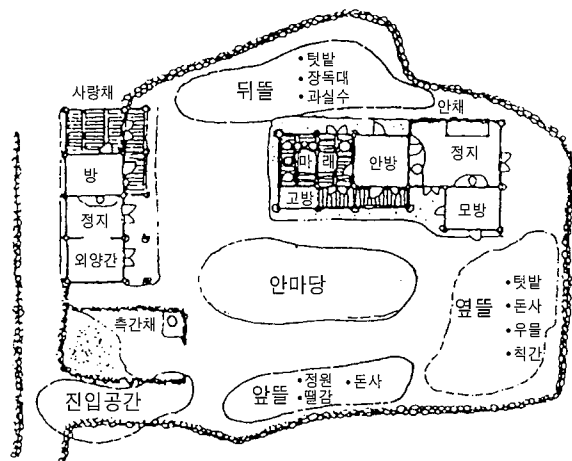
가옥의 대지 내 건물 배치형식은 일정한 유형으로 단순화 되어있다. 건물구성은 가옥의 기본이 되고 있는 안채가 꼭 있고 이 외에 사랑채(행랑채)가 있다. 사랑채는 모든 가옥에서 건립한 것은 아니고 가옥구성과 경제능력에 따라 건립이 되었다. 사랑채의 건립 시기는 보통 안채보다 늦게 나타난다. 기타 돈사와 헛간채가 가옥에 따라 건립되기도 한다.

세부적인 배치형태는 마을이나 입지환경에 관계없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오직 안채만이 대지의 중앙 안쪽에 단독으로 건립된 'ㄱ'자형이며, 다른 하나는 사랑채가 안채 전면의 좌측 내지는 우측에 독립으로 놓여져 안채와 함께 구성된 튼 'ㄱ'자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 외에 안채의 전면에 건물이 들어서는 'ㄷ'자형이나 또는 'ㄷ'자형, 'ㄹ'자형의 건물배치형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는 이 지역 다른 도서 및 전남 내륙지방에서도 거의 같다. 이러한 개방적인 'ㄱ'자형 배치는 가옥이 전체적으로 밝고 또한 안마당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서지방 전통민가의 외부공간은 다른 지방에서와 같이 민가가 갖고 있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다양성은 찾아볼 수 없고 거의 일정하게 유형화 되어 있다. 3가지로 유형화 시켜 그 성격을 알아보면

첫째, 마을길에서 가옥내부로 들어오는 진입공간을 들 수 있는데 이곳 입구에는 대문이나 그 밖의 어떤 장치물 없이 바로 마을 안길에서 담장사이에 난 약 1.5m의 통로를 통하여 안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많은 가옥에서 앞마당이 바로 보이지 않게 입구의 담장을 변화 있게 처리하였다.

둘째, 안마당으로 불리우는 안채 전면의 공간이다. 사랑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면과 한데 어울려져 형성된다. 기능은 다른 지방과 같이 다양한 용도로 쓰여지는데 이 지역에서는 주로 땀감저장이나 텃밭, 화단조성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쪽 모퉁이



〈도서 전통민가 구성 사례〉

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한 두 그루 심어지기도 한다.

셋째, 안채 후면의 뒤뜰이 있다. 이곳은 비록 넓지는 않으나 정지의 뒷문과 이어져 장독대, 우물 등이 설치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장독대 뒤쪽으로는 지형상 축대를 형성하여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또한 담장 가까이로는 감나무 등의 과실수가 심겨져 있다.

② 내부공간 구성

내부공간(안채)은 안방, 정지, 마래, 모방의 4실이 주가 되어 기능적으로 조합, 공간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 외 툇마루, 헛간, 소청, 갓방 등의 공간도 가옥에 따라 안채를 구성하는 주요 실도 등장한다. 각 실의 배치는 조사가옥 19채를 유형화 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4가지 타입으로 나타난다.

· A타입

마래, 안방, 정지, 모방의 4실로 이루어진 형식이다. 이 경우 모방이 전면의 퇴주선(退柱線)보다 약 1m 정도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어 ‘—’자형 평면이지만 ‘ㄱ’자형을 연상케 한다. 조사가옥 중 6채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유형은 도초도 뿐만 아니라 다른 신안 도서의 민가 형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패턴이다. 그러나 먼 바다에 위치한 흑산도지역의 가옥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특히 주목된다.



· B타입

앞의 유형과 유사한 구조이나 모방이 정지 안쪽으로 반쯤 침투되어 있어 완전한 ‘—’자형을 이루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지공간이 축소되는 반면 구조적으로는 단순화되고 있다. 3가옥이 이 유형을 취하고 있다.



· C타입

모방이 정지 전면 쪽에 있지 않고 완전히 측면에 가는 형식이다. 모방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출입을 전면 툇마루를 통하게 되어있다. 6가옥이 이 유형으로 되어 있다.



· D타입

안방과 마래 사이에 1칸 대청을 둔 가옥이 3채가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른 도서에서도 간혹 보이는데 건립 시기는 주로 20세기 이후 가 되고 있다. 본 조사가옥은 20세기 중반이다.



위 4가지 타입 외에 조사목록 2번 가옥은 정지 옆으로 1칸이 추가되어 갓방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안좌도 등 다른 도서에서도 보인다.

각 실의 규모 및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기능이란 실의 이용실태를 말하는 것으로 가급적 가옥들이 지어진 19C의 주생활에 맞추어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 안방 : 안방은 정지와 마래 사이에 위치한 안채의 주공간이다. 그 규모는 전면이 219cm에서 261cm사이, 측면이 206cm에서 461cm사이로 평균 전면이 244cm, 측면이 329cm이다. 방의 면적은 평균 8㎡(2.4평)이다.

㉡ 정지 : 안채 내에서 제일 큰 면적(평균 14.1㎡, 4.3평)을 차지하는 곳으로 평균 전면이 398cm, 측면은 후퇴까지 포함하여 354cm 크기로 나타난다. 전면은 대부분 가옥이 2칸으로 되어 있다.

정지의 주 기능은 취사와 난방을 위한 불때기 작업이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 작업공간으로도 쓰여진다. 정지내의 시설물로는 부뚜막 이외에 사랑(살강)등이 있고 기타 정지광이나 별도의 나뭇간 등을 정지 한쪽 편에 둔 가옥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가옥에서는 벽과 천장이 새까맣게 그을려져 있어 취사와 난방을 전적으로 아궁이를 통한 빨감에 의존했던 옛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 마래 : 안방 보다 큰 평균 11.1㎡(3.4평)의 면적을 갖고 있는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공간이다. 모방이 없는 가옥에서도 마래만큼은 가옥의 규모에 관계없이 꼭 갖추어져 있다. 크기는 전면이 평균 305cm, 측면은 365cm으로 규모가 좀 큰 가옥에서는 정지와 같이 전면을 2칸으로 하고 후퇴 간까지 넓혀져 있다.

“마래” 또는 “마리”라고 불리워지는 이 실의 호칭은 “마루”의 이 지역 방언으로 바닥의 구조는 마루널 내지는 흙바닥과는 관계없이 기능에 의해 마래라고 불리운다. 현재 도초의 많은 가옥에서는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흙바닥으로 된 가옥도 있다. 흙바닥으로 된 가옥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열악하다. 최근에 이 위에 시멘트 몰탈로 마감한 가옥도 있다.

이 실의 기능은 내륙지방의 광과 비슷하다. 이곳에는 곡물을 넣은 비교적 큰 항아리가 벽선에 따라 1열로 놓여지고 다시 그 위로 작은 항아리가 얹혀진다. 기타 살림도구, 자주 쓰이지 않는 부엌기구, 제사용구 등이 보관된다. 이러한 수장의 기능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조상의 신위를 모신 감실장을 후면 벽 쪽에 설치하여 제사공간으로도 이용한다. 감실장 없이 “독”이라고 하는 조그

마한 나무상자로 대신하여 선반에 올려놓는 경우도 있다. 현재는 몇몇 가옥에서만 이러한 시설이 잔존하고 있으나 과거에는 거의 모든 가옥에 감실장이 있었고 제사공간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㉔ 모방 : 평균 6.3㎡(1.9평) 규모의 작은방으로 그 크기는 전면이 222cm에서 294cm사이, 측면은 170cm에서 438cm사이로 가옥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개 성장한 자녀, 또는 아들이 결혼한 후에는 아들부부가 거처한다. 정지 내부 쪽으로는 문이 없어 출입은 전면으로만 토방내지는 툇마루에서 하게 되어있다.

현재 부부만이 거처하는 가옥에서는 이곳에 각종 살림도구, 곡물 등을 보관하고 있다.

㉕ 사랑 : 정지 출입문 옆의 전퇴부분에 설치한 정지내의 유일한 수납공간(찬장)이다. 보통 2단 정도로 선반이 드러져 있고 그 위에 그릇 등이 얹혀진다. 서남해 다른 도서에서는 대부분 정지 앞으로 모방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랑은 뒷문 옆 툇간에 또는 툇간이 없을 경우에는 벽선 밖으로 달아내어 설치된다.

㉖ 툇마루 : 대부분 가옥에서 안방과 마래 전면의 퇴간에 마루를 설치한다. 모방이 있는 가옥에서는 그 전면에도 툇마루를 설치하나 토방으로 꾸민 가옥도 상당수 나타난다.

4. 유형문화자원의 활용방안

1) 고고문화자원의 활용방안

도초면의 조사에서는 우이도에서 패총이 확인되었다. 패총은 당시의 사람들이 식생활에 이용한 식자원을 한곳에 폐기한 것이 퇴적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패총을 조사하면 당시 사람들의 경제활동, 식자원 등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이도의 입지를 생각하면 이는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우이도는 사구가 유명한 탓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므로 이들 관광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관광객이 사구를 둘러보고 바닷가를 거닐다 돌아가게 할 것이 아니고 패총을 발굴 조사하여 당시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 보아 우이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

(1)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활용

도초서초등학교는 지남리 지북~지남마을 뒤편에 위치한다. 2005년 3월에 폐교되었다. 교문 안쪽에 목장승이 담장 밖을 내다보고 서 있고, 교문 앞 주택가(舊 교사 사택) 담장에는 폐교되기 이전에 학생들의 의해 그려진 벽화(서남문대교, 효녀 심청 등)가 있다. 지남리는 불섬나루에서 자동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한다. 선착장에서 지남리까지 도로가 열려 있고, 지남리~오류리(죽도)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오류리 바닷가에 시목해수욕장이 위치한다. 폐교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 여름캠프의 場으로 활용

현재 도초도의 숙박시설은 불섬나루와 면사무소가 있는 나박포 일대, 그리고 오류리 시목해수욕장 인근에 입지한 민박이 전부이다. 선착장에 위치한 여관은 식당(회타운)을 겸하고 있어 商圈이 형성되어 있다. 주로 우이도와 목포 선박들의 입출항과 관련된 공간이다. 또 면사무소가 위치한 나박포 일대의 식당가는 빈약하고, 숙박시설은 오래전에 설립되어 낙후되었다. 또 해수욕장이 있는 오류리 시목동 역시 해수욕장 인근에 여름철 민박이 운영되고 있지만, 역시 시설이 낙후된 상태이다.

이처럼 도서지역의 체험학습이나 문화자원을 탐방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숙박시설의 부족이다. 특히 단체를 맞이할 수 있는 체류 공간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폐교 공간을 “여름캠프(숙박가능)” 혹은 “계절별 체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나. 향토문화관으로 활용

도초서초등학교의 교정은 교실 2동과 운동장이 있다. 이 공간을 지역향토문화관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이 곳에 도초도의 과거와 현재(역사와 문화), 혹은 서남문대교 건설에 따른 교각 관련 문화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 장승학교(혹은 문화학교)의 운영

도초도 외남리 외남마을과 고란리 고란마을에는 도서지역을 대표할 만한 석장승이 위치한다. 또 서남문대교로 연결되는 비금도 월포마을에도 도초도에 버금가는 석장승이 있다. 따라서 폐교를 장승과 관련된 “장승학교” 혹은 “문화학교”를 운영·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석조로 조

성된 효열각(만년리와 죽련리의 효열각) 등을 비교 관찰할 수 있는 “문화학교”로 운영할 수 있겠다.

(2) 섬주민들의 생활문화자원-우물과 공적비-

도초도 내 각 마을에는 주민들의 식수를 제공하였던 옛 우물이 보존되어 있다. 우물의 양식은 목조건축물의 기둥을 모방한 듯, 둥근 기둥모양을 四面 모서리에 각각 세워 네모형 석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형의 우물이 현재 도초도에 분포하고 있다. 즉 발매리 발매마을 南一井, 지동리 지동마을 河井, 죽련리 신교마을 錦江井, 오류리 오류마을 공동우물 등이 그것이다. 현전하는 도초도 우물의 양식을 보면, 외형적으로 상호 닮아 있다. 이로써 보면, 동일한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죽련리 신교마을의 경우, 금강정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고, 우물 바로 옆에 <崔炳煥·金喆善·池在日 施惠 不忘碑>라 새겨진 비석 1기가 서 있다. 이 비석의 비문에는 우물 조성 당시의 배경과 경과보고가 기록되어 있어 매우 흥미롭다. 비석의 주인공은 금강정을 시축할 때 토지와 공사비용을 제공한 인물들이다. 즉 최병환은 우물터를 제공하였고, 김철선과 지재일은 공사비 250원을 기부하였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이들의 공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41년에 불망비를 건립하였다.

(3) 연도교 건설로 인한 관광자원 개발과 자료관 건립

신안 섬을 비롯하여 진도군과 완도군 등지에는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도교와 연육교가 완공되어 있거나,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앞으로 방문객은 섬 하나를 방문하면 인근 해역에 입지하고 있는 부근 도서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권역별·도서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도초도의 경우, 1996년 8월에 도초-비금도를 연결하는 교각이 준공되었다. 때문에 도초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도초도와 우이도권, 도초도와 비금도권을 상호 연계하여 도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초도-우이도권의 경우, “섬 속의 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즉 우이도는 도초도의 부속도서이다. 도초도는 內海에 입지하고 있는 반면, 우이도는 큰바다를 건너야만 당도하는 外海에 위치한다. 따라서 도초도는 섬이지만, 농촌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고, 우이도는 큰 바다에 입지하고 있어서 어촌의 풍경을 관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초도와 우이도 양 섬을 연결하는 바닷길 체험, 우이도 현지에서 섬 주변을 관찰하는 유람선 여행 등도 개발 가능한 자원이다.

반면에 도초도와 비금도권은 동일한 해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검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섬마을이라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현전하는 역사유적의 외형이 돌을 쌓거나 바위를 쪼개서 조성되어 있다. 즉 마을 입구에 세워진 석장승, 海風을 막기 위해 설치한 우실, 해양 방어를 위해 쌓은 城, 효자와 열녀의 행실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孝烈碑閣,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해 주었던 우물 등을 통해 섬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생활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도교 및 연륙교 등 橋脚 관련 자료관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자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다. 물론 현재 건설되어 있는 교각의 환경 미화와 주변 경관에 대한 부연 설명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섬과 바다에 설치하는 교각 건설 공사에 대한 정보, 혹은 과거 우리나라에 설치되었던 교각들의 분포와 특징, 사례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표류와 유배 관련 자료관 운영

섬은 육지와 단절된 입지적 조건을 지닌 곳이다. 따라서 국외로 향하는 초입이기도 하고, 동시에 내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이기도 하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 섬에 隔離되거나, 스스로 入島하였다. 즉 전자는 유배인이고, 후자는 주민들이다. 이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섬에 상륙한 사람들도 있다. 즉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혹은 상업을 목적으로 바다에 나갔다가 돌풍을 만나 낚신 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즉 표류민이다.

이렇듯 섬과 바다는 국내의 사람들을 상호 연계하는 기착지이기도 하였다. 전통시대 동북아 사람들은 바다에서 표류한 조난자들에 대해 특별한 대우와 보호, 안전한 귀환을 도왔다. 간혹 언어가 통하지 않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표류민에 대한 국제간 협력은 우호적이었다.

이러한 사례가 우이도 사람 문순득의 표류경험에서 찾아진다. 문순득이 아무런 준비 없이 바다에서 표류되어 무려 3년 동안이나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귀환한 섬주민이다. 반대로 海路를 따라 중국인과 일본인도 서남해 도서지역으로 표류되어 오기도 하였다. 이 때 중앙정부는 통역관을 지방으로 파견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표류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 귀환 등에 따른 제반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들 표류민에 대한 귀환 절차와 송환 장소는 중앙정부가 정한 곳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표류민이 최초로 발견된 지점부터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이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런 사례가 “표해록”으로 전해오고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의 경우, 해남사람 최부의 표해록, 제주도 사람 장한철의 표해록, 그리고 우이도 사람 문순득의 표해록 등이 전해온다.

이 가운데 문순득 사례를 살펴보면, 19세기 초, 우이도 사람 6명이 인근 섬 태사도로 홍어를 구입 하러 나갔다가 바다에서 표류되었고, 오키나와·필리핀·중국을 경유하여 조선에 무사히 귀환하였다. 즉 3년 2개월 만에 고향인 우이도로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섬주민의 표류전말을 전해들은 유배인 정약전이 표류자의 체험을 매우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후세에 전해 주고 있는 점이다.

이처럼 섬과 바다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던 사건과 사고를 통해 해당 지역 국가 혹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다양한 구술자료를 수집하여 자료관에 전시한다면, 학생들의 교육 및 외지인의 체험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관의 운영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보다는 無人으로 운영하는 자료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관리자의 설명 없이도 탐방자 스스로가 해당 지역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세밀한 전시기획이 요구된다.

3) 주거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우리 주변에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많은 문화자원이 있다. 전통건축도 그 중의 하나다. 전통건축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 준다.

첫째, 감성가치를 제공 해 준다. 초가삼칸집, 웅장한 궁궐 등 옛 집은 우리에게 옛 생각 등 감성을 유발 시킨다.

둘째, 역사적 가치이다. 건축물은 지어질 당시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사찰건축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주택은 인간 삶의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따라서 전통건축은 형체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요, 역사현장이다.

셋째, 조형 예술사적 가치가 있다. 건축은 종합예술의 결정체로서 모든 각각의 형태와 요소는 기술적인, 조형적인 측면에서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산업화 이후 전통주거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졌고 심지어는 존재의 의미조차도 찾지 못하게 됐다. 그 이유는 건축 구조적인 측면과 경제성 등에서 이른바 현대식 주택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거를 일상의 살림집이 아닌 다른 측면으로 자원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전통계승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1) 개별 전통가옥의 보존

현재 각 마을에는 초가집은 아니나 내부구조는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집, 특히 빈집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집을 원형으로 복원하여(마을별 2~3채 정도, 또는 2~3개 마을을 묶어 3~5채) 마을의 정체성을 갖게 해 준다. 외지에 사는 도서민이 고향을 찾을 때 텃자리의 의미도 갖게 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잠시 찾는 소그룹 외지인에게 임대(숙박업)를 한다.

특히 도초는 자연경관이 뛰어나 도서관광의 명소로 그 지명도가 다른 도서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하절기에는 숙박업소가 크게 부족한 편이다. 바다냄새가 물씬 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통가옥에서의 하룻밤은 또 다른 도서관광의 낭만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물론 문화권이 다르겠지만 안동시의 경우 고가옥 전통체험 상품에 하루 300여명이 꾸준히 찾고 있다.

1차 관리와 보수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군에서는 통합관리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 가령 인터넷에서 '신안 도서 전통가옥 체험' 만 클릭하면 홍보부터 예약까지 가능하게끔 한다.

(2) 집단 전통가옥의 복원

민가(초가)는 개별적인 건축보다는 집단적으로 있을 때 낙안 민속마을처럼 그 효과가 커진다. 민가는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그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도초의 경우 어느 한 마을을 선정, 여러 채의 전통가옥을 민속자료와 함께 복원하여 집단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세트는 도서의 전통마을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 교육(초, 중, 고 학생의 교육 캠프)과 향수의 장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벤트사업 (영화촬영장, 민속공연 등)의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은 지남리 마을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아직도 옛 들담, 공가, 옛 집터 등이 많이 남아 있다.

Ⅲ. 무형문화자원

1. 어로문화자원

1) 어로문화자원 목록

번호	제목	제보자	제보지역	조사일자	비고
1	간재미잡이	이부산(남, 70)	화도리	2005. 6. 18~19	
2	장어잡이	"	"	"	
3	우럭잡이	"	"	"	
4	게잡이	"	"	"	
5	병어잡이	김길장(남, 63) 배성희(남, 50)	시목리	"	
6	감성돔, 농어, 잡어	"	"	"	
7	낙지잡이	김영희(여, 57)	도락리	"	
8	서령게잡이	"	"	"	
9	천일염 제조	김영희(여, 57) 문호남(남, 57)	도락리, 발매리	"	

2) 어로문화자원 현황

도초도는 동쪽으로 내해를 바라보고 있고, 서쪽으로 외해를 바라보고 있다. 또한, 동쪽에는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서쪽에는 갯벌이 발달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연조건은 사람들의 생업방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즉,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서쪽 연안 사람들은 대부분 천일염 제조업과 갯벌어업을 한다. 반면, 동쪽 연안 사람들은 바다를 생업으로 하는 어가의 대부분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다.

이러한 생업적 특징을 고려하여 주낙어업을 주로 하는 화도리와 염전업을 주로하는 도락리, 정치마당 어업을 주로하는 시목리 등 세 마을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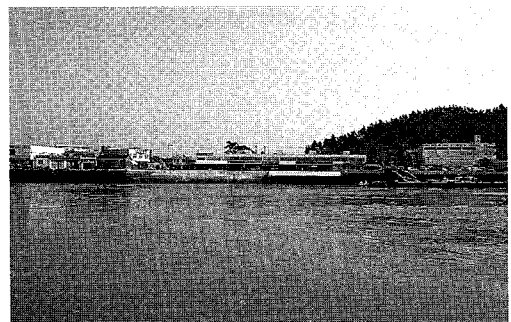


사진 1. 도초면 화도리 선착장

(1) 화도리의 어로활동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이부산(남, 70)

화도리는 비금도 송치와 마주보고 있고, 비금도 도초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고 목포로부터 입항하는 객선이 입항하는 곳이다. 또한, 면사무소가 있는 수항리와 더불어 가장 발달되어 있어서 횃집이나 민박집이 많이 들어서 있다.

화도리에서는 주낙을 이용한 간재미, 장어, 우럭잡이 등을 한다. 주낙으로 어로활동을 하는 집은 6가구 정도다. 계절별로는 봄에 간재미를 주로 잡고, 여름에는 장어, 가을에는 우럭 등을 잡는다. 그 외에 돔과 농어, 새우, 병어, 갑오징어 등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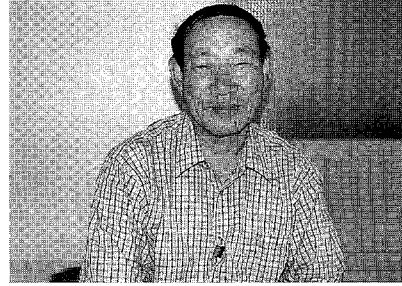


사진 2. 도초면 화도리 이부산(남,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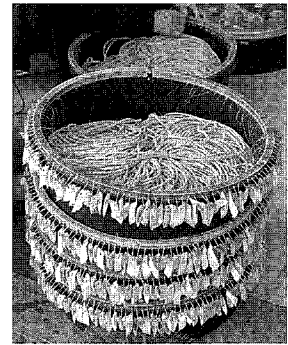


사진 3. 도초면 화도리의 주낙 미끼작업

① 간재미잡이

간재미잡이의 어로시기는 양력 12월부터 5월까지이다. 5월이 지나면 산란을 하고 깊은 바다로 내려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이 시기에 항상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조금때부터 사리가 가까워지기 전까지 작업을 할 수 있다. 음력으로 8일(23일)이 조금이고, 이 때 이후로부터 5일 정도 작업을 한다. 사리때 조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물의 흐름이 빨라 낚시를 놓기 힘들뿐만 아니라 작업을 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작업구역은 바닥이 모래와 진흙으로 뒤덮인 곳이다. 바다의 바닥을 '걸밭'과 '빨밭'으로 구분한다. 걸밭은 바닥이 자갈과 수초로 뒤덮인 곳이고, 빨밭은 모래나 진흙으로 뒤덮인 곳이다. 즉, 빨밭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인근에 많이 분포하지만, 주로 조업을 하는 곳은 경치도와 서광도 부근이다.

간재미를 잡기 위해서는 땅주낙을 사용한다. 간재미는 주로 빨밭에 살기 때문에 땅주낙을 사용한다. 땅주낙은 낚시가 땅에 닿을만큼 밑으로 내려서 잡는 방법이다. 주낙은 보통 20~40여 바퀴를 사용하는데, 한 바퀴에는 100가닥의 낚시를 단다. 추는 20가닥에 한 개씩 단다. 이 추에 의해서 낚시가 땅 밑으로 내려간다. 낚시에 사용되는 미끼는 주로 새우를 사용한다.

조업은 물에서 출발해 돌아오는데까지 5시간 가량이 걸린다. 보통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 2시간

정도이고, 작업하는 시간이 3시간 정도이다. 조업에 관한 일련의 과정은 물때에 따라 정해진다.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에만 잡을 수 있다. 즉, 밀물에서 썰물, 썰물에서 밀물로 이동하는 시점에 잡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주낙을 물 밑으로 내리는 시기는 조수가 바뀌기 1시간 전이고, 위로 끌어올리는 시간은 조수가 바뀌기 시작하는 즈음이다. 조업인원은 1~3명 정도다.

이렇게 조업을 해서 많이 잡는 경우는 150마리 정도까지 잡는다. 적게 잡았을 경우에는 횃집에서 소비하고, 많이 잡았을 경우에는 목포 상회에 판다.

간재미는 무침이나 탕, 회로 먹는다. 간재미를 건조해서 그냥 뜯어먹기도 하고,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한다. 간재미의 껍질은 소화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장에 좋다고 한다. 간재미는 건조해서 껍질을 벗겨 먹는 것 보다, 막 잡은 것을 껍질채 썰어서 먹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② 장어잡이

장어잡이의 어로시기는 양력 5월부터 10월까지다. 11월이 되면 연해에 있지 않고, 먼 바다로 가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한다. 주낙을 사용해 장어를 잡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무렵에 주로 조업을 한다. 이는 주낙을 사용한다는 특징 때문에 사리때에 어로활동을 하는 것이 용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업구역은 우이도 근해와 칠발도 근해, 하의도 근해다. 장어는 걸발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탐기를 사용해 암초나 자갈이 많은 곳을 찾아서 주낙을 놓는다. 조업을 하는 과정은 간재미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 주낙을 놓는 시간은 간조나 만조로 바뀌기 1시간 전에 놓고, 주낙을 끌어올리는 시간은 만조나 간조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주낙으로 작업을 하는 것의 작업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간재미잡이와 장어잡이는 타 어종에 비해 조금 유속이 있을 때 작업을 하는 편이다. 장어잡이의 미끼는 오징어, 고등어, 전어, 송어 등이 사용된다. 주낙은 한 바퀴에 100가닥씩 들어있는 것을 20~40바퀴 정도 사용한다.

장어는 탕이나 회, 볶음 등을 해 먹는다. 주로 구워먹거나 볶음을 해 먹는다.

③ 우럭잡이

우럭은 일년 연중 잡을 수 있다. 이 또한 주낙으로 잡는다. 간재미잡이나 장어잡이와 마찬가지로 조금무렵을 중심으로 조업을 한다. 사리때에는 조업을 하지 않는다. 우럭잡이의 미끼는 전어나 송

어를 사용한다.

조업구역은 우이도 근해와 칠발도 근해, 하의도 근해 등지다. 조업과정은 간재미잡이나 장어잡이와 같다. 다만, 우럭은 간재미나 장어보다 좀 더 유속이 느릴 때 잡힌다. 유속이 가장 느릴 때가 만조와 간조의 중간지점이다. 따라서 만조나 간조가 되기 1시간 전에 주낙을 놓고, 물의 흐름이 거의 없을 때 주낙을 거둬들인다.

우럭은 일년 년중 많이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횡집 메뉴로 올린다. 우럭은 포를 떠서 먹기도 하고, 회나 탕으로 먹기도 한다.

④ 게잡이

도초면 근처에서 주로 잡는 게는 빨떡게다. 꽃게도 잡지만, 빨떡게를 잡기 위해 놓은 통발에 가끔 걸리는 정도다. 빨떡게를 잡는 시기는 봄철과 가을철이다.

빨떡게는 암초나 자갈이 있는 걸밭을 좋아한다. 그래서 빨떡게를 잡기 위해서는 어탐기를 보고 암초나 자갈이 있는 곳을 찾아 통발을 놓는다. 통발은 한 통에 60~100개 정도의 통발이 들어있다. 보통 5~6통을 설치한다. 수심은 대략 10~30m 정도 깊이에서 한다. 통발에는 안쪽에 미끼를 넣어놓는데, 미끼로 사용되는 고기는 주로 고등어다. 통발도 조금 무렵에 작업을 하고, 사리때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통발은 설치하고 나서 바로 끌어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설치를 해놓고 다음날 수확을 하는 형태다. 조금 무렵이 되면 통발을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한 통발은 다음날 만조와 간조가 바뀌는 시점에 확인한다. 이 시간에 작업을 하는 것은 물의 흐름이 가장 적을 때 작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1개의 통발에 많이 들면 5~6마리까지 든다.

게는 봄철에는 적게 잡히고, 가을철에는 많이 잡힌다. 그래서 봄철에는 주로 한 번의 물때를 보고, 가을철에는 두 번의 물때를 본다.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네 번 반복되기 때문에 두 번의 물때를 보는 것이다. 한 번의 물때를 본다는 것은 조수가 바뀌는 두 번의 시기중 한 번만 작업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의 물때를 본다는 것은 두 번의 시기에 모두 조업을 한다는 것이다.

(2) 시목리의 어로활동

조사일시 : 2005년 6월 19일

제 보 자 : 도초면 시목리 김길장(남, 63)

목포시 배성희(남, 50). 김길장과 동서관계

① 병어

병어는 4~5월에 잡는다. 이 시기에 산란하기 위해 근해로 오기 때문에 이때 잡는 것이다. 병어는 낭장망 형태인 병어그물을 사용해 잡는데, 주낙과는 달리 사리 때에 주로 조업을 한다. 사리 때에 많이 잡히기 때문에 주로 사리때에 조업을 하지만, 조금 때에도 그물을 그대로 고정해 둔다.



사진 4. 시목리 해수욕장 전경

병어그물은 보통 수심 15m 정도의 깊이에 설치한다. 이는 이각망의 설치위치에 비해 좀 더 깊은 곳이다. 그물은 양쪽에 닻을 달아 바닥에 고정시킨다. 그물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위쪽으로 3m가량이다. 보통 이각망의 경우 그물에 이끼가 끼기 때문에 그물을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병어그물은 바다밑에 설치하기 때문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따라서 병어가 잡히는 4~5월까지 그대로 고정시켜둔다.

그물을 설치 한 후 매일 수확을 한다. 조금과 사리에 상관없이 수확을 하는데, 주로 사리 때에 많이 잡힌다. 이는 조류의 이동을 이용해 고기를 잡기 때문이다. 물의 흐름이 약한 조금 무렵에는 한 번의 물때에만 조업을 하고, 물의 흐름이 센 사리 때에는 두 번의 물때에 조업을 한다. 조금에는 수확이 적기 때문에 한 번의 물때만 보고, 사리 때에는 수확이 많기 때문에 두 번의 물때를 본다.

병어그물에 병어 외에 간재미나 서대, 꽃게 등이 걸리기도 한다. 병어는 조금 높은 위치에서 걸리고, 간재미나 꽃게 등은 바닥 가까운 곳에서 걸린다.



사진 5. 병어그물로 잡은 병어, 시목리 김질장(남, 63)



사진 6. 시목리의 이각망 건조

② 감성돔, 농어, 잡어

이각망을 설치해 놓으면 감성돔과 농어, 꽃게, 잡어 등이 잡힌다. 이각망은 육지에서 30~50m 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고기를 유도하는 길그물을 육지쪽에서부터 길게 쳐 놓는다. 이각망은 유속이 세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이각망에 고기가 드는 것은 주로 사리 때다. 사리 때이긴 하지만, 유속이 가장 센 사리보다 그 전후에 많이 잡힌다.

감성돔은 4~6월까지 잡힌다.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올라왔을 때 잡는 것이다. 주로 많이 잡히는 날은 비바람이 불어서 주의보가 내린 다음이다. 보통 이렇게 날이 꺾은 후 그물을 확인하면 100kg 이상 들어있곤 한다. 많이 잡히면 대부분 목포의 상회에 갖다 팔고, 횃집에 조금 남겨둔다.

꽃게는 주로 봄과 가을에 잡는다. 주로 유자망으로 많이 잡는데, 이각망에 들기도 한다.

농어는 일년 내내 잡히는데, 주로 많이 잡는 계절은 가을부터 겨울 초입까지다.

이러한 이각망은 물 위에 떠있는 그물이라서 이끼가 자주 낀다. 보통 20일 정도 물에 담가두면 이끼가 썩어서 그물이 무거워지고,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두 번의 사리 물때를 보고 건조를 시킨다.

(3) 도락리의 갯벌어업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도초면 도락리 김영희(여, 57)

도락리에서는 갯벌을 짚등과 빨밭으로 구분한다. 짚등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있는 곳이고, 빨밭은 부드러운 진흙으로만 된 곳이다. 짚등은 마을 우측에 많고, 빨밭은 마을 왼편에 많다. 그러나 빨밭 중간에도 짚등이 군데군데 존재한다. 갯벌에서 잡는 것은 주로 낙지와 게다. 갯벌에 나가면 언제든 잡을 수 있으나, 천일염 제조업이 주된 생업이기 때문에 갯벌어업은 염전일이 한가할 때 한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갯벌을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 타 섬의 사람들이 와서 낙지나 게를 잡아 가기도 한다. 타 섬에서 집단적으로 건너와 어로행위를 하기도 한다. 마을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안 하니까'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제제를 가하지는 않는다. 다만, 집단적으로 건너와서 조업을 하는 것은 막고 있다.

도락리에서는 갯벌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나 제제는 없다. 그러나 갯벌에 게나 낙지를 잡으러 갈 때는 마을에서 작업조직을 나눈다. 마을 입구쪽에 있는 사람들을 곤여물, 마을 중앙을 큰모실, 마을 끝부분에 사는 사람들을 발가운데라고 하여 3개로 구분한다. 3개로 구분

하지만, 현재 큰모실과 밭가운데 사라들은 숫자가 적어서 같이 작업을 한다.

① 낙지잡이

도락리에서는 갯벌에서 빨낙지를 잡는다. 낙지는 8월부터 10월까지 잡는다. 봄이나 여름에는 염전을 하기 때문에 제염업에 종사하고, 주로 가을에 잡는다. 낙지는 짙등에서도 살고, 빨밭에서도 사는데, 빨밭에서 사는 낙지가 좀 더 크고 맛있다.

낙지를 잡으러 가는 때는 주로 사리 무렵이다. 사리 무렵에 물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밑에까지 가서 잡을 수 있다. 낙지를 잡는 곳은 빨밭과 개웅(시금창) 주변이다. 짙등에서도 잡을 수 있지만, 빨이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낙지도 작고 맛이 없기 때문에 짙등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낙지를 잡는데는 낙지구멍을 파악하는 것과 잡는 기술이 필요하다. 낙지는 출입구에 해당하는 구멍 외에 숨구멍으로 '부룻'이 있다. 이 부룻을 보고 낙지의 위치를 파악한다. 낙지부룻은 옆의 갯벌과 달리 푸른색이 돈다. 파란색이 도는 낙지부룻은 아침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낙지잡이를 아침일찍 나가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낙지부룻에 도는 푸른색이 아침에 훨씬 선명하기 때문에 추위도 아침 일찍 잡으러 가는 것이다.

낙지부룻과 구멍을 확인하면, 가래로 갯벌을 파서 잡는다.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낙지잡이를 하지만, 그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파는 경우는 드물다. 가을과 겨울의 낙지잡이는 주로 남자들이 많이 간다. 이때 여자들은 시금치 농사를 짓는다.

② 서렁게잡이

도락리에서는 겨울부터 봄까지 서렁게를 잡는다. 겨울에 서리가 하얗게 내렸을 때 갯벌 위에 나와있다고 해서 '서렁기'라고 한다.

빨이 좋은 곳의 게가 생김새도 좋고, 맛도 좋다. 그래서 짙등과 빨밭 중 빨밭에서 주로 작업을 한다. 빨이 좋은 곳의 게는 손으로 만졌을 때 매끈매끈하고 조금 퍼런색을 띠면서 맛이 좋다. 도락리 앞의 갯벌은 왼쪽을 '집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물랭이짜'이라고 한다. 이 두 구역 중 왼쪽 '집밀'의 갯벌이 좋다. 그래서 게와 낙지를 잡을 때는 주로 집밀의 빨밭으로 간다.

게를 잡는 때는 주로 조금 무렵이다. 조금 무렵 낮에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구멍 안에 있던 게들이 구멍 밖으로 나와 얇은 쪽으로 이동한다. 게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조금무렵 물이 들 무렵부터 게를 잡기 시작한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 손으로 잡는다. 일단 갯벌에서 나르면 게의 구멍을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파악한다. 다음으로 게가 들어가 있을만한 곳을 발로 밟는다. 그러면 게구멍에서 흙탕물이 흘러 나온다. 이때 게가 들어있는 구멍에서는 흙탕물이 빠져나오고, 게가 들어있지 않는 구멍에서는 보통의 맑은 바닷물이 빠져나온다.

서령계는 낚지주낙 하는 사람들이 미끼로 사용하기도 하고, 집에서 반찬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4) 천일염 제조업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19일

제 보 자 : 발매리 문호남(남, 57), 1985년부터 염업을 하고있음.

도락리 김영희(여, 57, 시택이 예전부터 염업을 하고 있어서 시집와서부터 염전일을 하고 있음.

도초도의 염전은 갯벌이 발달해 있는 서부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염업은 3월 20일부터 10월 까지 한다. 염업을 마치고 나서는 겨울동안 시금치 재배를 한다. 염전은 각각 지역에 따라 통합 명칭이 있다. 나박포 일대의 염전은 도남염전이고, 명당리 일대는 명당염전, 도락리 일대는 대광염전, 수다리 일대는 대감염전 등이다. 또, 각 염전은 개개인의 소유로 구분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유하는 염전의 크기가 다르다. 개인별로 보통 1.5정보에서 3정보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염전의 공간은 저수지와 증발지, 결정지로 구분된다. 저수지는 바닷물을 저장해 놓는 곳이고, 증발지는 난치와 누태로 나뉘어 물을 증발시키면서 소금물의 염도를 증가시키는 곳이다. 결정지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곳이다. 난치는 보통 4~5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누태도 마찬가지로 4~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물이 이동하는 수로와 물을 저장하는 해주가 있다. 해주는 비가 올 때 물을 잠시 저장하는 곳이다. 해주는 각각의 소금물이 염도에 맞게 저장할 수 있도록 여러개가 설치되어 있다.

갯물이 소금이 되기까지는 각각의 공간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소금이 만들어지는데, 그 기간은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소금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날씨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바람이 부는 날이다. 그래서 2월 초하루에 내리



사진 7. 도락리 염전 전경

는 영등이 바람영등이면 좋다고 생각한다.

갯물은 염도가 보통 3도다. 이것을 난치에 퍼 올려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동시키면 14~15도 정도가 된다. 10도 정도가 되면 누태로 이동시킨다. 누태에서도 마찬가지로 4~5단계를 이동시킨다. 누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소금물이 22~23도 정도가 된다. 이후 소금물을 결정지로 이동시킨다. 결정지에서는 점점 염도가 높아져서 26~27도부터 소금이 만들어진다. 이때 날씨가 흐리고 습기가 많으면 30도가 되도 소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금물의 도수를 측정하면서 이루어진다.

소금은 7월 '장마 뒷소금'이 가장 좋다. 소금을 만드는 것은 3월부터 10월까지 하지만, 날씨가 가장 좋은 장마 이후에 맛있는 소금이 만들어진다. 그러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장마 후에 만들어지는 소금만을 식염으로 사용하고, 봄가을에 만들어진 소금은 식염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소금의 유통은 염업조합이나 농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2004년부터 염업조합에 문제가 생겨서 수매와 소득에 곤란을 겪고 있다. 염업조합이 활성화되었을 때인 2004년에는 30kg 한 가마니에 10,700원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도초농협에 수매를 하면 한 가마니에 6,000원을 받는다.

염전을 할 수 없는 겨울에는 대부분 시금치 재배를 한다. 그리고 겨울에는 '동기작업'이라고 해서 염전의 소금판을 개간한다. 개간은 경운기로 흙은 뒤집고 다시 판판하게 다지는 씨레질을 한다. 이 동기작업을 하는 이유는 다음해에 양질의 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다. 동기작업을 하지 않으면 누태와 난치의 진흙에 붉은색 식물이 나고, 흙이 썩어버린다.

염전을 하는 사람들은 염전고사를 지냈다. 현재는 중단되었지만, 10여년 전까지 전승되었다. 염전고사는 첫 소금을 내기 전에 한다. 예전에는 보통 음력 3월 3일 경에 갯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3월 10일 안에 고사를 지냈다. 염전에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고,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고사는 40~50년 전까지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 그 후 고사는 중단되고, 주인이 일꾼들을 대접하는 형태만 남아 10여년 전까지 행해졌다고 한다.



사진 8. 소금 결정지에서 소금을 퍼내는 발매리 문호남(남, 57세)

2. 생활문화자원

1) 생활문화자원 목록

(1) 초분·구토름 목록

번호	마을	명칭	위치 및 형태	조성시기	제보자	제보자	비고
1	김명철의 초분	초분(빈소)	마을 뒷산 중턱 가로 80cm 세로 215cm 높이 75cm	2004년 여름	2005년 6월 18일	장영웅(남, 62)	현존
2	고란리 황송웅 모친의 초분	초분(빈소)	마을 뒷산 중턱 가로 90cm 세로 215cm 높이 75cm	2004년 여름	2005년 6월 18일	장영웅(남, 62)	현존
3	도락리 송공덕의 초분	초분(빈소)	마을 뒷산 중턱 가로 100cm 세로 230cm 높이 76cm	10여년 전	2005년 6월 18일	김종갑(남, 69) 이민자(여, 66)	현존
4	지남리 조병태의 구토름	구토름	마을 뒤쪽 언덕 가로 190cm 세로 240cm 높이 70cm	10여년 전	2005년 6월 19일	조갑척(남, 75)	현존
5	지남리 조병태 처의 구토름	구토름	마을 뒤쪽 언덕 가로 200cm 세로 250cm 높이 100cm	10여년 전	2005년 6월 19일	조갑척(남, 75)	현존

(2) 세시풍속 목록

번호	마을	내용	조사 일시	제보자	현황
1	도락리	월별 세시의례와 놀이	2005년 6월 18일	김종갑(남, 69세) 이민자(여, 66세)	
2	화도리	월별 세시의례와 놀이	2005년 5월 16일	김덕채(남, 74세)	

2) 생활문화자원 현황

(1) 초분·구토릉 현황

① 고란리 초분

- 故김명철(남, 80세)씨의 초분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장영웅(남, 62)

위 치 : 마을 뒷산 중턱

형 태 : 높이 75cm, 가로 80cm, 세로 215cm

시 기 : 2004년 여름에 조성되었다. 이 초분의 경우 고인이 3년 뒤에 매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겨서 어쩔 수 없이 초분을 만든 것이다.

- 황송웅(남, 64세)씨 모친의 초분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장영웅(남, 62)

위 치 : 마을 뒷산 중턱

형 태 : 높이 100cm, 가로 90cm, 세로 230cm

시 기 : 2004년 여름에 조성되었다. 이 초분의 경우 고인이 사고로 인해 사망해서 바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고란리에서는 한식 때가 아니면 대부분 땅을 다루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이중으로 묘를 쓰는 것이 귀찮아서 대부분 초분을 쓰지 않는다. 초분은 쓴다는 것은 이후 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자들이 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분을 거의 쓰지 않는다.

초분을 만드는 것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3일째 되는날 만든다. 초분을 만드는 것 외의 장례절차는 같다. 일단 초분을 쓰기로 하면 출상 전에 집에서 마람을 엮는다. 장지를 판판하게 닦아놓고, 그 위에 돌을 깔아놓는다. 상여가 장지에 도착하면 상여와 판을 분리한 후 판을 돌 위에 놓는다. 이때 판의 위치는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놓는다. 돌 위에 판이 놓이면 그 위에 마람을 엮는다. 초분의 모양이 갖춰지면 새끼줄로 고정시킨다. 새끼줄은 홀수로 만들고 줄 끝에 돌을 매

단다. 이렇게 하면 초분이 완성되는데, 주위에 발장을 둘러치기도 한다. 발장을 치는 것은 산짐승들이 초분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초분의 관리는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바람을 교체하는 것이다.

초분의 바람 끝에 열린 고드름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초분을 만들고 나서 자식들은 '삼오' 라고 해서 3일동안 왔다간다. 3일동안 다녀가는 것은 고인이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초분은 보통 2~3년 정도 후에 본 묘로 이장을 한다. 3년 정도가 지나면 시신의 살은 대부분 썩고, 뼈만 남게 된다. 이것을 '절골된다' 라고 하는데, 절골된 뼈가 황색이면 좋다고 하고, 검게 변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초분을 쓴 장소가 냉하거나 안 좋으면 뼈가 검게 변한다. 초분을 이장하는 것은 '대고 하는 것' 이 아니라고 한다. 주로 좋은날을 택일하거나 한식날 이장을 하는데, 만약 좋은 날을 택일하더라도 자손들의 운이 맞지 않으면 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초분의 이장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도 있다.



사진 9. 故김명철(남, 80세)씨의 초분



사진 10. 황송용(남, 64세)씨 모친의 초분

이장을 할 때는 집에서 칠성판이라는 나무판을 들고 간다. 바람을 걷어내고, 판을 해체하면 뼈만 남아있는 시신이 들어있다. 혹 시신의 뼈에 살점이 조금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때는 칼로 살점을 떼어낸다. 칠성판 위에 마포를 놓고, 그 위에 절골된 뼈를 놓는다. 뼈의 위치가 뒤틀어져 있을 경우에는 뼈를 사람 모양으로 맞추어 마포위에 올려 놓는다. 뼈가 다 수습되면 마포로 싼 다음 칠성판을 들고 이장할 장소로 이동한다. 묘를 쓸 장소에는 미리 석관을 마련해 넣어두거나 새 목관을 마련해 둔다. 준비해 둔 관에 마포로 싼 뼈를 넣고 하관한다. 하관 후 봉분을 만들면 이장이 마무리 된다.

② 도락리 초분

- 故송공덕(여, 110세 가량)씨의 초분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신안군 도락리 김종갑(남, 69), 이민자(여, 66).

위 치 : 마을 뒷산 중턱

형 태 : 높이 76cm, 가로 100cm, 세로 230cm

시 기 : 10여년 전에 조성되었다. 선산에 묘를 쓸려고 하는데 날송장이 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초분을 만들게 되었다. 그후 두 번에 걸쳐 이장을 할려고 했으나 자손들의 운이 맞지 않아 이장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 초분을 썼는데, 요즘은 거의 초분을 쓰지 않고 바로 매장한다. 초분은 땅을 다루지 않아야 하는 시기에 사망을 하거나 날송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 조성한다. 땅을 다루지 않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쓸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날송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선친들의 묘가 있는 곳에 후손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는 때다. 도락리의 초분은 두 번째 이유로 초분을 쓰게 됐다.



사진 11. 故송공덕(여, 110세 가량)씨의 초분

초분을 만들기로 결정이 되면 좋은 장소를 고른다. 장소가 정해지면 출상 하기 전에 미리 땅을 판판하게 만들고, 그 위에 돌을 깔아놓는다. 고인의 사망 후 3일째 되는날 출상을 해서 장지로 이동을 한 후 미리 준비되어 있는 장소에 관을 올리고 마람으로 덮는다. 마람을 씌우고 나서 초분을 고정시키기 위해 새끼줄 양쪽에 돌을 매달아 초분 위를 감싼다. 새끼줄은 주로 가로와 세로로 각각 세 개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초분은 완성이 되는데, 초분이 산짐승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위에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울타리는 발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돌을 쌓아서 만들기도 한다. 도락리의 초분은 돌로 울타리를 만든 형태다. 울타리의 크기는 가로 335cm, 세로 505cm이다.

초분을 만들고 나서 3일이 되는날 상방에 제상을 차려놓는다. 그리고 도와준 상두꾼들과 마을 사

람들을 불러 음식을 대접한다. 또, 자손들은 장지에 올라가서 초분을 확인하고 온다. 이때 자손이 왔다갔다하는 표시로 솔가지를 꺾어 마람에 꽂아두기도 한다.

초분의 보수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가을걷이를 마치고, 새 짚이 나오면 기존의 마람을 벗겨내 불 태우고, 새로 마람을 엮어서 올린다.

초분의 이장은 보통 3년 후에 한다. 초분을 쓴 후 3년이 되면 뼈가 절골된다. 이 시기에 맞춰 이장을 하는 것인데, 무조건 3년이 되었다고 해서 이장을 하지는 않는다. 이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날짜를 잡아야 하고, 자손들의 운이 맞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장을 하기에 좋은 날짜는 윤달이나 한식이다. 도락리의 초분은 두 번에 걸쳐 이장을 할려고 했으나 자손들의 운이 맞지 않아 10여년 동안 이장을 못하고 있다.

이장을 하게되면 먼저 집안 식구들이 모여 초분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처음에는 마람을 벗겨내고 관을 뜯어낸다. 3년이 지나면 관도 대부분 썩어버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을 해체하고 유골을 수습한다. 절골된 뼈는 대부분 황색인데, 가끔 검게 변해있는 경우도 있다. 검게 변해있는 곳은 초분을 썼던 장소가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유골은 미리 준비해둔 명주천이나 창호지로 싸서 나무판 위에 올린다. 이때의 나무판을 칠성판이라고 한다. 칠성판 위에 수습된 유골을 들고 이장할 장소로 이동한다. 새로운 장지로 이동한 유골은 석관 안에 넣어진다. 끝으로 흙을 덮고 봉분을 완성하면 이장이 마무리된다.

③ 지남리 구토릉

- 故조병태(남, 90세 가량)씨 부부의 구토릉

조사일시 : 2005년 6월 19일

제 보 자 : 조갑척(남, 75)

위 치 : 지북마을 마을 뒤쪽 언덕

형 태 : 故조병태(높이 70cm, 가로 190cm, 세로 240cm) / 故조병태의 처(높이 100cm, 가로 200cm, 세로 250cm)

시 기 : 10여년 전에 故조병태의 처가 먼저 사망하고, 다음해 故조병태가 사망했다. 둘 다 구토릉으로 조성되었다.

구토릉은 땅을 파서 매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이중장제라는 점에서 초분과 같다. 그러나 마람을

엮는 대신 흙을 덮고 잔디를 심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예전에는 초분이나 구토릉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현재는 구토릉 2기만 남아있다. 지남리에 있는 구토릉은 10여년 전에 작고한 故조병태(남, 90세 가량)씨 부부의 묘이다. 10여년 전 부인 최씨가 사망했을 때 구토릉을 만들고, 그 다음해 남편 조병태씨가 사망했을 때 부인 최씨의 왼쪽에 구토릉을 만들었다. 구토릉은 지남리 지북마을 뒷 언덕에 위치해 있다.



사진 12. 故조병태(남, 90세 가량)씨 부부의 구토릉(위쪽 2기의 묘)

구토릉이나 초분을 하는 경우는 땅에 대한 금기 때문이다. 주로 선달과, 홀수달, 토왕(土旺)이 든 날에는 땅을 다룰 수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날에는 땅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매장을 하지 못하고, 초분이나 구토릉을 만든다. 또한, 이미 묘가 만들어진 곳에 썩지 않은 송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금기도 있다. 한 예로, 남편이 먼저 죽어서 매장을 해냈을 경우 부인이 죽어서 바로 옆으로 올 수 없다. 이것은 썩지않은 송장이 들어가면 '냄새나서 못쓴다'라는 금기 때문이다. 그리고 초분이나 구토릉은 땅을 파서 매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묘지에 관련된 해나 득이 없다고 생각한다. 땅을 파서 매장을 하면 그 위치에 따라 자손들이 영향을 받지만, 초분이나 구토릉은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초분과 구토릉을 구별해서 해야하는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현실적인 조건의 차이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초분을 하면 2~3년만에 바로 이장을 하는데, 이장을 하는 과정이 구토릉에 비해 수월하다. 그러나 산짐승들이 초분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 반면, 구토릉은 비교적 장기간동안 이장을 하지 않는데, 이장을 할 때에는 흙을 파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간다. 그러나 산짐승들이 구토릉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초분과 구토릉은 마람을 엮는다는 것과 흙을 덮는다는 것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람이 죽었을 때 바로 매장을 하지 않고 초분이나 구토릉을 하기로 결정되면, 장지를 결정하고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돌을 깔아놓는다. 그 위에 관을 놓고 마람을 엮는다. 초분의 경우는 마람을 튼튼하게 엮는다. 그러나 구토릉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마람을 한 개 덮기도 하고, 덮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마람을 덮는 것과 관계없이 흙을 덮는다. 구토릉의 경우 매장된 일반 묘와 비슷하게 만들어지지만, 대개 높이가 낮다.

이장을 할 때는 자손들의 운을 봐서 길일을 선정한다. 그리고 이장할 장소를 지정한다. 초분은 마람을 벗겨내고, 관을 해체한 다음 유골을 수습해 칠성판 위에 올려서 이장할 장소로 이동한다. 구토릉은 흙을 파내고, 안에 있는 관을 해체한 다음 칠성판 위에 유골을 수습해 이장할 장소로 이동한다. 매장을 할 때는 두 경우 모두 같다. 석관을 준비하거나 새 관을 준비해서 유골을 넣고 흙을 덮는다.

3) 세시풍속 현황

(1) 도초면 도락리 세시풍속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도초면 도락리 김종갑(남, 69), 이민자(여, 66)

① 1월

가) 설

설 차례는 선달그믐 저녁에 지낸다. 제상은 제의공간인 마래의 성주 앞에 차려놓는다. 집에서 지내는 제사는 모두 마래에서 지낸다. 제상을 차린 후 밤 12시 정도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낸다.

설날 아침에는 식전에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하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한다. 식사를 마치고 세배를 한 후, 친척집과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한다. 이후 낮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화투나 윗놀이를 하며 하루를 보낸다. 지금은 화투를 치지만 예전에는 투전(마작)을 했다.



사진 13. 도초면 도락리 세시풍속 제보자 김종갑(남, 69세), 이민자(여, 66세)

나) 보름

보름에는 오퍩밥을 해서 차례를 지낸다. 보름차례에서는 일반적인 차례와 달리 나물을 많이 하고, 오퍩밥을 차린다. 보름은 “나물도 아흔아홉개를 캐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캐고, 밥도 많이 묵은다고 아홉그릇씩 먹는다”라고 해서 나물명절이라고도 불린다. 차례상은 14일 저녁에 마래에 차려놓기만 하고 절을 하지는 않는다. 차례상과 달리 ‘결판’이라고 해서 따로 음식을 마련해 마당에 놓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손이 없이 죽은 조상을 위해 차려놓는 것이다. 보름차례 뿐만 아니라 다른 차례나 제사에서 결판을 한다.

14일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된다고 해서 잠은 자지 않는다. 또, 14일과 15일 저녁에는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쥐불놀이와 불강통 돌리기를 하면서 논다. 쥐불놀이를 하면서 논에 장작을 높이 쌓아놓고 불을 지르는데, 건너편에 보이는 비금면 수치도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불을 피운다. 이때 서로 늦게까지 불을 피우고 있어야 이긴다고 생각하여 최대한 늦게까지 불을 피우면 논다. 또, 어른들은 14일 저녁이나 15일 저녁에 뛰엄뛰기(강강술래)를 하면 놀았다. 뛰엄뛰기는 남녀를 가지지 않고 했다.

보름날 아침이 되면 애들이 더위팔기를 하고, 진대긋자 놀이를 한다. 더위팔기는 보름날 아침에 더위를 팔면 여름에 덥지 않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여 하는 것이다. 아침에 친구들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 대답하게 한 후 “내더우”라고 해서 더위를 판다.

진대긋자 놀이는 먼저 피마주대에 새끼줄을 단다. 새끼줄에는 머리카락과 고추, 솥을 단다. 이 놀이는 두 명에서 하는데, 한 명이 피마주대를 끌고 다니면서 “진대긋자 ??꾼 긋자”라고 하면, 나머지 한 명이 나뭇가지를 들고 다니면서 새끼줄을 두드리며 따라간다. 이 놀이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동네 아이들이 모두 이 놀이를 했다고 한다.

② 2월

가) 하드레

2월 1일을 하드레날이라고 해서 마래에 상을 차려놓는다. 또, 이날은 콩 볶아먹는 날이라고 해서 아침에 콩과 잠곡을 볶아먹는다. 콩을 솥에 넣고 볶으면서 ‘밭에 잡종 벌가지 다 볶으자. 뭇 볶으자’라는 말을 한다. 콩을 볶아먹는 것은 한 해 농사를 지을 때 해충이 없기를 바라면서 먹는 것이다.

나) 한식

한식날은 찬밥을 먹는 날이라고 해서 더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이날은 땅을 다뤄도 아무런 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묘를 이장하거나 개보수를 한다. 귀신들은 찬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땅을 다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묘에 관련된 일을 산일이라고 하고, 산일을 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고 음식을 장만해 나눠먹는다.

다) 영등

2월 초하루가 되면 영등이 내려온다. 마을 어른들은 아침에 날씨를 보고 영등을 구분한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물영등이 내려온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영등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

한다. 영등은 2월 초하루부터 스무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영등이 내려온 기간에는 계속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분다. 그래서 “아이고 언제 스무날 닥치까. 스무날 닥치면 바람영등 올라가볼만 바람이 좀 안 불텐디.”라고 하면서 스무날을 기다린다.

영등을 통해 한 해의 날씨를 짐작하기도 한다. 물영등이 들면 그 해에는 주로 비가 많이 오고, 바람영등이 들면 바람이 많이 분다. 도락리의 경우는 염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염전을 하는 사람들은 바람영등이 들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물영등이 들면 좋다고 생각한다.

· ③ 3월

3월 3일은 삼짖날이다. 특별한 의례나 행사는 없다. 다만, 제비가 날아오는 날이라고 전한다.

④ 4월

4월 8일 부처님 오신날에는 절에 가서 공을 드린다. 도초면에는 만년리에 만년사라는 절이 있어서 도초 사람들은 대부분 만년사로 간다. 이날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에 간다. 절에 갈 때는 시주할 돈과 쌀, 초, 과일, 떡 등을 가지고 간다. 절에 도착해서는 준비해온 음식을 부처님 앞에 쌓아놓고 절을 한다. 절에 간 사람들은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연등을 사서 불을 켜고 온다. 연등은 가족 숫자만큼 사서 걸기도 하고, 그냥 하나만 사서 걸기도 한다.

⑤ 5월

5월 단오에는 풀을 뜯어서 다려 먹는다. 이 시기의 풀은 모두 약이된다고 해서 풀잎들을 다려서 먹었다. 특히 익모초가 좋다고 하여 다려먹었다.

단오에는 마래에 상을 차려놓지는 않고, 음식을 장만해 나눠먹으며 논다. 마을 부녀자들끼리 인근 시목해수욕장에 모래찜을 가기도 한다. 모래찜을 하면 관절염 등에 좋다.

⑥ 6월

6월에는 유두날 마래에 상을 차려놓는다. 어른들에 의하면 큰 명절이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행사를 한 적은 없다.

⑦ 7월

가) 칠석

칠석날은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이다. 이때 견우직녀가 까치 머리를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까치의 머리가 벗어졌다고 한다. 이날은 아무리 가물더라도 한방울의 비가 내리는 날이다. 저녁이 되면 마래에 상을 차려놓고 어른들이 밤하늘의 은하수를 가르쳐준다.

불교 신자들이나 비기독교 신자들 중 일부는 절에 간다. 절에서 칠석날 공을 들이면 자식들에게 좋다고 해서 4월 초파일처럼 음식을 장만해 절에 간다.

나) 백중

백중에는 마래에 상을 차려놓는다. 그러나 이외의 특별한 의례나 행사는 없었다.

⑧ 8월

8월에는 설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있다. 설 명절과 같이 14일 저녁에 차례를 지내고 아침에 성묘를 다녀온다.

추석날의 가장 큰 행사는 뛰엄뛰기다. 뛰엄뛰기는 저녁에 하는데, 마을 큰애기들을 비롯한 남녀 노소가 모여 밤새도록 뛰어다닌다. 보통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2~3일간 한다.

뛰엄뛰기에는 청어영기(청청 청어영자), 고사리꺾기(꼬사리 꺾자 바구리 꺾자), 강강술래, 덕석몰이 등이 있었다. 덕석몰이는 '덕석몰자 덕석몰자' 그렇게 하면서 덕석말듯이 말았다 풀다. 뽕뽕 들다가 한 사람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감는다. 그리고 제일 뒷사람을 따내는 꼬리따기 형태의 놀이도 있었다. 이외에 담넘자, 술래잡기, 수건돌리기, 말타기 등이 있었다. 말타기는 일반적인 말뚝박기와 비슷하다.

⑨ 9월

9월 9일을 중구라고 해서 마래에 차례상만 놓는다. 예전 어른들에 의하면 '추석을 걸게 쇠지는 않아도, 중구는 크게 씬다' 고 하였다. 추석때는 곡식이 온전히 여물지 않지만, 중구때에는 곡식들을 수확한 후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을 차려놓고 차례를 지냈다고 한다.

⑩ 10월

10월 시제날에는 '시양지낸다' 라고 하여 자손들이 선산에 가서 제를 지낸다. 이때는 문중의 종친들을 비롯한 친척들이 모두 모인다.

⑪ 11월

11월에는 동지가 있다. 동지는 초열흘 안에 들어있으면 애기동지라고 하고, 이후에 들어있으면 노동지라고 한다. 애기동지 때는 동지를 쇠지 않고, 노동지 때는 팔죽을 썬서 먹는다. 팔죽을 썬서 솔잎으로 집 안쪽의 담과 방 벽지에 바른다. 이것은 잡귀들이 팔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집 구석구석에 팔죽을 뿌리는 것이다.

(2) 도초면 화도리 세시풍속⁵⁾

조사일시 : 2000년 5월 16일

제 보 자 : 도초면 화도리 김덕채(남, 74)

① 1월

가) 설

선달 그믐날 저녁 11시경에 차례상을 차려놓고, 초하룻날 새벽에 차례를 지낸다. 세배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고 성묘를 다닌다. 설날에는 연날리기, 널뛰기, 돈치기 등의 놀이를 했고, 강강술래도 많이 했다.

나) 정초

‘마당밧기’는 정초에 한다. 설부터 굿을 시작해서 보름까지도 했다. 12지일에 대한 특별한 관념은 없고, 진일, 사일에는 대부분 비가 온다고 한다. 그리고 정초에는 토정비결을 많이 본다. 그리고 정초에 일기점을 쳤다. 아침에 해가 붉게 떠오르면 일년이 가물고, 저녁에 해가 검게 들어가면 비가 자주 온다고 한다. 보통 때는 달무리, 해무리의 형상을 보고 날씨를 점쳤다.

다) 대보름

14일날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길어난다고 잠을 못자게 했다. 새벽에 차례를 지낸다. 대보름날 아침에 마당에 ‘우지지’를 세웠다. 옹구동우에 차례 지낸 음식을 조금 넣어 두고, 그 옆에 우지지를 세운다. 우지지는 장대에다 짚과 역새로 새 모양을 만들어 달아 맨다. 우지지에 절을 하기도 했다. 55년 전쯤에 제보자의 고향인 우이도에서 이렇게 했다. 이날 당제를 모시고, 뱃고사도 지낸다.

대보름날 저녁에는 이웃 마을과 ‘불저름’을 한다. 제보자의 고향인 우이도 동리와 서리는 바다를 사이에 둔 마을인데, 나무를 해 놓고 불피우기 경쟁을 했다. 오랫동안 불을 피우고 있으면 이기고, 먼저 불이 꺼지면 지는 것으로 간주했다. 보름이 닳치면 책임자격의 어른이 애들을 데리고 나무를 해다가 쌓아놓는다. 저녁이 되면 불을 피우고, 북·장구·팽과리 등을 가지고 나와 치면서 밤새도록 뛰고 논다. 불마당에서 음식, 술을 나눠 먹고 논다. 이렇게 놀면서 불을 오랫동안 꺼트리지 않으면 이기게 된다. 불저름을 해서 이긴 편이 어장이 잘 된다고 했다. 이런 불저름은 지금도 많이 하고

5) 제보자의 고향은 우이도이며, 결혼 이후로 화도리에서 살고 있다. 두 지역이 거의 비슷하지만 옛사래들에 대한 기억은 우이도의 경우가 많아 구분하여 기술했다.

있다. 금년에도 도초면 화도리와 바다 건너 비금면 송치 간의 불저름이 있었다.

그리고 대보름날 저녁에는 강강술래도 했다. 또한 달이 뜨는 방향을 보아 날씨점을 치기도 했다. “달이 옷짝으로 높이 뜨면 가물고, 아래로 처지게 뜨면 비가 자주 온다.”고 했다.

이밖에 대보름에 하던 풍속으로 소 밥주기, 더위팔기, 논밭독태우기, 까마귀밥주기, 새쫓기, 샘물 대기, 액막이 노두놓기, 진대뜯기, 사내기 밥주기, 복조리 걸기 등이 있었다. 진대뜯기의 경우, 고추와 숯을 단 원새끼줄을 피마자대에 매달고 앞에서 “진대뜯자 진대뜯자”라고 하며 가고, 뒤에서 “진대몰자 진대몰자(배암뺨자 배암뺨자)”라고 따라가면서 집을 한 바퀴 돌고 난 뒤 집밖 멀리 내버렸다. 사내기 밥주기는, 산에서 생솔가지를 꺾어 왔다가 아침 일찍 지붕에 던지며 “사내기 밥주자 사내기 밥주자.”고 외치는 것이다. 사내기는 초가지붕에서 나오는 냄새나는 벌레다.

② 2월

2월 1일을 하릿날이라고 한다. 하릿날은 정월의 마지막 명절이라고 해서 조상에게 상을 차리고 음식을 먹고 놀았다. 옛부터 “그믐날 수부 내리고, 하릿날 영등 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2월 3일 전에 비가 오면 비영등(물영등)이고, 비가 안 오면 바람 영등이라고 간주한다. 영등은 한번 올라가며, 2월 스무날 올라간다고 한다. 영등 올라가는 날은 바람이 불어야 좋다고 하며, “장닭 꼬리만 퍼지게 바람이 불어도 좋다.”고 한다. 영등상을 차리지 않는다.

③ 3월

3월에는 특별한 명절이 없다. 삼짱날이나 곡우에 대한 관념도 약하다.

④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공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

⑤ 5월

단오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⑥ 6월

유두는 큰 명절이라고 생각했다. 30여년 전까지도 상을 차리고 차례를 지냈다. 이날 밀가루 전을 부쳐먹었다. 복날에 하는 ‘복다름’은 지금도 한다.

⑦ 7월

칠석도 명절이라고 여겼으며 차례를 지냈다. 이 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기도 한다. 백중은 ‘노는 날’이라고 하여 음식을 해서 먹고 놀았다.

⑧ 8월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산에 성묘를 간다. '첫곡석'이라고 해서 조상에게 먼저 상을 차린 다음 음식을 나눠 먹었다. 추석날 강강술래를 많이 했다. 강강술래를 '뛰엄 뛰다'라고 하며, 남녀 구분 없이 같이 놀았다. 강강술래는 설이나 정월 대보름에도 놀았다. 이 놀이가 제일 재미난 놀이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추석날 비가 오면 보리 농사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다.

⑨ 9월

9월 9일을 중구라고 부르지만 명절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⑩ 10월

10월에는 시향을 지낸다. 이 달에 '성주동우'와 '귀꽃오가리'(조상단지)의 쌀을 햅쌀로 갈아 넣었다. 우이도에서는 주로 보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보리 농사 후(음력 5월경)에 보리를 갈아 넣기도 했다.

⑪ 11월

동지에 동지팥죽을 쑤어 먹는다. 팥죽을 떠놓고 갈라져 있는 상태를 보아 이듬해에 비가 많을지 적을지 점쳤다.

⑫ 12월

선달 그믐에 밤새워 불을 켜둔다. 잠안자기는 보름날 한다.

⑬ 윤달

무슨 일을 해도 부정이 없다고 해서 묘 손질하기, 수의 만들기, 집고치기 등을 한다.

3. 민속신앙자원

1) 민속신앙자원 목록

(1) 당제 · 갯제 목록

번호	마을	이름	신격(제당)	제일	참고문헌	조사일시	제보자	현황
1	고란리	당제, 죽마제	상당(당집) - 당할머니, 당할아버지, 며느리, 아들, 딸, 馬神, 天神, 地神 하당(돌장승)	1/15 자시	『다도해의 당제』	2005년 6월 18일	장영웅 (남, 62세)	중단
2	이곡상리	당제	<상당, 중당, 하당> -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1/15 7/15	『다도해의 당제』	2005년 6월 19일	이갑제(남, 75세)	중단
3	지남리	도제(천제)	상당(당집) - 天神 중당(뒤산 언덕) - ? 하당(마을 앞) - ?	1/15 7/15		2005년 6월 19일	조갑척(남, 75세)	중단
4	우이도진리	당제, 독제	상당(당집) -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취당(석단) - 취신 하당(제실) - 당할아버지의 첩 독제(허수아비) - 용왕신	1/3 자시	『한국의 해양문화-서남해역 下』	2005년 7월 12~13일	문채옥 (남, 72세)	중단
5	우이도대촌리	당제, 갯제	상당(僧堂→석단) -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하당(석굴) - 성주신, 취신 갯제(허수아비) - 용신	1/3 자시	『다도해의 당제』			중단
6	서소우이도서리	당제, 갯제	상당(소나무) - 당할아버지, 당할머니 중당(팽나무) - 아들, 며느리 하당(암석) - 아들(몽달귀신) 갯제(허수아비) - 용왕신	1/3	『다도해의 당제』			중단
7	경치도	당제	상당 - 당할머니, 당할아버지 중당 - 아들, 며느리 하당 - 취신	1/5 자시	『다도해의 당제』			중단

(2) 장승 목록

번호	마을	명칭	기수	관련제의	크기	유래	참고문헌	현황
1	고란리 고란	장승 (장석)	석장승 1기	당계 (중단)	높이 290cm 폭 66cm 후면 40cm	乙丑十三年 (1938)	『다도해의 당계』	현존
2	외남리 외상	장승 (장석)	석장승 1기	장승곳	높이 240cm 폭 45cm, 후 25cm	1946년	『신안군의 문화 유적』	현존
3	수항리 궁항	장승	석장승 1기		길이 215cm 너비 56cm 두께 27cm 얼굴 54cm	50~60년전		현존
4	죽련리 신교	장승	석장승 1기					비 현존

2) 당제 · 갯제 자료 현황

(1) 당제와 갯제

① 도초면 고란리 당제와 죽마제

조사일시 : 2005년 6월 18일

제 보 자 : 장영웅(남, 62세)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고란리는 148가구에 7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인 수항리에서 5km거리에 있는 부락이다. 50년 전에는 邑洞으로 이곳에 면사무소가 있어 도초도의 행정중심지였다. 옛날에 마을에 난초가 많이 있어 고란리라 이름 지었다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에 지나가는 道僧이 촌전에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면 부락이 번성하리라 하여 신당을 세웠다고 한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당집이 있었고 神位와 堂神의 초상화가 있었으나, 지금은 당 마당과 당 나무가 남아 있을 뿐이다. 마을에서 개천을 건너 다리목에 하당신인 돌장승이 있고 100m 촌전에 1,600여평의 당마당이 있으며 그 중앙에 300여년이 넘는 팽나무가 있다. 이 당목의



사진 14. 고란리 당제를 지내던 당마당

높이는 25m, 둘레 3m로 노송촌과 더불어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년 전만 하여도 고란리의 당굿놀이는 도초도의 祝祭로 24개 리는 물론 인근 섬에서도 구경 오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고란리 상당에는 당할머니와 할아버지 머느리 아들 딸과 馬神을 모시며 그 위에 天神 地神을 모셨다. 옛날에는 초상화를 그려 신위를 모셨다. 또한 당굿놀이의 마신인 죽마와 하당신인 돌장승이 있다.

馬神은 대나무로 말 골격을 만들고 머리는 짚으로 엮어 단단하게 뭉쳐서 참종이로 씌우고 먹으로 눈과 코를 그린다. 귀도 대나무로 만들고 목에서부터 큰 대를 세 갈래로 나누어서 꼬리 부분에 붙이고 그 위에 깔아 탈 수 있도록 한다. 양쪽 두 갈래의 대기둥 안에 발을 넣게 만들고 꼬리도 대잎으로 만들어 붙인다. 마부가 끌 수 있도록 목에 줄을 걸고 양쪽에다 매어 둔다.

상당의 당신은 영검이 많아 이 氣를 죽이기 위해서 1938년에 돌장승을 만들어 당을 마주 보게 세웠다고 한다. 장승의 높이는 3m, 가슴둘레 1.9m, 귀의 길이 36cm, 입 23cm나 되는 대형 하당신인 당할아버지이다. 부녀자들이 이바지를 가지고 오면서 당신에게 바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집에 오자마자 큰 병이 들었으며, 당을 향해 소피만 보아도 性器가 부어 고생을 하므로 장승을 세워 화를 면하게 하였다. 하당신은 안좌면 자라도에서 모셔왔다 한다.

나) 당제 준비와 진행

고란리 당제의 특징은 죽마놀이에 있다. 당제일은 음력 정월 15일로 생사복덕이 맞는 3인의 제주가 당에 들어간다. 당샘은 이미 3월 전에 금줄을 치고 雜人의 出入을 禁한다. 祭主들은 堂샘물로 목욕하고 정결한 마음을 갖는다. 제주와 당주(당을 관리하는 總務) 집에서 기른 닭과 콩나물 등 여러 제물을 당으로 가지고 가서 장만한다. 또한 당제에 使用할 어떤 제물이든 요구 시에는 이유 없이 제공하여야한다. 보통 황소나 · 돼지 · 양 등을 제공받는다. 陰曆 정월 12일에 당에 들어가 15일 子時에 設饌한 후 징을 치면 마을의 각호에서도 같이 제사를 지낸다. 제주가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당주가 올라와서 마을의 풍년을 발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새벽 4시 경 제사가 끝나고 하당에 내려와 堂外祭祀를 지낸다. 술과 음식을 음복하고 오전 9시 경 農樂隊가 당마당에 이르면 사방에 旗를 꽂고 죽마제가 시작된다.

하당제가 끝나고 술과 음식을 음복한 후 오전 9시경 농악대가 당마당에 이르면 죽마제를 시작한다. 상당에서 모셨던 마신(馬神)의 신체인 죽마는, 머리는 짚으로 엮어 단단하게 뭉쳐 참종이로 씌

우고 먹으로 눈과 코를 그렸으며, 나머지 부분은 대나무로 말 골격과 귀, 꼬리 등을 만들고, 골격부 잔등 부위에 짚을 깔아 사람이 탈 수 있게 하였다. 죽마제의 진행은 馬將帥, 마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제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민들은 죽마를 매질하고 쫓는 역할을 한다.

죽마제는 연극적 성격이 강한 굿놀이이다. 우선 당제의 제주가 죽마를 탄 마장수에게 제물을 대접하는 내용의 대사를 주고 받는다. 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堂主와 祭主는 당 안에서 마장수(馬將帥)를 기다린다. 말탄 장수가 당집 앞에 와서 당주와 제주를 부른다. 이 때에 마부인 군졸들은 죽마를 다시 손질한다.

마장수 : “여봐라, 너의 집 주인 있느냐?”

제 주 : “예!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장수 : “여러 곳을 시찰해 오다 여기에 와 보니 아주 인심이 좋구나, 고기와 떡을 먹고 가면 어떻게겠느냐?”

제 주 :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잘 대접하겠습니다.”

마장수 : “그럼 먹고 가겠다(床받고 祭物을 먹는다.)

잘 대접받았구나, 내가 병고도 없애고 뱃길도 도와주고 잠귀도 물리치고 풍년도 들게 하고, 하는 일마다 성원 성취하도록 하고 가겠다.”

제 주 :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대접해 모시겠으니 또 들려주시고 늘 도와주십시오.”

마장수 : “오냐! 알았다. 여봐라! 마부야 다른 곳으로 가자.”

마 부 : “예! 어서 가십시오!”

장수는 말을 타고 나간다. 동네 사람들은 두 줄로 서서 그 사이로 말을 달리게 한다. 말 앞에는 말장수 旗가 있고, 두 사람이 양쪽의 말고삐를 쥐고 말 뒤에는 채찍질하는 세 사람이 따른다. 농악군들이 뒤따르며 흥겹게 놀아 준다. 竹馬가 自己 앞을 지나 갈 때 자기 가정의 幸運과 마을의 安寧과 年을 기원하면서 술을 먹이고 돈을 채워주면서 회초리로 말머리와 일부준을 힘껏 때린다. 이 때에 마장수는 있는 힘을 다해 매질을 피하면서 달린다. 주민들은 따라 다니면서 매질을 한다. 마장수는 보통 나이가 많은 有志인테 이 때는 신통한 힘이 나서 壯年들이 쫓아 갈 수 없도록 달린다고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말주둥이가 터져 퍼지면 농사가 잘 된다고 믿고 있다. 마장수는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 발로 또는 들산을 헤매다가 죽마를 달래서 2km 떨어진 엄감포 포구까지 간다. 여기에서 馬神에게 제물을 차리고 모든 災厄을 가지고 나가도록 기원한 후 바다에 죽마를 버린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죽마제가 끝나면 당마당에서 씨름판과 줄다리기, 강강술래, 마당밧기 등 당제와 연결된 축제행사가 벌어진다.

현재 당제와 죽마제는 해방 후 중단된 상태이고, 당나무와 장승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② 도초면 이곡 상리 당제

조사일시 : 2005년 6월 19일

제 보 자 : 이갑제(남, 75세)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이곡 상리는 72戶에 347名이 居住하고 있으며 면소재지인 수항리에서 7km거리에 있는 부락이다.

石壇으로 된 上堂 中堂 下堂이 있으며, 이곡리 하당의 당은 상리의 당과 한 쌍의 부부로 상리의 당신은 할아버지 하리의 당신은 할머니이다. 당의 위치는 마을 뒷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당의 형태는 소나무인데, 현재는 고사한 상태로 서있다. 당나무 주위에는 돌담이 둘러져 있다고 한다. 이곡리 당은 500년 전에 고란리 당에서 분당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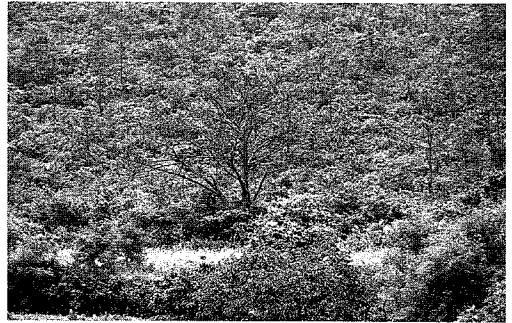


사진 15. 이곡 상리의 당산나무

나) 당제 준비와 진행

祭官은 生氣를 보아 나이를 정하고 그 나이를 가진 사람 중에서 깨끗한 사람을 선정하여 제관이 된다. 제관을 당주라고 하고, 당주 선정은 제 지내기 3일 전인 12일에 한다. 당주는 2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당주는 바로 당 옆에 막을 쳐놓고 치성을 드린다. 옛날에는 당제를 지내기 위해 7일 致誠을 하였으나, 근래에 와서는 3일 치성을 드린다. 치성을 드리는 동안 당주끼리 말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서로 수신호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 대소변을 볼 경우 바로 앞에 있는 당샘에서 목욕을 하거나 손을 씻는다. 冷水로 沐浴이나 세수를 할 때 “아! 추워”하는 소리를 못한다. 또, 당주들은 당 앞과 당샘에 금줄을 친다.

제일은 정월 보름과 7월 백중이다. 예전에는 두 번의 제사를 지냈으나 중간에 둘 중 한번만 제사를 지낸 것으로 파악된다. 제를 지내는 시간은 14일 밤에 지낸다. 제사는 상당과 중당, 하당에서 한꺼번에 지내는데, 제를 지내는 장소는 당 앞에 있는 밭에서 지낸다. 祭床은 상당에 4상, 중당에 3상, 하당에 3상 제관들이 齊戒하는 祭室에 성주상을 차린다. 상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짚을 깔아놓고 그 위에 진설을 한다. 제물에는 상중하당이 한꺼번에 상을 놓는다. 상을 놓지 않고, 짚을 깔고 차려놓는다. 祭物은 乾脯와 山菜가 祭床에 오르나 4발 달린 고기는 금물이다. 또한, 메와 국, 건포, 술, 나물 등을 진설한다. 제를 마무리지을 즈음에 소지를 올린다.

제물을 장만하는데 드는 비용은 마을 堂畓 300坪에서 나온 것으로 祭祀의 경비를 부담한다.

당제를 지내려고 당에 오르거나 제사를 지내는 동안 또는 제사일을 며칠 두고 동네에서 사람이 죽거나 출산을 하면 당제를 지내지 못하고 하산한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제를 지낸 후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견고(농악)를 차려서 굿을 치면서 잔치를 벌인다. 마을 사람들이 당주집에 모여서 제상에 올랐던 음식을 나눠먹으며 굿을 치면 논다. 이러한 이곡 상리의 당제는 10여년 전에 중단되었다.

라) 영험담

동네에 불길한 일이 있으려면 당내에서 묘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눈 위에 이상한 발자국이 보인다. 제물을 차리면 하얀 거품이 제물을 덮고 상에서 젓가락 소리가 나는가 하면 당샘에서 뱀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당산나무가 바람이 없는 데도 쉬~쉬 소리를 낸다. 이러면 당제를 罷하고 날을 잡아 祭를 모셔야 한다.

□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③ 도초면 지남리 도제(천제)

조사일시 : 2005년 6월 19일

제 보 자 : 조갑척(남, 75세)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지남리에는 지남, 지북, 지동, 죽동이 포함된 구역명칭이다. 당제는 '도지' 또는 '천제' 라는 명칭

으로 불리고 있다. 도제는 지남리에 속한 모든 마을이 함께 지냈다.

지남리의 당제는 상당제, 중당제, 하당제로 구분되어 있다. 상당제는 천제라고 하여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중당제와 하당제는 구체적 신격이 전하지 않는다. 천제를 지내는 상당은 마을 뒷산 정상부에 있는 소나무이다. 소나무 밑에는 당집이 마련되어 있어서 제를 진행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중당은 상당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서 지냈는데, 구체적 표식은 없다. 하당은 현재 마을회관이 있는 자리인데, 예전에는 큰 소나무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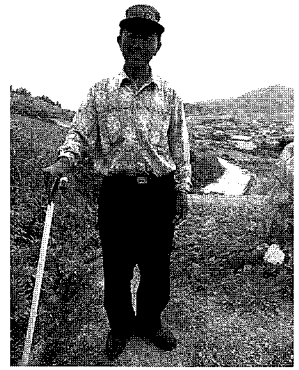


사진 16. 도초면 지남리
조갑척(남, 75세)

나) 도제 준비와 진행

도제는 음력 정월 15일과 7월 15에 지낸다. 두 시기 모두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나, 중단되기 전까지는 1년에 한 번만 지냈다고 한다. 정월 보름에 지내는 도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고, 7월 보름에 지내는 도제는 풍년을 기원하면서 해충을 방지해 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도제 준비는 당주 선정부터 시작된다. 당주는 제를 지내기 3일 전에 2명의 남자를 선정한다. 당주는 유고가 없고 생기가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 선정된 당주는 당집과 당샘 주위에 금줄을 치고, 당샘 청소를 한다. 이후 제를 지내는 14일까지 3일동안 당집에서 정성을 드린다. 당주들은 매일아침 당샘에서 목욕을 하고, 대소변을 볼 경우 목욕이나 세수를 한다.



사진 17. 도초면 지남리 당집

도제 준비에 필요한 제물은 당주들이 장만을 한다. 제물로는 닭과, 간장, 시루떡, 나물 등이

다. 닭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3일동안 기르다가 제일이 되었을 때 잡는다. 제물 준비를 당집에서 장만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비롯한 제기와 식기 등을 가지고 올라간다. 현재 당집에는 제물을 장만할 때 쓰였던 절구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제의 진행은 14일 밤 10경에 시작한다. 상당에서 천제를 먼저 지내는데, 이때 한 개의 상을 준비하고 그 위에 세 개의 촛불과 3개의 물잔을 올려놓는다. 천제를 마무리 지으면 바로 마을로 내려오

는 비탈길에서 중당제를 지낸다. 중당에서는 한 개의 상을 차려놓고, 준비한 제물을 진설한다. 이때 제를 지내고나서 삶은 닭의 날개를 땅에 파묻는다. 이후 현 마을회관 자리로 이동해 하당제를 지낸다. 하당제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대기하고 있다가 동참한다. 이때는 3개의 상을 준비해 닭 몸통을 비롯한 제물 일체를 진설해 놓는다. 하당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동참해서 지내고, 이후 음식을 나눠먹는다.

예전에는 제를 지낼 때 쓰는 축문이 있었는데, 정월 보름에 사용하는 것과 7월 보름에 사용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고 한다. 정월 보름에 사용하는 축문에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7월 보름에 사용하는 축문에는 농사가 잘되게 해달라는 것과 해충을 방지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 행사 및 전승현황

15일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5개의 상을 들고나와 마을 앞에서 헌석을 한다. 헌석은 건고를 치면서 흥겹게 지낸다. 마을에서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마당뵈이를 한다. 헌석은 잡귀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다.

현재 마을에는 당집과 제물을 준비하던 절구통이 남아있다. 당제는 10~20여년 전에 중단되었다.

④ 도초면 우이도 진리 당제

추가조사

조사일시 : 2005년 7월 12일

제 보 자 : 도초면 우이도 진리 문채옥(남, 72세)(남,)

가) 마을 개관과 제당 구성

1896년 지도군 흑산면에 편입된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진리, 성촌, 비두, 저두, 소우이도를 합하여 무안군 흑산면에 편입되었다. 1962년 11월 21일 법령 제 117호에 의하여 무안군 도초면에 편입되었다. 1969년 무안군에서 신안군의 분군으로 신안군 도초면에 편입되었다. 1608년 경주 김씨 김옥승이 최초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형이 소(牛) 귀 모양이라 하여 소구섬, 소구 또는 우개도라 부르다가 이후 한자어로 표기시 우이도라 개칭하였다. 우이도의 진리는 흑산도 진리의 명칭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우이도의 진리 당제는 매년 음력 선달 그믐날부터 정월 3일까지 정성을 들여 지낸다. 당제를 지

내기 위해서 음력 선달 그믐에 상등이 있는 당등으로 올라가서 3일간 정성을 들여 제를 지내고 정월 초삼일에 내려와서 용왕제를 지낸다. 정월 2일에 상당과 쥐당에서 제를 지내고 3일에 내려와 바닷가 모래사장 장굴이라는 곳에서 용왕제를 지내는 것이다.



사진 18. 우이도 진리 마을전경

진리의 제당은 3곳이 있는데 마을 위쪽에 있는 당등에 상당과 하당 두 채의 당집이 있다. 쥐를 없애달라는 제사를 지내는 쥐당은 큰 고목나무 뒤에 있는 절벽바위 밑에 있고 마을 앞 바닷가에서는 당굿을 차려서 용왕제를 지내는데 이 곳을 '하당'이라고 부르고 장굴이라고도 부른다. 당등에 있는 하당은 제관이 머무는 곳이고, 바닷가에 있는 하당은 용왕제를 지내는 임시 제단이다.

당등의 상당과 하당은 각각 기와지붕으로 된 한 칸짜리 집이다. 상당에서는 당할아버지와 당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제를 지내며 하당에서는 당제를 지내는데 필요한 음식을 장만한다. 당제를 지내는 시기가 추운 한겨울이기 때문에 당등에 있는 하당에서 3일 동안 지내기가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당주와 차주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을 피우게 되는데, 한 60년 전에 부주의로 당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당에 온돌을 놓게 되었다. 당제를 지내면서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잠을 자야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낼 수 있지 추우면 정성이 들어가겠느냐는 중론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당등에 있는 상당에서는 산신령 내외 두 분을 모시는데 전에는 상당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림이 모셔져 있었다. 두 그림은 보통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할아버지는 관모를 쓰고 있는 그림이었다. 상당에는 또 두 분을 위한 옷도 준비되어 있었다. 평소에는 피쪽에 넣어서 상당 안에 보관하는데 당제를 지낼 때는 옷을 꺼내서 걸어두었다. 모두 흰색 한복이었는데 할아버지 옷은 두루마기가 포함된 한복이었고 할머니 옷은 치마, 저고리였다. 속옷까지 갖춰진 옷이었다.

당등에는 쥐당도 있다. 들에 쥐가 많아 극성을 부렸는데 쥐를 잘 기르면 오히려 쥐가 없어진다는 믿음에서 당을 마련하여 정성을 다해서 '쥐를 없애달라는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쥐당제는 고목나무 밑에 있는 큰 바위 아래를 평평하게 정리하고 그 곳에서 제사를 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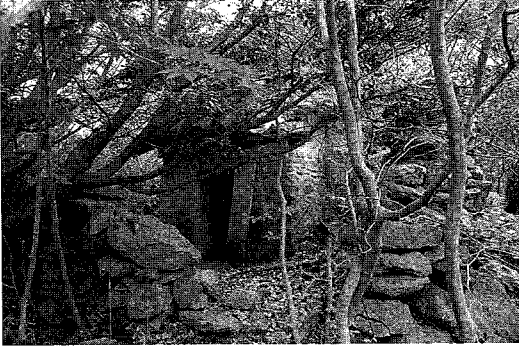


사진 19. 우이도 진리 당집



사진 20. 우이도 진리 당집이 있는 숲

나) 당제의 준비와 진행

당제를 주관해서 지낼 당주와 차주는 선달 23일경에 뽑는다. 당제를 주관할 사람은 생기복덕이 잘 맞는가를 보아 두 사람을 선정하여 당주와 차주로 구분하여 뽑는다. 집안에 유고가 없는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부정한 사람이 당주를 맡았다가 해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당주와 차주가 정해지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하여 집 골목에다가 금줄을 친다. 그리고 당제가 끝날 때까지 조심을 해야 하고 몸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당주와 차주를 앉히고 난 후에는 마을사람들 역시 몸과 마음을 근신하며 조심을 한다. 당주와 차주는 매일 찬물로 목욕을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변을 보면 손을 씻고 대변을 보면 목욕을 했다. 또 굶은 일을 보거나 굶은 곳에 가는 것도 안 된다. 마을 사람들도 엄격한 금기를 지킨다. 빨래를 해서도 안되며 짐을 옮겨서도 안 된다. 먹는 것도 가려서 먹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먹지만, 개고기는 먹지 않는다.

선달 그믐날 당주와 차주가 제사를 모실 재료를 지게에 지고 올라가면 부락에서는 그 때부터 당주와 차주가 제사를 지내고 정월 초삼일날 마을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건고를 쳤다. 2일 저녁 전까지는 건고를 치고 제사를 지내는 시간부터는 조용히 해야한다. 주민들이 상당과 하당이 있는 당등을 신성하게 여겨서 아무나 함부로 올라가지 않았다. 당등에 올라갔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곳에도 금줄을 쳤다.

당등에 올라간 당주와 차주는 그곳에서 밥을 하고 술을 빚고 떡도 만들었다. 또 주민 중에서 당주와 차주를 도와 심부름을 해주도록 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는 당등에 있는 깨끗한 당샘에서 물을 길어다 주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마을까지 심부름을 하였다. 당등에 올라가면 먼저 상당을 청소한 후, 제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를 베어온다. 그런 데 그 해에 준비한 나무는 다음해에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나무는 전 해에 제사를 지낸 당주와 차주가 준비해 두었던 나무를 사용한다.

상당에서는 제를 모시고 하당에서 제관들이 잠을 자고 제물을 준비했다. 제물을 준비할 때에는 정성을 다 바쳐서 해야지 정성이 부족하면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 그래서 당주를 정할 때는 당제를 경험해 본 사람을 뽑았다. 상당에서 필요한 제물은 산채나물 몇 가지와 소머리, 떡, 술, 밥, 국을 준비하고 모든 제물은 자연산 재료로 만들었으며, 생선은 전혀 사용하지를 않았다. 상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은 제물은 용왕제를 지내기 위해서 지계에 짚어지고 내려와서 '장굴'이라는 하당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미리 감안하여 장만하였다.

정월 2일 밤 12시에 상당에다 제물을 진설 한다. 제물은 소머리, 산채, 떡, 술, 밥 두 그릇, 국 두 그릇을 차렸는데 소머리는 꼭 준비를 했다. 상당에서 제사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마을에서 며칠 동안 치던 건고를 중단한다. 당주와 차주는 술을 따라서 올리고 절을 한 다음 산신령에게 올리는 축문을 읽는다. 그런 후에 소지를 올리는데 먼저 당주와 차주의 소지를 올리고 마을의 일을 맡아보고 있는 이장의 소지를 올린 후에 마을 유지들의 소지를 순서대로 올린다. 마을 유지들의 소지를 올린다고는 하지만 하다가 보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의 소지를 다 올리게 된다. 그러나 그다지 좋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의 소지는 올리지 않는다. 당주는 소지를 올릴 때 그 사람의 금년 운수를 점치게 되는데 소지가 잘 올라가면 그 사람은 금년에 재수가 좋아서 돈을 벌겠다 짐작하고 본인에게 "금년에는 괜찮아졌드라"고 말해주고 소지가 잘 안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쫘 집안에 그라졌다"고 말을 해준다. 소지를 올리는 것이 끝난 후에 음복을 하고 상당의 제사를 마친다.

상당의 제사가 끝난 후 바로 쥐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쥐당에는 큰 귀목 나무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고사하고 말았다. 죽은 나무 밑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아래를 편평하게 정리를 하여놓았다. 당주와 차주가 간단한 음식을 차려서 쥐당으로 가는데 아무리 어두워도 불빛을 비추면 안 된다. 불빛이 있으면 기가 동하여 쥐들에게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쥐당에 진설하는 제물은 상당에 비하여 간단하게 한다. 나물과 술, 밥 두 그릇을 차리는데 소제는 올리지 않는다. 쥐당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 쥐를 없애달라고 축원을 한다.

상당과 쥐당에서 제사를 모시고 나면 밤 12시 반이나 1시경이 된다. 그 때부터 당주와 차주는 새벽이 될 때까지 하당에서 기다렸다가 정월 3일 새벽 날이 썰 무렵 남은 음식을 모두 지계에 짚어지고 내려온다. 이때 집안에 굶은 일이 없는 깨끗한 마을 주민들이 찾아가서 제사를 잘 지내고 왔느냐는 인사를 서로 나누고 당주와 차주가 담은 술로 음복을 한다.

아침 8시경이 되면 바닷가 모래사장이 있는 '장굴'이라고 부르는 하당에 당을 만든다. 이 당 이름을 움막이라고 불렀는데 움막은 말뚝을 박고 대나무로 엮어맨 다음에 천막을 덮어서 하나의 집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눈이 와서 쌓여 있을 때는 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움막을 쳤다. 움막이 완성되면 형편이 되는 가정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를 하여 가지고 장굴로 나온다. 대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는 음식을 마련해 나온다. 그들은 음식과 상을 준비하여 나오는데 상위에는 창호지를 깔고 쌀을 부어놓고 돈도 놓아둔다. 상을 준비해 나오는 집은 20~30세대가 되기 때문에 상이 그 숫자만큼 놓이게 된다. 이날 아침 장굴에는 음식이나 상을 준비하지 못한 마을 주민들도 모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 전체가 모이게 된다.

정월 3일날 이렇게 준비를 하여 장굴에서 하는 곳을 '당굿'이라고 불렀다. 당굿을 할 때에는 당풀이 와서 굿을 주관한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우이도에도 당풀이 있었다. 정씨와 이씨 등 여러 명의 당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활동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 당풀은 정창권 부부였다. 당굿에 오는 주민들은 허수아비를 만들어왔다. 조그마하게 만든 허수아비에 종이 돈도 꽂아둔다. 허수아비를 들고 흔들면서 풍어와 가정의 평안을 빌었다. 그러는 동안에 당풀은 굿을 하고 마을 사람들은 건고를 치면서 질편한 놀이판이 벌어졌다.

허수아비는 당등에서 미리 준비해온 나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팔, 다리도 모두 만들었다. 뼈대가 만들어지면 짚으로 살을 붙였는데 다리에 털도 붙였다. 크기도 모양도 사람과 똑같이 만들었다. 특히 허수아비의 남성을 상징하는 성기를 크게 만들어 붙였는데 주민들은 하나같이 그것을 건드리고 놀리면서 재담을 주고받았다. 이 마을 주민들은 허수아비를 '북해용왕'이라고 불렀는데 "니하고 나하고 씨름을 해서 누가 이기는가 보자"며 허수아비와 씨름을 하기도 했다. 허수아비에게 재담을 건네고 씨름하며 장난도 하다가 그 허수아비를 들고 남쪽에 있는 선창구미의 '끝드레'로 간다.

끝드레에는 '애끼래네'라고 불리는 굴이 있고 바위가 하나 있다. 이 바위는 슬픈 전설을 가지고 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업고 젓갈이 든 동이를 머리에 이고 바위를 바쁘게 건너고 있었다. 저 멀리서 배가 오고 있었고 빨리 걸어야 그 곳을 건너 배를 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서둘러 건너던 그녀는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흐린 날에는 '애기 받아라 둥둥 젓등을 받아라 둥둥'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허수아비를 띄우기 위해 마을 앞 바닷가로 간다. 허수아비를 띄우는 것은 배에 싣고 가서 띄우기도 하고, 마을 앞 바닷가에서 바로 띄우기도 한다. 바닷가에서 바로 띄워보낼 때는

마을 앞 끝드레 바위로 간다. 젊은 청년들은 굿물을 들고 북 치고 소고 치고 춤을 추면서 바위까지 가는데 주민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같이 흥이 난다. 바위에 도착하여 허수아비의 오장체에다 몇 가지를 채운다. 짚을 펼쳐서 술과 각종 음식을 담는다. 그 꾸러미를 허수아비의 오장체에다 묶어서 채워주는데 이것은 허수아비를 멀리 보내기 전에 먹을 것을 준비해주는 것이다. 멀리 여행을 떠나는 허수아비는 돈도 있고 먹을 음식도 넉넉하게 장만이 된 셈이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가정에서는 액땜을 하기 위해서 종이에 글씨를 써서 묶기도 한다. 이제 물의 흐름을 보고 허수아비를 바다에 던지면서 “어디 인자 좋은 데로 가거라. 우리 마을에는 미역도 잘 기르고 풍년이 들게 해 주라.”고 축원을 한다. 허수아비가 물결을 따라서 잘 흘러가는 때도 있지만 흘러가지 못하고 바위 근처에서 맴도는 때도 있다. 이렇게 하여 당굿이 끝나고 나면 12시가 넘는다.

허수아비를 떠내려보내고 주민들은 계속하여 건고를 치면서 노는데 정월 초하룻날부터 치던 건고를, 상당과 쥐당에서 제사 지낼 때를 제외하고 계속 치는 것이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건고를 쳐주면서 돈을 받았다. 정월 보름까지 건고를 칠 때도 있었는데 다른 마을까지 다니면서 건고를 쳐주었다. 도목, 성촌, 대촌을 다니면서 건고를 쳤고 소독우로 건고를 치러 갈 때에는 배를 타고 갔다. 눈이 와서 무릎까지 빠져도 걸어나다니면서 건고를 쳤다.

다) 영험담

당제를 주관해서 모시는 당주는 생기복덕을 갖추어서 뽑고 집안에 유고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제사를 맡아서 지냈다가 피해를 본 사람을 제보자는 여러 사람 보았다고 한다. 또 당주로 뽑힌 후부터는 몸을 깨끗하게 해야하고 제물을 준비할 때에도 정성을 다하고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런 금기를 지키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는 당제 지내는 것을 보았거나 당등의 상등에서 제사 지낼 때 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당주로 뽑았다.

신성한 지역인 당등에 무덤을 썼다가 온 집안이 망한 경우도 있었다. 상당이 있는 당등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다 묘자리로서 좋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 곳은 멀리서 보아도 굽신하게 잘 생긴 곳이다. 전라남도 도시찰이던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 자리에 아버지의 묘를 쓰려고 하였다. 그도 당등에 묘를 쓴다는 것이 염치가 없었는지 묘를 쓸 자리에 있는 나무를 밤을 이용해서 베어 내었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여 달려들어서 묘를 쓸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런 사람들의 세력에 맞설 수가 없었다. 그 곳에 두 봉의 묘를 쓴 강시찰은 3년이 못

되어서 부인과 아들이 죽는 불행을 당했다. 그 후 묘를 파 가지고 갔는데 지금 그 곳에는 풀이나 나무가 없고 묘자리를 파간 흔적이 있다. 비석도 세웠는데 비석을 파간 자리도 움푹 파여 있다.

□ 참고문헌 : 『한국의 해양문화』서남해역 下, 2002

⑤ 도초면 우이도 대촌리의 당제와 갯제

가) 제당 구성과 신격

진리에서 도보로 30여분 가면 10호에 60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촌마을이 있다. 마을 案山에 당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신 상당과 성주신과 지신을 모신 하당이 있다. 옛날에는 상당에는 할아버지만 모신 儻堂이었는데, 예리 마을에 모셔 있는 당할머니가 대촌리에 오고 싶다고 촌장에게 현몽하여 예리당을 발당하고 대촌 마을에서 할머니를 모셔왔다고 한다. 상당은 석단과 동백나무 잡밤나무 등이 무성하며, 하당은 석굴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물을 장만하고 성주신과 지신 쥐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나) 당제 준비와 진행

堂主와 化主로 선정되면 화주는 당주의 말을 듣고 음식을 장만한다. 정월 3일 자시에 메와 명태 등 정결한 제물을 올린 후 당주집으로 내려오면 부락 사람들이 당주와 화주에게 큰 절을 한다.

다) 제후행사 및 전승현황

당주집에서 음복이 끝나면 용신인 허수아비를 바다에 가지고 가서 쌀을 뿌리면서 띄운다. 용신인 허수아비가 먼 바다로 나가지 않고 또 다시 돌아오면 그 해는 마을에 변고가 생기며 흉어가 든다. 또 제를 잘못 지내면 구렁이와 벌이 나오며 쥐들이 요란하게 소란을 피운다고 한다. 이럴 때는 낱을 잡아 다시 제를 올린다.

□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⑥ 도초면 서소우이도 서리의 당제와 갯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서리는 우이도 진리에서 2km의 거리에 위치하여 船便으로 30여분이 소요되는 곳이다. 22호 105명이 거주하고 있는 어촌으로 꽃게 어장이 있어 많은 어선이 드나드는 곳이다. 옛날에는 마을

뒷산에 제당이 있었으나 당제를 지낼 때마다 금줄의 吉紙가 동편의 안산에 날아가 떨어지므로 神意가 있다고 생각하여 안산을 靈地로 보고 당을 옮겼다.

山中腹에 있는 상당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신 두 노송의 제단이 있고, 50m 아래 팽나무의 중당제단이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를 모시고 있다. 중당 20m 밑에 암석 하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하당의 아들로 장가를 못들고 죽은 몽달귀신을 모시고 있다. 쥐당은 마을 한 가운데 있으며 가로 80cm, 세로 60cm의 입석 제단이다.

나) 당제 준비와 진행

제일은 정월 3일이다. 제물은 부락의 행정책임자가 구입하며 제주와 소사가 제주 집에서 장만한다. 제물은 飯·牛頭·甘酒·實果·脯 등이다. 祭主와 執事는 마을 有志들이 천거하며 생기를 본 후 부락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주와 집사는 각 1인으로 7일간의 치성을 드리며 상당제·중당제·하당제·쥐당제·갯제의 제전을 執祭한다.

다) 제후 행사 및 전승현황

하당제가 끝나면 갯제가 시작되는데, 갯제는 갯제가 무서운 가면을 쓰고 태사하며 용왕의 신체인 허수아비와 씨름을 하여 다리를 부러뜨려 놓는다.

갯제는 각호의 주부들에 의해서 行祭되며 陳設한 海邊에서 草藁로 된 허수아비 용신과의 놀이와 送神은 제주가 주관한다. 갯제가 끝나면 어유를 용신체에 바르고 제물을 채워 불을 질러, 먼 바다에 띄워 보낸다. 용신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져야 그 해 풍어가 들고 마을이 無事하다고 믿고 있다.

□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⑦ 도초면 경치도의 당제

가) 제당 구성 및 신격

진리 포구에서 선편으로 30여분이 소요되는 孤島로 3가구가 살고 있다. 가장 많은 호구가 살았을 때는 일제시 흥년이 들었을 때 해물이 풍부해서 7가구가 거주하였으나, 지금은 김은동(60세), 김세일(53세), 최성순(52세)의 가구에 8명이 이 섬의 상주 인구이다.

섬 전체가 하나의 산을 형성하고 있으며 마을 뒤편의 산정 가까이에 상당 중당 하당이 있다. 상당

에는 당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산신을 모시고 중당에는 상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모시며, 하당에는 쥐신을 모신다. 당집은 없으나 서문쪽에 제막을 치고 당제를 지낸다.

나) 당제 준비와 진행

제일은 정월 15일 자시이며 화톳불을 피우고 設床·祝文·燒紙 등을 올린다. 제막에서 쇠머리와 제주를 장만하며 상하당과 동서문에 메밥을 올린다. 3일간 祭幕에서 祭主 1명과 執事 1명이 沐浴齊戒하며 致誠을 드린다.

다) 영험담

不淨한 제사를 지내면 당샘에서 이상이 일어나고 물이 흐려 잡것이 나타난다. 쥐신을 잘못 모시면 나무 잎이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바로 그 많은 나뭇잎이 쥐가 된다고 한다. 산뎃이나 쥐뎃이 나는 해는 곡식 구경을 할 수 없게 피해가 많다. 700여년 전에 田氏가 당나무를 베었는데 그 즉시 다리가 아파 한 다리를 자르게 되었으며, 양이나 소는 잘 자라지만 개는 자라지 못한 곳을 개를 기르면 짓지도 못하는 병어리 개가 된다. 몇 번 도적이 배를 타고 들어 왔으나 센 남풍이 불고 갑자기 파도가 일어 죽고 말았다. 이와 같은 일을 堂神이 靈驗하여 그 陰德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최덕원, 『다도해의 당제』, 학문사, 1983

3) 장승 자료 현황

(1) 도초면 고란마을 석장승

①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고란리 고란마을

② 위치와 형태

마을 입구 '장석거리' 또는 '삼거리' 라고 불리는 곳에 석장승 1기가 서 있다. 지번은 신안 도초 고란리(고란마을) 1631번지이며, 지적은 3,915㎡, 절대좌표 N34°41'12.6" E125°59'01.7"이다.

크기는, 높이 290cm, 폭 66cm, 후면 40cm이다. 형태는 머리에 약 30cm 높이의 갓모양의 모자를 쓰고 몸에 도포형의 긴 옷을 걸친 모습



사진 21. 도초면 고란리 석장승

이다. 어깨에서부터 반듯이 내린 소맷자락 아래로 다섯 개의 손가락이 앙증맞게 펼쳐져 있다. 80cm 길이의 얼굴은 290cm의 장승 전체 크기에 비해 다소 긴 편이다. 커다란 타원형의 눈이 툭 튀어나와 있고, 좁은 양미간에서 길게 내려 온 삼각형 코는 두툼하며 투박한 느낌을 준다. 한편 얼굴 측면의 귀(왼쪽 귀가 파손되었다.)는 길고 두툼하게 이어 내려와 투박하면서도 일면 석가모니 귀처럼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한편 입의 묘사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행인에게 위압감을 주려는 의도에서였는지, 웃니 아랫니를 드러낸 형상인데, 오히려 웃는 모습같이 보이기도 한다. 장승의 전체적인 인상은 일견 투박하고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듯하면서도 차츰 접할수록 오히려 포근하고 익살스러운 느낌을 준다. 몸에 새겨진 명문은 없고 뒷면에 건립년대(乙丑十三年)가 새겨져 있다.

③ 제작연대와 유래

고란마을 장승의 유래는 마을의 액운과 煞을 막아 주민을 보호하는 마을 수호의 기능과 관련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는 어느 옛날 마을에 怪病이 번져 수많은 주민(특히 젊은이)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 이 괴병 때문에 주민들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한 선비(혹은 도승)가 마을을 지나다가 “마을 앞에 장승을 세우면 악(惡)을 막을 수 있으리라”는 충고를 하였다. 주민들은 그 말을 받아들여 주민 중에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시켜 나무를 깎아 목장승을 세웠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 1938년에는 석장승으로 바꾸어 세워 현재에까지 이른다. 목장승이 썩어 내려 앉을 때마다 다시 깎아 세워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한 것이 이 석장승을 세우게 된 동기이다. 현재의 장승 뒷면에는 장승을 세운 연대가 ‘乙丑十三年’이라고 새겨져 있다. 본래는 ‘昭和十三年’이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해방후 昭和가 일본 年號라 하여 깎아 없애 버리고, 昭和 1年인 干支 ‘乙丑’을 새겨 넣어 ‘乙丑十三年’이라 한 것이다. 이 석장승은 도초면내에 거주하던 石工들을 불러 제작케 했다고 한다. 장승에 쓰인 화강석은 고란리 蘭末에서 골라 마을 주민 모두가 끌어 왔으며, 장승을 처음 세우고 그 앞에 소머리를 진설하고 제를 올렸다 한다.

위의 건립동기와 과정 외에도 고란마을에는 장승을 세우게 된 유래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다. 최덕원 교수가 이미 보고했듯이 “堂神이 영감이 많아 이 氣를 죽이기 위해서”, “부녀자들이 이바지를 가지고 오면서 堂神에게 바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집에 오자마자 큰 병이 들었으며, 堂을 향해 소변만 보아도 性器가 부어 고생을 하므로 장승을 세워 화를 면하게 하였다”(최덕원, 1983 : 67)는 얘기가 전한다.

④ 관련 의례

고란리 장승의 관련 의례로 마을 공동 제사인 당제가 있다. 현재는 당제가 단절되었지만 과거에는 상당제와 하당제로 나누어 성대하게 지내던 제사였다. 하당제의 신체가 석장승이다. 제의 후에는 일종의 굿놀이인 죽마제(竹馬祭)를 지냈는데, 이 제의는 도초면 일대에 널리 알려져 인근 주민들이 구경하러 올 정도였던 것으로 전한다.

(2) 도초면 외삼마을 석장승

①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외삼리 외삼마을

② 위치와 형태

마을 어귀, 속칭 '빗떡골' 왼편에 석장승 1기가 서 있다. 본래 이 장승은 1946년 건립 당시에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라 '간데돔'이라 불리우는 마을 내 공동우물 옆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제보자들이 어릴 적에 마을 여론에 따라 마을입구인 현재의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장승의 크기는 높이 240cm, 폭 45cm, 후 25cm이다. 머리 위에 큰 갓의 모자를 쓰고 손에는 나뭇가지 모양의 창을 잡고 있다. 긴 얼굴의 상부에 타원형의 눈이 있고, 눈동자는 박아 놓았던 구슬이 빠지고 그 자리가 패여있다. 눈 위에는 가름한 눈썹이 새겨져 있다. 양눈 사이에서 부터 직선으로 삼각코가 양각되어 내려져 있고, 입은 한일(一)자로 벌어져 치아들이 모두



사진 22. 도초면 외삼마을 석장승

드러나 있다. 턱에는 수염을 달기 위해 여러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전에는 이곳에 머리카락을 달아 매어 수염의 형상을 갖추었다 하나 지금은 구멍만이 보인다. 귀는 부처님의 귀처럼 윗부분 보다는 컷볼을 더 크게 하여서 축 늘어진듯이 보인다. 목은 두텁게 하여 옷을 걸친듯이 옷線을 표시한 반면, 가슴은 마치 벌거벗은 듯 하다. 가슴의 좌우로 斜線을 7줄씩 음각하여 갈비뼈를 묘사한듯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가슴 아랫 부위는 목부분과 마찬가지로 옷을 입은 듯이 옷자락의 線을 표시하였다. 한편 남자성기 모양이 옷자락 밑에서 나타나게끔 조각되어 있었는데 30여년 전에 마을 주민들이 보기 흉하다고 하여 파냈다고 한다.

이상 살펴 본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얼굴 각 부위, 옷자락, 수염 등의 세세한 묘사가 사실적인 느낌을 더해 주면서도 치아와 갈빗대를 드러낸다가 옷자락 밑으로 남자성기까지 나타냈던 데에서 한편으로는 그로테스크한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것이 이 마을 장승이다.

한편 이 장승의 기단부에는 장승 건립에 기부한 사람의 명단과 創夫와 石公의 이름, 건립연대가 새겨 있다. 건립연대는 1946년 11월이다. 창부로 새겨진 김창균씨는 당시 이 마을의 구장으로서 장승 건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으며 두 명의 석공은 인근 발매리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장승 기단부에 새겨진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현재는 기단부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

寄附者芳名

千圓 朴用玩

千圓 高龍允

千圓 金興用

千圓 高正彦

五百圓 高公述

五百圓 高長彦

五百圓 高良三

創夫 金昌均

同 高基孝(?)

西紀 一九四六年 丙戌 十一月

石公 黃末洙

同 朴基述

③ 제작 년대와 유래

‘장석’, ‘장성’이라 불리우는 외삼마을 석장승의 건립연대와 동기는 확실한 편이다. 주민들에 의하면, 마을 청년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등 마을에 불상사가 겹치자, 무당에게 문복한 즉 장승을 세우도록 권유했고, 이 얘기를 들은 마을주민들은 이러한 재앙이 외삼마을 앞 發梅마을에 있는, 한 바위의 지나친 氣에서 기인한다고 판정하여 그 氣를 꺾고자 장승을 세웠다 한다. ‘진개바위’, ‘진개방’ 또는 ‘김가(金家)바위’, ‘장군바위’라 불리우는 그 바위가 외삼마을의 氣勢를 가로막는 形局이기 때문에 마을에 불상사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장승 기단부에 새겨진 기록에 따라, 당시 마을구장이었던 김창균씨가 마을주민들로부터 장승건립 기금을 모아 황말수와 박기술이라는 석공

에게 장승 제작을 의뢰하여 1946년 11월에 이 장승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④ 관련의례

외상은 본래부터 마을공동의례가 행해지지 않았던 마을이다. 이 마을의 장승은 풍수비보를 위해서 세워졌을 뿐 장승에 어떤 의례가 행해졌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간혹 명절에 농악을 치게 되면 이곳 장승에서도 굿을 친다. 마을주민들의 대부분이 천주교신자이나 장승을 없애자는 여론은 아직까지 없다고 한다.

(3) 도초면 궁항마을 석장승

① 소재지 : 신안군 도초면 수항리 궁항마을

② 위치와 형태

마을 앞 들판의 수로 옆에 누워 있다. 마을 입구 농수로 근처에 누워져 있다는 제보를 듣고 확인을 해 보니 뒤덮인 흙과 잡초 속에 덮여 있었다. 주변을 정리하고서 온전한 형태를 간직한 장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승의 규모는 길 215cm, 어깨너비 56cm, 두께는 어깨 부분이 27cm, 얼굴 길이 54cm다. 장승의 전체 생김새는 가사를 길친 스님의 형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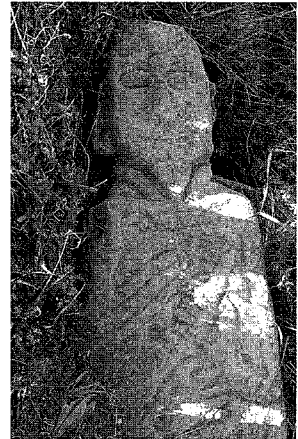


사진 23. 도초면 궁항마을 석장승

③ 제작년대와 유래

주민(이장)에 따르면 50-60여년 전에 세웠지만 세운 지 1-2년 만에 눕혀놓았다고 한다. 마을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산의 바위 형상으로 인해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해석에 따라 장승을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 장승으로 인해 주민들이 화를 당한다는 해석도 있어 장승을 세워놓지 않고 눕혀 놓게 되었다고 한다.

장승의 뒷면을 볼 수 없었으므로 관련 명문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본격 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④ 관련 의례

궁항마을의 장승은 세운 직후 눕어놓았으므로 의례 대상으로 모셔지지 않았다.

4. 구비전승자원

1) 구비전승자원 목록

(1) 설화 목록

번호	대분류명	중분류명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비고
1-1-1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도초면 유래				『전남의 섬』	
1-1-2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발매리 영혁과 지명유래				''	
1-1-3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지남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4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외남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5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수항리 영혁과 지명유래				''	
1-1-6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죽련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7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고란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8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오류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9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이곡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10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만년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11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수다리 연혁과 지명유래				''	
1-1-12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우이도리					
1-1-13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용당산	교석만(남,72)	도초 고란리	2005.6.17~18	''	현지조사
1-1-14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금정산석비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	『전남의 섬』	''
1-1-15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서당터			2005.6.17~18		현지조사
1-1-16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징가바위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1-1-17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승여봉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		''
1-1-18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금당산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		''
1-1-19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금정산과 석비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		''
1-1-20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자라바위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1-1-21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거북바위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2005.7.12		''
1-1-22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여자바위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1-1-23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섬 이름 유래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1-1-24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사당골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1-1-25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동·서 우이도가 떨어 지게 된 유래	문중옥	도초 우이도	''		''
1-1-26	삶터이야기	지명이야기	도선국사와 고운선생이 바둑 둔 이야기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1-1-27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최치원 바둑돌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2-2-1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최면암이야기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2-2-2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최치원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2-2-3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고운선생 북해용왕을 무릎에 숨겨다닌 이야기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번호	대분류명	중분류명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비고
2-2-4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고운선생 압록강에서 사공한 이야기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2-2-5	내력·인물이야기	장수·이인이야기	옥룡자 이야기	문채옥(남,72)	도초 우이도	"		"
3-2-1	생활이야기	생애이야기	벌어묵고 살라고 돌아 다닌 이야기	박철주(남,83)	도초 나박포	2005.6.17~18		"
3-3-1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도초봄뚱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3-3-2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시금치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3-3-3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도초 생업	박갑철(남,72)	도초 나박포	"		"
3-3-4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귀둥구지 옹구배	최인철(남,74)	도초 나박포	"		"
3-3-5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김부주대		도초 죽련리	"		"
3-3-6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혼례에서 맞이단이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3-3-7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민요를 부를 때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3-3-8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고란리 생활상	고석만(남,72)	도초 고란리	"		"
3-3-9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도초 원뚝	최갑철(남,72)	도초 나박포	"		"
3-3-10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산다이	경희엄마(여,51)	팔금 거주	"		"
3-3-11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뛰엄(강강술래)	경희엄마(여,51)	팔금 거주	"		"
3-3-12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흙살리기 놀이	경희엄마(여,51)	팔금 거주	"		"
3-3-13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뛰엄 뒸 일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3-3-14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우이도	고석만(남,72)	도초 고란리	"		"
3-3-15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뛰엄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3-3-16	생활이야기	경험이야기	산다이	고순요(남,69)	도초 죽련리	"		"
3-4-1	생활이야기	풍속이야기	세시음식 중 떡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3-4-2	생활이야기	풍속이야기	초분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3-4-3	생활이야기	풍속이야기	불절음	고순요(남,69)	도초 죽련리	"		"
3-4-4	생활이야기	풍속이야기	다래	고순요(남,69)	도초 죽련리	"		"
4-1-1	초자연이야기	당제이야기	고란리당제	고석만(남,72)	도초 고란리	"		"
4-1-2	초자연이야기	당제이야기	농사절	고순요(남,69)	도초 죽련리	"		"
4-2-1	초자연이야기	귀신이야기	갈판권어다 먹다가 혼난 이야기	경희엄마,(51)	팔금 거주	"		"
4-3-1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넓은통 금매도깨비	박갑철(남,72)	도초 나박포	"		"
4-3-2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낮또깨비 이야기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4-3-3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또깨비하고 씨름한 이야기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4-3-4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낮또깨비 만나면 죽는다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4-3-5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또깨비한테 밥 준 일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4-3-6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장신이 시어야 또깨비도 만나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4-3-7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죽물에 고기 몰이준 또깨비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당	"		"
4-3-8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가 특히 잘나는 꼬랑이 있다	고순요(남,69)	도초 죽련리	"		"
4-3-9	초자연이야기	도깨비이야기	도깨비굴	고순요(남,69)	도초 죽련리	"		"

(2) 민요 목록

번호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1	사랑가 1	김구월(여,67)	도초 수다리 용동	2005.6.17~18	현지조사
2	사랑가 2	"	"	"	"
3	사랑가 3	"	"	"	"
4	청춘가 1	"	"	"	"
5	청춘가 2	"	"	"	"
6	청춘가 3	"	"	"	"
7	육자배기	"	"	"	"
8	긴강강술래	정월금(여,76) 한춘홍(여,79) 박금순(여,69)	도초 지북	2005.7.13	현지조사
9	자진강강술래	"	"	"	"
10	청어영기	"	"	"	"
11	청어풀기	"	"	"	"
12	고사리 꺾기	"	"	"	"
13	덕석물기	"	"	"	"
14	덕석물기	"	"	"	"
15	뛰엄노래	"	"	"	"
16	남생아놀아라	"	"	"	"
17	보보보따리	"	"	"	"
18	새야새야 파랑새야	"	"	"	"
19	등당에 타령	"	"	"	"
20	청춘가 1	"	"	"	"
21	청춘가 2	"	"	"	"
22	청춘가 3	"	"	"	"
23	청춘가 4	"	"	"	"
24	모찌는 소리	"	"	"	"
25	모심는 소리	"	"	"	"
26	긴강강술래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7.13	현지조사
27	자진강강술래	"	"	"	"
28	청어영기	"	"	"	"
29	청어풀기	"	"	"	"
30	고사리꺾기	"	"	"	"
31	지남생아 놀아라	"	"	"	"
32	덕석물기	"	"	"	"
33	재와라 재왔다	"	"	"	"
34	보보보따리	"	"	"	"

번호	제목	제보자	조사지역	조사일시	참고문헌
35	거무야 거무야	"	"	"	"
36	모찌는 소리	"	"	"	"
37	모심는 소리	"	"	"	"
38	지심매는 소리	"	"	"	"
39	더덕이야	"	"	"	"
40	칭이야 칭칭나네	"	"	"	"
41	등당애당	"	"	"	"
42	들강달강	"	"	"	"
43	아리랑	"	"	"	"
44	춘향내리기	"	"	"	"
45	핑핑 장서방	"	"	"	"
46	이빨 빠진 고양이	"	"	"	"
47	중 놀리는 소리	"	"	"	"
48	새 쫓는 소리	"	"	"	"
49	해 부르는 소리	"	"	"	"
50	등당애당	박막동(73) 문옥진(81) 고동례(73)	도초 우이도 진리	2005.7.12	현지조사
51	아리랑	"	"	"	"
52	강강술래	"	"	"	"
53	칭어뛰기·칭어풀기	"	"	"	"
54	남생아 놀아라	"	"	"	"
55	답넘기	"	"	"	"
56	손치기 발치기	"	"	"	"
57	고사리꺾기	"	"	"	"
58	춘향각시 내려온다	"	"	"	"
59	이거리 받거리	"	"	"	"
60	자장가1	"	"	"	"
61	자장가2	"	"	"	"
62	아기 어르는 소리	"	"	"	"

2) 구비전승자원 현황

(1) 설화 자료 현황

□ 설화 분류안(도서지역 설화)

상위분류	하위분류	항목
1. 삶터이야기	1-1. 지명이야기	섬별로
	1-2. 풍수이야기	"
	1-3. 기후이야기	"
	1-4. 바다이야기	"
2. 내력·인물이야기	2-1. 입도조이야기	"
	2-2. 장수·이인이야기	"
	2-3. 효녀·열녀이야기	"
	2-4. 범인이야기	"
3. 생활이야기	3-1. 어로이야기	"
	3-2. 생애이야기	"
	3-3. 경험이야기	"
	3-4. 풍속이야기	"
4. 초자연이야기	4-1. 당·제의이야기	"
	4-2. 귀신이야기	"
	4-3. 도깨비이야기	"
	4-4. 꿈이야기섬별로	"

1. 삶터이야기

1-1. 지명이야기

1-1-1. 도초면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이준곤 외	원평리	『전남의 섬』	

도초는 11개 법정리 마을과 33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삼국시대에는 아차산현에 속하였다가 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압해군에 속했다. 조선 중기까지는 영광군에 속했다가 1894년에는 나주목에 1903년에는 진도에 편입되었다. 일제강점기 1914년에는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안군에 편입되었고, 1962년에 우이도 출장소를 설치하였다. 1969년 무안군에서 신안군의 분군으로 신안군에 편입하게 되었다.

1-1-2. 발매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1598년 한양조씨 조상숙, 조한영 형제가 이주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발매리에는 4개의 자연 마을이 있다. 발매, 화도, 월포, 춘경이다. 발매는 마을의 모양이 매화꽃이 피어있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입도조는 함양박씨 박순흙으로 영암 구림에서 이주해왔는데 1650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화도는 옛날에는 독립된 섬으로 현 선착장 자리에서 불을 피어 나룻배를 이용하였다 붙여진 이름인데 불섬이라고 부르다가 화도로 개칭되었다. 입도조는 한양조씨 조상숙으로 도초 월포에서 이주해왔는데 1598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월포는 마을로 들어가려면 개울과 뺨등을 넘는다하여 월포(越浦)라 부르다가 이후 월포(月浦)로 개칭되었다. 입도조는 한양조씨 조한영으로 장성 북일에서 이주해왔는데 1598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춘경은 봄이면 전답을 일구기 위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는다 하여 춘경이라 붙여진 지명이다. 입도조는 함양박씨 박세경으로 영암에서 이주해왔는데 1658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1-1-3. 지남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지남리 마을은 1598년 한양조씨 조한홍과 밀양박씨 박창선이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남은 지남, 지북, 지동, 죽도 자연마을로 되어 있다. 지남은 마을의 집들의 좌향이 남쪽으로 향해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입도조는 한양조씨 조한홍, 밀양박씨 박창선, 경주최씨이다. 마을 형성 연대는 1598년이다.

지북은 본래 지남마을이었으나 북쪽에 마을이 위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지동 역시 지남마을에 속해있었는데 동쪽에 위치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입도조는 경주김씨 심서량, 경주최씨 최옥만으로 해남 우이도와 해남 화산에서 이주해왔다. 마을 형성은 1608년이다.

죽도는 옛날에 대나무가 많고 물때 따라 연륙 또는 섬이 되는 목이된다하여 대목섬이라 부르다가 이후 죽도라 개칭되었다. 입도조는 달성배씨 배진석으로 광주에서 이주해왔다. 마을형성은 1598년이다.

1-1-4. 외남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외남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수항, 궁항, 발매, 지남 마을의 각 일부를 합해 외남리라 하였다. 1598년 김해김씨 김치우가 이주 정착하여 최초 마을이 형성되었고, 지남리 바깥쪽에 위치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외남리는 외상, 외하, 신촌 3개의 자연마을로 되어있다.

외상마을은 1718년 장흥고씨 고시락이 도초 죽련에서 이주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지남마을 밖에 위치한다하여 외남이라 부르다 인구가 증가하여 마을을 나누면서 외상으로 개칭하였다.

외하는 김해김씨 김우치가 1598년 전북 남원에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외남처럼 인구증가로 마을이 나뉘면서 외하로 개칭되었다.

신촌은 장흥고씨 고장안, 고정언이 도초 외상에서 1925년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1953년 피난민들이 이주해 와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하여 신촌이라 부르게 되었다.

1-1-5. 수항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수항리는 1638년 청주최씨 한충언과 남평문씨 남일득, 남성일이 영암과 보성에서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이 물이 흐르는 어귀라 물목이라 부르다가 수항이라 개칭되었다. 수항 마을 맞은편에 큰 산이 마치 화(火)자로 보인다 하여 그 방지책으로 수(水)자를 써서 수항이라 하였다.

궁항마을은 경주최씨 최우영이 1708년 해남, 장산도에서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활자인 궁의 목에 마을이 위치한다하여 활목이라 부르다가 한자 표기 시에 궁항이라 개칭되었다.

나박포는 김해김씨 김영국이 1838년 흑산도에서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개울이 있어 나박포라 불렸다.

1-1-6. 죽련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죽련리는 임씨가 이주해왔다고 하는데 내력은 알 수 없다. 죽련리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628년 임씨, 김해김씨 김래학이 해남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죽련리의 신교마을은 1658년 김해김씨 김계원, 광산노씨 노치강, 낭주최씨 최시관이 영암, 광산 비금, 영암에서 이주 정착한 마을이다. 옛날에 약초인 삐비가 많이 자생하는 들녘이라하여 신교라 붙여진 지명이다.

1-1-7. 고란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고란리는 1598년 장흥고씨 고창유, 김해김씨, 창원황씨가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옛날에 난초가 많이 자란다하여 고란이란 지명이 붙여졌다.

난말은 창원황씨가 1598년에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고, 고란리 끝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1-8. 오류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오류리는 오류, 엄목, 시목 자연마을이 있다. 오류는 1650년 김해김씨 김운금이 영암에서 이주해와 마을이 형성되었고, 마을에 버드나무가 많이 자생한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엄목은 1786년 원산이씨 이유현이 영암에서 이주해왔다. 옛날에 마을에 엄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엄목이라 지명이 붙게 되었다. 시목은 1598년 경주최씨 최운기가 해남 화산에서 이주해왔다.

시목은 옛날부터 감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1-1-9. 이곡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이곡리는 1568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에 배나무가 많이 자생하여 배낭골이라 부르다가 이곡으로 개칭되었다. 이곡리에는 4개의 자연마을이 있다. 이곡상은 1640년 남평문씨 문이장이 남평에서 이주해왔다. 이곡상은 고란, 만년 마을 쪽에서 뻗어 내리는 두 줄기 산계곡 아래 위치한다하여 이곡리라 하다가 개칭되었다.

이곡하 역시 이곡상과 같은데 입도조는 다르다. 김해김씨 김철, 밀양박씨 박수방, 장흥고씨이다. 영암, 경남, 장흥에서 이주해 왔다.

조진은 장흥고씨, 김해김씨가 장흥에서 이주해와 1748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전에는 대벌 또는 큰벚이라 부르다가 이후 마을 지세가 새의 둥지 같다하여 조진(鳥陳)이라 개칭하였다.

소신은 1650년 안동권씨가 해남에서 이주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소 장사가 산 소를 이곳에서 많이 싣고 나갔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1-1-10. 만년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만년리에는 만년, 도락, 한발 자연마을이 있다. 만년리에 1630년 임씨가 들어와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나 알 수 없고 김해김씨 김명홍이 해남 화산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옛날에는 밤나무와 돌이 많아서 밤석골이라 부르다가 만년이라 개칭되었다.

도락은 평산신씨 신덕모와 김해김씨 김서홍이 하의도와 해남 화산에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1630년에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되내기라 부르다가 이후 개칭되었다.

한말은 1640년경 함양박씨 박세문이 영암에서 이주해왔고 170년경에는 장흥고씨 고창유가 담양에서 이주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의 형상이 매화꽃을 닮았고 매화꽃이 한가할 때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1-11. 수다리 연혁과 지명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전답이 많다하여 옛날에는 건들 또는 건야라 부르다가 이후 수답(水畓)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수다리에는 용동, 수다, 명당, 나포 자연 마을이 있다.

용동은 김해김씨 김운모, 경주최씨가 하의도에서 이주해 와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연대는 언제인지 모른다. 마을 뒷산의 모양이 용과 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수다(水多)는 배씨가 영암에서 함양박씨 박세문이 장성에서 이주 정착하였고, 허씨, 파평윤씨 윤지하가 1724년에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물이 귀한 마을이라 건들, 건야라 부르다가 마을명을 수다로 고치면 물이 많아진다하여 수다로 개칭하였다.

명당은 함양박씨 박정훈이 영암 구림에서 함양박씨 박정민이 도초 발매에서 함안박씨 박용권이 이주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연대는 알 수 없다. 명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마을을 명당이라 불렀다.

나포는 파평윤씨 윤덕오가 강진에서 김해김씨, 밀양박씨가 이주 정착하면서 1598년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베닐리라 부르다가 무명베를 많이 널었다하여 나포라 개칭되었다.

1-1-12. 우이도리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참고문헌	비고
				『전남의 섬』	

지형이 소 귀 모양이라 하여 소구섬, 또는 우개도라 부르다가 이후 한자어로 표기하여 우이도라 개칭하였다. 1608년 경주김씨 김승욱이 최초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우이도에는 진리, 저항, 동서, 예리, 선창구미, 대초, 성촌, 죽도라는 자연마을이 있다.

진리는 흑산도 진리의 명칭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1608년 경주김씨 김승옥이 해남에서, 청주한씨 한두식이 1638년에 영암에서, 남평문씨 문일장이 1640년에 도초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저항은 밀양박씨 박태원, 박태람이 도초에서 1720년에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 형상이 돼지머리 같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서는 동복오씨 오석동이 1620년 해남 계곡에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마을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예리는 동복오씨가 1620년에 동서에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다. 흑산도 예리의 명칭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선창구미는 김해김씨가 도초에서 이주해 왔으나 마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는 모른다. 선창 끝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대초는 파평윤씨가 수다에서 이주 정착하였다. 마을에 대추나무가 많이 자생한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성촌은 밀양박씨가 도초에서 이주 정착하여 마을이 형성되었으나 연대는 모른다. 흑산도의 성촌 마을의 명칭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죽도는 상원김씨가 우이도 예리에서 1801년에 이주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옛날에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한 마을이라하여 죽도라 붙여진 지명이다.

1-1-13. 용당산

고란리에 있는 뒷산이 용당산이다. 옛날 고란평야에 용이 사는 연못이 있었다. 이 용이 하늘로 올라갈 때 마을의 뒷산으로 올라갔다하여 용당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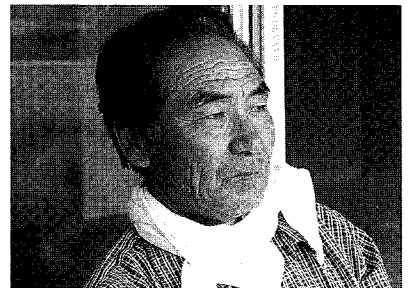


사진 24. 고란리 고석만(남, 72세)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고석만(남, 72세)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1-1-14. 금정산석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고란리로 들어가는 길목 발두둑에 자연석처럼 생긴 돌비가 세워져 있다. 옛날 금정산에 도사 한 사람이 도를 닦고 이 산을 떠나면서 “햇골꼬챙이”에 석비를 세운 후 비에 새겨진 글을 해독한 사람 든 금정산에 금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라 했다. 또 만약 비를 옮기면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하루는 발주인이 밭을 개간하면서 귀찮아 그 비를 넘어뜨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부터 심하게 아프게 되어 전해 오던 스님의 말이 생각나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고 한다. 비문은 오랜 세월 마모가 되어 알아보기가 어렵다.

1-1-15. 서당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2005.6.17~18	

수항리 마을 뒤편에 서당터가 있었으나 현재는 소멸되고 없다. 이 터에 본관을 알 수 없는 봉천씨라는 사람이 움막을 치고 살았는데 꿈에 산신령으로 보이는 노인이 나타나 서당터에 있는 주엽나무의 가지 3개가 모두 끊어지면 이곳을 떠났다가 10년 후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 해 이유도 없이 주엽나무 3가지가 부러지자 봉천씨는 본면 신교리로 떠났다. 그 이후부터 신교리는 가세가 흥하고 수항리는 가세가 기울었다고 한다.

1-1-16. 징가바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에 축지법을 이용하는 장사가 우이도 상산봉에서 서리로 뛰면서 다시 발매 마을에 있는 징가바위로 건너뛰면서 생긴 발자국이 있다. 장사는 다시 명당리 할미봉으로 건너뛰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1-1-17. 승여봉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발매리 마을 뒷산 정상에 여승봉이 있다. 맞은편은 우이도의 명당인 상원김씨 선산에서 북을 올리면 발매마을 뒷산 정상 바위에서 승여가 춤을 추었다고 해 바위를 승여봉이라 한다.

1-1-18. 금당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죽련리 뒷산인 금당산에는 금화봉, 옥여봉, 학살봉이 있다. 산 모양이 마치 옥녀가 무명베를 짜는 베틀형으로 생겼다고하여 금정산이라고 했다.

1-1-19. 금정산과 석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택시기사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금정산 또는 금당산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도사 한 사람이 도를 닦고 있었다. 수년이 흘러 도사는 수도를 끝내고 금정산을 떠나면서 고란리, 신교리, 수항리 3개 마을 경계인 햇골꼬팡이에 손으로 돌에 각을 새겨 비를 세웠다. 고란리를 읍이라 칭하고 내가 쓴 글씨를 해독한 사람은 금정산에 금이 있는 곳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찮은 돌비석이라고 후대에 사람이 위치를 변경할 경우 재앙이 뒤따를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 그 후 밭을 개간하기 위해 비석을 옮겼는데 즉시 아프게 되어 원상태대로 옮겼더니 병이 나왔다.

1930년 일제치하에서 비석의 전설을 듣고 금정산에서 채금하였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1-1-20. 자라바우

물이 쓰른 연결되고 물이 들른 못가고. 물이 쓰고 들어도 보름살이 물이 대개 쓸 때 바위가 나와

요. 고동도 잡고, 소라도 잡고, 굴도 까고, 툇도 매고, 여름에는 미역도 좀 씻고. 사리때가 가장 물이
 썩제.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바위가 자라같이 생겼다고 해서 자라바위여. 굴이 제일 많이 있고, 소라, 고동 툇도 있고, 여름에
 가문 미역도 있고.

물때를 한무세 두무세 서무세라고 부르제.

1-1-21. 거북바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수다리 수다마을 뒤편 옥녀봉 아래에 높이 2m, 넓이 6m 크기의 거북이가 입을 벌린 형상으로 새
 겨져 있다. 이 거북이의 운기로 맞은편에 있는 활목(궁항리)마을 사람들이 중년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재앙이 있어서 궁항 사람들이 거북이 아래턱을 털어냈다는 전설이 있다.

1-1-22. 여자바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정약전의 자산어보에 보면 창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물고기 이름 같은 것을 정약전한
 데 가르쳐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흑산도 사리 사람이여.

동, 서우이도가 예전에는 합해져 있었제. 우리네 어머니들이 서우이도에서 개가해 왔는데 그 전
 에는 우리 어머니네들이 다리를 건너 댕겼어. 110년 정도에 거가 터져브렸어. 저그 저 동쪽에 서우
 이도에 가문 팔뚝처럼 생긴 산이 한나 있어. 바우가 거가 여자 바우가 있어. 독이 있어 그란디 어떤

사람들이 바위를 구멍내블른 잘 된다고 한게는 즈그 부락 사람이 궁글라고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인자 저그 우이도 진리까정 와서 인부를 동원해가꼬 안 넘어 갈 놈을 막 줄을 걸어서 궁글러 버린께 막 넘어간디 그것 궁글러버린 뒤로부터는 터지기 시작해 거가 물이 들어가꼬 그 전에 거가 샘이 있고 논, 전답이 많이 있고 그라던덴디 인자 그 때부터 궁글러 버린 뒤로는 물이 그렸어. 지금도 무지하게 깊어.

여자 바위를 허물면은 그것을 궁글러버리른 부락이 더 잘 된다고 하니까 근데 논, 전답이 다 없어져 버렸어. 동리, 서리가 잘된다고. 동리, 서리는 원래는 한 동네제. 거기가 터져버리니까 동리, 서리 그라제. 태도 사람들은 그 바우가 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궁글러버리라고 했어. 모릉께 잘 된다고만 한께 궁글러버렸어.

남자바위하고 쌍봉으로 보이게 돼 있제. 그럼 여자 바우 이야기는 백 몇 십년전에 인자 이렇게 백년 남짓하제.

1-1-23. 섬 이름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여기 앞에 있는 섬이 가도. 명에 가자 섬 도자. 우이도가 소형국인디 소의 명에라고 해서. 그 뒤에 섬은 백도. 독이 흑해. 여그 가도 밑에는 송도. 솔 송자 송도. 그 아래는 꽃 화자 화도. 중섬이 있어. 중섬은 어디냐면 호성예불이라고 되 호자 중 성자 중이 염불이라는 곳이라고 해서. 중섬은 서리 뒤에가 있어. 작은 거는 중섬이고. 목 건네는 바랑섬. 저 아래는 우이도라고 해서 달이 있어야 소가 먹거든 달섬. 비도 코 비자 비도가 있어. 진리는 소의 중간쯤이여. 예리가 꼬랑지 부분이여. 저쪽에 가면 마기산이라고 있어. 말 마자 탈 기자. 말이 있어야 장군이 타거든.

장군은 무령이 있어. 상산이 꼭 장군처럼 생겼어. 대초리도 그 쪽서 뵈고 진리서 제일 높은 산이여. 그 산 아래 장군출진이 있으니까. 그 산 이름이 장군출진이제. 여기 또 옥녀탄금도 있어. 옥녀가 거문고를 탔다.

1-1-24. 사당골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정약전 선생이 6개월은 우이도에 있고 6개월은 흑산에 있고. 저 옥에가 집터가 있고 저가 공동산에가 서당이 있고. 집터는 우대미라고 그래. 공동산 있는데는 사당꼴이고. 지금도 거가 무덤이 많이 있어. 공동산이라고 이녀 땅 없는 사람은 죽으면 거그다 가서 묘쓰고.

정약전 선생은 내가 알기에는 딸 성제를 여그서 넣고 살다가 죽은 뒤에 즈그 손들이 와서 묘는 파가버리고 인자 없다고 그런 말은 들었어. 지금 생각하믄 인자 정약전 선생을 우리 집안에 모도 명필, 명사들이 많았었니까 물었으면 한디 지금 생각하믄 정약전 선생이른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제. 그렇게 안 했으믄 전부 우이도 역사를 내 손으로 다 물어서 기재해 났을것인디 지금 생각하믄 그런 것이 애석하다.

정약전 선생이 여그서 부인 얻어가지고 그 딸 성제를 넣고 여그서 살았다는 거는 알제 그런 역사는. 부인은 진리 지방분이제. 성씨는 누군지 모르고. 정약전 선생이 천주교 창설자란 소리는 내가 알고 있제. 그래가지고 그거 찾을라고 서울에서 대학교수가 일곱명이 여기까지 왔었어.

정약전 선생이 천주교를 전파했다 해. 그래서 정약전 선생을 거시기 해가지고 여그다가 우리가 인자 그 흑산 김사현이가 즈그 교장에다가 하제. 여그다가 안 할라고.

우리 고조부는 천주교 전파한 그런 것은 없고. 사정만 서로 물어서 그런 것을 했던 모양이여.

1-1-25. 동·서 우이도가 떨어지게 된 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중옥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저기 산에 보면 돌이 보이는데 저 돌하고 똑같은 돌이 그 쪽에도 하나 있었답니다. 노승이 지나가시다가 그거를 밀어 넣어버려야 좋다고 해서 전부 인력 동원해가지고 바다로 굴러 버렸나봐요. 그리고 나서 바로 가운데가 갈라져 버렸다고 하대요. 저희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돌이 참 흔들 바위처럼 돌 우에가 이렇게 큰 돌 하나가 더 나져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기 사이가 조그맣게

있었는데 거기를 기어 다녔거든요. 지금 가서 보면은 뛰어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1-1-26. 도선국사와 고운선생이 바둑 둔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도선국사가 은복개 여그다 놓고, 아니 고운선생이 상산에다가 은복개놓고 철마 놓고 바둑판 놓고 그래서 거그서 놀았다고 일전에 박씨 집안에서 농담으로 상산에 가서 똥 싸든 어떨까 그랬는디 병신되얏서. 상산은 우리 어렸을 때 명산이여.

뭔 상산이 연금이 있다야 하고 옷 벗어서 뒤로 상산을 보고 그랬는디 기양 병신되얏어. 그런 좋은 명산은 사소한 잡담도 하든 안돼. 그러니까 황해도 구월산이랑 우리 나라 산세가 전부 다 북쪽으로 걸렸는디 황해도 구월산하고 우이도 상산은 남으로 자빠졌제 북으로 안 자빠졌어. 그래서 우이도 상산은 황해도 구월산 낙맥이라고 그래.

명산이어서 어렸을 때 가고 그러면은 네모진 거기다가 동전도 넣고 철마도 모셔 놓은거 보고 그랬는데 인자 철마가 다리만 부러져가지고 몸체는 있고 지금 그 놈을 보물로 주서놔으른 좋았을 것 인디.

상산에 철마는 쪼간하게 도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놔뒀어. 독을 상자처럼 해가지고 한짝씩 이렇게 도팍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게끔 해놔어. 거기에 철마모시고 은복개도 있었고.

제는 안 모시고 다녔지. 우리가 어려서 볼 때는 철마랑 은복개 있었고 이것은 윤씨가 팔아먹었다고 해가지고 윤씨가 죄를 받아가지고 몇 가구가 안되고 한 가구가 대를 못 잇고 죄를 받아서 그랬다고 해.

1-1-27. 최치원 바둑돌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최치원 선생이 우이도를 다녀갔다고 하는데 그 때 바둑돌도 남겨놓고 철마도 남겨놓고.

철마는 봤어. 우리 어려서 철마는 주먹만 해. 우리 부락 집안에 조부들이 녹일라고 성냥창에 가서 녹일라고 한디도 안 녹여지고 그래. 지금 생각하믄 그것을 주어노문은 보물인디 요만해. 얼루 가브렸어.

2. 내력 · 인물이야기

2-2. 장수 · 이인이야기

2-2-1. 최면암선생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굴봉는 최면암선생이 시짓고 농시름 오늘만 내가 안 잡혀가믄은 살것인디 오늘을 냉길랑가 모르 겠는디 그 날 잡아갔어.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가가지고 천황이 최면암을 암것도 안 먹고 일본서 굶 어서 죽었어.

굴봉에서 면암선생이 서당을 공동산 야찬대 고리 내려오믄 거가 공동묘지여. 거가 정약전 선생이 거그서 서당 짓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랬어. 최면암선생은 독잠 들어봐라 글믄 어찌 저 돌 을 든대야 글면은 최면암선생이 이렇게 뭐 사술을 쓰면은 겘으로 들리고 그랬어.

최면암선생은 술력이 있었어. 저그 올라가서 비가 오니까 못 내려오고 있는데 샷대를 몇 대 써서 내버리니간은 부락에서 샷것이 떠오르니까 그놈을 쓰고 내려왔어.

비가 와서 거기서 글씨 써서 내버리니간 샷것이 부락에서 동동 떠올라서 그것을 쓰고 내려왔어. 그렇게 술법을 쓰니간 못 드는 독도 들고.

굴봉에는 굴 있제 저가. 큰 독 밑에 짝에 샘도 있고 물 있음께 서당에 땡길 때는 놀기도 하고 그랬어.

2-2-2. 최치원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그 전에 최치원 선생이 여그와서 계실 적에 중국으로 사신 들어가다가 제주도는 대영주, 우이도 상산은 소영주여. 그렇게 지나시다가 우이도를 들렀는데 비가 안 왔어. 그래서 모도 인민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있으니까

고운선생이 인자 옥황상제가 용자(용왕)를 불러서 비를 주는 것인데 기양 고운선생이 용자를 불러가지고 비를 쫓아. 그러니까 그 용자가 화내서 옥황상제님이 내 명령없이 비를 쫓으니 잡으러 왔으니까 용자를 무릎 밑에다 감춰가지고 시간넘은게 내 쥐서 살아났다고 인자 그래서 고운선생이 저그다가 바둑판 놓고 그라고 그 전에 고운 선생 철마를 봤는데 다리는 부러져붙고 내가 몸체는 봤었는데 그것이 보물인데 기양 우리들 어렸을 때 봤어도 말아브렸어.

2-2-3. 고운선생 북해용왕을 무릎 밑에 숨겨 다닌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그 전에는 상산봉이 영주산이여 소영주산. 제주 한라산이 대영주. 고운선생이 제주도에서 해가지고 요리해서 청나라에 들어가다가 요기에서 있는데 그 때 마침 가뭄이 들어서 부락이 비가 안 오니까 주민들이 도탄에 빠지니까 고운선생이 북해용왕을 불러서 비를 주라고 하니 북해용왕은 옥황상제의 명령이 있어야 주는데 그란디 옥황상제가 보니까 비를 쫓거든. 그래서 옥황상제가 용왕한테 내 명령없이 비를 쫓다면서 죽일려고 하니 북해용왕을 우리 어려서 듣기에 그래 고운선생이 무릎 밑에 몰래 숨겨줘서 시간이 지나서 살았다 그래. 그래서 고운선생은 예로부터 유명하제. 서울에서 파경 깨진 거울을 때우러 다닌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처녀가 좋은 거울이 한 쪽 귀가 떨어졌거든. 때워주라고 갔다쫓는데 깨져버리니까 대대로 내려온 채경을 깨 버렸으니 그 여성이 영웅이여. 파경노가 영웅인지 알았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파경노. 파할 파 거울 경 종노자로 종을 삼어. 그란게 중국에서 한국에 명의 있는가 본다고 독으로 서랍을 싸가꼬 한국으로 보냈어. 그 속에 든 것을 알아맞춰보라고 한다. 파경노 사는 사람이 자기가 보니까 뿔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일주일 시간을 쫓는데 모르면 사형 당하거든. 인자 모른게 삼사일을 들이고 나서 딸이즈 그 아버지 보고 우리집에 파경노가 있는데 뭘 그리 걱정하냐고. 파경노가 뭐냐? 종살이를 해도 영웅이요. 아버지가 말하길 파경노가 영웅이여? 불러 들여서 파경노를. 이걸 맞춰줄때니까 증문제를

풀어주라고. 니가 이걸 알아 맞출수 있냐 그러니까 알아맞출 수 있다고 그러면 소원이 뭐냐고 하니
 까 난 별거 없고 종문제만 없어주소라고 말한다. 파경노가 단단 석중물 반백반황 이게 계란이여. 즈
 그 딸이 또 한소리해. 야야 지조란 밤마다 때르르르 우는 새는 성중미토음이라 닭이 되었어 근데 소
 리를 토하지를 못해. 그래서 고운선생이 영웅이라. 고운선생은 죽은데가 없어.

고운선생이 파경노여. 고운선생이 직접 파경노를 했어. 즈그 딸이 영웅이랑 같이 살라고 종문제
 를 없애버렸어. 고운선생이 옥룡자라고 그러던가. 야야 시시조가 때를 아는 새가 성중 소리속에 미
 토음 둘러싸고 있으니 소리 못하고 떠론 한다 이거지.

중국 들어간디 십이 병풍을 퍼냈는디 말 타고 들어가면서 그거를 다 외워버렸다.

2-2-4. 고운선생 압록강에서 사공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고운선생이 압록강에 가서 사공을 했제. 복숭아 먹고 고운이 되었다고 하던가. 압록강에서 사공
 노릇을 하는데 중국 사신이 비상아 비상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새는 벌레를 잡아 먹는다. 담출
 물 담출물하니 바닥에 나중에 새가 물에 앉았으니 새를 자거든.

2-2-5. 옥룡자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저그 영암 구림에서 즈그 어머니가 복숭아를 먹고 임신했는디 애비 없이 임신했다고 갔다 버렸는
 데 비둘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호를 하거든. 그것을 중이 보고 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똑똑하거든. 그래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당나라 일행이라는 거그서 공부를 했어. 천문지리를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인차 한국에 나왔는데 영암 거가 비둘기 구 수풀 림자 구림인디 옥룡자가 거기 산
 밑을 잘르면은 한국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러니까 옥룡자가 거기를 자를려고 본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곳인데 거기를 자르면 마가 끼거든. 그래서 소위 선생이라는 사람이 제자의 나라를 망하게 할려고 행사한다고 거기다 철박을 놓고 방에 한번 콕 찌르면 중국서 대인이 죽고 인자 출소를 못하게 철박을 막아서 옥룡자가 그러고 있으니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해버리라고 하니까 내 제자여도 재주가 나보다 출중해가지고 옥룡자를 처리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 나라로 불러라 그랬어. 그래서 어디로 불렀어. 그래가지고 옥룡자를 만나가지고 그러믄은 나를 당호를 하나 주라고 해서 공자는 중국에서 아들 자를 쓴거고 옥룡자는 한국의 벼슬을 한 사람이다.

3. 생활이야기

3-2. 생애이야기

3-2-1. 벌어묵고 살라고 돌아다닌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박철주(남, 83세)	도초 나박포	2005.6.17~18	현지조사

벌어묵고 살라고 돌아다녔제. 만주도 가고 했제.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아주 곤란했어. 그래서 우리 부모네들이 나가서 벌어묵고 살아라 그러께 나갔제. 나가서 이리갔다 저리갔다 했제.

열일곱 살에 결혼해서 열야답살에 무산이라고 있어. 무산 엔땡이 막은디를 갔어. 윈 막은디. 강 막은디. 경상도 쪽. 한 일 년 있다가 쩌간 있다가 또 와서 못 견딘께 만주를 갔제. 만주 봉천을 갔는디 어찌나 춥던지 일 년 반만에 추어서 집으로 와 부러써. 문고리를 자브른 문고리가 썩 빠져부러. 그렇게 추었어.



사진 25. 나박포 박철주(남, 83세)

그래갖고 와서 일본 북해도를 갔어. 북해도 가서 한 사년 칠 개월 있었으까. 해방되나 갖고 나왔썩께. 탄광에 가 있었제. 실은 알고 보면 일본 놈들이 막 끄서 갖제. 강제로. 그래서 정부에서 그라드라고. 유월달까지 정부에서 신청허라고 허든가. 나는 별로 바라지도 안해. 되믄되고 신청은 했제. 일본씨 온지가 한 스물여덟살에 나왔던가. 흑산도로 가거도로 돌아다녔제.

해방 되야갖고 여그와서 또 나 돌아다닌 이야기그를 허믄 역사에도 들것네. 일본씨 해방되야갖고

와갓고 가거도를 들어갔어. 가거도로 들어가서 고기잡은 배를 탔어. 홍어잡는 배. 그 배를 타다가 별이가 안된게 가거도에서 멸치를 겁나게 잡거든. 가거도에서 멸치것을 동우에 담아서 이백통 삼백통 배에다 싣고 목포로 폴로와. 폴라고. 사서 장사할라고. 장사 댕길 댕게. 그래 와 갓고 뺨에다 배를 올려놨는디 배가 짜그라져볼대. 멸것동우가 전부 떨어져 갓고는 물이 다 헛끄러져부렸어. 그래 갓고 물이 든게 동우를 뺨뺨뺨뺨 놓고 갓물 떠서 채웠제. 물어끄러져볼면 배리거든.

여그와서 있는지는 일본서 스물야달에 아왔던가 했어. 홍동 흑산 가거도로 돌아다니고 광주 가서 한 오년 살았제네. 광주에서는 암곳도 못한게 놀고 묵었제. 손지놈들이 학교댕긴게 아들이 일한게 두 늙은이들이 밥해주고 있었제. 나는 건달맹키로 놀고 묵었제. 아그들 졸업허고 다시 들어왔제. 다시 들어온지가 한 십년돼야.

그때 배는 돛단배였어. 풍선배제. 고기도 잡고 목포도 왔다갔다도 허고 장사도 허고. 그때는 고기를 자브면 다 목포로 폴로 와. 가거도 바닥이라든 중국이 가깝제. 중국근처까지 가제. 날이 청명허든 중국 산도 뵈제. 그런 때는 중국 배가 잘 안나다니대. 지금인게 중국 배가 도둑질도 다니제. 그래서 고기가 그렇게 흔했제.

그때 자브 고기는 홍어라고 있고, 은상어라고 있고, 상어라고 있고, 가오리 그런 놈들 잡어서. 홍어 잡은 배가 따로 있고, 멸치잡은 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주낙으로 낚도 그때는 잘 몰었어. 주낙을 놀 때는 스무바꾸 갓고다닐 때도 있고 서른바꾸 갓고 다닌 배도 있고. 고놈을 하래 두 번씩 해. 들물 썰물에 두 번씩. 들물때 났다가 찬바리에 거뒀. 찬바리 물이 반반할 때. 물이 반반할 때는 가도 안코 오도 안코 해. 그때 주낙을 거뒀.

계절별로는 홍어는 겨울 시한에 멸치는 가을. 짱어허고 상어 그런 것이 많이 몰었제. 낚그기 때문에 종류가 별로 업제.

풍선배는 직접 제조했제. 풍선배에 돛은 두 개 시우는 배도 있고, 시 개 시우는 배도 있제. 돛은 당목로 만들어. 찢어지든 그냥 지워. 노는 뒤에가 있고 치 딸린디가 있어. 노는 언제 사용하나하든. 배 댕 때만 쓰제. 바닥에서 선창으로 들어올 때 돛을 다 지워버리고 그때만 노를 쓰제. 풍선배는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풍선배에도 사람이 많해. 선장 있고 선주 있고 이름이 많해. 그런 배에도 화주장 있고 밥해주는 사람도 있고. 서이 탄 배도 있고, 너이 탄 배도 있고. 돛 달고 주낙 세리고 걷고 놓고 헌께. 일이 간단해 사람이 별로 만치 안치. 고기는 자브른 물칸이 있어 그 곳에 살리제. 새물 담어준디가 있어. 새물 같이주고.

먼디 나가믄 이틀 정도. 배 안에서 밥을 해먹은디, 나무도 실고 다 챙겨다니제. 장작을 짚막짚막 허게 묶어서 다니제. 섬에 다니믄 장작 파는디도 있제. 짚막허게 묶어서, 목포로 풀로 나오제.

중국이 보이는데까지 가믄 한 아홉 시간 열 시간 가믄 나와.

딸 한나 아들 셋. 광주 서울서 살제. 여그는 큰 아들이 살고 있제. 큰 아들은 평야 나라농사를 짓제.

3-2-2. 조부 통정벼슬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욱(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이것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는 정삼품 숙부인 한씨라고 되었는데 우리 조부씨가 통정대부 벼슬을 했으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부님은 통정대부 경북궁 우이장 겸 선해낭청이라는 벼슬을 하셨고, 별세하신 연도가 경진년 지금으로 말하자면 1940년.

근무는 평소 그런 벼슬을 봤으믄 지방에서 하제 어디 서울에서 하졌어. 경북궁 우이장인데요. 벼슬이 그렇게 그렇게 봤어도 지방에서 했어. 지방 여그 우이도 진에서.

3-2-3. 유암총서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업 송기태 김현주	문채욱(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유암총서라는 책은 고조부 노정기를 기록하고 있는것인데 그것은 인자 그 때 할아버지가 저그 당시에 정약전 선생님이 유암총서라고 제목을 붙여 놓으신 것이제. 표지를 넘기면 표해시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인자 그 할아버지가 거기 갔을 때 인자 이놈을 기록해가꼬 왔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 외울 것이여. 인자 배에서 전부 이것을 해가꼬 와서 여그서 정약전 선생이 유배되어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거시기해가지고 구전상으로 많이 듣기도 하고.

3-2-4. 문순득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내가 사는 집은 순자 득자 할아버지가 지은 집이어. 5대조 할아버지. 퇴락했응께 지붕도 갈고 했제. 5대조가 지은 집 그대로 가만히 있어. 150년 나뉘 된 집이어.

문순득 할아버지는 5대. 그러니까 고조부여. 할머니 성함은 김해김씨. 상태가 친정. 그 할머니 이름은 몰라. 자녀는 운주, 운계, 운근. 운주가 장손. 운근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 운근 할아버지는 광길, 신호, 그라고 우리들 거시기제. 광길 할아버지가 우리 조부씨고 그 할아버지 아들이 신호제. 그리고 5남매가 나왔제.

문순득 할아버지 고조부가 25살에 표류했어. 결혼은 했었어. 그 때 우리 고조부가 배를 두 척 갖고 큰 배는 홍어 잡이 할려고 보내고 둘째 배로 나오시다가 흑산 영산도 밑에 꼬깔섬이 있어. 거그 오시다가 태풍을 만났어. 선원들 이름이 다 나오제. 다 우이도 분이여.

튼 수로 말하든 아무리 크다고 해도 20톤이제. 목선으로 생겼어. 앞에 넙적해가꼬 큰 돛대 두개 씨고 땡긴겨. 홍어는 흥태도에서 사가지고 저 나주 영산포로 가서 팔았어. 태도보고 흥태도라고 그래. 삼태도라고도 있지만은 상도, 중도, 하도 인자 그렇게 있는디 그 전에는 흥태도라고 그랬어.

나주 영산포에다가 팔고 거기서는 쌀이라든가 곡식을 싣고 와서 또 여기서 팔고 그눔하고 교환해가지고 농토가 적거든. 없으께 배로만 지어먹으께 흥애잡아가지고 곡식하고 교환해서 인자 먹고 그랑께 그 전에는 김씨들도 돈이 없으께 말이 배에다가 독을 많이 싣고 들어가서 인자 물건하고 바꿀라고 들어가기꼬는 곡식을 없으께 곡식 실어준께는 풀아가꼬 와서 저 돈 곡식도 주고 그랬다고 그래.

우리 고조부가 그렇게 표류해가서 외국을 땡겨왔다 그런 것은 다 알고. 태풍 만나서 돌아가신지 알고 개가 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집에서는 제사 지낸 집도 있었어. 우리들도 제사를 지냈제. 삼년 넘었으께 다 저그 저 몇 달 넘어서도 배가 안 온께 죽어브렀다고 그래가꼬 있다가 우리 고조부가 저 중국 광둥으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든 홍콩있는데가 광둥이여. 고리 해가지고 저 이주로 해서 돌아올 적에 5일이 걸렸다니까. 돌아와서 모도 집도 3채 짓고 아들이 큰 아들, 작은 아들, 막내 아들 이래가지고 삼형제인디 우리 집이 농사집이여. 밖에 여그다가 노적을 재냈는디 고조부가 돌아온께 노적밭이 브러졌다고 그래서 고조부가 돌아가신 후로 복을 가꼬 왔다가 복을 도로 가꼬 갔다고 그래.

고조부가 복이 많이 있을 때 인자 노적을 재놓고 마을에 비가 안 오니까 고사지내서 인민한테 곡식을 배상해주었어. 그랬는디 인자 그래서 후손들이 다 잘 되고 그런 모양이여.

조부께서 촌에서 벼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문순득 할아버지의 선조가 벼슬을 맡아가꼬 하셨으니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제. 그 전에 진이 있어가지고 저 옥에 관사터가 있는디 집을 열 한채를 지어놓고 저 쪽이 나발터인디 먼 배가 다닌다고 하믄 부락에서 봉화를 올려. 봉화를 트는 사람이 산봉우리마다 틀른 서울서 5분이른 들어가.

우리 조부씨네들 말 들어보면은 5년가도 안 온께 시집 간 여자들도 많이 있는디 우리 고조모님은 남편없은께 시집가라고 배로 실어다가 친정에다 주믄은 삼일 안돼서 오고 안 변하고 계시다가 농토 많이 장만해가지고 노적 실어다가 부자로 살았어.

땅 장만은 표류 하시기 전에 장만하고 표류하고 와서도 장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익을 많이씩 보고 했제. 흥어는 그 전에는 안하고 우리 고조부가 남자 형제가 여섯이여. 그 중에 넷째가 팔았어.

정약전 선생이 유배 왔을 때 문순득 할아버지가 25살 무렵에 표류했다가 왔으니깐 30살 무렵 그 때 대화를 하고 그 기록을 남긴거여. 정약전은 영리했으께 그랬다고 그런 말만 하제.

결혼하고 그 때부터 쪽 이 집에서 살았어. 장손은 저 옥에가 옷집, 간대집, 아랫집 세 집 있어. 그라고 인자 우리 고조부는 늘 남은 집으로 안 가고 여그서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 때는 막내하고 사는 풍속이 있고 장손이 많이 부모를 모셨제. 적손들은 안 모셨거든. 그랬지만은 우리 고조부는 이 집터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집은 농사집이여. 가운데 집은 장사집. 저 옥에는 문서집. 즈그 삼형제 해가지고 옥간을 세 채를 짓었어. 그래가지고 인자 내력을 쪽 해온 것이여.

3-3. 경험이야기

3-3-1. 도초 봄똥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도초는 옛날부터 봄똥이 유명하다. 전국적으로 비금 시금치를 알아주고, 도초는 봄똥으로 유명하다. 가락동시장으로 낸다. 봄똥을 열가리배추라고 한다. 가을에 심었다가 봄까지 둔다. 김장김치로 심는 것이 아니고 열가리 배추로 심는다. 시금치를 심고 나서 십일월 초에 심는다. 열가리배추는 설

전후로 낸다. 삼월까지 내제. 김장김치 해 갖고 먹다가 들어갈만허른 이제 먹제.

3-3-2. 시금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 맨처음에는 가마니 옆구리 터서 딱 싸서 냈제. 전량이 서울로 갔제. 그러다 마다리 푸대에 너갓고 목포로. 시금치를 널 때 마다리 푸대에 당어 갖고, 박스에 사십키로 싹 넣어서 목포로. 지금은 차가 바로 와서 직송해볼제. 사십키로 이십키로 십오키로 지금은 십키로.

시금치는 팔월 팔부터 파종을 해 갖고 십일월 이십을 경부터 수확해 갖고 사월까지 허제. 지금은 광주 마트로도가고. 비금 도초 시금치는 전국 사십프로가 넘는다. 이 곳 시금치는 몰만 주문 한 달도 간다.

시금치가 좋은 이유는 땅이 좋다. 비금 시금치는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땅에서 자라고, 도초 시금치는 좀 부드럽제.

3-3-3. 도초 생업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박갑철(남, 72세)	도초 나박포	2005.6.17~18	현지조사

여그는 핑야 벼농사가 주제. 겨울에 시금치를 많이허고, 시금치를 포장할 때 옛날에는 가마니 옆구리 터서 미수꾸리를 해서 한 백 오십 근 담었제. 그래갖고 위아래를 꾸매고. 비금 도초는 지금은 시금치가 유명해. 육십년대에는 보리가 유명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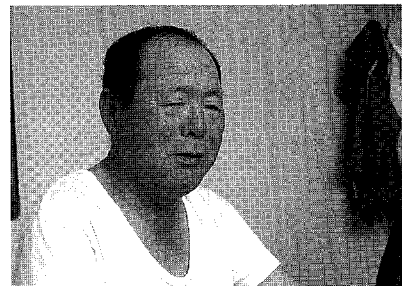


사진 26. 나박포 박갑철(남, 72세)

3-3-4. 귀둥구지 옹구배

배가 닿는디를 귀둥구지라고 했어. 옹구배가 많이 들어왔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러우른 귀둥구지 옹구배 닿냐고 했어. 시끌벅적 했어. 해남, 장성, 강진, 몽탄에서 많이 들어 왔제. 옹구배

가 들어오른 남자 여자 같이 들어오제. 남자들은 지고, 여자들은 이고 다니고 했제. 예전에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사러 다녔제. 예전에는 옹구가 재산이었어. 큰 향아리를 한가닥이라고 해. 벼락들도 향아리에 담고 곡석 담고. 큰 향아리가 많은 집이 부자였어.



사진 27. 나박포 최인철(남, 74세)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최인철(남, 74세)	도초 나박포	2005.6.17~18	현지조사

3-3-5. 김부주대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일하시던 아주머니	도초 죽련리	2005.6.17~18	현지조사

김 말장은 대나무로 만든다. 김 말장을 부주대라고 한다. 길이가 2m 10cm 정도. 양쪽 끝을 구멍을 내서 노끈으로 고리를 만든다. 김 포자는 9월 정도에 하고 11월 정도에 채취를 한다.

3-3-6. 혼례에서 맞이단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가매에서 막 내리른 미역국을 가매에서 나올 때 신랑이 문 열어주른 맞이단이 시수구락 떠 먹여주제. 맞이단이라고 있는데 각시 도와 주는. 가매에서 나오른 방으로 데려가고. 신랑 모셔드리고 할 때는 중방이라고 했어. 얼굴에다 검정 치리고.

가매 속에 자부동 요를 깔고 그 우게 안저. 자부동 밑을 실로 열십자로 질러 그래갖고 안저. 가매에서 나올라고 허



사진 28. 수다리 용동 김구월(여, 67세)

큰 미영씨를 가매 우게 땡겨주제. jEjs 사람은 짚토매를 시개씨기 땡겨주는 사람도 있고. 짚짚하게 짚을 묵어. 다 이런 것이 방법이제. 막 새팍에서 들어오른 징 뚜드리고 방으로 들어갈 때는 문턱에 다 쪼박 얹어 놓고 깨고 들어가고.

울더른 뚜드러 맞고 도 살고 나가도 안했제. 지금은 얼끔만허른 나가불등만. 22분

3-3-7. 민요를 부를 때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지금은 하도 안 부르니까 다 잊어부렸어. 나락 비고, 보리 빌 때 들어서 술 한 통을 비웠당께. 막 걸리 통으로 반통은 나 혼자 비워볼제.

가을두루 솔나무라고 나무를 했어. 밥 싸고 술 싸고 다니면서 나무하고 그랬어. 오늘은 우리 것 허른 내일은 저 집 것 하고 했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만 허른 덩기도 허고 그늘 찾아다니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뺨치니까 지어서 부르는 노래여. 소리도 지르고.

지금은 책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배우제. 신식노래는 몰라. 옛날에는 참말로 노래를 잘 했는디 하도 목을 안 써보들헌께 목이 쟁겨서 안나와. 동네 경사 나가나 초상나쁜 장구를 치면서 동당애 타령을 부르면서 춤추면서 놀지. 그라고 젊은 사람들은 노래방 틀어 놓고 놀고, 우리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노래방 틀어 놓으면 못 부르니까 안부르지.

동당애 타령은 장구를 치면서 놀지. 60십대들이 장구 치면서 놀아. 30십대 40십대는 노래방 틀어 놓고 놀고.

3-3-8. 고란리 생활상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고석만(남, 72세)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에는 농사만 짓고 살 때는 고란리가 가장 부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제일 가난하다. 예전에는 고란리가 면소재지였으나 나박포로 옮겨졌다. 면소재지가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나박포가 도초의 중심지라 그쪽으로 옮겨갔다.

고란리는 현제는 70호 정도가 사는데 예전에 비해 3분의 1도 안 된다.

3-3-9. 도초 원뚝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박갑철(남, 72세)	도초 나박포	2005.6.17~18	현지조사

여그 하도에서 원을 싹 막았제. 염전을 만들었제. 나중에 학교 재단으로 들어 갔제. 그 것으로 학교를 운영했지. 지금 중고등학교. 64년에 인가를 받았지. 도초는 원 막아서 학교에 준 것이 크제.

도초 중고등학교가 그때 천육백명까지 됐어. 지금은 103호. 외지에서 온 학교 선생님까지 허문. 관공소가 다 여그가 있지. 면사무소, 학교, 한전이 있어서. 도초 사람은 한 76호.

옛날에는 여그가 구지여. 배가 여그까지 들어왔어.

3-3-10. 산다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예전에 놀 때, 산다이는 전에 밤에 초상집에서도 하고, 경조사 있고 하면 하는 것이 산다이제. 우 아래 층 없이 나이 구별 없이 성별 차별 없이 놀제. 놀 때는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손뼉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마시고.

또래별로 놀 경우는 명절같은 때 그러고, 초상날 때는 나이 없이 성별 없이 놀제.

남자들 군대 갈 때 주로 많이 놀제. 초상났을 때는 밤다래. 경사에 놀 때는 산다이라고 허제.

3-3-11. 뛰엄(강강술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강강술래 같은 경우는 도초에서 뛰엄이라고 허제. 강강술래허러 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뛰엄뛰로 가자 그러제. 몇 시에 모지자 그러제. 사람들이 땡땡 들른 사단까지 쌓고 놀았제. 추석, 정월 대보름

에 허제. 강강술래라고 허지 앓고 섬은 뛰엄이라고 하제. 뛰엄뛰로가자고 허제.

강강술래 소리로 매기고 받고 허는 것이 아니라 침 시작을 “으여차 으여차차” 그라고 뛰어. 장단 맞춰서 발 착착 맞추고. 뛰다가 신이나른 맞춰서 또 으여차 으여차차 하면서 뛰었어.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암것도 없고 헌께 그냥모여. 먼저 니덕 마을에서 모여. 학교로 뛰엄뛰로 가자고 허면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이제. 학교는 다니니까 웬만허면 다 알제. 여자 남자 다 같이 하제. 처녀 총각, 젊은 새댁, 젊은 신랑들도 나오고. 매 바꾸 둘러서, 한 바꾸, 두 바꾸, 세 바꾸, 네 바꾸까지 돌려 갖고 뛰제. 뽕뽕 둘러서 잡제. 그때만해도 초등학교 학생 수가 천삼백 명이나 됐제.

처녀 총각들이 서로 잘 보일라고도 했제. 놀다가 오মন은 놈으 동네 머시메들이 새끼로 질다랏게 잡고 있어. 신랑로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잡고 있어. 걸리른 녀머지제. 그러믄 새끼로 푹푹 뭉켜 갖고 지그 집으로 끌고 가제.

비금에서도 오고했제. 그러믄 품 갓으러 가고. 갈 때는 여자 남자 같이 밤에 몰래배를 타고 가. 어른들이 못나가게 헌께 문 들쪼구에 주전자로 물을 붓고 문을 열믄 소리가 안나.

보름달 되믄 한 오일 20일까지는 날새기로 놀제. 먹을 것 같은 것은 자기 집에서 장만 헌것 갖고 오거나 동네서 묵고 오제. 사람이 워낙 많은께 다 묵고 오제.

낮에는 장만 헌 것 산에 꼭대기에 올라 갖고 친한 사람들 부르제. 금정산이라고 있어. 금정산이 도초에서 제일 높제. 꼭대기에서 놀 때 여자들이 악쓰고 놀믄 머시메들이 쫓아 오제. 동요같은 것 부르고 청년들이 주긴다고 쫓아오고.

설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맞춰서 허제.

섬은 처녀 총각 다 나와 칠십년대 초제. 낮에는 산에 올라가서 놀고. 유행가도 부르고 이미지씨 여자에 일생, 고향이 좋아. 나훈아씨 눈물에 씨앗 그런 거 부르고허제.

3-3-12. 흙살리기 놀이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에는 우리들이 어렸서는 놀이도 없고 허니까 그란께 야구맨키로 흙살리기라고. 주머니로 오자미를 만들어 네 구통이에다. 콩 같은 것 팥 같은 너갓고 찌기서 탁 쳐서. 산에 올라가서. 선산 있는 곳. 그런디는 놀기가 좋잖아요. 지금으로 말 할 것 가트믄 야구맨키로. 그때는 벨라 공이 업슨께.

오자미로 만들어서.

남자들은 새끼로 공을 만들어서 보리마당에서 차고 놀고. 흙살리기는 여자들 놀이여.
우리가 놀 때는 머시매 가지내 구별 없이 놀고 그러제.

3-3-13. 뽕엄 뽕 일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에는 중앙학교에서 남자고 여자고 모다 모여서 학교로 뽕뽕로 다녔어. 저고리 도련히고 딱 맞춰서 머리 따고 불근 땀기두르고 그라고 땀겼어. 통치매 통저고리 짓깨다리 해서 반회장거리서 입고. 자락치매 안 입고. 연두색치매에다 초록 저고리 이브른 이쁘다고 했제. 남자들이 서로 손잡을 라고 했어. 농지기에다 딱 담어놓고 했어. 옛날에는 농지기가 한죽 두죽 그랬어. 치매 저고리가 열 불이른 한 죽이여. 우리 엄마가 여섯죽을 해갖고 왔어. 꼬리꼬리 시 꼬리씩 웃고리를 이고지고 땀겼 제. 우리는 가매 타고 시집 갔어. 뽕뽕로 다니른 이쁜 옷 입고 다니제.

3-3-14. 우이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고석만(남, 72세)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우이도는 옛날에 귀향지였다. 최치원. 정약전씨가 우이도 흑산에서 귀향살이를 했다. 최치원은 귀향 온 것이 아니라 당으로 가다가 들렀다고 한다.

3-3-15. 뽕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에는 각 마을마다 마당이 있었다. 거기서 모여서 놀았다. 그 마을에서 소리 잘한 사람이 했다. 총각 시절에는 내 마을 나두고 타 마을로 가제. 그래서 중매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 남녀가 사이

사이에 끼어서 손을 잡고 한다. 다른 마을로 가면 친구들이 있어 서로 소개를 해준다. 서로 왔다 갔다 했다.

3-3-16. 산다이

술잔이나 놓고 빙 둘러 앉아서 돌아가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래별로 놀기도 하다가 남녀노소 없이 동참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방안에서 논다.



사진 29.죽련리 고순요(남, 69세)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염수경	고순요(남, 69세)	도초 죽련리	2005.6.17~18	현지조사

3-3-17. 부조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욱(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할머니 친정은 도초 발매리인데 19살에 시집 왔어. 이름은 정천례.

우리 형님 결혼식 부조기여. 이름이 종균, 병자년 8월 6일생이여.

나는 19세에 결혼했어. 지금 68년 되었어.

정형 부조기가 기사년인께 지금 77년 되었어.

형제가 4형제여.

부조기는 성례라는 말도 쓰고 대례라는 말도 쓰고 부조기라고도 하고.

제일 위에 형님은 종인, 둘째는 종균, 셋째가 채욱, 마지막 동생이 정희. 여동생은 양덕이. 가장 맨 밑에 막내.

이 부조기 내용에는 대개 누가 얼마내고 한거 기록되어 있어. 그라제. 쌀도 가져오고 보리도 가져오고.

장형 것을 보른 기사년이니까 77년 되았어. 지금 열 명에서 열 두 명사이로 11페이지. 지금 기록 된 사람들은 우이도 전체. 저 돈목, 성천.

그럼 동네 이름 기록 안했어도 다 알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 집에 뭐 있을 때는 가서 하제.

그거 기록하신 분은 문만교씨. 그 분이 집안에 대소사 있으면 기록하고 했는데 그 때는 인자 환문을 아는 사람 있고 모르는 사람 있으니까 집안에 쓸만한 사람들이 이런거 같다가 하제.

77년전에는 부조금이 대부분이 20전이어. 주로 기록되는 내용은 우이도 관내 사람들이 얼마 누가 냈다 이런거랑 콩나물, 녹두나물 얼마나 해왔다 이런거 기록한 것인디 잼아야 하고 그렇게.

여자들은 보리를 가져오고 남자들은 돈을 하고 그랬제. 여자들은 그 전에 전부 보리만 가져와.

3-4. 풍속이야기

3-4-1. 세시음식 중 떡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칠월 백중 떡은 파래같은 것 넣고 허고. 백설기같은 것. 보리떡도 허고. 있는 사람은 차조에 파래 너서 허고. 추석보다는 떡 종류를 고루고루허제.

추석 때는 인절미 찰떡을 허제. 송편은 엄청 크게 만들어. 인절미를 많이허제. 제상에 올릴 때는 시루 찰 떡. 농사지어서 셋쌀 나온게.

설날에는 흰떡허고 가래떡, 시리에다 찰떡. 송편보다는. 상에 올릴 것은 시리에다. 무떡도 하고, 호박떡도 하고. 쑥떡. 설에 떡을 많이하제.

보름에는 쑥떡도 하고.

명절에는 다른 음식은 별로 안 해도 떡을 많이하제.

떡국을 끓을 때는 굴로. 있는 집은 소고기 넣고. 굴 넣고 끓인 것이 제일 시원해. 도초 굴은 짭짤 해. 그래서 맛있제.

탕국을 끓일라고 꼭 따러 가제. 탕국은 세 가지를 넣제. 굴, 생선 두부 등. 집마다 달라. 소고기, 굴, 두부 세 가지 탕을 제일 많이 하제.

3-4-2. 초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장례치루기가 힘들 때 만들제.

할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백일만에 장례를 치렀제. 가을이라 바쁘니까 이것은 초분이 아니고 빈소라고 허제. 산에다 해놓제. 돌아가셔서 가까운 친척만 모여서 빈소를 만들등만. 날 잡아 갖고 장례식은 따로 허등만. 장례식 할 때는 크게 손님도 받고. 초분은 짚으로 묘자리같이 잡아 가지고 마람을 엮어서 초가지붕처럼 만들제. 모셔 놓고 일 년에 한 번씩 갈아주제. 형편이 안다른 못허고.

돼지는 무조건 잡고 소는 형편 있는 사람들이 잡고. 홍어. 집집마다 음식이 틀리제. 떡국, 잡채, 튀김 고추. 튀김은 소고기만 너른 별로 맛이 업슨게 돼지고기를 너채. 초상집서 안 빠는 것은 꼭 삶은 달걀을 주제. 집집마다 주제. 사람 갯수를 맞춰서 산에다 놓제.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옛날부터 내려왔제. 지금은 병원에서도 헌디 집에서 많이 허제. 선산이 여그가 잇슨게. 지금은 상여를 안 매고 리아카 같이 생긴 것으로 허제. 멀리가든 차로 허고. 상여소리는 녹음기 틀어 놓고 해. 상여소리 허시는 분이 있는디 돌아가고 지금은 누가 업제.

3-4-3. 불절음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고순요(남, 69세)	도초 죽련리	2005.6.17~18	현지조사

짚뭇이나 나무를 모아 놓고 불을 피웠다. 하의면허고 불 씨름을 많이 했다. 죽련리에서 마주 보이는 섬이 하의면이다. 한 3일 동안을 했는데 낮에는 연기로 하고. 보름에 불을 피워 놓으면 경쟁하듯 자기들도 피운다. 밤낮없이 3일 정도를 피웠다.

3-4-4. 다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고순요(남, 69세)	도초 죽련리	2005.6.17~18	현지조사

상주를 주로 위로 해주기 위해 놀아 주는 것이다. 산다이드 같이 한다.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민요하고.

4. 초자연이야기

4-1. 당·제의이야기

4-1-1. 고란리 당제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고석만(남, 72세)	도초 고란리	2005.6.17~18	현지조사

당제를 다시 재현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의욕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을 못한다.

당제 기우제를 지냈었다. 기우제는 용당산에 올라가서 지냈다. 우리 어려서라 잘 기억을 못한다. 목포서 학교를 다니고, 당제 지내는 것을 보기는 했으나 기억에 없다. 말 타고 돌아다닌 것밖에 기억이 없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몰고.

당제를 지낸다고 허른 그때는 도초가 다 모일 정도로 컸다.

4-1-2. 농사점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고순요(남, 69세)	도초 죽련리	2005.6.17~18	현지조사

우리는 자라면서 많이 보지를 못했어. 도깨비 불만 봤제. 번쩍번쩍 여기가 있다가 저기가 있다가 하제.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디 부근에서 머시나고 머시 움직이고를 봐서 그 것을 개념을 삼아서 농사점을 쳤제.

4-1-3. 신교마을 장승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신교마을 입구에 석장승이 있었어. 장승을 갖고 냇가 물이 차분 그런께 다리를 나부렸어. 그런데 별로 일도 업등만. 신교장승은 벨라 안켰어.

4-2. 귀신이야기

4-2-1. 결판 걷어다 먹다가 혼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경희엄마, 51세	도초 죽련리에서 18세까지 살았음, 팔금거주	2005.6.17~18	현지조사

정월 보름에는 밥을 얻어다가 친구들과 절구통에 빙 둘러 앉아서 먹제. 그러면 무섭 안탄다고. 시골에는 우물 젓테가 다 절구통이 있잖아요. 거기 둘러앉아서 먹제.

한번은 보름날 밥을 막 놓자마자 그 놈을 바로 들고 왔제. 그 놈을 막 먹고 있는데 그 집 친구네 엄마가 자다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막 갖다 버리네. 어째 그러냐고 헌께 막 갖다버리네. 막 뭐라고 허대. 우째그러요 우째그러요 헌께. 꿈에 자기 밥을 뺏어다 먹는다고 해서 어찌나 해서 일어나 본께 우리가 밥을 먹거든. 우매 이것들이 놈의 결밥먹고 있구나 허고 빼었어 버려부렸제. 구신이 와갖고 내밥 내노라고 했다고 헌께 무섭제. 서이가 와서 내밥 묵은다고 친구 엄마 목을 잡고. 욱을 덩다 얻어먹었제. 결밥은 채래 놓고 한참있다가 갖다묵제. 그런데 채래 놓자마자 친구가 걷어 와 부렸제.

육지에는 아침에 차리는디 섬은 14일 저녁 9시만 너므른 차리제. 사람마다 다르기는 헌디 제사도 무조건 9시만 너므른 무조건 차리제.

정월보름에는 오곡밥과 나물을 올린다.

4-2-2. 묘 자리 잘못 써서 피해 본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옥(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조상 묘자리 잘못 써서 피해 본 이야기는 우이도가 인자 문씨, 오씨, 최씨가 이렇게 많이 살어 그런데 이 선산을 잘 쓴 사람들은 김씨랑 문씨가 잘 쓰고 대대로 손이 안 끊어지는데 그 외에는 손이 끊어진 사람이 많거든. 여가 오,육대 되도 집 한가구 두가구 사는 집도 많아. 박씨들 밀양 박씨들.

4-3. 도깨비이야기

4-3-1. 넓은통 금매도깨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박갑철(남, 72세)	도초 나박포	2005.6.17~18	현지조사

옛날에 내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원뚝을 막았다. 원뚝이 번번히 무너져버려 마을 사람들은 실의에 빠졌다. 어느 날 중이 이곳을 지나면서 뚝이 무너지는 내력을 듣고 한가지 묘책을 알려주었다. 원뚝에 사람을 함께 매장하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모르는 남자 중과 여자 중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매장을 했다. 그리고 뚝을 쌓았는데 신기하게도 뚝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후 밤만되면 원뚝에 도깨비가 나타났는데 여승도깨비가 말하기를 저쪽으로 돌아 가자니까 나중 도깨비가 금매(글썸)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넓은통 금매도깨비”가 나오는 곳이라고 전한다.

4-3-2. 또깨비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낮또깨비 불이 여가 써 지고, 저가 써지고 했제. 전에 옛날 우리 각시 때, 찰찰한 애기들 날 때, 그때는 또깨비 잘 난다고 했어. 요새는 사람이 많이 살고, 전기불이 쓰고, 차들이 드룩들룩 불 쓰고 멩긴게 업제. 또깨비불 써지도 못하제.

4-3-3. 또깨비하고 씨름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우리조부신네들은 또깨비만나갖고 씨름허고 그랬제. 또깨비 만나갖고 나는 왼발 뛰지 마라. 나는 오른발 뛰지마라 그랬어. 또깨비가 말했어. 전에 옛날에, 우리 조부신네들이 영리헌께 왼발을 뛰어

부렸어. 그런게 또깨비가 자빠져부렸어. 사람은 오른발 뛰면 자빠져붙고 또깨비는 왼발뛰면 자빠져 부러. 또깨비는 나막가지처럼 키가 커갖고 나막가지 같애.. 또깨비는 올라다보믄 장사곳 같고 알로 내려다보는 쪼간하고 그래.

옛날에 우리 조부신네들은 왼발 뛰지마라 그런게 왼발을 뛰어 부렸어. 자빠져붙거든. 산에서 만 나른 소나무에 목거나. 다음날 가보믄 쌀 건지는 조리 있어 그런거시드락해. 대빛지락. 그런게 손 때문은 거시드락해.

4-3-4. 낮또깨비 만나면 죽는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전에는 밤 또깨비 만나믄 안죽고 낮또깨비 만나믄 사람이 죽은다고 했어. 왜 죽는지는 모르졌어. 안 죽으믄 끝끝내 고생도 허고. 죽게 허드라고.

4-3-5. 또깨비한테 밥 준 일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우리어른도 옛날에 밤또깨비 많이 만났어. 우리 어른이 중선배를 피기잡은 배를 했어. 우리배로 혼자 타고 피기를 잡어 갖고. 바닥에다 그물을 쳐갖고 피기를 잡어. 낮에 물이 쓰른 낮에 피기를 잡고 밤에 물이 쓰면 낮에 피기를 잡고. 비린내가 나른 또깨비가 잘 나타나. 전기불도 없을 때 손전등 갖고 다니면서 밤에 그물을 봐 갖고와. 배를 쭉쭉 잡어 땡기드라고그래. 우리집 어른이 이김질해갖고 와. 엄니 어른 나 묵은 밥 있스믄 얼른 갖고 나오시오. 그래갖고 밥을 막 흘쳐 그러믄 거짓말 같이 가부러. 몇 번을 만났어.

4-3-6. 장신이 시여야 또깨비도 만나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장신이 시어야 또깨비도 만난다고 그래요. 우리는 장신 안신께 또깨비 만나본 그 자리에서 죽어 부러. 또깨비도 안보여. 장신 신사람한테 눈에 비어. 또깨비는 사람 같이 생겼제. 그란디 하늘로 위로 오라다보든 장사곳 같고. 사람이 젖봇대 같이 커. 알로 내려다보든 쪼간해.

4-3-7. 죽물에 고기 몰아준 또깨비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우리집 사람이 초저녁에 사방에다 죽그물 놀라고 현께. 어둠 침침 땅거미 질라고 할 때 뽐뽐보든 사람이 뵈고 멀리 보든 안 뵈고. 죽그물 친다고 친 께 뒤에 철그덕철그덕 물질 허드라허요. 뒤돌아 본께 옷으로 흙조차 물조차 트여 오드라고 허요.

그 뵈날은 내가 그러지 마라고. 손님이은 나 괴롭히지 말고 저리가시라고 좋게 말하라고 하든서 죽그물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뵈날 죽그물 죽이 걸렸드라고. 사람처럼 큰 괴기가 걸렸드라고. 그래갖고 소금처럼 쥐부렸어. 소금으로 돈 받았제.

또깨비는 해일또깨비허고 일또깨비가 있어. 일또깨비를 만나든 도와 주제. 헬 EH깨비를 만나든 해를 입고. 재수도 없고.

또깨비는 괴기를 좋아한다요. 메일 좋아허고.

논 개랑도 안허고 그랄 때 또깨비를 잘 만났제. 때까지라고 있어. 그런 것이 만을 때 또깨비가 잘 났제. 우리가 한 이십살 나머 묵었을 때. 또깨비 잘났어.

4-3-8. 도깨비가 특히 잘나는 꼬랑이 있다.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엄수경	고순요(남, 69세)	도초 죽련리	2005.6.17~18	현지조사

저 안에가 한풀 있고. 어려서 죽은 아이들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돌로 묻었어. 도깨비 불은 파랗다. 사람이 들고 다니는 불은 빨갳다. 도깨비가 되는 것은 사람 손이 많이 탄 것 빗지락 같은 것이 된다.

4-3-9. 도깨비굴

굴이 깊은 곳이 있는데 그 곳이 도깨비굴이었어. 옛날에 장생이 신 사람은 도깨비가 안 보인다고 했어. 그 곳을 지나가면 기분이 묘해져. 무서워지고. 그 곳이 도깨비굴이다.

4-3-10. 도깨비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욱(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그 전에는 도깨비가 잘 나왔어. 산에 갔다 오면은 공동산이 그 길에 있는데 거가 사당골이여. 거가 밤에 오면은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도깨비가 많이 나타났어. 씨름도 하고 우리 아버님도 그 전에 저것네서 놀다오다가 여기 길에가 온디 헛것이 보이드라고 해. 저그 굴봉산 있는데서 거그서 소를 낼때는 아버님도 소 내려 가져고 하니깐 갔어. 근데 배가 갑자기 아파서 집에 오니까 집안 사람들이 피를 부렸다고 하는데 집 부뚜막에 와서 배 아프니까 누워있는데 같이 도깨비를 봤는데 저기 소 내고 있는데서 벼락이 치고 소를 데리고 내려오는데 벼락이 쳐가꼬 거기서 즉사해버렸어. 그런 후로 도깨비 같은 걸 만나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겨.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라고 도깨비한테 비는 것도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굴봉산이 중산이여. 중같이 생긴 산. 중은 절에서 공부하는 것이라 진말에서는 어장을 안 했어.] 중이 고기를 안 좋아하고.

우이도 진리에서는 어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어. 중산은 위에서 보면 그것이 사람 머리 벗겨진 것처럼 생겼어. 굴봉을 보고 중산이라고 하제.

4-3-11. 도깨비 만난 이야기

번호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경엽 송기태 김현주	문채욱(남, 72)	도초 우이도	2005. 7. 12	현지조사

씨름은 안 했어도 우리들도 자주 만났어. 우리들도 어려서 중년에 불을 봤어. 불 한나가 수십개가 되

고 저 안에 산 사람이 뭘소리가 났는데 그 날 밤에 비가 왔어. 도깨비는 불같이 생긴 것도 있고 낮에 만나면, 허수아비 그려 눈 화상칠처럼 생겼제. 우리 어장한 사람은 나무하러 가서 도깨비 만나고 도깨비가 이고 다니다가 던져서 버렸어. 그래서 죽어버렸어. 그 전에는 우리 부락에서 도깨비가 많이 있었어.

도깨비를 만나면 편치 못해. 안 만날 것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도깨비를 보고 이익 본 사람이 없어. 귀하고 신하고는 틀리제. 도깨비는 손때가 많이 묵은 것이 도깨비가 되는 것이제. 도깨비를 직접 만나서 죽었어.

(2) 민요 자료 현황

○ 사랑가 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사랑가 1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임이 그리워 울어요
 너냐 나냐 두리둥실 너냐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우리집 서방님은 명태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석달 열흘만 불어라
 너냐 나냐 두리둥실 너냐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종로네거리 술때우는 영감님
 정떨어진데는 무엇으로 때우나요
 너냐 나냐 두리둥실 너냐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정떨어진데는 돈으로 때우고
 술떨어진데는 남으로 때운데요
 너냐 나냐 두리둥실 너냐
 낮에 낮에나 밤에 밤에나 참사랑이로구나

○ 사랑가 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사랑가 2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방ैया 방ैया 어아 꿩꿩 잘 찍는다
 이 방ैया가 누 방ैया가 강태꿩이
 조작방ैया 어아 꿩꿩 잘 찍는다
 산으로 올라 산심방ैया 들로 내려 물방ैया
 덜커덩 덜커덩 잘 찍는다
 방ैया 방ैया 조작방ैया
 어아 꿩꿩 잘 찍는다
 이 방ैया를 찌어 가지고 첫째 봉ैया은 나라 봉ैया
 둘째 봉ैया은 선영봉ैया 셋째 봉ैया은 부모봉ैया
 어아 꿩꿩 잘 찍는다

○ 사랑가 3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사랑가 3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정든님 오는다 인사를 못해
 행자초마 입에 물고 입만 뺨긋 웃는다

○ 청춘가 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1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일 년에 열두 달~ 삼백에 육십 날~
 늙어나 살려서~ 좋은 날 올거나

좋다 (노래 끝은 좋다라고 한다)

○ 청춘가 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2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사람이 살면은~ 몇 백 년 산~다고~

어찌다 여자로 생겨서 0000

좋다

○ 청춘가 3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3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어때어때 우리 어매~

자식 살으라고 말을 마오~

밤중밤중 해를 너른 내가 빈

비개너머 강수지네

○ 육자배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육자배기	엄수경	김구월(여, 67세)	도초 수다리 용당	2005.6.17~18	현지조사

노~자 좋~다 젊어~나 놀아

늘거나 병이 들면 아니 못 노니로다

에야디야 에헤헤헤이야~

에헤야 디어라 산아지로구나

산천이 고와서

날 너 여기 왔다
 새풍배 하나를 보고
 날 여기 왔네
 에야디야 에헤헤헤이야~
 에헤야 디어라 산아지로구나

일 년은 열두 달 삼백에 육십 날
 이 내가 살어서 무슨 행복 올거나
 에야디야 에헤헤헤이야~
 에헤야 디어라 산아지로구나

사람이 살어서 날 여기왔다
 너 하나 날 보고 널 따라 살래
 에야디야 에헤헤헤이야~
 에헤야 디어라 산아지로구나

○ 긴강강술래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비 고
긴강강술래 1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조사일시 : 2005년 7월 13일

제보자

정월금 (여, 76세) : 구암리 활목 나박도에서 18살에 시집오심

한춘홍 (여, 79세) : 진도 조도 서거차도에서 21살에 시집옴

박금순 (여, 69세) : 도초 이곡에서 20살에 시집옴

강강술래를 뛰엄 뛰다고 한다.

등당에 타령은 대고 놀면서 활방구 치고 춤을 추면서 불렀다. 여럿이 놀면서 했는데 명절 때 많이 했다. 주로 젊어서 했다.

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 강강수월래
 돈에 동천 떠오른 달아 / 강강수월래
 이태백에 놀던 달아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노세놀아 젊어놀아 / 강강수월래
 늙고 병들면 못 논다네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젊은 사람은 죽지를 말고 / 강강수월래
 늙은 사람 늙지를 말소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노세 놀아 젊어 놀아 / 강강수월래
 늙고 병들면 못 논다네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저 건네 저산에 저 무덤은 / 강강수월래
 님제 없이 무덤인가 / 강강수월래
 모든 것아 다 목였네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사진 30. 도초면 지북리 민요 구연 현장

○ 자진강강술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자진강강술래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 강강수월래
 이태백에 놀던 달아 / 강강수월래
 이태백이 죽고 보면 / 강강수월래
 어느 누가 술래를 할까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춘아춘아 옥단춘아 / 강강수월래
 네 꽃진다고 서러말아 / 강강수월래
 내년이라 춘삼월에 / 강강수월래
 꽃도피고 잎도 핀다 / 강강수월래
 노자노자 젊어노자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저기 가는 저 처녀야 / 강강수월래
 누구보고 따라가나 / 강강수월래
 이리온나 이리온나 / 강강수월래
 너와나와 짝궁맞아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잘도 노네 잘도 노네 / 강강수월래
 우리 성님은 잘도 한다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 강강수월래

처음에는 좀 질게하다가 나중에는 자진강강으로.

청에영기, 청어풀기, 덕석물기, 덕석풀기, 고사리도 꺾고, 손치기 받치기

○ 청에영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에영기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청에영세

청청청에 영기 우리나라 군사 영기

청청청에 영기 우리나라 군사 영기

청청청에 영기 우리나라 군사 영기

○ 청에풀기

품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에풀기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청에풀세

청청청에 풀기 우리나라 군사 풀기

청청청에 풀기 우리나라 군사 풀기

청청청에 풀기 우리나라 군사 풀기

○ 고사리 꺾기

품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고사리 꺾기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고사리 꺾자

꺾자 꺾자 고사리 꺾자 / 제주한라산 고사리 꺾자

꺾자 꺾자 고사리 꺾자 / 제주한라산 고사리 꺾자

꺾자 꺾자 고사리 꺾자 / 제주한라산 고사리 꺾자

꺾자 꺾자 고사리 꺾자 / 제주한라산 고사리 꺾자

고사리 꺾어 바구리 담고

남생아 넘자

고사리 꺾어 바구니 담세

남생아 넘자

○ 덕석물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덕석물기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덕석모세

비 온다 덕석 물기(물자)

또골또골 몰아보세

또골또골 몰아보세

또골또골 몰아보세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만히 서있고 바깥에 있던 사람이 돌아온다.

○ 덕석풀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덕석풀기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덕석풀세

비 갠다 풀어 보자

또골또골 풀어보세

○ 뛰엄노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뛰엄노래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뛰어라 뽀질눔아
 받아라 반질눔아
 뛰어라 뽀질눔아
 받아라 반질눔아

홀떡홀떡 뛰어보세 / 강강수월래
 달아달아 밝은 달아 / 강강수월래
 이태백이 놀던 달아 / 강강수월래

끝날 때는 길게 뻗다.

○ 남생아 놀아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남생아 놀아라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성아 성아 놀아라 지남생아 논다
 성아 성아 놀아라 지남생아 논다
 성아 성아 놀아라 지남생아 논다
 성아 성아 놀아라 지남생아 논다

손을 잡고 뛰면서 하면은 가운데로 구남생이가 나와서 논다.

○ 보보 보따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보보 보따리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보보 보따리

보보 보따리 너만 찾자 보따리

나도 찾다 보따리

손으로 치면 손치기 발로 치면 발치기

너만 찾나 보따리

○ 새야새야 파랑새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새야새야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새야 새야 파랑새야 강강수월래

녹두밭에 앉지 마라 강강수월래

창포장시 울고 간다 강강수월래

노래에는 순서가 없고 뛰엄에 맞춰서 나온다.

강강수월래가 뛰엄뛰는 것이다. 뛰엄은 추석에 많이하고 백중에도 땀을 뻘뻘 흘리고 했다.

놈의 지붕에 호박도 따다 삶아 먹고 놈의 파도 뽑아다 밥에 먹고. 다리가 짤룩짤룩 하고 아침이면 잘 걸어 다니지도 못했다. 그랬다가 다음 날 다시 가서 뛰면 풀리고 했다.

활방구 치면서는 등당에 타령을 많이 불렀다.

등당에 타령은 누가 안 받아주고 모두 같이 한다.

○ 등당에 타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등당에타령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등당애 타령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성애성애 사춘성애 나왔다고 기냥말게
적삼 대에 젖음을 성도 묵고 나도 묵고
조구하나 짓었으른 성도 반찬 나도 반찬
구정물이 튼튼하른 성내 소주제 내 소준가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딸아딸아 막내딸아 너는 굳게 답았거라
오동나무 밑창 문에 가즌 양식 걸어주마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곰보신 곰보신 외강목 곰보신
너무 달테면 남이나 주제 등잔에 초꼬지 고생시키나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노든 달아
저기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백했으니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발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른 창포장시 울고 간다
등당애당 등당애당 등당애당 등당애당

땡기땡기 꽃자주 땡기 머리 끝에
???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앞산 밭에 고치 신겨 뒷산 밭에 마늘 신겨
 고치마늘 맵다해도 시누같이 매우리아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등당애당

○ 청춘가 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1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산천에 풀잎은 불어야 좋고요
 우리야 어매는 좋다 젊어야 좋단다

○ 청춘가 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2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날 데려 가거라 날 데려 가거라
 돈 많고 잘난 놈 날 데려 가거라
 돈 많고 잘난 놈 데려가라 했더니
 바지게 진 놈이 쓰러졌구나

○ 청춘가 3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3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산천이 좋아서 나 여기 왔느냐

큰 애기 낳보고 좋다 나 여기 왔노라

* 청춘가는 산에 풀 베러 다니면서 불렀다.

○ 청춘가 4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춘가 4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졌느냐

날 버리고 가는 님 좋다 가고 싶어 갔느냐

* 옛날에는 연애 건다고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다. 야학에도 안 보냈다.

놀 때는 끼리끼리 논다.

뛰엄 뿔 때는 남자들도 함께했다. 자기 맘에 맞는 사람 손 만질라고 했다. 캄캄하고 안 보이니까.

시집온 각시들이 남자 손잡고 뿔다. 시집 안 간 사람들은 가시내 끼리 손을 잡았다.

여기서는 누구 댁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네 어매라고 부른다.

○ 모찌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모 찌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어기야 헤라 먼디요

앞산은 가까이도 뒷산은 멀어가네

어기야 예라 먼디요

저 건네 산은 안개가 진데

어기야 예라 먼디요

저 해는 떴다가 산 너머 간디

○ 모 심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모 심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여루 상사뒤요

여 여기도 송기고 저 저기도 송기세

여루 상사뒤요

* 옛날에는 풍장도 쳤다.

상사소리는 남녀가 같이 했다.

두레모는 남자들이 소리하고 여자들이 받는다. 받는 소리를 맞진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모를 심는 것을 두레모라고 한다. 아이들도 나온다.

○ 긴 강강술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긴 강강술래	이경엽·김혜정	정월금(여, 76세) 한춘홍(여, 79세) 박금순(여, 69세)	도초 지북	2005. 7. 13	현지조사

도초 죽련리 민요조사

조사일시 : 2005년 7월 13일

조사자 : 이경엽, 김혜정, 송기태, 김현주

제보자 : 김정덕(여, 81) 외남리에서 19세에 시집음.

김금선(여, 79) 죽련리 출생.

김하자(여, 62) 오류동에서 21세에 시집음.

박하심(여, 85)

김금단(여, 85) 오류동에서 19세에 시집음.

고마단(여, 80) 외남리에서 81세에 시집음.

김막내(여, 82) 하의면 대리에서 21세에 시집음.

고옥단(여, 71) 고란리에서 21세에 시집음.
 김정자(여, 70) 서울에서 시집음.
 김춘임(여, 67) 한발리에서 19세에 시집음.
 고철단(여, 77) 한발리에서 19세에 시집음.
 박정순(여, 77) 지남리에서 시집음.



사진 31. 강강술래 구연 중인 죽련리
 김정덕(여, 81세)

강~강 수~월~래 / 강~강 수~월~래 (받는소리)
 못하졌네 못하졌네
 차마설어 못하졌네
 달아달아 밝은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백했으니
 은도끼로 찍어냉개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지어
 양친부모를 다 모시고
 천년만년 살고나보세

죽련리 진강강술래

채보: 김혜정

♩ = 30 실음은 5도 아래

강 강 술 래 강 강 술 래
 못 하 겠 네 못 하 겠 네 강 강 술 래
 차 마 서 러 못 하 겠 네 강 강 술 래

○ 자진 강강술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자진 강강술래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택(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죽련리 자진강강술래

♩ = 88 실음은 6도 아래 채보 : 김혜정

가 앙 강 수 월 래 가 앙 강 수 월 래 헤
 3 달 아 달 아 밝 은 달 아 강 앙 강 수 월 래
 5 이 태 백 이 노 던 달 아 가 앙 강 수 월 래
 7 저 기 저 기 저 달 속 에 강 강 수 월 래
 9 계 수 나 무 박 혀 으 니 강 강 수 월 래
 11 금 도 찌 로 찍 어 내 여 강 강 수 월 래
 13 은 도 찌 로 다 들 어 서 강 강 수 월 래
 15 초 가 삼 간 짚 을 지 어 강 강 수 월 래
 17 양 친 부 모 모 셔 다 가 강 강 수 월 래
 19 천 년 만 년 살 고 지 고 강 강 수 월 래

달떠온다 달떠온다 / 강강수월래 (받느소리)

저달이 떴다 산넘어가고

일편단심 불가려춤세

보채주랴 성긴분애

언제올다 정들었냐

?끝에다 걸어놓고

우리?? 날만?? (?)

날만님도 날이춘디

우리어매 어디가고

얼굴낮이 누빛인가

강강수월래

잘도하네 잘도하네

우리군사 잘도하네

다되었네 다되었네

강강 다되었네

술래간 돈다 술래가 돈다

마당 가운데 술래가 돈다

이 마당이 꺼지고 보문

쥬네 머심이 다죽어난다

놀다가자 놀다가자

늪고 병들면 못노나니

오동추야 달은밝고

무슨소용 있을소냐

우리어매 날났어도

무슨소용이 있을소냐

달아달아 밝은달아

이태백이 놀던달아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은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아서
 초가삼간 집을짓고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저달이 떴다 지드룩하세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늙고병들면 못노나니
 젊어청춘 놀고좋네
 오는날이 뭇날이나

○ 청어엮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어엮기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택(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청청 청애나영자 / 무주강산에 청애나영자(받는소리)
 청청 청애나영자

제일 뒷사람이 사람들을 이끌고 제일 앞 사람과
 그 뒷사람의 사이로 들어간다. 제일 뒷사람이 엮어
 질 때까지 반복한다.



사진 32. 청어엮기를 시연하는 죽련리
 마을 사람들

죽련리 청어엮기

채보 : 김혜정

♩ = 92 실음은 6도 아래

청 청 청애나영 짜 무 주공산에 청애나영 짜

청 청 청애나영 짜 무 주공산에 청애나영 짜

청 청 청애풀자 무 주공산에 청애나풀자

우리나라 청애풀자 무 주공산에 청애나풀자

㉔ 청어풀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어풀기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청청 청애나풀자 / 무주강산에 청애나풀자 (받는 소리)

우리나라 청애나풀자

청청 청애풀자

청어풀기는 앞 사람부터 푼다. 청어를 풀 때 제일 앞 사람이 뒷사람들을 데리고 푸는 것이 아니라, 팔을 풀 차례의 사람부터 뒤로 들어가서 팔을 푼다.

○ 고사리꺾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고사리 꺾기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고사리껍겨 바구래 담고 / 마산이나 넘자(받는소리)

고사리껍겨 바구래 담고

손꼬사리 많이껍겨 밤새 담고담세

고사리껍겨 바구래 담자

다되었다 다되었다

고사리바구니 다되었네



사진 33. 고사리꺾기를 시연하는 죽련리 마을 사람들>

전체 제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사람부터 일

어나서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를 갈 '지' 자 모양으로 넘어간다.

죽련리 고사리 꺾기

채보: 김혜정

♩ = 100 실음은 6도 아래

1. 고 사 리 꺾 꺾 바 구 래 담 자 아 산 이 나 넘 자

3. 고 사 리 꺾 꺾 바 구 래 담 자 아 산 이 나 넘 자

5. 꾀 꺾 사 리 꺾 꺾 다 가 아 산 이 나 넘 자

7. 담 자 담 자 담 자 아 산 이 나 넘 자

9. 고 사 리 꺾 꺾 바 구 래 담 자 아 산 이 나 넘 자

○ 지남생아 놀아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지남생아 놀아라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성아성아 놀아라 / 지남생이가 놀아라 (처음 받는소리)

성아성아 잘놀아라 / 출래출래 잘도논다 (받는소리)

성아성아 놀아라

출래출래 놀아라

원을 돌면서 춤을 추면 원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춘다. 흥이 나면 옆에서도 같이 춤을 춘다. 지남생이
의 춤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손뼉을 치고, 손을 위로 올려 춤을 춘다.

죽련리 남생아 놀아라

채보 : 김혜정

♩ = 100 실음은 6도 아래

성 아 성 아 놀 아 라 지 남 생 이 가 나 논 다

출 래 출 래 잘 놀 아 라 지 남 생 이 가 나 논 다

성 아 성 아 잘 놀 아 라 지 남 생 이 가 나 논 다

출 래 출 래 잘 도 논 다 지 남 생 이 가 나 논 다

○ 덕석물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덕석물기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비온다 덕석물자 / 비온다 덕석물자(받는소리)

비온다비온다 싸게물아라

비온다 덕석물자

덕석물아 덕석물아

덕석물기는 죄인을 가운데에 놓고 몰아간다. 즉, 한 사람이 가운데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덕석을 마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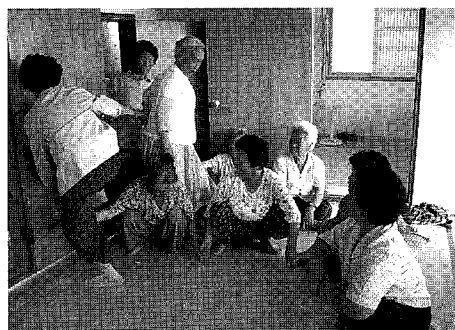


사진 34. 덕석물기를 시연하는 죽련리 마을 사람들

죽련리 덕석물기

채보 : 김혜정

♩ = 100 실음은 6도 아래

비 온 다 덕 석 물 자 비 온 다 덕 석 물 자

3 비 온 다 비 온 다 덕 석 을 물 아 라 비 온 다 덕 석 물 자

5 비 온 다 덕 석 물 자 비 온 다 덕 석 물 자

○ 재와라 재왔다(우여차 우여차)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재와라 재왔다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강강술래 / 강강술래

재와라 / 재왔다

떨어진놈은 당골레딸 / 안떨어진놈은 내 딸

재와라 / 재와라

익싸 / 익싸

떨어진놈은 당골레딸 / 안떨어진놈은 내 딸

이여차 / 이여차

죽련리 재와라

채보 : 김혜정

♩ = 107 실음은 6도 아래

강 강 수 월 래 재 와 라 재 왔 다

재 와 라 재 왔 다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왔 다 재 와 라 재 왔 다

떨 어 진 놘 은 당 골 레 딸 안 떨 어 진 놘 은 내 딸

강 가 앙 술 래

힘들고 지치면 '재와라 재와라' 라고 하면서 매우 빨리 댄다. 있는 사람들을 떨치기 위해서 한다. 계속 빨리 댄 옆으로 떨어져간다.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질려고 한다. 힘든 사람이 빠지게 하려고 한다. 더 힘차게 뛰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 보보 보따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보보 보따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보보 보따리

너만찾냐 보따리

나도찾다 보따리

아저씨가 깨놓고

나보고 깻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홀딱홀딱” 댄다.

○ 거무야 거무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거무야 거무야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거무야 거무야 왕거무야

니야줄을 날다다가

아징게 저징게 논바꾸 칭칭게 산넘어간다

바니야 바니야 내로니라

○ 모찌는 소리(머언뒤요)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비 고
모찌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어기야 디여~차 머~언~뒤요 / 어기야 해에 머~언~뒤요 (받는소리)

먼디야 소리를 어디를 가나

먼데만 찾아서 돌아를 온가

어기야 우여차 머~언~뒤요

잘도나 하네 잘도나 하네

우리야 군사들 잘도나 하네

어기야 디여~ 머~언~뒤요

세월아 봄철아 가지를 마라

젊으나 청춘들 다 늙어진다

○ 모심는 소리(상사디여)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 소	조사일시	비 고
모심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여 여그도 심기고 저 저그도 심기세 / 어~허~여허~상~사~디~여 (받는소리)

여 연방없이 심게만 주소

떠들어온다 떠들어온다 점심 밥그럭 떠들어온다

서마지기 논 논배미가

반달만큼 남 남었구나

여 여그도 심기고 저 저그도 심기세

여 연방없이 심게만 주소

다되왔네 다되왔네

서마지기 논 논배미가

다되었네 다되었네
 이 농사지어갖고 나래 봉양을 할이거나
 그만저만 헤어만 주세
 나주영산 흐르난 물에
 청초나 씻치는 저치녀보게
 연 연일일랑 딱 받쳐나놓고
 오게 속잎이요 날만주소
 언지라고 날바졌네
 곁잎을 찾고 속잎을 찾소 곁잎을 찾고서 속잎찾소
 오늘보면 초면이라
 내일보면 구면이로구나
 사랑일랑 즐라거든 ??나말고 주어다오
 다되었네 다되었네

○ 지심매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지심매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절래소리는 어디를 갔다 내만 찾아서 돌아온가 / 아~허라 절~래 (받는소리)
 나는간다 나는간다 ? 나는가네
 가면가고 말면말제 ?따라 내가가리
 절래소리는 어디갔다 철철마당 돌아온가
 봉아봉아 높은봉아 전라도는 가금초야
 뿔을먹고 바라졌나 이슬먹고 바라졌네
 높은산 삼산봉 ? 설난주야
 너도나 날과같이 외로 홀로나 서있는나
 가지말한 ?집은 바람잘날 전히없고

가심가난 부모속은 속편할날 전히없대
 사람은 손이없어도 나뭇가지만 흔드는데
 이내나는 양손이라도 가는 손목을 못잡으까
 절래절래 절래소리 어디를갔다 돌아온가
 그만저만 ?주세 절래소리도 잘도나네

○ 더덕이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더덕이야	이경엽·김혜정 의 2명	김정덕(여, 81) 의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받는소리)

에헤야 에에헤야
 에에히여라 어~기야

(매기는소리)

어느 노래를 어디를 갔다가
 철철마다 돌아만온가
 다되아간다 다되아간다
 옛날에 노동일 생각하믄 이가 딱딱 갈린다
 논맨소리를 다되나 하고있네
 간다간다 나는간다
 우리부모를 내가 못따라가고
 그고생들이나 다 했으니
 그만저만 다 해봅시다

‘더덕이야’ 노래는 논 맬 때 한다. 죽련에서는 여자들이 논을 맨다. 남자는 쟁기질, 씨래질 한다. 여자들이 심고, 맬고 한다. 논 매면서 굶도 친다. 소리 잘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한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공 먹는다' 라고 해서 노래 부르고 춤만 춘다.

○ 칭이나 칭칭나네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칭이나 칭칭나네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절씨구나 절씨구나 / 칭이나 칭칭나네 (받는소리)

기와자자 절씨구나

노세놀아 젊어노세

늙어지믄 못노나니

죽기전에 병들기전에

죽기전에 놀아보세

칭이나 칭칭나네

저건네라 앵두발에

앵두따는 저큰애야

금을주리 옥을주리

금도싫네 옥도싫네

연지분을 사주리야

연지분도 내게있네

반달같은 나주리야

니가무슨 반달이나

버신발이 반달이제

열씨구절씨구 기와자 좋네

칭이나 칭칭나네

이고개 큰애기들은

? 일수로다

앞새바다에 진갱이다리

군산 떠기가 일수로세 (?)
 함경도라 큰애기들은
 명태 생태를 ?
 전라도 삼각산 다넘어가네
 칭이나 칭칭나네
 봉아봉아 높은봉아
 전라도든 가부도야
 뿔을먹고 바라졌냐
 이슬먹고 바라졌네
 칭이나 칭칭나네
 열씨구절씨구 기와자종다
 가네 가니가네
 정든님따라 나는가네
 천리를가도 내가가요
 만리를가여도 나가가요
 칭이나 칭칭나네

즐거이 나면 훌쩍훌쩍 뛰면서 한다.

○ 등당애당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등당애당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받는소리)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등당애 등당애당

(매기는소리)

옥철구라 ????? 잔등에다 붙여놓고 옥등에다 걸어놓고
 심지없는 ?????? ????? 다비친디 우리어매 어디가고 거울같이 못비친가
 비겁하다 경칠놈아 향기탕탕 피지마라 옥과같은 늙은각시 옆에동동 뛰어간다
 망을봐라 망을봐라 잔등에다 망을봐라 잔등에다 망을보니 꽃과같은 ??각시 ??동동 뛰어가네
 어기야 더기야 ?감은 소리야 ??같이 잘도간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에 윤선이 내려온다
 검고도 붉은것이 거들기고 내려온다
 딸아딸아 막내딸아 너만곱게 잘만커라
 오동나무 밀장농에 갖은장석 걸어주마
 ??로는 꽃이 좋고 밭패로 가서는 김이 좋네
 동덩애당 동덩애당 당기동덩애 동덩애당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창포장시가 울고간다
 ??밭에 꼬치심게 ??밭에 마늘심게
 꼬치마늘 맵다해도 시누같이 매우리아

○ 들강달강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들강들강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들강달강 내손자야
 어디 갔다가 인자왔냐
 만경 갔다가 인자왔네
 조반이 늦어서 인자왔네
 하늘에서 떨어졌냐
 땅에서 불끈 솟아났냐

불면은 날아갈까
 쥐면은 꺼질까
 밤중에 날아왔냐
 하늘에서 떨어졌냐
 어리둥 내손자야

○ 아리랑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아리랑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받는소리)

아리아리롱 스리서리롱 아라리가 났네
 아리롱 어리나절씨구 아라리가 났네

(매기는소리)

세월야 봄철야 가지를 말어라
 아까운 내청춘 다늬어 간다
 물레야 방아야 어리뱅뱅뱅 돌아라
 어여라 디여라 잘도나 돈다
 너냐 나냐 두리둥실 너냐
 밤에밤에나 낮에낮에나 참사랑이로구나
 아침에 우는새는 배가고파서 울고
 저녁에 우는새는 님이 그리워 운단다
 서산에 지는해 지고싶어서 지느냐
 나를 버리고 가는님은 가고싶어서 가느냐

○ 춘향내리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춘향대리기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내려온다 내려온다 춘향이아씨 내려온다
 춘향아가씨 방자도련님 내려오신다 내려오신다
 술술 내립소사

손으로 빌면서 한다. 안 내리는 사람은 안 내린다. 내리는 사람은 마구 춤을 춘다.

○ 평평 장서방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평평 장서방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평평 장서방 오락할 때 왔으믄
 김치국에 밥한상 낙지발에 술한상
 새끼들은 많고 손구락은 적고
 어찌케 먹으까 그작저작 먹네

○ 이빨 빠진 고양이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빨 빠진 고양이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이빨빠진 고랑태아
 새미가새 가지마라
 봉어한테 뺨맞고

새우한테 침마진다

○ 중 놀리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중 놀리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중중 깨깨중

한겨울에 반개중

○ 새 쫓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새 쫓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웃녘새야 아랫녘새야

우리논아 앉지마라

○ 해 부르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해 부르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외 2명	김정덕(여, 81) 외 11명	도초 죽련리	2005. 7. 13	

아이고 추워라 번개야

봉알이 덜덜 떨린다

더운 여름날 어린 애들이 냇가에서 수영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하는 소리다.

○ 등당애당

곡 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 고
등당애당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앞선 발에 꼬치 심겨 뒷산 발에 마늘 심겨
 꼬치 마늘 맵다해도 시누같이 매울손가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저건네라 남산 밑에 운상 놓고 책상 놓고
 공부하는 저남놈아 늙은이장 괜히 왔다
 귀경사라 하소마는 맘도 뜻도 묻지 말게
 여기까지 귀경올때 마맘묵고 여기 올라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시집상이 들다해도 임만보면 살살녹고
 무쇠같이 단단해도 불만보면 살살녹네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원생년에 감자장시 소리말고 걸어강계
 참새같은 시어머니 열쇠차고 썩 나선다
 등당애당 등당애당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사진 35. 민요 구연 중인 마을 사람들

외강목 석자 잃었다고 집안에 난리가 났는데
 속없는 여자놈 새 보신 신고
 뜨네기 뭐하러 왔느냐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너 신기 싫으면 남이나 주어라
 등잔불 초꼬시—새긴다
 당기 등당애 등당애당

○ 아리랑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아리랑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받는소리)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매기는소리)

청청 하늘에 잔별도 많고

여 내야 마음속에 희망도 많네

문경세재는 웬 구이기든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 이로우나

○ 강강술래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강강술래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매기는 소리)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고 병들면 못 논다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가

많이 살면 70,80년

병들기 전에 죽기 전에

젊었을때 돌아보세

강-강- 수월~래-

(받는 소리)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술-래

강-강- 수월-래

○ 청어윽기 청어풀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청어윽기 청어풀기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메기는 소리〉

청청 청어나 윽-기

청청 청어나 윽-기

청청 청어나 푸-세

청청 청어나 푸-세

다 풀었네 청애 풀었네

〈받는 소리〉

유두강산에 조기나 윽-기

유두강산에 조기나 윽-기

유두강산에 청어나 푸-세

유두강산에 청어나 푸-세

유두강산에 청애 풀었네

○ 남생아 놀아라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남생아 놀아라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메기는 소리〉

생아 생아 놀아라(4번 반복)

출래 출래 잘도 노네

지남생이가 나노네

출래 출래 잘도논다

출래 출래 잘도논다

〈받는 소리〉

구남생이가 나논다.

○ 담넘기

(메) 옥단아 담넘어라 (받) 담넘기를 지질하다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담넘기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 손치기 발치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손치기 발치기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보보 보따리 너만 찻냐 보따리
 나도 찻다 보따리 손으로 치면 손치기
 발로 치면 발치기 보보 보따리
 어디가는 보따리 전주가는 보따리
 너만 찻냐 보따리 나도 찻다 보따리

손치기 발치기는 둘이씩 마주보면서 한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 발로만 한다.

○ 고사리꺾기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고사리꺾기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매기고 받는 소리가 같다〉
 피야 피야 뿔동산에 꺾고사리 꺾자
 시야시야 시일 뿔동산에 꺾고사리 꺾자
 시-야 시-야 실시실- 뿔봉에 꺾고사리나 꺾자
 피-야 피-야 뿔봉산에 꺾고사리나 꺾자

○ 춘향각시 내려온다

남원골 만골 춘향씨 정글정글 내리시오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희 윤선이 내려온다.

검고도 붉은 것이 거덜기리고 내려온다

등당애 당 등당애 당 당기등당애 등당애 당

내려온다 내려온다 윤희 윤선이 내려온다.

검고도 붉은 것이 거덜기리고 내려온다

또랑 또랑 객석 또랑 유자 복성 꽃이피어(?)

○ 이거리 받거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이거리 받거리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이거리 저거리 받거리

천사만사 도만사

조리증투 장두칼

까마귀 까우 앓은뱅이

노래야 사시야 방구야 똥땡이 통

○ 자장가1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자장가1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밤밥 단장 정지하고 묵고 자고 묵고 놀고

이붓듯 탈붓듯 나날이 달리 일취월장하게 잘도 커라

니닐량은 삼천갑자동방생이로 점지하고

복일량은 석수에 가진 복으로 점지해서
 진명은 새로 담고 자룬명은 이서(이어)담어
 오다 가다 꼬치발에 뛰어들어 꼬치 따서 달고 왔나
 어양 자장 자장 자장

○ 자장가2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자장가2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자장자장 어아자장 어디 갔다 이제 왔나
 이제 와도 늦잖아다
 전제와도 늦잖아네
 배가 없어 이제 왔어
 물 때가 늦어 이제 왔는가
 오다 가다 꼬치발에 뛰어들어
 꼬치 따서 달고 오니라고 이제 왔네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이붓듯 탈붓듯 나날이 달리
 일취월장하게 받들어서

○ 아기 어르는 소리

곡명	조사자	제보자	주소	조사일시	비고
아기 어르는 소리	이경엽·김혜정	박막동(여, 73) 문옥진(여, 81) 고동례(여, 73)	도초면 우이도 진리	2005. 7. 12	

둥둥둥 내 아들
 둥둥둥 내 아들

흰떡 장시 아들인가
 니구빵장(네모반듯) 잘생겼네
 어-둥둥 내아들
 감장수 아들인가
 울긋 불긋 잘생겼네
 어-둥둥 내아들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왔나
 어-둥둥 내아들
 금이나 옥이나 똥자산이나
 만경청산에 보아동아
 어-둥둥 내아들

5. 무형문화자원 활용의 방안

1) “장승과 도깨비와 초분이 있는 섬” 도초

도초도를 문화적으로 의미 있게 홍보하고 이미지화할 필요가 있다. 신안의 수많은 섬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자원화해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또한 모든 섬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 각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을 특징으로 삼아 그것을 이미지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전통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가는 방향으로 자원화해야 한다.

도초도에는 신안에서 가장 많은 석장승이 남아 있다. 고란리 장승의 경우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섬에 비해 도깨비설화가 많이 전승되고 있다. 특히 원둑과 관련된 도깨비 설화는 도초 사람들의 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또한 초분이 많이 남아 있어 관심을 끈다. 섬마을 특유의 전통이 숨쉬는 이미지로 도초도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2) 자료은행 구축을 통한 자원화의 토대 마련

이번 지표조사의 기본 방향은 자원화를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이다.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두면 자원화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도초도와 우이도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민속문화를 폭넓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문화자원은 지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자원화되어야 한다. 오랜 동안 주민들이 일구어온 전통은 문화산업의 시대에 '문화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문화자원은 일회적 쓰임새 때문에 각광받아서 안 된다. 지역의 문화자원은 일회적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자료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재창조되고 의미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료은행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문화는 주민들이 일구어온 문화적 전통이다. 이러한 지역문화가 우리 시대에 의미 있는 문화자원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신안군의 경우 지역적 특징이 두드러지므로, 문화산업의 시대를 주도해갈 수 있는 자원화의 방향을 세워나가야 한다.

신안군의 지역문화는 신안 사람들의 역사와 삶을 담고 있다. 다도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신안은 민속의 고장이기도 하다. 푸른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섬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전승되고 있다. 그래서 각 섬을 찾아 답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가 지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신안의 문화적 전통은 소중한 자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화변동 속에서 신안의 전통문화가 급속도로 인멸하고 있다. 마을마다 당이 있던 자리에 교회가 들어서 있고, 오색기를 세우고 풍어를 빌던 풍어제와 갯제의 신명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다. 명절이면 마당밧이를 하고 강강술래를 하던 축제의 흥겨움도 이제 보기 힘들게 되었다. 또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초상이 나도 운상할 사람이 없어 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 지원을 받거나 자동차의 힘을 빌려 간신히 초상을 치르는 형편이다. 어떤 마을에서는 상두계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환갑 넘는 노인들이 청년회에 소속돼 있는 경우도 있다.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오던 전통이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새롭게 주목하는 시대에 이런 상황은 여러 가지 아쉬움을 준다. 그 동안 전혀 돌보지 않다가 최근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을 되돌아보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문화관광과 지역축제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조건 개발하자고 떠드는 것은 요란하기만 할 뿐이다.

신안의 문화적 전통을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재창조하고, 새롭게 활용할 것인가가 과제다. 민속문화는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새롭게 가꾸어가야 할 문화자원이다. 어떤 자원이 있는지 애정을 가지고 돌아봐야 하며, 그것을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되살려 내고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인지, 문화상품과 관광자원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

문화재만으로 전통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가거도 멸치잡이소리>, <장산도 들노래>처럼 문화재

로 지정된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흑산도 진리 당제, 흑산도 심리 해녀노래·동당애타령, 가거도 산다이, 대둔도 수리 풍어제, 도초도 고란리 당굿, 비금도 남사 당놀이, 비금도 씻김굿, 장산도 씻김굿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신안 사람들의 삶과 역사, 사람살이의 정겨움과 흥겨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꾸려온 생활양식 자체가 민속이다. 신안에는 섬마다, 마을마다 축제가 있었다. 당제와 갯제, 강강술래, 산다이의 흥겨움은 신안 사람들이 가꾸어 온 신명난 축제였다. 또한 고기잡이의 흥취를 담은 뱃노래와 파시의 흥청거림은 해양민속의 역동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밤달애의 장례놀이는 사람사는 정겨움을 담고 있고, 마을을 둘러싼 우실은 모듬살이의 소중함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 염전이 있고, 초분도 있다. 이들은 모두 신안다운 특성을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임에 틀림없다.

이들 민속은 주민들의 삶 자체로서 전승돼왔다.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전승이 끊긴 경우라도 기억 속에 온전히 자리잡고 있으므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전통은 지역을 새롭게 활성화시키는 문화자원으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당장 어떻게 써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소재 정도로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관광자원과 문화상품의 소재로만 생각하다보면 지속적 생명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삶의 맥락과 현장의 맥락 속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신안의 문화적 전통을 자료은행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문화 생산의 지속성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쓰임새를 다양하게 모색해 갈 수 있다.

민속 분야 연구에서는 새로운 자료들을 폭넓게 수집해서 자료은행 구축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수행했다. 안좌와 팔금 지역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지조사를 통해 새 자료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자료들을 많이 파악할 수 있었다.

민속 분야에서는 어로문화, 생활문화, 민속신앙, 세시풍속·민속연희, 설화, 민요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했다. 어로문화에서는 갯벌 어업(독살, 덩장, 개맥이 등), 어선, 어구, 어민들의 생애사를 정리했다. 마을신앙 및 어로신앙에서는 공동체 신앙(당제, 기우제, 장승, 입석), 어로신앙(풍어제 및 갯제, 뱃고사) 등을 조사했다. 그리고 초분과 밤달애와 같은 섬마을 특유의 장례풍속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설화 자료들은 도서적 환경 속에서 성립되어 전승되고 있는 설화 중심으로 수집했다. 그리고 민요는 노동요(어업노동요, 농업노동요), 유희요(강강술래, 산다이 등)을 조사했다. 이 자료들은 기존의 지표조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번에 수집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제작해서 자료은행을 구축함으로써 자원화의 지속적 원천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 도초 강강술래 : 도지정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도초도와 우이도 일대에는 마을마다 강강술래가 다양하게 전승되고 있다. 현재 전승실태로 볼 때 도초면 죽연리의 강강술래가 가장 체계적이고 완성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의 강강술래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신안의 경우 해남이나 진도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는데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다. 도초 죽연리의 강강술래는 남녀가 같이 논다는 놀이방식이나, 절차·사설·음악 등에서 특징이 있으므로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군민의 날이나 남도문화제 등에서 공연하게 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반을 갖춰 가면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강강술래를 잘 기억하는 제보자들의 나이가 고령이므로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4) 초분과 밤달애 : 섬마을 특유의 장례풍속 주목

도초도에는 초분이 많이 남아 있다. 초분은 섬마을 특유의 장례풍속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도서지역다운 생태 조건에서 성립된 전통이므로, 그것을 섬마을 특유의 이미지로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섬마을에 대한 홍보 이미지로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밤달애는 상가에서 철야를 하며 놀이판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장례를 웃음과 놀이 방식으로 전개해가는 것은 전통적인 축제식 장례의 한 모습이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진도 다시래기가 대표적인 자료다. 도초를 포함한 신안의 경우 밤달애의 전통이 폭넓게 남아 있다. 진도에서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지만, 신안은 대외적으로 공식화해서 알리지 못했다. 장례놀이가 문화자원으로 주목될 수 있음은, 진도다시래기의 예에서 잘 볼 수 있다. 섬마을 특유의 장례풍속으로 밤달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표류 이야기, 설화자원 : 시나리오, 이야기 산업

우이도 문순득의 표해 이야기는 흥미 있는 이야기 자원이다. 우이도 어상 문순득이 흥어를 구하려 태도에 갔다가 표류하게 된 내력이 표해시말에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 후손이 문순득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표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므로 남다른 생명력이 있다. 표해 이야기는 그 내용이 흥미진진하고 다양하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다. 표해 이야기를 영화나 애니메이션

선으로 제작하면 자원화의 폭이 훨씬 확장될 수 있다.

이외에 다양한 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므로 그것을 적극 주목해야 한다. 우이도의 최치원 설화, 최익현 설화는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도초도의 도깨비 이야기도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 유배 이야기나 섬 생활 특유의 설화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림 이야기,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의미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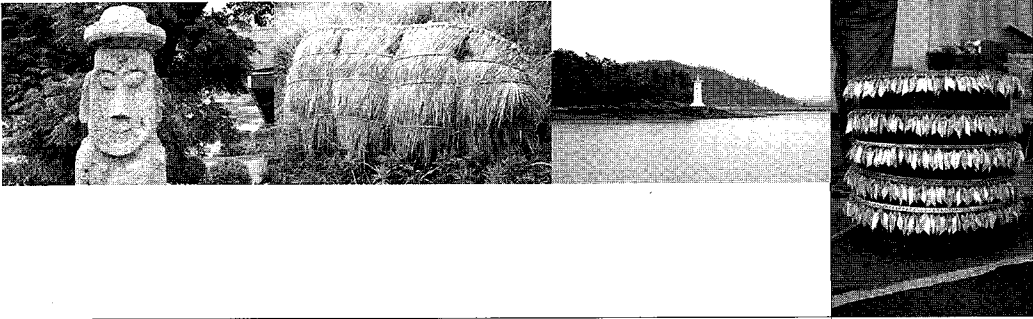
6) 설화와 민요자원 시디롬 제작

민속문화자원은 텍스트만이 아니라 음성자료, 영상자료 등으로 재구성될 때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매체 환경이 일상화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민요와 설화 자료들을 시디롬 형태로 제작해서 교육용, 홍보용, 관광상품용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

도초도와 우이도 일대에는 수많은 민요가 전승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만 해도 수십 종의 민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음성자료와 동영상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시디롬으로 발매할 필요가 있다.

우이도의 최치원 설화, 최익현 설화는 다른 곳에서 듣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고 도초도의 도깨비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남아 있고, 원뚝을 막아 토지를 넓혀온 주민들의 역사와 관련해 도깨비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유배 이야기나 섬 생활 특유의 설화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림 이야기,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으로 제작해 홍보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또한 시디롬으로 제작해 교육용, 홍보용, 관광상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설화, 민요 이외의 민속자료 역시 시디롬 형태로 구현될 때 활용 폭이 넓다. 민속문화를 포함한 문화자원 전반을 전자북 형태로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도초 · 우이도의 무형문화자원

당제 7건(신규 1건) 설화 65건(신규 53건) 초분 5건(신규)
 장승 4건(신규) 민요 62건(신규) 세시풍속 2건(신규)
 어로문화 9건(신규)

목포대 나승만
 목포대 이경엽

1. 자료은행 구축을 통한 자원화의 토대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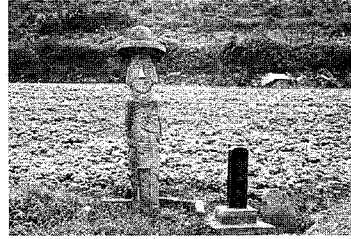
- 사업의 의의 : 자원화를 염두에 둔 종합적 자료 조사
- 급속도로 인멸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 정리 의미 각별
- 자료은행 구축을 통해 자원화의 지속적 원천 확보
- 기존 자료 외에 신규 자료 풍부하게 확보
- 어로문화, 생활문화, 민속신앙, 세시풍속, 설화, 민요 등을 폭넓게 조사
- 민요(강강술래), 초분, 장승, 설화 등을 새롭게 발굴
- 민요(강강술래)의 악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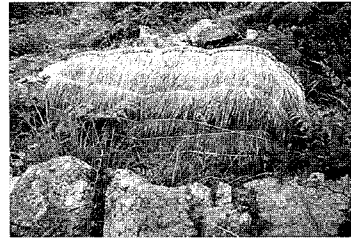
2. 민속문화를 통한 지역 이미지화

“장승과 도깨비와 초
분이 있는 섬”

- 문화적 유전자(지역 문화)를 활용한 지역성 표출
- 섬마을 특유의 전통과 연관된 이미지로 지역 홍보



도초
외남리
석장승



도초
도락리
초분

3.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

- 도초도와 우이도 일대의 다양한 강강술래 주목
- 도초 죽연 강강술래 전승상태 양호하므로 계승 노력 필요
- 지역축제 및 행사 관련 공연자원으로 활용
- 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 추진 필요
- 신안을 대표하는 민속예술자원 육성



도초 죽연리 강강술래



죽림리 진강강술래

제보: 김재성

1. 4/4 박자 6/8 가락

밭 기 주 새 신 강 술 래
 밭 기 주 새 신 강 술 래
 시 너 비 사 못 화 고 새 강 밭 술 래

죽림리 고사리 꺾기

제보: 김재성

1. 4/4 박자 6/8 가락

고 사 리 꺾 꺾 꺾 새 날 새 날 새 날 새 날 새
 고 사 리 꺾 꺾 꺾 새 날 새 날 새 날 새 날 새
 고 사 리 꺾 꺾 꺾 새 날 새 날 새 날 새 날 새
 고 사 리 꺾 꺾 꺾 새 날 새 날 새 날 새 날 새

죽림리 자진강강술래

제보: 김재성

1. 4/4 박자 6/8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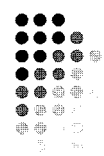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자 진 강 강 술 래

죽림리 재와라

제보: 김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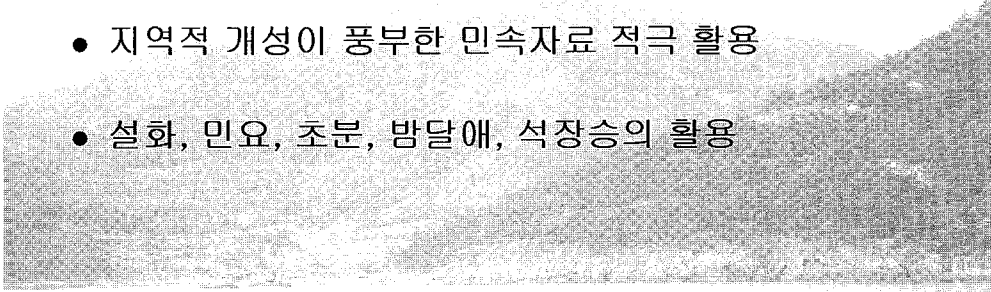
1. 4/4 박자 6/8 가락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재 와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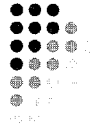


4. 무형문화자원의 시디롬화

- 민속문화자원을 시디롬 형태로 자원화
- 교육용, 홍보용, 관광상품용 콘텐츠로 활용
- 지역적 개성이 풍부한 민속자료 적극 활용
- 설화, 민요, 초분, 밤달애, 석장승의 활용



5. 이야기 자원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 문순득의 표류이야기의 활용 가능성 적극 주목
- 유배이야기(우이도 최치원, 최익현설화), 도깨비설화 등 이야기 자원 풍부
- 영화, 애니메이션, 플래쉬애니메이션, 그림이야기 등으로 활용



도초 우이도 설화



Ⅳ. 문화관광자원

1. 편안한 어머니의 품 '도초도'

1) 개요

신안군 서남단에 위치한 도초도는 초목이 무성하여 도초(都草)라는 이름을 얻게된 섬으로 면적이 약 42.349km²에 달하며, 해안선 길이는 약 42km에 이른다.

여느 섬과 달리 이곳의 섬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며 쌀·보리·고구마 등을 생산한다.

도초도는 예로부터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교역을 할 때 흑산도와 더불어 중국의 장수성을 잇는 중간 기항지였다고 한다. 또한 이 섬은 흑산도, 우이도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귀양지였다. 1801년 천주교 박해 사건인 신유사옥 때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정약전과 1873년 고종에게 대원군을 규탄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 온 최익현 선생도 있었다. 도초도는 지주들이 악랄한 수탈을 일삼자 1925년 10월 7일, 농민들이 봉기하여 '도초도 소작쟁의'를 일으켜 34일간의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던 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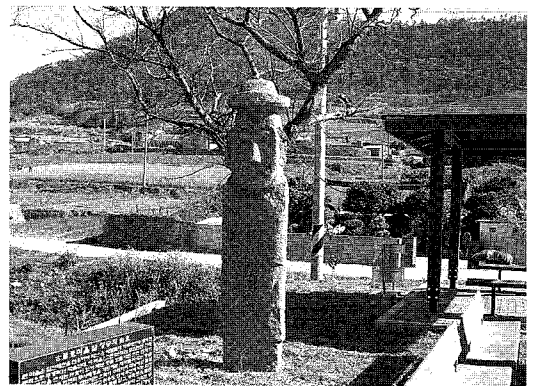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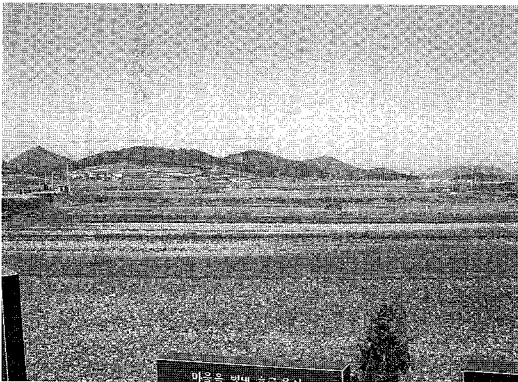
삼국시대에는 압해, 팔금 등과 함께 백제에 배속되었다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압해군에 속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러는 나주목(羅州牧)에 편입되었다. 지형이 고슴도치처럼 생겼다 하여 도초도라 하였는데 그 후 진도군에 편입되어 도초면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무안군에 편입되어 10개리를 개편 관할하다가 1962년 법령 제 1176호에 따라 흑산면의 우이도를 편입하여 11개리가 되고 같은 해 6월 1일 군 조례 제 35호에 의하여 우이도에 출장소를 두었으며 1969년 법령 제 2059호에 의하여 신안군에 편입되었다. 현 도초도는 유인도 45개로 형성되어 있으며 해안선은 74km에 달하고 있다.

2) 관광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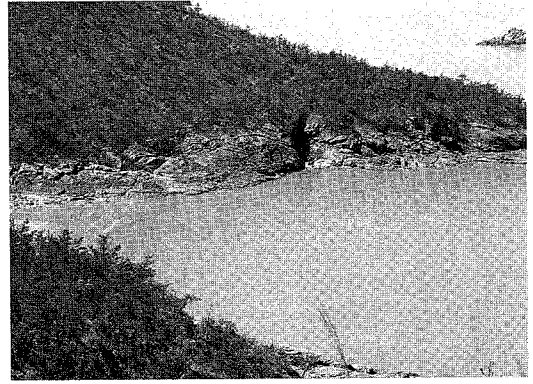
(1) 고란리

- 도초도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면 삼면이 비교적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북 방향으로 는 신안군에서 가장 넓은 고란평야가 펼쳐져 있으며, 면소재지인 나박포를 포함하여 도초항이 있는 불섬(화도) 나룻터까지 이르고 있다. 고란평야는 대규모 간척지로 간척하기 전에는 고란 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한다. 나박포는 나포와 박포를 합칭한 것으로 도남염전이 간척되 기 전에는 도초의 항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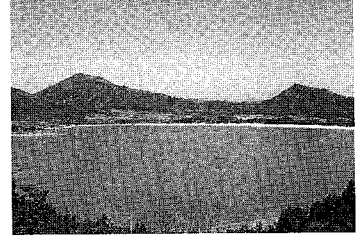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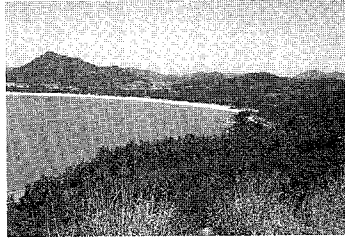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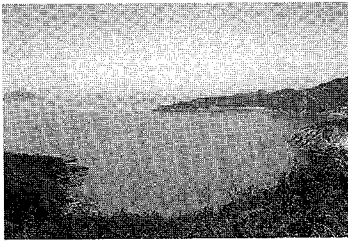
- 또한 고란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고란 8경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화도항은 도남염전 간척 이후 에 비금도의 대체항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고란리는 도초도의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 원래 면소재지였으나, 이후 나박포로 옮겨갔다. 고란리에서 수항리와 오류리를 거쳐 서남방향으로 10분 정도 드라이브하면 도초도의 최고 절경 시목해수욕장에 이른다.



- 고란리가 지닌 역사성과 지리적 중요성을 역력하게 보여주는 고란8경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생존자로부터 직접 녹취하였다. 고란 팔경을 하나의 관광상품 으로 포장하고 기획하는 것이 고란리 일대 관광루트화 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구전 되어오는 토속문화와 역사적 사실 등은 현존하고 있는 노년층의 사망 직후에는 완전히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노년층의 생존연한을 장기적으로 보증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기록 작업 및 녹음 등이 필요할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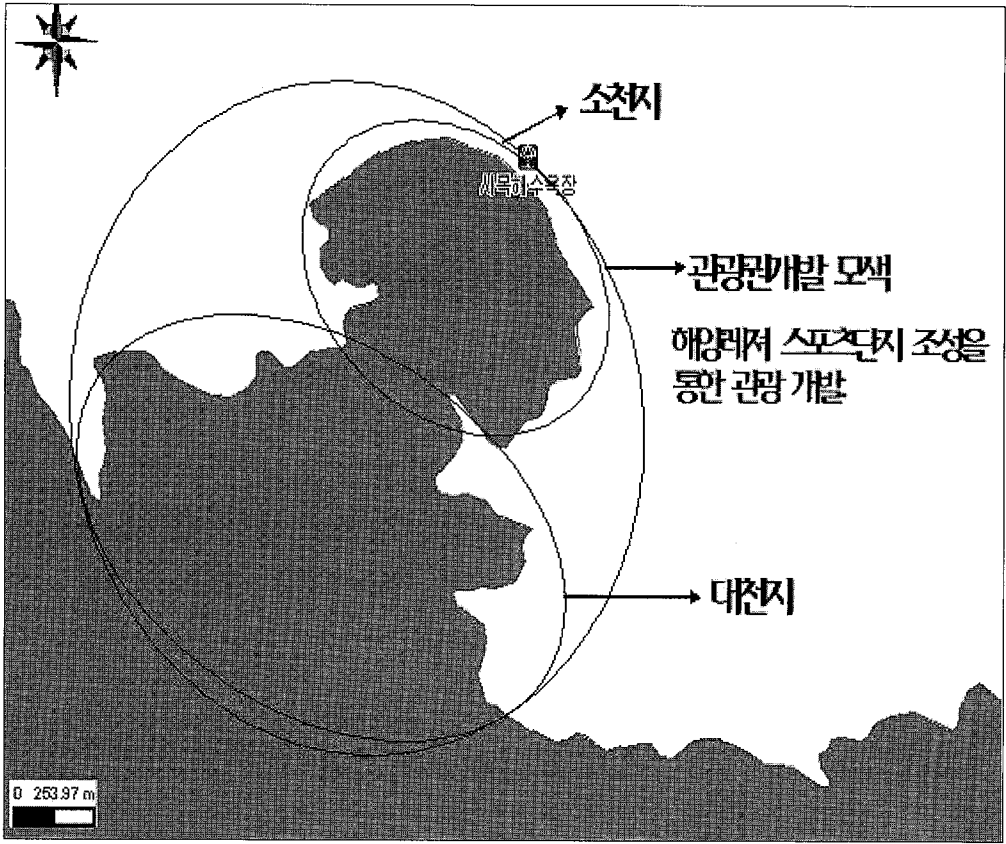


- 시목해수욕장은 1999년에 완공한 고급 샤워실과 깔끔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서 쾌적한 피서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자전거 도로와 야영지를 마련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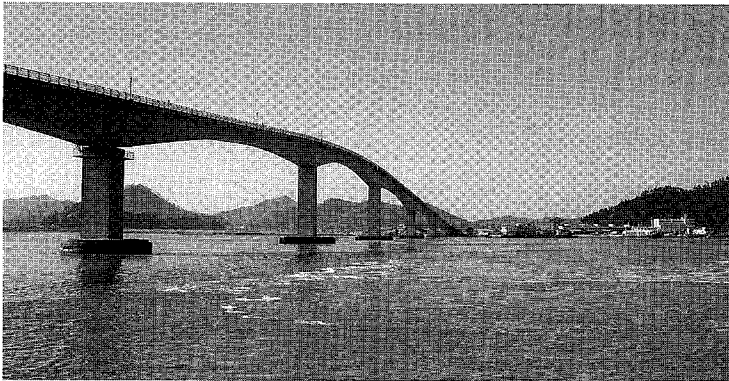
※ 천지의 형상 : 소천지와 대천지

- 큰산의 임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큰산 서단, 시목해수욕장 동남 끝자락에 돌출한 지형이 있는데, 이곳에 올라서 보면, 2km에 달하는 시목해수욕장의 곡선형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바닷가 쪽 양 옆으로 산줄기가 입구를 형성하고 있어, 마치 원형천지의 형상을 띠고 있다.
- 시목해수욕장 바깥 바다는 명에섬과 하의면의 대야도와 산의도, 종달바위, 고도 등이 대형 원형의 형상을 띠고 있다.
- 시목해수욕장과 바깥 바다의 맞붙어 있는 소형, 대형의 두 원형은 '소천지와 대천지'로 명명한다 하여도 손색이 없을 듯하다.
- 천혜의 자연 환경이 어우러져, 해양형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구상해 볼만하다.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필수불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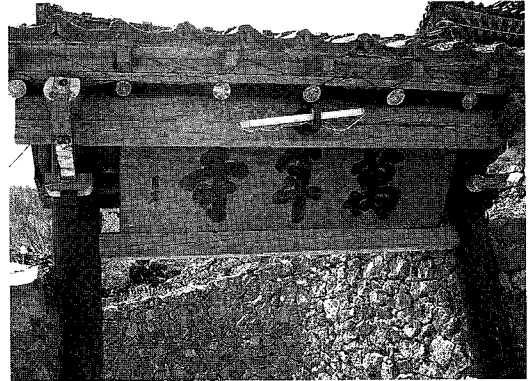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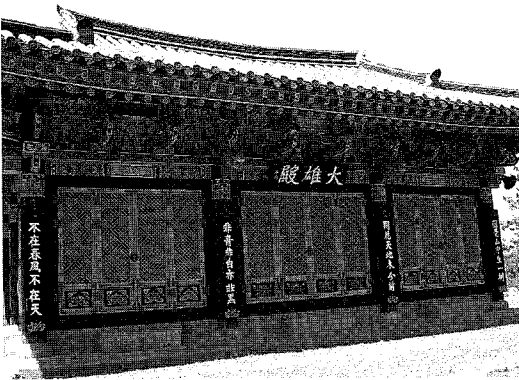
(3) 서남문 대교

-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54.5km 지점에 위치한 도초도는 동으로는 안좌면, 서로는 바다 건너 흑산면, 남쪽으로는 하의면, 그리고 북쪽은 지난 96년에 완공된 '서남문대교'로 비금면과 연도되어 있다.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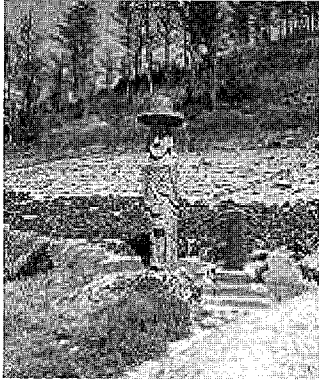
- 만년리의 만년사 : 고란리에서 용당산 너머 마을 (만년리) 용당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요소는 부재하며 접근도로 여건도 열악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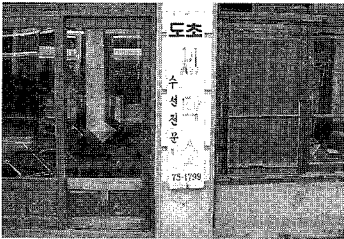
- 도초도의 육목은 화도 이장으로부터 녹취하였으며 시목, 대선목, 엄목, 노루목, 열목 등이 있으며, 바닷길 가운데 육지가 인접하여 배가 뜨던 나룻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외남리 초분은 도서지역 특유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육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것으로 관광객들의 흥미를 자극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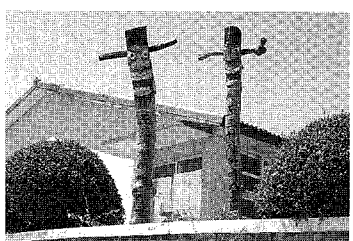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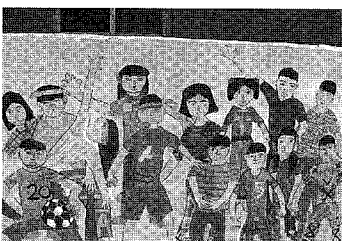
- 외상리 석장승은 축조 연대가 분명치 않으나, 마을의 수호신 성격을 지닌 장승문화를 잘 보여준다. 고란리의 석장승과 함께 섬 특유의 장승 문화를 반영하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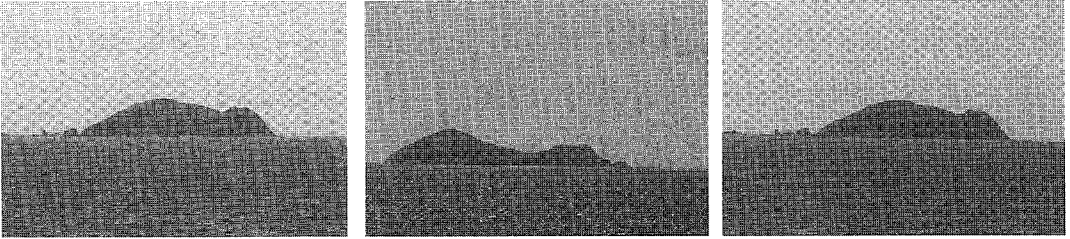
- 화도는 현재 상권이 나박포로 이동되어 거의 개점 휴업 상태이다. 화동향과 인접해 있으며 1km 가까운 거리에 1950년대 모습을 지닌 상가가 그래도 잘 보존되어 있어 인상적이며, 섬 지역 상가 드라마 세트장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5년 3월에 폐교된 도초 서초등학교는 지남리 지북~지남마을 뒤편에 위치한다. 교문 안쪽에 목장승이 담장 밖을 내다보고 서 있고, 교문 앞 주택가(교사 사택) 담장에는 학생들이 그린 벽화가 남아있어 향수를 자극한다. 지남리는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다. 선착장에서 지남리까지 도로가 열려 있고 현재 오류리로 연결되는 도로는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목해 수육장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 수련관으로 개발하여 타 지역의 학생들을 유치한다면 관광수익이 기대된다.



- 솔뚜껍바위, 지네무늬용굴, 종달새바위(일명 문바위), 목섬구멍, 종달바위, 농간바위들과 우이도 가는 길에는 동물 3층사슴, 경치도, 대문바위처럼 기암 절벽들이 자리 잡고 있어 해상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입이 기대된다. 인간의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기묘한 형태를 갖춘 섬들이 무수히 많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한 해상관광 크루즈 상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관광 자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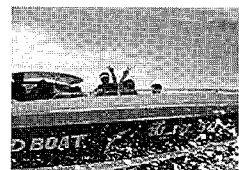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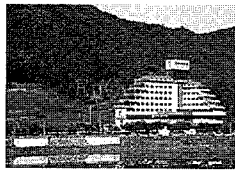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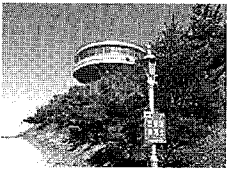
(1) 고란리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역사수련관을 설립하여 육지에서는 접해보지 못하는 섬 특유의 생활 모습을 접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설립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특히 폐교와 초분, 석장승 등을 연계하여 역사 문화형 관광 루트화 사업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역사수련관은 '도시의 전통생활문화 이해하기' 라는 테마를 가지고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되며, 청소년 지도사와 함께 도민이 함께 관광객 교육과 문화 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란 팔경과 당집자리의 복원으로 제례의식이나 농촌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동시에 증진하는 방안과 농촌의 노령인구와 도시의 청소년층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

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구상해볼 만하다.

(2) 시목해수욕장은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형편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군과 도초 주민들이 연계하여 민박시설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별다른 준비 없이도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이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전망대를 설치하여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일일관광 코스로도 다녀갈 수 있는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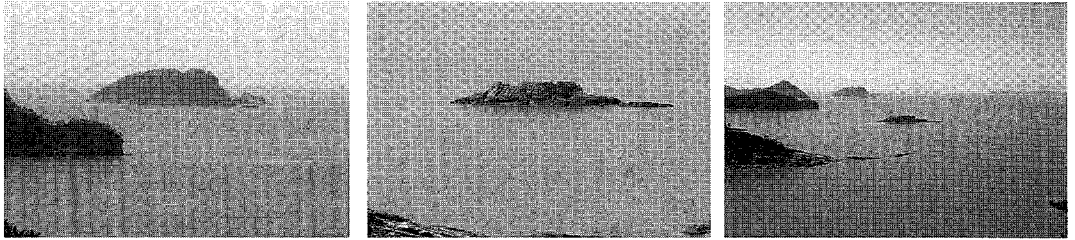


(3) 화도는 50년대의 상가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보수공사를 통해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사례가 있었으므로 세트장으로 이용할 때 제작진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서 유명세를 타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의 사례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예) 완도 '해신', 부안 '불멸의 이순신', 정동진 모래시계...

- 선착장이라는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승선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도서문화 체험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구상할 수 있다. 도서음식문화 거리 또는 60~70년대 생활상을 재현한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볼거리와 먹거리 뿐만 아니라,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자극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구상할 수 있다.



(4) 도초도의 해상관광은 육로 관광의 한계를 탈피하여, 섬 주변에 산재한 기암괴석들을 선상에서 감상할 수 있는 중·소규모 선박을 이용한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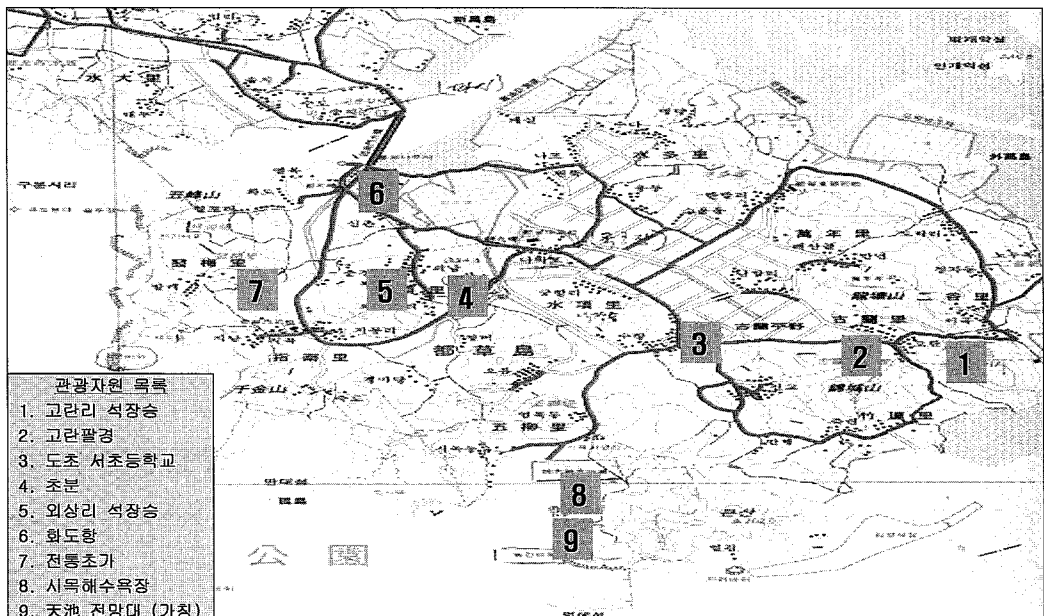
■ 관광코스

1일 관광 :

① 목포 출발 → 도초항 → 고란리 일대(역사체험) → 시목해수욕장(전망대) → 화도일대(세트장 관람) → 목포 귀항

② 목포 출발 → 도초항 → 해상관광선 승선 → 해상관광후 → 화도일대(세트장 관람) → 목포귀항(* 전망대와 화도일대 세트장, 해상관광선이 현실화 되었을 경우를 가정함)

■ 관광자원 목록 지도



체류형 관광 :

① 학생수련회: 목포출발→도초서초등학교(가칭:도초 청소년 수련관)폐교 활용 청소년 역사문화 체험 관광→시목해수욕장(학생들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 및 교육)→고란리역사체험 관광

② 일반 관광객: 시목해수욕장 주변에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관광소비 활동을 유도하고 체류기간을 연장시킴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관광자원화 지도



2. 자연의 신비를 간직해 온 ‘우이도’

1) 개요

섬 모양이 소 귀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은 우이도(牛耳島), 전남 신안군 도초면에 속해 있는 우이도는 목포에서 서남쪽 15k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명섬, 술섬, 꽃섬, 대섬, 어낙도 등 27개 군도를 거느리고 있는 어미 섬이다.

섬 전체가 산악지대로서 해안가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이곳은 본래 진도군 흑산면 나주목에서 딸린 섬으로서 모양이 소귀처럼 생겼다 하여 소구섬, 소구 또는 우개도라 하였다. 1896년 진도군 흑산면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진리, 성촌, 비두리, 저두리, 소우이도를 합하여 우이도라 해서 무안군에 편입되었다. 1962년 도초면에 편입되고 1969년 신안군에 편입되었는데 1971년 도초면의 우이도출장소가 되었다.



우이도는 관광객들에게 사철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봄에는 붉은 동백꽃이 만발하고 후박나무, 천리향이 꽃내음을 진동하는 꽃섬이 된다. 여름철은 여느 해수욕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해송 숲과 곱디고운 모래가 어우러져 태고적 신비를 연출하고 있다. 가을에는 단풍으로 이름이 높다. 또 겨울엔 곱고 단단한 모래 위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사색을 즐기면서 해풍이 모래언덕(사구)에 그려 넣는 무늬를 감상하며 겨울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우이도는 대부분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졌지만 곳곳에 자연 절경을 자랑하는 해수욕장도 많다. 우이도의 갯벌은 모래가 섞여 잘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호미를 이용해 갯벌을 긁으면 꽃조개를 잡을 수 있다. 갯바위마다 감성돔과 농어, 우럭 등이 많이 잡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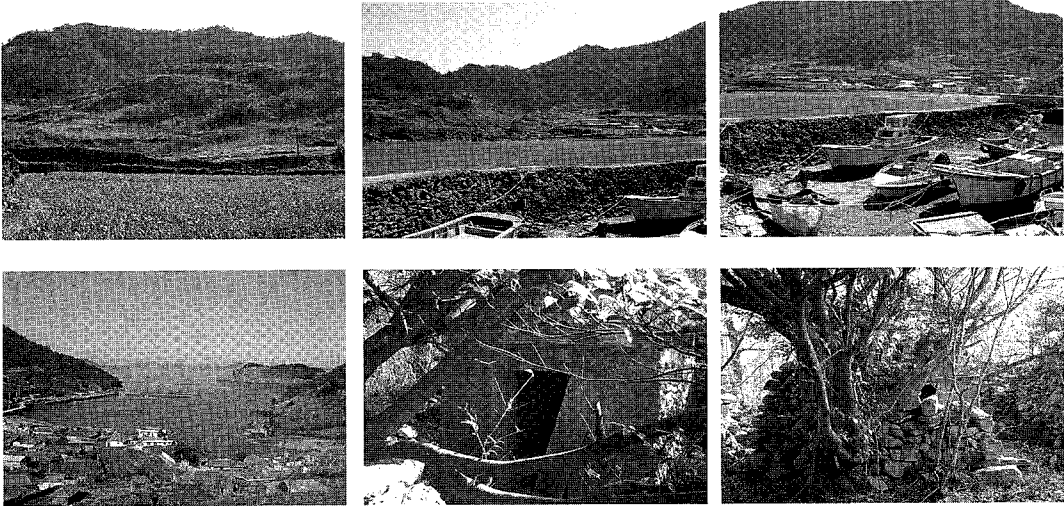
우이도는 사구뿐 아니라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을 가졌다. 도리산 서쪽의 해안 절벽은 가파르고 높게 검은 암벽이 섰고, 오랜 해식작용에 온갖 기이한 형상으로 조각이 이루어졌다. 공룡의 등줄기 형상을 닮았는가 하면 구멍이 송송 뚫린 곳도 있다. 그런 형상의 절벽 여기저기에는 연초록 팽나무 숲이 자리잡고 있다.

2) 관광자원 현황

(1) 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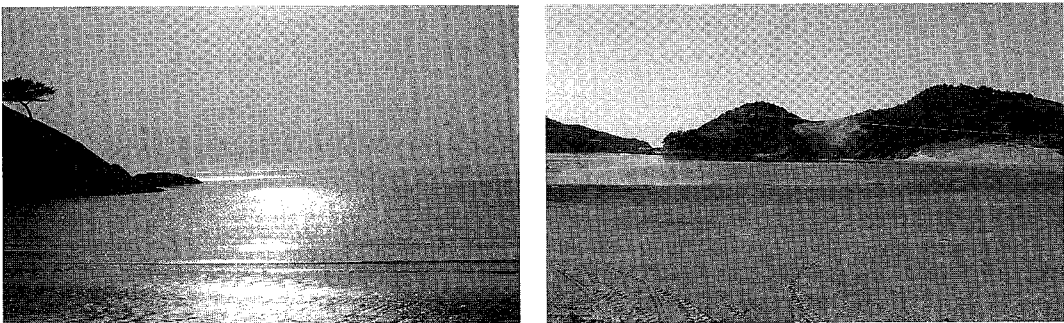
- 조선시대 수군진과 숙종 무렵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파제가 있어 역사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최치원 설화 : 남해의 용을 불러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하는 설화가 전해진다. 철마, 은접시, 금

- 동굴, 바둑바위 등 최치원의 유적들이 남아있어 역사적 의미가 있다.
- 문순득의 표해록이 발견되었으며 정약전의 유적들도 찾아 볼 수 있다.
 - 최익현의 유적과 설화 등이 남아 있어 유배문화를 짐작케 한다.
 - 진리 상산봉의 중턱에 당집이 잔해만 방치되어 있고,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전면적인 복원 내지는 정비가 필수불가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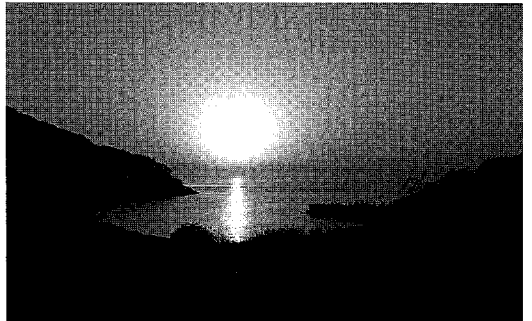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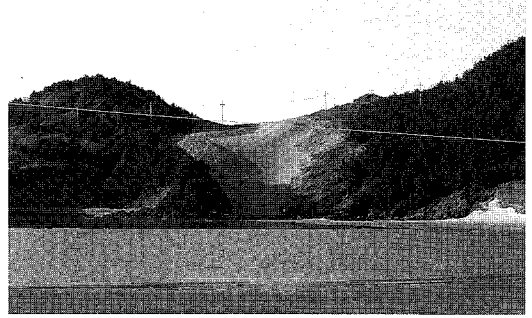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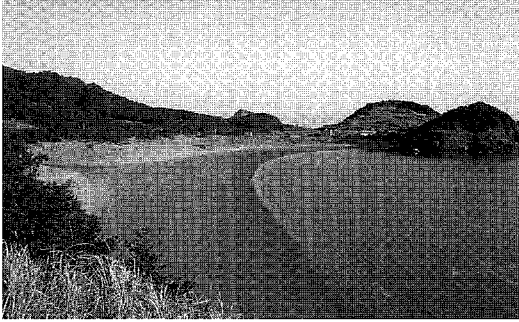


(2) 돈목해수욕장

-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매우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광활한 모래사장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곳에 멀리 한국최대의 사구와 해안암벽이 한 눈에 들어오고 사구에 다가서면 이국적인 장관을 이룬다. 넓은데 비해 이용객이 적어 발자국 흔적이 그대로 남겨지는 처녀지 같은 깨끗한 해수욕장이다. 모래 속에서 삐죽삐죽 내밀고 있거나 백옥같이 흰 모래 위를 기어 다니고 있는 화려한 꽃무늬를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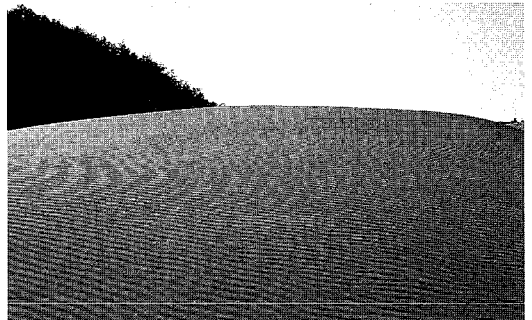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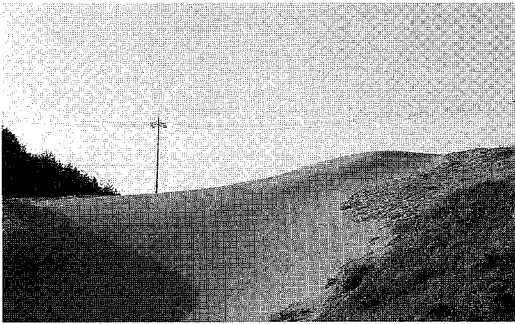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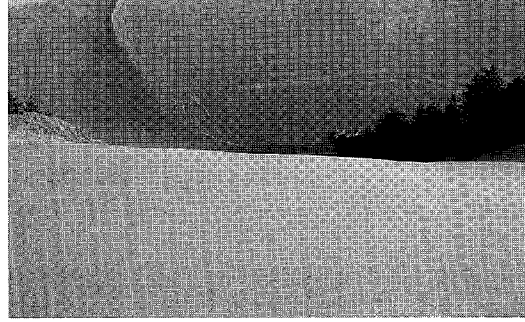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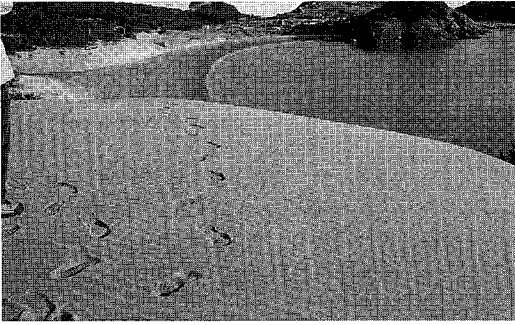
꽃조개가 인상적이다. 해수욕장의 왼쪽에는 다시 수직 암벽이 펼쳐져 있고 조금 더 가면 투구바위가 나온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우이도 최고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있다.



(3) 돈목리 풍성사구

- 멀리서 보면 이 모래언덕은 수목이 쓸려 내려가서 벌건 흩이 드러난 산사태 지역 같다. 그러나 사구의 밑까지 다가가 보면 멀리서 본 것과는 전혀 달리, 거대한 모래의 벽으로 일어선다. 사구의 꼭대기에 오르면 흰 모래 둔덕 저편으로 짙푸른 바닷물, 초록 숲이 펼쳐지며, 그 풍경은 사뭇 자극적이기까지 하다. 이 모래언덕을 주민들은 산사태라고 부른다.





(4) 상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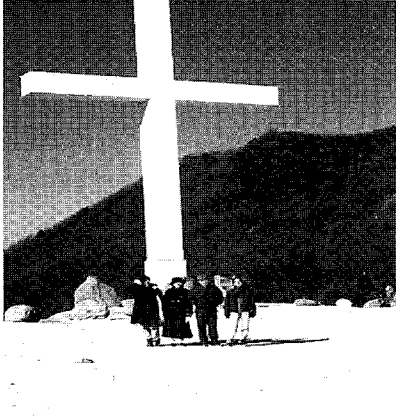
- 돈목리 선창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관광객을 반기는 것은 우이도 최고봉인 상산봉이다. 한여름 띄약별 아래만 아니라면 우이도 중앙의 상상봉 등산을 권하고 싶다. 산꼭대기 부근이 커다란 수직의 기암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이도 어디에서 봐도 보일만큼 우뚝 솟아 있으며 안개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신비로움을 준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상상봉 정상에 오르면 신라시대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길에 들러 바둑을 두고 갔다고 전해지는 최치원의 바둑바위가 놓여 있어 인근 비금도의 최치원 샘과 더불어 2000년 전 선조들의 발자취를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정상에서 바라본 주위의 검은 암석 봉우리와 멀리 다도해의 점점이 떠 있는 섬들과 푸른 바다 조망은 마음까지 시원하게 해준다.

3) 관광자원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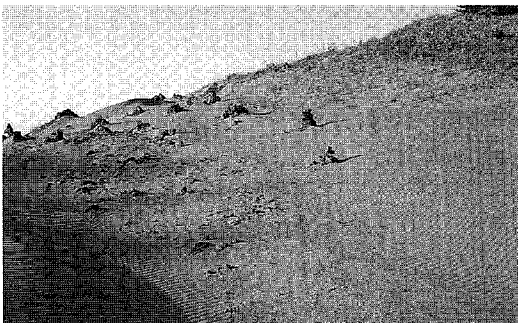
(1) 정약전 유적지, 최치원 유적지, 진리 선착장의 조선시대 방파제, 사당 등의 역사적, 향토 문화적 의미를 재검토하고 복원하여 돈목리보다 낙후되어 있는 진리일대를 전반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약전과 최익현 등 역사적 인물에 대한 의미를 의미 부여하여 역사관광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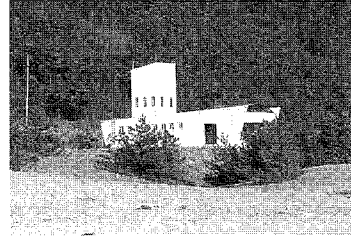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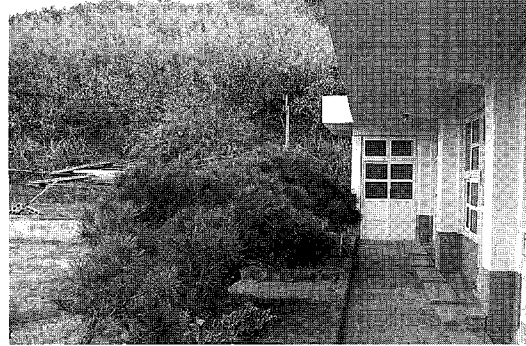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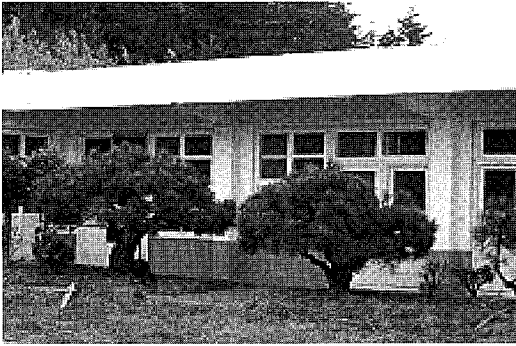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천주교를 테마로 하여 천주교도들의 수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를 통해 일
반관광객 유입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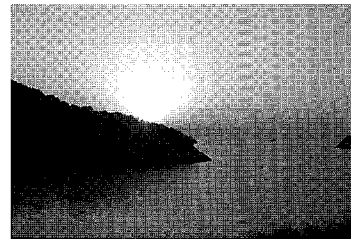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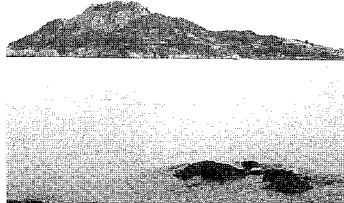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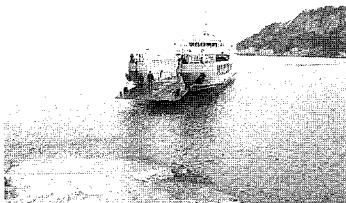
(2) 돈목리는 넓게 펼쳐진 모래사장과 풍성사구로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한 풍성사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물론 현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광객의 접근을 금지하는 푯말을 설치하여 원천적으로 훼손을 금지하고 있으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욕장 뒤편에는 선박 모양으로 된 화장실과 샤워실을 갖춘 건물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폐교를 활용한 민박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민박이 나름대로 잘되어 있으므로 다른 관광부대시설과 위락시설을 갖춘다면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전통어구를 활용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의 운용도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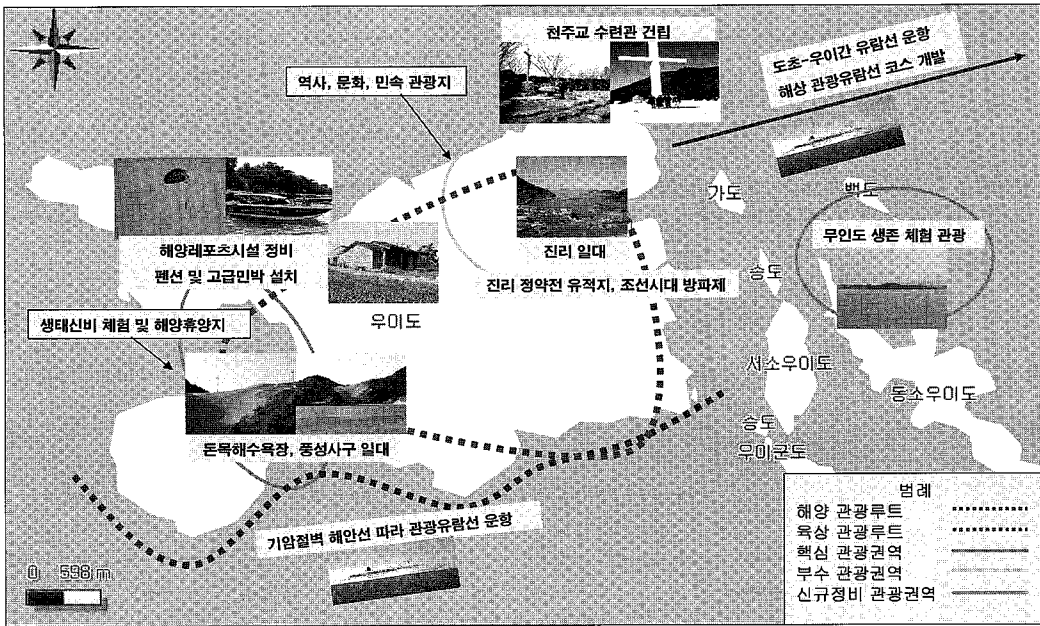


목적과 여가오락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해 볼 만하다.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다양한 해양레저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하계 성수기에 집중되어지는 관광객을 연중 균형있게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우이도도 신안군의 대부분의 섬들과 마찬가지로 기암괴석들이 즐비해 있다. 이에 해상관광을 즐길 수 있는 유람선 코스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계에 관광객이 밀집되는 기간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선편과 관광객들을 위한 유람선을 별도 분리하여 항로를 변경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코스로 운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 관광자원화 지도



- 우이도는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람선 운항으로 관광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목해수욕장과 돈목 해수욕장 내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숙박시설의 정비는 대규모 호화 호텔 건립은 가급적이면 피하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감하고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형태의 펜션 내지는 고급 민박으로 건설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해수산물을 선착장에서 관광객들이 직접 구입 할 수 있도록 판매시설을 정비하고, 시장 주변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 관광자원화 방안 종합 대책

1) 연계자원화 기본방향

1. 종합 역사·문화 전시장 개발

- 연구대상 4개 도서지역은 모두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문화유산을 다양하게 보

유하고 있으므로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도서지역 역사 문화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를 복원·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되, 이들을 서로 연계하여 관광 루트화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2. 해양레저 스포츠 단지로 개발

- 해수욕장과 수면이 고른 일부 지형은 해양레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수산어업과 관련한 어촌관광지로 재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2) 상세 개발 구상

□ 생태공원 조성

- 안좌도와 팔금도의 거문도와 매도 부근의 갯벌을 활용한 갯벌, 염전 생태공원 조성
 - 갯벌 주변의 염생식물인 칠면초를 식생하여 매월마다 칠면초와 생육과정을 관찰토록 유도
 - 어린이 놀이시설(보트 놀이장, 미끄럼틀 등)과 생태체험장(갯벌, 염전체험장) 생태관 조성
 - 갯벌 체험장에서는 갯벌 자전거타기, 갯벌 발리볼, 갯벌 스키타기 등 다양한 레저 활동 제시
 - 갯벌과 칠면초를 활용하여 염생식물 체험프로그램 개발

□ 가족 휴양촌 조성

- 도초도와 우이도의 휴양시설을 이용 관광 휴양촌으로서 장기체류와 단기체류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숙박시설과 음식 특화촌 조성

□ 해상 크루즈 운항

- 도초도의 기암괴석과 함께 우이도로 가는 항로상에 산재한 섬들을 활용한 볼거리 위주의 해안 크루즈 운항 : 우이도 가는 해상로를 개발하고 각종 시나리오를 가미하여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함

□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 전복양식과 조리체험, 고기잡이 및 생선 말리기, 조리법 체험, 안좌 낙지 잡기 체험, 팔금도의 바지락 굴 체험, 미역, 파래, 김 등 각종 해조류의 Well-being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에 채취하여 집에 가져가기

□ 지역 특산물 체험 직판 전시장 설치

- 도초 화도 주변 및 안좌-팔금 연도교 지역에 음식특화거리를 조성한다. 동시에 섬 지역 특유의 생활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드라마 세트장을 정비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선착장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음식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승선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거리에 조성된 음식점에서는 저렴한 양질의 해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폐교 활용 수련원 조성

- 폐교 리모델링 사업은 해당지역 어촌계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되,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도시의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전개한다.

□ 무인도 생존 체험장 조성

-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무인도에 무인도 체험프로그램 도입 : 유람선을 타고 유입된 관광객을 무인도로 이동시켜 생존에 필수적인 용품만을 지급하고 “무인도 생존전략 체험 프로그램”으로 유도한다. 가족단위 상품, 연인단위 상품, 친구단위 상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무인도 체험기간 동안 체험기를 작성토록 하여 그 중 기발한 아이디어와 환경 보호 등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발하고 시상토록 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한다.
- 방문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안군 기타도서 지역 방문 상품권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적인 홍보 네트워크를 활용토록 하며, 인터넷상에 “신안 무인도 체험 프로그램 사이트”를 구축하여 홍보효과를 증가시킨다.

3) 대상 도서지역의 문제점과 개발방안

○ 문제점

• 역사 문화적 자원에 대한 올바른 평가 부족으로 보존과 개발이 미흡,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복원에 따른 대형자본 소요 예상

• 인구노령화로 인한 관광 수용태세 미비와 전반적인 활기 부족(관광종사원의 서비스 정신 결여, 관광조사원 교육미비, 안내 표지판 및 관광 안내소 부족)

• 관광자원의 가치 발급, 상품기획 및 포장능력 전반적 부족

•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 부족과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관광객 유입 미흡

• 도서간의 연계형 관광지 및 4계절형 전천후 관광지 개발 부족으로 인한 장기체류 유도 미흡

• 해양 레저 스포츠의 대중화 부족으로 인한 관광수요 저조

• 계절적 수요 편중으로 인한 대규모 시설 자본 투자에 대한 경제성 저하,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여행계획의 차질 빈번하게 야기

• 접근성 미비로 인한 관광의 고비용(연륙·연도교 건설로 다소 해결 전망)

○ 개발방안

- 역사문화 체험형 관광지 조성
- 도서음식문화거리 및 Drama Set장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 생태, 신비 체험형 관광지 조성
- 연도교를 이용한 인근 도서 연계 해양 관광지 조성
- 폐교를 이용한 청소년 수련원 등 이용방안 모색
- 전통부락 환경미화와 민속자료 복원으로 체험학습형 관광지 조성
- 우실과 노두를 활용한 도서민속문화 체험형 공원 조성
- 도서 性文化 야외 박물관 공간 조성
- 생태체험지(주말갯벌농장) 조성

○ 도초도와 우이도의 관광개발 기본방향

1. 고란 8경, 장승, 초분을 주제로 하는 도서민속문화 체험형 관광지

2. 화도의 상가복원사업으로 도서음식문화거리, Drama Set장 조성

3. 시목해수욕장 전망대 설치 및 해양레저스포츠 단지 조성

4. 돈목해수욕장의 풍성사구를 활용한 생태, 신비 체험형 관광지

5. 진리의 사당복원 및 조선시대 축조 방파제를 활용한 역사관광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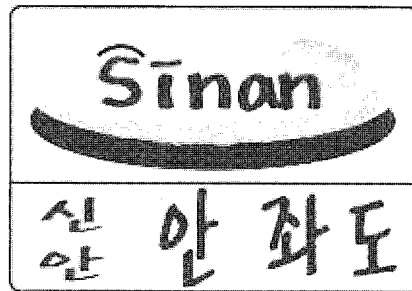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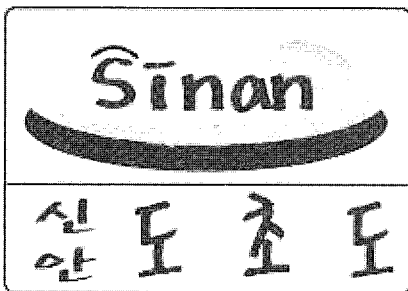
6. 연도교를 활용한 비금도 연계 대규모 해양 관광지 조성

하누섬, 원평, 명사십리

4) 대상도서 지역의 이름 알리기

- 신안군의 브랜드로는 도서지역을 모두 나타내기 힘들다. 전면적으로 엠블렘을 바꾸는 작업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다. 이에 신안군의 마크 밑에 각 도서들의 이름을 적어 도서에 관련된 물품이나 페리에 부착 관광객들이 도서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예시 1) 각 도서별 엠블렘 디자인 예시



- 각각의 도서별 특징을 함축한 슬로건을 제작하여 홍보물과 안내 책자 등에 기재토록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지역을 알리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지역의 장소마케팅 전략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이와 같은 사례는 인근 시군에서 활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므로 신안군의 도서지역을 알리기 위한 긍정적인 방안으로 검토해 볼만하다.
- 도서가 지닌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민속적 특징 등을 요약하여 이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학적 표현을 도용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고, 도시의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구나 생소한 용어를 사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구상이 가능하다.
- 섬들의 슬로건을 구상하기 위해서 인터넷 상에서 공모전을 개최하는 방법도 구상 가능하다.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고 관광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개한다면, 장소 마케팅 전략으로서 활용해 볼 수 있다.
- 관광개발에 있어서 각 도서별 관광자원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어떻게 상품으로 기획하고 포장하여 관광시장에 출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현대 관광마케팅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관광 이미지가 정립된 후에는 관광지 개발과 지역의 이벤트, 특산물 판매, 관광 홍보 등에 설정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활용하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이도가 풍성사구를 활용한 신비·생태 체험형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설정되면, 우이도의 모든 관광 홍보시스템은 이를 근간으로 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예시 2) 각 도서별 슬로건 제작

1. 도초

- ① 편안한 어머니의 품 ‘도초도’
- ② 안개속으로 밀려온 신비의 섬 ‘도초도’
- ③ 장승과 초분과 도깨비가 있는 섬 ‘도초도’
- ④ 꿈이 있는 인재의 고향 ‘도초도’

2. 우이

- ① 자연의 신비를 간직해 온 섬 '우이도'
- ② 섬속의 섬 '우이도'
- ③ 사구와 연흔이 신비로운 섬 '우이도'

5) 도서지역 민속자원의 관광상품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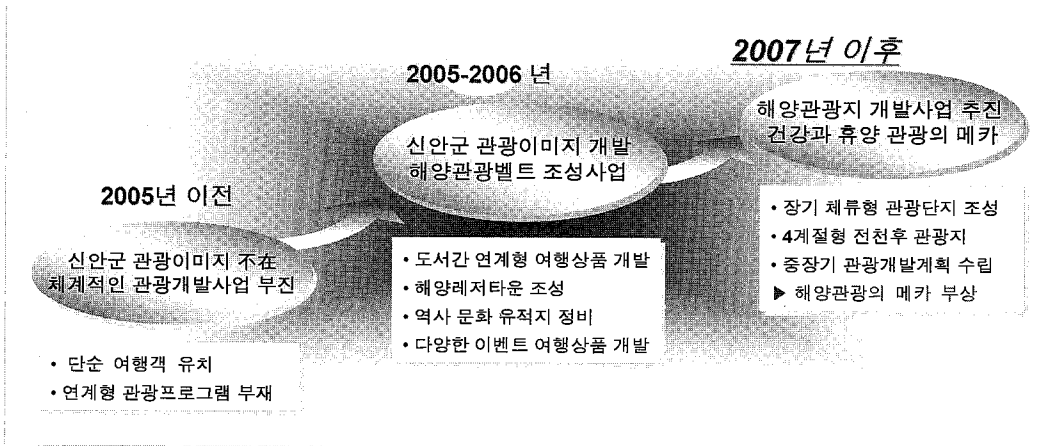
- 여행예술의 관광상품화

예) 도초면 죽련리 강강술래

- 도서지역의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광상품화

- 우이도 진리 최익현 설화

6) 신안군 관광개발의 차별화 전략



도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자원화 연구 4 - 도초면편 -

2005년 10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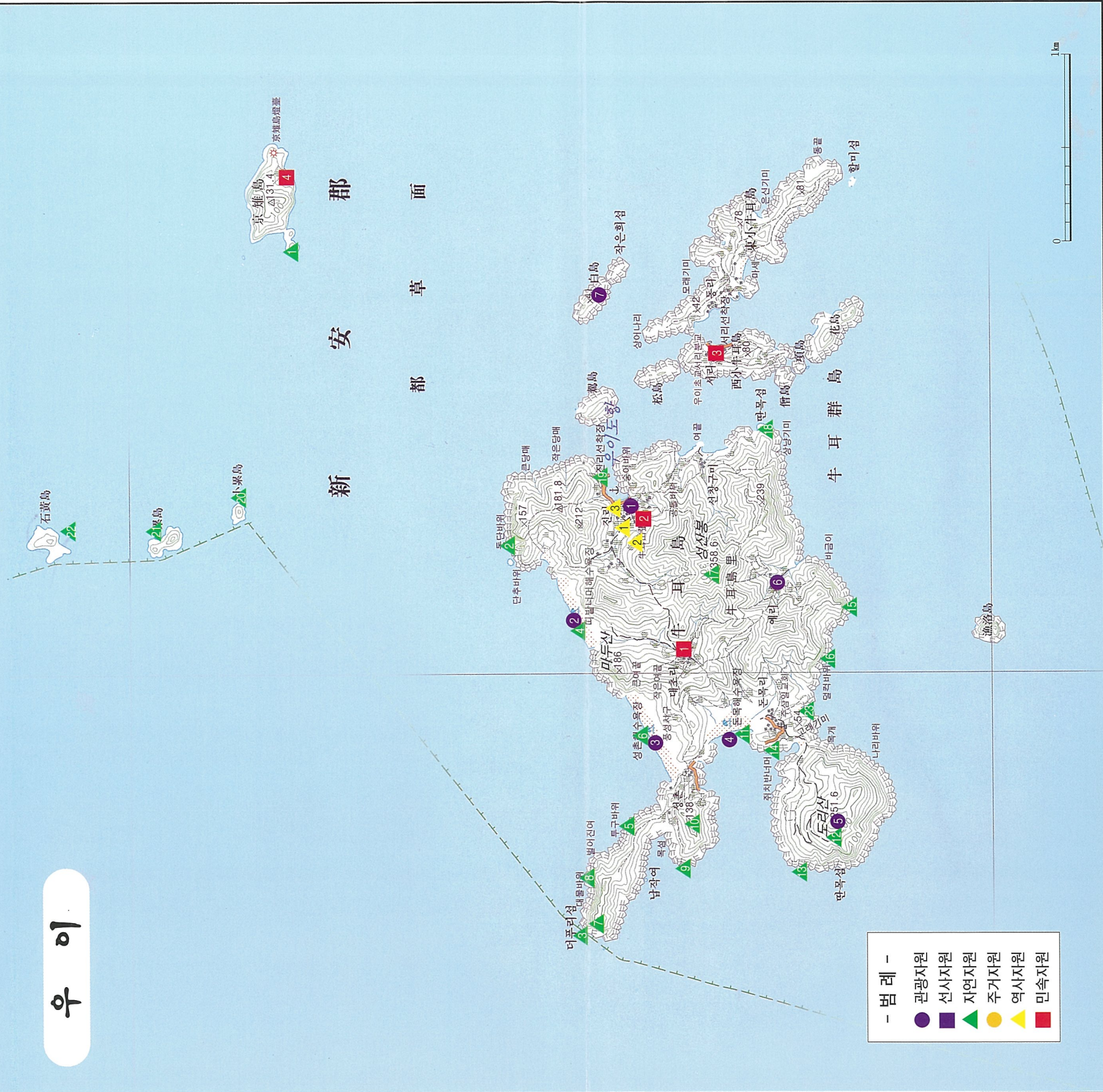
발행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신 안 군

인쇄 : 도서출판 무 돌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98-16
전화 062-226-2559
1994년 4월 2일 등록 제 150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Tel:061-450-2952 Fax:061-453-2958
<http://islands.mokpo.ac.kr>

신안군청
전남 목포시 북교동 178-1
Tel:061-243-2171 Fax:061-240-8000
<http://sinan.go.kr>

우 이



- 범례 -
- 관광자원
 - 선사자원
 - ▲ 자연자원
 - 주거자원
 - ▲ 역사자원
 - 민속자원



관광자원

1. 진리 역사문화유적
2. 띠밭너머해수욕장
3. 성촌해수욕장
4. 돈목해수욕장
5. 도리산 전망
6. 우이초교예리초교
7. 무인도

역사자원

1. 흑산진지
2. 밀양박씨열녀비각
3. 문순득의표해록

자연자원

1. 경치도대문바위
2. 돛대바위
3. 독립문바위
4. 띠밭너머해수욕장
5. 투구바위
6. 성촌해수욕장
7. 등대
8. 팬더곰바위
9. 갯바위낙시터

민속자원

1. 대촌리 당제, 깃제
2. 진리 당제, 독제
3. 서리 당제, 깃제
4. 경치도 당제
10. 우이도사구
11. 돈목해수욕장
12. 도리산 절경
13. 자라바위
14. 돈목산착장
15. 홍어바위
16. 오랑이이빨
17. 상산봉
18. 목섬
19. 선창석축
20. 진도개섬
21. 사자섬
22. 쥐섬
23. 비밀해수욕장

